“죽여라.”

그 말을 내뱉은 것은 나의 남편이었다. 남편은 제국의 황제였고, 나는 그의 황후였다. 그러나 황제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증거로 나를 바라보는 황제의 눈은 무감정했다.

“짐의 명이 들리지 않는 건가? 죽이라고 했다!”

황제의 다그침에 내 앞에 서 있던 기사가 검을 뽑았다. 그는 죄악감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송구합니다, 황후 폐하.”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두 팔을 벌리고 눈을 감았다. 내가 생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황제의 옆에 있던 그 여자가 비웃음을 흘렸다.

“폐하...”

“나는 괜찮아요. 그러니 어서...”

마지막을 맞는다면 그의 손에 죽고 싶었다. 삶에 큰 미련은 없었다. 지긋지긋한 인생을 끝냄으로써 그의 한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충분했다.

“푹!”

날붙이가 단번에 살을 꿰뚫는 소리가 났다. 살며시 눈을 뜨니 그의 검이 복부에 박혀 있었다. 느낌이 이상했으나, 불쾌하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아...”

입가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황제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넓고 적막한 홀에 남은 것은 그와 나 뿐이었다. 황제가 나가자 그는 황급히 나를 자신의 무릎 위에 눕혔다.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작 칼을 맞은 것은 난데, 나보다 아파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거, 이거 빼줘요.”

“빼면 고통이 심해지실 것입니다.”

“괜찮아요. 나... 하나도 안 아파요.”

그의 품에 온전히 안기고 싶었다. 검이 너무나도 거치적거렸다.

“제발..., 당신에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내 몸에 박혀 있는 검을 천천히 뺐다. 조심스러운 그의 손길에 눈물이 났다.

“챙그랑!”

황제가 그에게 내린 보검이 볼품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대신 그는 내 어깨를 끌어안은 손에 힘을 주었다.

“황후 폐하.”

“그렇게... 부르지 마요. 난... 더 이상, 황후가 아니니까. 이름을..., 내 이름을...”

“시엘.”

시엘. 그래, 내 이름은 시엘이었다. 황후가 된 이후로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내 이름.

“칼립스.”

처음으로 그를 바스타드 경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

말하는 것이 점점 힘겨워졌다. 시야가 흐려져 그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안 돼. 아직 그의 얼굴을 보고 싶단 말이야.’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이리 바보같이 살지 마십시오.”

“...”

“그 누구보다 비겁하게, 악독하게, 비록 희대의 악녀로 기억된다 할지라도 이리 바보처럼 모든 걸 빼앗기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애는... 부디 행복해지십시오.”

볼에 미지근한 무언가가 떨어졌다. 그의 몸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럴게요. 당신 말대로, 나... 악녀, 가 될 테니까 다음... 생에도, 날...”

“사랑합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졌다. 고통은 여전히 느껴지지 않았다.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그 언제 어디라도 그 누구라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맹세의 키스를...”

입술에 닿는 따뜻한 감촉을 마지막으로, 나는 눈을 감았다.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기분 좋았다. 까맣게 어두웠던 시야가 약간 밝아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난 분명 죽었는데 심장의 박동이 느껴졌다. 살며시 눈을 뜨자 활짝 열린 창문 사이로 맑은 하늘이 보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익숙한 공간이었다. 어릴 적, 내 방이었고 후계자인 이복동생이 태어난 이후로는 빼앗긴 동생의 방이었다.

“내가 왜 여기에?”

무언가 이상했다. 어릴 적의 내 방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벽지도, 가구도 모두 뜯어고치고 새것으로 바꿨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소파에 얹은 손이 작았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 같았다.

입고 있는 옷 또한 낯설지 않았다. 어렸을 때 무척이나 좋아했던 하늘색 드레스. 무척이나 꼭 맞았다. 내 몸이 작아진 것 마냥...

“아가씨, 들어가겠습니다.”

“어? 들, 들어와.”

문이 열리자, 내 유모인 힐데가 보였다. 몇 년 전, 나로 인해 황제의 분노를 사 죽은 힐데였다. 내 기억보다는 젊어 보였지만 분명 그녀가 맞았다.

‘아아..., 여긴 사후세계구나.’

무엇이 어찌 되었든,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뻤다.

“잘 지냈어?”

“예? 무슨 소리세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아가씨 옆에 있었는데요? 아직 잠이 덜 깨신 거 아니에요? 어서 정신 차리시고 준비하세요. 마님과 소풍 가셔야죠.”

‘마님? 새어머니를 말하는 건가?’

새어머니는 나를 지독히도 싫어했다. 그녀가 아버지와 결혼했을 때, 어머니가 생긴다는 사실이 마냥 좋기만 했던 나는 그녀에게 애정을 갈구했으나 단 한 번도 그녀는 내게 살가웠던 적이 없었다. 결정적으로 새어머니는 아직 죽지 않았을 터였다. 그런데 사후세계에서 피크닉이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

“예, 예. 잠꼬대는 그쯤 하시고 머리부터 정돈하세요. 아까 정원에서 나무에 올라가셔서 다 흐트러졌잖아요.”

“나무에 올라? 내가?”

나는 몸이 약했던지라 밖에 나가는 일조차 드물었다. 게다가 엄격한 아버지 때문에 예절에 어긋나는 일은 꿈에도 꾸지 못했다.

“갑자기 왜 이러실까? 허구한 날 오르시는 정원의 큰 나무요. 일단 머리 정돈부터 해 드릴게요. 마님은 벌써 준비 다 하셨어요.”

힐데는 나를 번쩍 들어 올려 화장대 앞에 앉혔다. 거울로 얼굴을 확인한 나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유일하게 아버지를 닮은 황금색 눈동자가, 붉게 변해 있었다.

“이게... 뭐야.”

마치 피처럼 붉은 색깔에 공포심이 들었다. 그 순간, 동공이 세로로 길쭉해지면 마치 고양이의 눈처럼 변했다.

“꺄악!”

황급히 눈을 감싸며 뒤로 물러나자 균형이 무너졌다. 의자에서 나자빠질 뻔한 것을 힐데가 잡았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 아...”

“왜요? 눈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가씨, 손 좀 치워보세요.”

힐데가 내 눈을 확인하려 하자 나는 더욱더 눈을 감싸며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다.

“싫... 싫어!”

힐데가 무서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부하자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포기한 힐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마님을 모셔올게요.”

말릴 새도 없이 힐데가 방을 빠져나가고, 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여기는 사후세계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달랐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 눈이 왜 이렇지? 여긴 어디지? 새어머니가 오셔서 내 눈을 보면 어떡하지? 기분 나쁘다고 날 쫓아내면?’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침대로 뛰어들어 이불속으로 몸을 숨겼다.

“힐데, 나가 있어.”

“예, 마님.”

문이 닫히자 더더욱 무서워졌다. 이 방에는 새어머니와 나뿐이었다. 나를 지켜줄 힐데가 없었다.

“많이 놀랐니? 시엘.”

낯선 목소리였다. 애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 나는 살며시 이불을 걷고 침대 옆에 앉은 여인을 확인했다.

“어... 머니?”

낯선 사람이었지만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언젠가 술에 취한 아버지가 보여 주었던 초상화 속의 여자. 아름다운 백금발에 붉은 눈.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안녕, 시엘. 너는 나를 처음 보겠구나.”

어머니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살며시 그녀의 볼을 쓰다듬었다. 미지근한 볼과 부드러운 살의 감촉. 환상이 아니었다.

“어떻게?”

내 물음에 미소 짓던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나는 와락 껴안았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놀라면서도 그 포근함에 마음이 놓였다.

“...그동안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아아, 역시 여긴 사후세계구나.’

어머니는 나를 낳다 죽었다 들었다. 어머니도, 힐데도, 나도 모두 죽은 사람이었다. 눈 같은 건 크게 신경 쓸게 아니었다. 중요한 건 너무나도 그리웠던 사람들은 다시 만났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라는 것.

“괜찮아요. 대신 앞으로 영원히 제 곁에 있어주세요.”

내 말에 어머니는 나를 품에서 떼어놓았다. 그리고는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그건 무리란다. 언젠가 너도, 나도 죽을 테니까.”

“죽다니요? 이미 죽었잖아요.”

“아니, 아니야. 너도, 나도 아직 살아있단다.”

“예? 그렇지만 분명 전 분명 죽었어요! 칼에 찔리고, 심장이 멈추는 그 감각이 아직도 생생한걸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제 모습은...”

횡설수설 설명하다 어머니의 씁쓸한 얼굴을 보고 말을 멈췄다.

“많이... 아팠니? 많이 괴로웠니?”

“...아프지 않았어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삶은 괴로웠지만, 마지막은 나쁘지 않았

어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죽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았대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내 물음에 어머니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음...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설명해주기는 힘들 것 같구나. 우선 피크닉부터 가지 않겠니?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차차 설명해줄게.”

아직이라는 말이 불안했지만 어머니가 사실을 숨기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밝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네, 그래요.”

속이 알찬 샌드위치와 상큼한 레모네이드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은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겠니?”

어머니의 말에 시녀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마차 쪽으로 물러났다.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어머니는 무릎을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 딸, 이리 오렴. 엄마가 무릎 배게 해 줄게.”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자 시야를 채운 것은 붉은 눈과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백금발이었다.

“제 눈은 어머니를 닮은 건가요?”

“그럼.”

죽기 전의 나는 황금색 눈동자에 집착했다. 어머니의 출신이 불분명한 가운데 아버지를 닮은 황금색 눈동자만이 아버지의 딸이라는 유일한 증거이자 긍지였으므로.

“눈이 이상하게 변했었어요.”

“이렇게 말이니?”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 눈을 감았다 뜨자 다시 어머니의 눈이 보였다. 방금 전과는 달리 세로로 변한 동공이. 그 눈을 보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어머니, 눈이...”

“시엘, 사실은... 엄마는 인간이 아니란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드래곤을 알고 있니?”

드래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투쟁을 싫어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종족. 대륙에서 가장 거대한 시스톨레 산맥의 심부에서 산다고 알려져 있으나 인간들의 세계에 그 모습이 드러낸 적이 거의 없었다.

“드래곤이요? 어머니가?”

“그래. 붉은 눈은 드래곤의 상징. 네 붉은 눈은 내 피를 이어받았다는 증거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안심시키려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

다.

“그렇지만 저는 원래 황금색 눈이었어요.”

“아니, 너는 원래 붉은 눈이었어. 내가 너의 힘을 봉인했기 때문에 눈의 색이 변한 거란다.”

“어째서?”

“네가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랐어. 그러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것 같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세요. 전부요.”

“너도 알다시피 드래곤들은 인간이 오기 힘든 시스톨레 산맥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지. 그런데 어느 날, 웬 겁도 없는 인간 사내가 드래곤 슬레이어가 되겠다면서 우리들의 터전에 쳐들어단다. 인간치고는 강했지만 나는 그 사내를 쫒아내 버렸어. 다음에 또 오면 죽여 버리겠다는 경고와 함께 말이야. 그런데 그 사내는 몇 달 후, 다시 찾아왔지. 죽이려던 순간 다짜고짜 무릎을 꿇으며 말하더구나.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설마...”

“그래. 바로 네 아버지란다.”

깬다. 내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와장창 무너졌다. 아버지는 신사였다. 다소 엄격하고 원리원칙을 따지지만 레이디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정중하고, 예의발랐다. 그런데 이런 막무가내 청혼이라니. 결혼생활의 환상 따위 없는 나지만 이건 너무했다 싶었다.

“그 청혼... 받아들이셨어요?”

“설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죽일 마음도 안 들더구나. 그래서 다시 쫒아냈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매일같이 찾아와서 매달리더구나. 내가 말하긴 부끄럽지만 이래봬도 엄마는 드래곤 마을에서 인기 많았거든. 다른 수컷 드래곤들은 다들 친절하고 다정하게 구는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네 아버지가 신기하면서도 짜증났지.”

“하하...”

“하루는 너무 짜증이 나서 소리쳤지. 여자 꼬시는 법부터 배우고 오라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쯤 안 보이다가 다시 나타나더구나. 되도 않는 작업멘트를 치고는 심사라도 받는 것처럼 긴장된 얼굴로 나를 바라봤지. 그건 꽤 귀여웠어.”

아이처럼 키득키득 웃는 어머니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했구나. 게다가 아버지가 매달린 거였다니.

“그래서요?”

“당연히 불합격이었지. 답답한 나머지 내가 직접 가르쳤어. 여자를 대할 땐 어떻게 해야 하며, 작업을 걸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며까지 하나하나 전부.”

“그래도 결국 넘어가셨네요.”

“그게 말이야. 그럭저럭 봐줄만하다는 평가를 받자마자 기뻐하면서 나를 껴안더라고. 처음에는 마음을 받아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네 아버지를 꽤 좋아하게 되었어.”

“...”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엄마와 네 아버지는 사랑에 빠졌지. 그리고 너를 임신했을 때, 네 아버지가 말하더구나. 자신은 후작가의 후계자이며, 가문을 이어야한다고. 자신과 함께 가자고. 내가 평범한 드래곤이었으면 그 청혼을 받아들였겠지. 하지만 엄마는 드래곤의 마을을 떠날 수 없는 몸이었어.”

“왜요?”

“엄마는 드래곤들의 로드였으니까. 한 종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없었어. 결국, 네가 태어난 후 네 힘을 봉인하고 너를 아버지와 함께 떠나보냈단다.”

사람들이 떠들어댔다. 어느 날 여행을 떠났던 아버지가 갓난아기였던 나를 데리고 왔고, 교회에서 입증한 결혼서류와 마법을 통한 친자확인으로 나는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생아라는 추문을 평생 떨쳐낼 수 없었다.

“저는... 드래곤으로서 살 수 없었나요? 인간으로 살아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하프 드래곤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으니까. 그 강대한 힘 때문에 모든 걸 얻거나, 모든 걸 잃거나. 둘 중 하나야. 나는 네가 불행해지길 원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니 하나 얻긴 했죠. 한 남자의 사랑이요.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너를 도망치게 하려 했지만 운명은 고작 그 정도로 피할 수 없었나 봐,”

“하프 드래곤의 운명이 대체 뭔데요? 고작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야했나요?”

“중요한 건 네가 하프 드래곤이라서가 아니야. 네가 하늘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란다.”

하늘색 머리카락. 아버지는 검은 머리였고, 어머니는 백금발이였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닮지 않은 머리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이 머리가 왜요?”

“네가 천룡의 운명을 타고 났다는 증거니까.”

“천... 룡?”

“아주 오래 전, 국가가 세워지기 전 태고의 시대. 드래곤은 인간을 잡아먹었단다.”

“예?”

“드래곤의 본성은 자연을 따르는 것. 그러나 선도 악도 아닌 회색의 존재인 인간의 피와 살을 취하면 잠시나마 본성을 거스르는 힘을 가질 수 있지. 그 힘에 취한 많은 드래곤들이 전쟁과 살육을 벌였지.”

“그, 그런 이야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당연하지. 인간들이 문자를 만들어내기 이전의 일이니까. 아무튼 드래곤은 더욱더 강한 힘을 얻길 원했어. 그러던 도중 아주 가끔씩 인간과 드래곤 사이에 태어나는 하프 드래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힘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인간을 먹어야하는 드래곤과는 달리 처음부터 인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단점이라면 수명이 평범한 인간과 비슷하다는 거겠지.”

“그러면... 저도?”

어머니는 나를 잠시 보다 미소 지었다.

“그래, 너도 수명은 길어야 백년 남짓일 거야. 네가 사랑한다는 그 사람과 함께 늙어 죽을 수 있지.”

내 표정이 밝아지자 어머니가 불만스러운 얼굴로 내 뺨을 잡아당겼다.

“이게, 이게. 벌써부터 남자밖에 모르는구나.”

“버, 벌써부터라니요! 저 스물넷이에요.”

“지금 육체는 여덟 살밖에 안 됐으니까 넌 여덟 살인거야.”

“그런...”

“어쨌든 드래곤은 더 많은 하프 드래곤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 하프 드래곤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도 사육되는 존재일 뿐이었어. 어릴 적부터 철저히 교육받았으니까. 그러다 다른 이들과는 다른 한 하프 드래곤이 태어났단다. 그는 타고난 힘이 인간과 별 차이가 없었어. 쓸모없다고 여겨진 그는 버려졌고, 인간들이 그를 데려다 키웠단다. 그는 너처럼 하늘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구나.”

어머니는 내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어 내렸다. 슬퍼 보이는 그 미소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러나 그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었어. 단지 미숙한 그의 정신이 힘을 감당해내지 못해

스스로 봉인했을 뿐, 그는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단다. 그는 성장하면서 점차 자신의 힘을 자각했고, 자신을 키워준 인간들을 돌아보았단다. 그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마음먹었고, 전쟁에 지친 드래곤들을 모았단다.”

“...”

“대부분의 드래곤은 싸움을 끝내고 평화를 원했지만, 본성을 잊고 미쳐버린 드래곤은 구원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인펠릭스 산맥 너머로 쫒아내고 결계를 펼쳤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어. 그렇게 그는 인간과 드래곤 모두에게 천룡이라 칭송받았고, 인간들은 그를 신으로 받들고 드래곤은 그의 유지를 이어받았단다. 드래곤들이 시스톨레 산맥에 사는 것은 그의 유지인 결계를 지키기 위함이란다.”

“신... 이요?”

“하늘을 열었다는 신, 파툴키우스. 그가 바로 오랜 전쟁을 끝낸 그 하프 드래곤이란다.”

“파툴키우스. 유피테르 제국에서 국교로 삼아 모시는 신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와 관련된 신화는 지겹도록 들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신화와는 전혀 달랐다.”

“그, 그럼 신화는?”

“신화? 그건 인간들의 새빨간 거짓말이지.”

“아... 그렇군요.”

“그래, 거짓말이지. 그는 평범한 인간여자를 만나 평범한 생을 살다 끝을 맞이했으니까.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예언을 하나 했단다.”

“예언이요?”

“세계가 혼란해질 때, 인간의 피를 이어받은 하늘의 드래곤이 태어날 것이다. 혼란을 잠재우고 평온을 얻는 존재. 따라서 그 생은 결코 순탄치 않으리.”

“그게 예언인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몰려왔다.

“고작 그 예언 때문에 운명이, 인생이 결정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후로 단 한 번, 하늘색 머리카락의 천룡이 태어난 적이 있지. 천 년 전, 혼란의 시대에 그는 제국을 세웠단다. 카시스 폰 유피테르.”

“초대... 황제.”

“그리고 네 사촌 오라버니란다.”

“예? 사촌... 천 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야 엄마의 언니가 결혼을 빨리 했으니까. 설마 드래곤이 성인이 되자마자 홀랑 애부터 낳을 줄은...”

초대 황제는 드래곤의 자손이었다고 전해진다. 설마 전설이 아니라 진짜일 줄은...

“아, 참고로 네 이모는 아직 살아있어. 지금 내가 로드 자리를 떠맡기고 왔거든. 원래는 언니가 로드가 됐어야 했는데, 애 낳는다고 도망가서 엄마가 로드가 된 거거든. 다 늙어빠져서 꼴좋다.”

소리 높여 웃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십 수 년 간 상상했던 자애롭고 기품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저 멀리로 사라졌다.

‘우리 부모님 좀 이상해.’

한참을 깔깔거리고 웃던 어머니는 내가 지겨워하자 웃음을 멈추고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갑자기 변한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며 물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된 건가요? 갑자기 어린아이가 된 이유는요?”

“검에 찔려서 죽어갔을 때, 아프지 않았다고 했지?”

“네, 이상할 정도로요.”

“그건 네가 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봉인을 깼기 때문이야. 막혀 있던 힘이 터지면서, 생명력이 넘쳐났지만 상처는 그대로였지. 죽지 않기 위해 가사상태에 빠져 출혈을 막았지만 인간들은 네가 죽은 줄 알았겠지. 네 육체는 어딘가에 버려졌어. 봉인이 풀린 것을 안 내가 널 데리러 가려 했지만 너는 이미 영혼을 도둑맞은 상태였지.”

“영혼요?”

“내가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야. 생명력의 근원이자 심장의 핵 「실재」의 파편. 특히나 하프 드래곤의 영혼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그러나 한 존재가 가진 고유의 것이니만큼 다른 존재가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할 수 없어. 어지간히 강력한 드래곤 정도가 아니면...”

“드래곤이요?”

“로드였던 내 인식에서 벗어난 드래곤, 즉 결계를 넘어온 미쳐버린 드래곤의 후손이라는 거지.”

“결계를 넘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모르겠어. 시간이 오래되어 틈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어쨌든 그 드래곤이 네 영혼을 훔쳐갔고 드래곤의 마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공격받았어. 설명할 수 없는 붉은 드래곤에게. 아마 우리의 추측으로는 붉은 드래곤은 네 영혼과 자신의 영혼을 융합했을 거야. 그러니 결계 안의 드래곤을 몰살 직전까지 몰아갈 수 있었던 거지.”

“드래곤이...”

“붉은 눈은 드래곤의 상징이라고 말했지? 너는 붉은 눈을 가진 자를 알고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 여자. 황제를 유혹해 내 모든 것을 빼앗은 여자. 죽어가는 나를 비웃은 여자. 그 여자는 붉은 머리에 붉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여자가...”

“드래곤이야. 네 영혼을 얻기 위해 너를 죽음에까지 몰아간 거고.”

“하...”

“붉은 드래곤에게 몰살당하기 전, 네 육신에 남아있던 힘을 이용해 대규모의 마법을 시전 했어. 단 하나의 역전의 수였지.”

“시간을 되돌린 건가요?”

“아니,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 우리는 「실재」을 둘러싼 조각의 껍질에는 가능하고 「실재」, 그 자체에 간섭할 순 없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되돌린 것이라면 과거의 현실이 변할 수는 없잖니?”

어머니의 말의 절반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시간을 되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소리였다. 그렇다면 여기는...

“여기는 어딘가요?”

“이건 마법으로 만든 환상. 모든 존재들이 동시에 꾸고 있는 꿈에 불과하단다.”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네요.”

“이 환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정말이에요?”

“...그 일은 너만이 할 수 있어. 네가 마법의 매개체였으니까.”

“할게요. 저는 이 꿈을 깨고 싶지 않아요.”

망설임 따윈 없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행복해지고 싶었다. 아니, 행복해져야 한다.

“괴롭고 힘들 거야. 누군가를 짓밟고 죽여야 할지도 몰라.”

“그동안 살아왔던 삶도 괴롭고 힘들었어요. 지난 삶에서 짓밟히고 죽임 당한 것은 저였어요. 그러니 참을 수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나를 껴안은 어머니가 작게 속삭였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누구보다 비겁하게, 악독하게, 비록 희대의 악녀로 기억된다 할지라도 이리 바보처럼 모든 걸 빼앗기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애는... 부디 행복해지십시오.’

‘하프 드래곤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으니까. 그 강대한 힘 때문에 모든 걸 얻거나, 모든 걸 잃거나. 둘 중 하나야. 나는 네가 불행해지길 원하지 않았어.’

칼립스와 어머니의 말이 생각났다. 두 사람 모두 지극히 나를 사랑했고 내가 행복해지길 바랐다. 모든 것을 빼앗아서라도.

‘모든 것을 빼앗아주겠어. 반드시 행복을 거머쥘 거야. 악녀가 되어서라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마차를 타고 저택에 돌아가자마자 저택의 문 밖을 서성이던 아버지가 보였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다. 내가 황후가 된 이후로 외척 세력으로 황제의 경계를 받고 나를 두고 영지로 떠난 아버지였다. 나에게 꽤 친절하셨지만 언제나 대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

“아...”

“우리 딸! 이제 왔니?”

나를 번쩍 들어 올린 아버지가 한 팔 위에 나를 앉혔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웃는 아버지는 무척이나 낯설었다.

“아빠 혼자 기다리다 목이 빠질 뻔 했잖느냐. 부인도, 남편만 두고 이리 늦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네. 저녁식사 시간에 딱 맞춰 왔으니 그리 골내지 말아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볼에 짧게 입을 맞추자 아버지는 표정을 풀고 헤실헤실 웃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약간 바보 같았다.

“그럼 어서 저녁 먹읍시다.”

한 손으로는 나를 안고, 한 손으로는 어머니를 에스코트하고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걷는 아버지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아..., 깬다.”

“응? 뭐라고 했니?”

“아무 것도 아니에요.”

곁눈질로 옆을 보니 시선이 마주친 어머니가 가볍게 윙크를 했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던 사람들이 변하니 무척이나 어색했지만 기뻤다. 평생을 바라고 바랐던 것이었으니까.

“아버지.”

“아버지 말고 아, 빠.”

“...아빠.”

그렇게 부르니 아버지는 뭐가 좋은지 다시 헤픈 웃음을 지었다.

“왜 그러니, 우리 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러봤어요.”

아버지의 웃음에 답해 나 또한 웃으려 노력했다. 그렇게 우리 세 가족은 사이좋게 집으로 돌아갔다.

“시엘, 졸리면 들어가서 자렴.”

디저트를 얼마 먹은 지 안 되었는데도 졸음이 쏟아졌다. 아버지에 다정한 목소리에 눈이 감겼다.

“안 되겠군. 힐데, 시엘을 데리고 가서 재우게.”

“예, 각하.”

힐데가 나를 안아 올리는 느낌이 들었다.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노력하며 작은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렴, 시엘.”

“잘 자렴.”

힐데의 품에 안겨 방에 돌아가 소금으로 양치를 하고 반쯤 졸면서 옷을 갈아입고는 침대에 누웠다. 시계를 보니 9시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어린아이라는 건 이렇게 잠에 약하구나.’

완전히 잠에 빠져들기 건,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를 곱씹으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일까?’

시엘이 나간 후, 이리스와 아서는 침묵에 잠겼다. 갑자기 무거워진 분위기에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서.”

“...모두 나가 있게.”

하인들이 황급히 물러나고 이윽고 넓은 식당에 둘만 남게 되었다. 이리스는 찻잔에 고정시켜놓았던 시선을 올려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알고 있어.”

“네?”

“당신이... 아니, 드래곤 일족이 무언가를 한 거지? 시엘을 살리기 위해,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기억을...”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기억나.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어디까지 기억하나요?”

“황제가 시엘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모아 황성으로 진격했어. 가보니 황제는 죽어있고 시스톨레 산맥 전체가 불타고 있었지. 당신을 찾기 위해 혼자서 산에 뛰어들어 드래곤의 마을로 향하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지.”

“황성으로 진격해요? 제국을 위해 나를 떠난 당신이?”

“그 무엇도 내 딸보다 소중하진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시엘을 불행하게 놔둔 거죠? 어째서 그 아이를 혼자 놔둔 거예요!”

“영지로 떠나지 않으면 시엘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니까! 나는 그 아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누리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황후로 만들었고, 황제가 시엘을 냉대한다는 것을 알고 이혼을 요구했지. 허나 황제는 들은 척도 안하더군. 오히려 영지로 가있지 않으면 시엘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지로 내려가 반란을 도모했어. 내 딸을 위해!”

“...”

“그러나 너무 늦어버렸지. 전부..., 전부. 실은 지금 여기가 꿈이 아닌가 해. 시엘이 가장 사랑스러웠던 시절의 모습으로 살아있어. 당신이 내 곁에 있어. 대답해줘. 어느 쪽이 꿈이야? 난 불에 타서 죽은 건가? 아니면 이게 현실이야?”

“아직은 이쪽이 꿈이에요.”

“아직은?”

“...현실로 바꿀 수 있어요. 시엘밖에 못 하는 일이지만요.”

“시엘이?”

“앞으로... 시엘에게는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

켜보는 것 뿐.”

“이리스, 내가 대신 할게. 뭐든지 내가 할게. 그러니까 시엘만은...”

“시엘밖에 못하는 일이에요.”

“당신이 말했던 그놈의 운명인가? 웃기지 마!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 시엘은 인생의 절반을 침대 위에서 보냈어. 마음대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런데도... 그런데도...”

“나도 그 운명이 너무 미워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했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걸요.”

이리스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서는 씁쓸한 얼굴로 마른세수를 반복했다.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

“시엘은 이미 각오를 다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마음껏 사랑해줘요.”

그 말을 끝으로 이리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아서는 넋두리처럼 물었다.

“당신은... 내가 미운가?”

“네, 미워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당신이.”

“...”

“그렇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 자신 또한 미워 죽겠어요.”

거칠게 문을 닫고 나가는 이리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예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걸음걸이가 거칠어졌다.

“이제 와서 내게 시엘을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이리스가 사라지고 텅 빈 자리에 대고 아서가 물었다.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높은 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나를 비웃는 소리. 그 여자다.

“어머, 황후 폐하. 잘 지내셨나요?”

“황후 폐하, 그 꼴은 또 뭔가요? 일국의 황후가 웃음거리밖에 안 되네요.”

“어쩜, 천박하기도 하지.”

나를 조롱하는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참을 수밖에 없었다. 마치 불꽃같은 그녀의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

“허억!”

땀에 잔뜩 젖은 채로 눈을 떴다. 이제 막 동이 트고 있었다. 방은 그대로였으나 아무도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했다. 마치 세계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방을 나서 저택을 돌아다녔다. 이 시간이면 아버지가 검술 수련을 하실 시간이었다. 나는 쫒기 듯이 연무장으로 향했다.

검이 아름다운 궤적을 그렸다. 나무기둥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황금색 눈동자와 눈이 딱 마주쳤다.

“시엘?”

“아... 버지.”

“무슨 일이니? 이 이른 새벽에.”

“꿈을, 꿈을 꿨어요.”

“꿈?”

“그 여자가... 날 조롱하고 비웃는 꿈을. 그리고 내 것을 빼앗아갔어요. 드레스나 보석 따위가 아닌. 힐데와 아버지를. 그 여자를 죽여 버리고 싶었어요. 아니, 죽일 거예요. 또다시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

“시엘.”

검을 버린 아버지가 내게 다가왔다. 나를 꽉 안는 그 품은 단단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많이... 외로웠니?”

“...”

“미안하구나. 널 혼자 두어서. 그때는 네게 물질적인 것만 다 가져다 주면 된다 생각했어. 그러데 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는 내 뺨을 쓰다듬었다. 물기 젖은 황금색 눈동자가 빛나는 것만 같았다.

“이번에는 네가 빼앗으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네 곁에서 널 지켜주마. 이번에는 너

도 아빠도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자꾸나.”

그 안온한 대답을 끝으로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는 다시 방이었다. 꿈같이 희미했지만 새벽녘의 기억은 남아있었다.

“어째서?”

현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마법의 시전자인 어머니와 매개체인 나뿐이라고 들었다. 그

러나 아버지는 그 시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어머니가 말해주신 건가?”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버지의 분위기가 낯설지 않았다. 슬픔을 삼키고 태연한 척 하는 그 분위기는 줄곧 지켜 봐왔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분명 기억하고 있었다.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 시간의 나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 생각했다. 원하는 것은 전부 가져다 주셨지만 단 한 번도 애정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값비싼 물건들과 넓은 방에서 혼자였다.

‘방, 그래. 방.’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은 후계자의 방이었다. 동생이 태어나고, 걸음마를 배우기 전까지만 해도 방을 옮기는 것에 대해 아버지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불안했는지 살갑지는 않아도 내게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켰던 새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더라?

‘수도에 올라가셨어.’

동생에게 방을 내어주고는 그대로 새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수도로 가셨다. 나는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영지에서 지내야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를 보러온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가 황태자의 약혼녀로 내정되었다고.

나는 황태자의 약혼녀가, 황후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애정을 갈구했으나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다. 그저 내 곁에 있어만 주면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안 좋은 점만 닮았나보네.”

내가 사랑하는 모두가 나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있었다. 어째서 이렇게 늦게 깨달아버린 것일까. 어째서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국 멀어져버린 걸까.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다. 이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

식당으로 내려가자 부모님은 반갑게 나를 맞아주셨다.

“잘 잤니?”

“우리 잠꾸러기 아가씨가 이제야 일어났구나.”

새벽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아버지는 어제와 같은 미소를 보여주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리에 앉자 금방 따뜻한 야채수프가 놓여졌다. 별생각 없이 수프를 떠먹는데 어머니가 마시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는 내 이름을 불렀다.

“시엘.”

“네?”

“엄마는 한동안 고향에 가 있을 생각이란다. 아버지는 일이 있으셔서 수도에 가셔야 하고.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입에 있던 음식을 삼키고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어머니의 고향이라면 드

래곤의 마을일 터였다. 앞으로를 위해 내 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무엇보다 아직은 수도에 가고 싶지 않았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갈래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눈에 띄게 시무룩해진 기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잠시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다가 살살 웃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수도의 일은 얼마나 걸리시는데요?”

“그게... 잘 모르겠구나. 길어지면 두세 달 정도 걸릴 것 같구나.”

“무슨 일인데요?”

“그게... 황태자 전하의 약혼녀 문제로 회의가 열릴 거란다.”

그 말에 나는 그대로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다. 뒤에 서 있던 하녀가 떨어진 포크를 줍고는 새 포크를 내게 건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을 정신이 아니었다.

생각해보니 이전에도 이때쯤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수도로 간 것이...

“아가씨?”

“아..., 고마워.”

포크를 잡아들었지만 다시 식사를 할 수 없었다.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도 그럴 것이 황태자와 비슷한 나이대의 귀족 영애 중 가장 신분이 높은 것은 나였으므로. 내 상태를 눈치 챈 아버지가 하인들을 물렸다.

“후보에 저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겠지. 허나 아빠가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란다.”

“그래도...”

“걱정 말거라. 이번에는 아빠가 반드시 널 지켜준다 하지 않았니.”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다. 그 덕분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정말이죠?”

“만약 아버지가 실패하면 엄마가 황성을 뒤엎을 테니 걱정 말거라.”

“네?”

“여보?”

“엄마는 그놈한테 우리 딸 절대 다시 못준다. 차라리 제국을 멸망시키고 말지.”

“부, 부인.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면 아예 우리 시엘을 황제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지 않나요?”

어머니는 손뼉을 짝 치면서 환한 웃음을 지었다. 그 미소에 담긴 무언의 협박에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는 대답했다.

“부인 마음대로 하세요.”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다. 옅은 햇빛이 비추고 있었고, 공기는 시원하고 깨끗했다. 눈을 감자 거대한 기운이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기분이 좋은가 보구나, 시엘.”

“네! 뭐가 숨쉬기가 편해요.”

“이곳은 마력의 밀도가 높으니까, 인간들은 오히려 숨쉬기를 힘들어하지만 마력의 양이 많은 드래곤들은 이곳이 가장 편안하지.”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는 가잘 큰 고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땅에 끌릴 것만 같은 백금발에 기이한 분위기를 지닌 여인은 나무를 바라보며 우리를 등지고 있었다.

“아스타.”

어머니의 부름에 그녀가 뒤를 돌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백금발에 붉은 눈, 어머니와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똑같이 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이리스.”

“8년밖에 안됐는데 오랜만은 무슨...”

“아... 아직 그것밖에 안 되었나? 그 아이가 너무나도 커서 시간이 많이 흐른 줄 알았어.”

그녀는 손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붉은 눈에는 어머니와는 달리 순수한 애정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리움? 연민?’

그 눈에 담긴 감정을 무엇이라 확실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녀는 내 이모였고, 내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시엘... 이었나? 그 하늘색 머리카락은 오랜만에 보는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시엘 드 인테제르입니다.”

“인테제르? 어디서 들어봤는데?”

“내 남편의 가문이야. 카시스가 제국을 세울 때의 개국공신 가문이기도 하고.”

“아아... 그래. 나는 아스타르테라고 한단다, 시엘. 아스타라고 불러주렴.”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어머니와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했다.

“네, 아스타.”

“그래, 우선 안으로 들어가자.”

나와 어머니는 아스타를 따라 고목 아래의 저택으로 들어갔다. 저택의 안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교하고 깔끔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조금만 기다리렴. 금방 차를 내올 테니까.”

그 말을 남긴 아스타는 어딘가로 사라졌다. 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고는 멀뚱히 서 있는 내게 손짓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지 않니?”

“아버지는 어떻게 현실의 기억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건 말이야...”

어머니는 말을 흐리면서 뜸을 들였다. 무거운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침을 삼키게 되었다.

“엄마도 잘 모르겠구나.”

“네?”

“원래였다면 네 아버지는 기억을 하지 못해야 해. 지금의 네 아버지는 따지고 보면 허상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법에 이상은 없어. 그래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결론은 하나였단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 그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기적이요?”

“그래, 기적, 한 존재가 강하게 열망해 순리를 거스르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무래도 네 아버지는 너를 지키겠다는 강한 열망 끝에 엄마가 만든 세계에 틈을 만들어 현실과 허상이 연결된 것 같구나. 기억뿐이지만 말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나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 더군다나 네 아버지는 매개자인 너와 피가 이어져있으니까. 그러나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없어.”

“어째서요?”

“...아직 네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렇지만 이것 하나는 알아두렴. 틈이 넓어지면 이 세계가 부서질 확률이 높아.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돼.”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 표피를 잘근잘근 씹는데 어머니가 다가오더니 아랫입술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다.

“불안해하지 마렴. 기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틈새 하나 정도는 큰 문제는 없을 테니까. 다만 이것 하나만 알아두렴. 네 아버지는 정해진 순리를 뛰어넘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벌어진 아랫입술을 살짝 당긴 다음 어머니는 그대로 손을 움직여 나를 품에 안았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의 체취에 순식간에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졌다. 눈을 감고 따뜻한 품을 마음껏 음미하려 했으나 접시가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어머, 내가 방해했나?”

어느새 돌아온 아스타는 생긋 웃으면서 다구들을 내려놓았다. 어머니는 입술을 삐죽이며 볼멘소리를 내었다.

“그래, 완전 눈치도 없이 방해했지.”

“그렇지만 내 집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있는 쪽이 잘못 아닌가?”

“엄마랑 딸인데 뭐 어때? 그리고 여긴 원래 내 집이거든?”

“이젠 내 집이잖아.”

미묘한 말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해 나는 허리에 손을 올리고는 소리쳤다.

“두 분 모두 그만! 제가 차 끓여드릴 테니까 화해하세요!”

그러자 두 사람의 시선이 내게 몰렸다. 완전히 똑같은 얼굴이 동시에 바라보니 왠지 모르게 쫙 폈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 같았다.

“싸우지 마세요, 네?”

내 모습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희미한 미소만을 짓던 아스타가 소리 높여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내가 느꼈던 그녀의 공허함을 채우는 맑은 웃음소리였다.

캐모마일 허브티의 산뜻한 향에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전생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전에는 말린 사과를 넣어 자주 마셨었다. 은은한 단맛이 없으니 뭔가가 아쉬웠지만 머리가 맑아지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정확히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어머니는 마시던 차를 완전히 비우고는 깊은숨을 내쉬었다.

“우선 이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먼저인 것 같구나. 아스타, 히페리온은?”

“보나 마나 연구 중이겠지. 히페리온에게 맡기려고? 직접 가르치지 않고?”

“드래곤의 마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법도 배워야 하니까. 아무래도 나는 인간의 마법은 잘 가르칠 자신이 없어서.”

“네 말대로 히페리온이 적격이긴 하지만 그가 연구실에서 움직이기나 할까?”

“그건... 그렇지.”

힘없는 수긍에 어머니와 아스타는 동시에 고뇌에 빠졌다. 아무래도 그 히페리온이라는 사람, 아니 드래곤이 상당히 까다로운 모양이었다.

“몰라. 일단 가보자.”

어머니가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자 나는 깜짝 놀라 마시던 차를 잘못 삼켰다. 그 때문에 잠시 캑캑거리자 아스타가 등을 쓸어주었다. 그러자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오면서 속이 편안해졌다.

“어?”

“괜찮니?”

“어머, 엄마가 놀라게 했니? 미안하구나.”

별일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스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생긋 웃으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는 괜찮아요. 그것보다 저 빨리 마법을 배우고 싶어요. 빨리요.”

마법사는 희소하다. 타고난 마력으로 인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단 정식 마법사가 되면 그 힘은 무척이나 강력하며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한다.

전생의 나는 무력한 여자에 불과했다. 그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황제에게 뺨을 맞을 때도, 그 여자를 비롯한 사교계 여자들이 나를 밀칠 때도 벌벌 떠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는 이상 내 결정은 너무나도 뻔했다.

그런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어머니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내 눈을 가렸다.

“어머니?”

“텔레포트할 거란다. 놀라지 마렴.”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함께 아까 느꼈던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공기가 달라졌다고 느끼자 눈을 가렸던 손이 물러났다. 천천히 눈을 뜨자 보인 것은 사방을 가득 채운 책과 종이였다.

“뭡니까?”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뒤를 보니 푸른 머리의 청년이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시리도록 푸른 머리와는 대비되게, 그의 눈은 붉디붉었다.

“오랜만이네, 히페리온.”

“오랜만? 8년밖에 안됐는데 오랜만은 무슨. 인간들과 살다 보니 시간 감각이 이상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가? 아무튼 그 싸가지 없는 말투는 여전하네. 손님에게 먼저 자리를 권하는 게 예의 아니니?”

“자리를 권하기도 전에 앉아있는 건 무슨 예의입니까?”

한 치의 밀림 없는 그의 대답에 어머니의 미소가 금이 갔다. 그와 동시에 어머니와 그의 동공이 길쭉해졌다.

“스승에 대한 제자의 말버릇이 상당히 안 좋구나.”

“스승? 당신이 내게 가르친 건 고작 해츨링 시절의 마력 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상한 곳에 던져놓고 나 몰라라 했던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이 가르쳐준 약간의 지식에 대한 예우는 존대면 충분하다고 붑니다만.”

“그래도 기본이라도 가르쳐줬으니까 마물들의 소굴이나 이러저러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것 아니니? 게다가 난 로드의 일로 바빴다고. 모든 건 널 차기 로드로 강하게 키우기 위함이었어.”

“말은 잘하시네요. 그렇게 생각이 많으신 분이 로드 자리를 그렇게 쉽게 버리십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당신은 8년 전에도 그 말을 하고 나갔죠. 로드의 역할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저는 그 이유라는 게 당신의 사적인 감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과 사랑에 빠져 앞뒤를 가리지 못한 게 아닙니까?”

‘어라?’

히페리온의 말을 듣다 보니 위화감이 들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가시를 세우고 있었지만 그 속에 깔린 깊은 감정이 있었다. 이성적인 감정보다는 존경심, 동경 그리고 배신감.

“히페리온은 어머니를 좋아하는군요.”

무심코 뱉은 말에 히페리온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내가 있는 것조차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

“해츨링? 아니..., 하늘색 머리.”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펜을 쥐느라 굳은살이 박힌 손이 천천히 다가와 소파의 등받이에 걸쳐진 내 머리카락을 만졌다.

“내 딸이야. 이 아이가 그 이유고. 이제 알겠어? 드래곤의 존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마저 걸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부탁할게. 이 아이의 스승이 되어줘.”

어머니에게 잠시 바라보았다 다시 내게로 시선을 돌린 히페리온은 홀린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간의 침묵 이후 그는 입을 열었다.

“싫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무안할 정도의 완강한 그의 거부에 어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나가주시죠. 저는 바쁩니다.”

마지막 말에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을 풀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왠지 모를 오싹한 기운에 몸이 떨렸다.

“아무래도 너를 너무 방치한 모양이구나, 히페리온.”

자리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어머니와 잠시 움찔했지만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는 히페리온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천천히 히페리온에게 다가가는 어머니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 어머니?”

“시엘, 잠시만 기다리렴. 엄마가 금방 네 스승님 좀 교육시켜 줄 테니까.”

“당신에게 배울 건 더 이상 없습니다만.”

히페리온의 입을 틀어막고 싶다는 욕망이 들끓었으나 아쉽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니의 허리를 붙드는 것뿐이었다. 어머니를 뒤에서 끌어안자 살벌했던 기운이 조금 가라앉았다.

“시엘, 무서우면 잠시 나가 있으렴.”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하면 저놈이 내 말을 들어 처먹는다니?”

“들어 처먹게 할 테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나가 계시라니까요!”

막무가내로 어머니를 밀어 밖으로 쫓아내고는 여전히 뚱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는 히

페리온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아까부터 어머니의 위협에도 한 치의 밀림 없이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집요한 시선은 절로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

“히페리온이라고 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시엘 드 인테제르입니다.”

그의 시선을 꿋꿋이 받아내며 치맛자락을 살짝 잡고는 귀족식 인사를 했다. 내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지 그는 소파에 앉고는 내게 손짓했다.

“자리를 권하는 것으로 봐도 될런지요?”

그의 대답은 듣지 앉고 성큼성큼 다가가 자리에 앉았다. 짙은 푸른색의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학자 같은 느낌을 풍겼지만 붉은 눈만큼은 너무나도 고혹적이고 도발적이었다. 그런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니 절로 헛기침이 나왔다.

“일단 그 시선 좀 어떻게 해 주지 않을래요? 부담스럽습니다만...”

“...실례. 하프 드래곤은 처음 보는 것이라 흥미가 돋아서 말입니다.”

“흥미...요.”

떨떠름한 내 대답에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얼굴에 뭐라 한 마디 욕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나는 그에게 부탁하는 입장이었다.

“뭔가 문제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나저나 정말로 날 제자로 받아줄 생각이 없으신가요?”

“당신 같은 어린아이를 돌볼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날 꼬맹이 취급하는 그의 말에 더더욱 열이 받았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해 줄수록 그를 흔들기 쉬워지는 것도 아이러니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겠죠.”

“...?”

“히페리온, 당신 어머니를 사랑하잖아요?”

그 한마디 말에 히페리온의 얼굴이 무섭도록 굳었다. 그 얼굴을 보자 방금 전까지만 해

도 짜증 났던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다.

“이성적인 사랑은 아니죠. 스승에게 품은 존경 같은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그걸 단순

히 존경 같은 감정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갔지 않나요? 어머니를 향한 소유욕, 집착. 솔직히 스스로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알아요, 당신의 감정. 나는 평생을 타인의 눈치만 보고 살아서 감정을 알아채는 데는 예민하거든요.

“...”

“당신은 방금 나더러 어린아이라고 했죠? 맞아요. 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답게 욕심밖에 부릴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내 목은 그의 손아귀 안에 있었다. 그가 힘을 주기만 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목이 꺾일 것이다.

“정곡을 찔렀나요?”

“그 입 다무는 게 좋을 겁니다. 죽고 싶지 않다면.”

“죽여요.”

“...”

“당신 하나 못 가지면 난 살아있을 이유 따윈 없어요.”

그래. 애초에 악착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저 내 욕 심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뿐. 그리고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가 너무나도 탐이 났다.

그런 내 탐욕 어린 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는 내 목을 잡은 손을 풀었다. 약간 뜨거운 듯한 피부를 매만지자 그가 다시 손을 뻗었다. 순간 움찔했으나 이번에는 살기 어린 공격이 아닌 따스한 기운이 담긴 치유였다.

“뭐죠? 병 주고 약 주고인가요?”

“이리스가 보면 날 죽이려들 테니까요.”

진지한 그의 말에 절로 웃음이 새어 나왔다. 그는 내가 웃는 모습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정도 웃고 나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동자와 마주할 수 있었다.

“미안해요.”

“예?”

“내 말에 마음이 상했다면 사과할게요. 그럼 이만 가봐야겠네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를 살짝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돈하는데 그가 내 팔을 잡았다.

“왜 그래요?”

“가는 겁니까?”

“네,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주 제 마음대로군요. 제 멋대로 들쑤시고, 사과하고 그리고 도망치는 겁니까?”

어쩐지 히페리온은 절박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조금 더 괴롭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그어둔 선은 여기까지였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도망치는 거 아니거든요. 내일 또 올 거거든요”

“예?”

“내 스승이 되어줄 때까지 매일 찾아와서 괴롭힐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가 뭐라 할 새도 없이 나는 문을 향해 달음박질쳤다. 어이없다는 얼굴을 한 그를 뒤로 하고 문을 열자 바로 앞을 버티고 서 있는 어머니가 보였다. 나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어머니에게 안겼다.

“성공했니?”

“아니요. 오늘은 그냥 분탕질만 좀 쳐놨어요. 회유는 내일부터 할 거예요.”

“남을 괴롭히다니. 누굴 닮아서 이리 못돼먹었을까.”

“어머니를 닮아서죠. 그리고 그래도 된다 한건 어머니잖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쓰게 웃었다. 내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래.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그 손길에, 그 말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괜찮다’라고 해봤다 변하는 건 없으니까.

히페리온은 펜을 잡았지만 막상 손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어린 여자아이의 가느다란 목

과 그 하늘색 머리카락을 잡았던 느낌이 아직도 선연했다. 잉크가 떨어져 흰 종이 위에 얼룩이 졌다.

‘어째서 계속 생각나는 거지?’

이리스를 쏙 빼닮은 얼굴보다는 그녀와 닮지 않은 머리카락이 뇌리에 박혔다. 그는 펜을 그대로 놓아버리고는 마른세수를 했다.

“미치겠군.”

오늘은, 아니 한동안은 연구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기운이 느껴졌다. 드래곤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이질적인, 제 기운조차 감추지 못하는 어린 생명체.

‘잠재된 기운은 누구보다 강한 주제에 그 여린 목은 뭐였단 말인가.’

그리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붉은 눈만큼은 살벌하게 타고 있었다. 웃는 얼굴로, 경계를 누그러뜨리는 분위기로 다가왔지만 붉은 눈만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쯧.”

짧게 혀를 찬 히페리온은 펼쳐놓은 책들을 주섬주섬 정리했다. 어찌되었건 시엘을 막기란 어려워보였으니까. 자신이 이미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순순히 넘어가 줄 생각은 없지만.’

자신을 약 올린 대가는 받아내야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히페리온은 문을 열었다. 힐끔 아래를 내려다보자 하늘색의 조그만 머리가 보였다.

“방금 문 두드리려 했는데... 혹시 나 기다렸어요?”

짓궂은 얼굴로 묻는 얼굴에 절로 한숨이 나왔다. 이 작은 여자아이는 자신의 속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챈다. 그러나 결코 초조함을 드러낼 수는 없었기에 일부러 쌀쌀한 말을 내뱉었다.

“헛소리 그만하고 가십시오.”

“싫은데. 차 한 잔만 줘요. 오늘 아스타랑 같이 쿠키를 구웠거든요. 히페리온, 이거 좋아한다면서요.”

작은 종이봉투에 담긴 냄새는 익숙했다. 아스타르테가 아주 가끔씩 만드는 쿠키는 많이 달지 않아 그가 선호하는 것이었다. 분명 아스타르테 또한 시엘을 좋아하는 것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엉덩이 무거운 그 양반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으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차 한 잔이요.”

히페리온이 인상을 구겼으나 시엘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와 문 사이로 몸을 집어넣었다.

“실례하겠습니다.”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것 또한 이리스를 쏙 빼닮았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하던가. 히페리온은 한숨을 내쉬고는 앞서가는 시엘의 뒷덜미를 잡았다.

“이 안에 있는 자료는 손도 대지 말고 얌전히 차 한 잔만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기왕 왔으니 두 잔 줘요. 앞으로 매일매일.”

“...”

“안 주면 어제 있었던 일 어머니한테 이를 거예요.”

참으로 어린애다운 협박이었다. 그런 그의 손을 뿌리치고는 태연히 주방으로 향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히페리온은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악마가 따로 없군.”

유피테르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는 싸늘한 분위기로 앉아있는 유피테르 후작, 아서를 힐끔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오래된 친우이자 믿을만한 신하이다. 그러나 소드마스터가 된 이후로 그를 경계하는 세력을 피해 영지로 칩거하다시피 떠나버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변해버린 그가 낯설었다.

‘예전에는 날카롭긴 하지만 분위기는 활발했는데 어째 지금은 회의장이고 뭐고 죄다 얼려버릴 것 같군.’

그것을 증명하듯 그의 옆에 앉아있는 귀족들이 살짝 의자를 움직여 그에게서 멀어졌다. 게다가 그 기운은 자신의 아들인 황태자가 발언을 할 때마다 더욱더 차가워졌다.

‘내 아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그는 후작 가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강한 데다 충직한 황제파 무가이기에 그와 황태자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화태자의 입지가 불리해진다. 자신이 정해둔 차기 황제는 황태자이긴 하나 황제파에서 2황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마지막 안건은 황태자 전하의 약혼 문제입니다. 백작가 이상의 영애들로 황태자 전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후보들을 추리고 있습니다. 세 공작들께서는 추천하는 후보가 있으신지요?”

재상의 말에 세 공작은 저마다 수염을 쓰다듬거나 헛기침을 했다. 세 공작은 모두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이었기에 여식들은 대부분 혼인을 하거나 황태자와 나이가 맞지 않았다. 그렇다고 손녀들과 약혼시키기에는 황가의 체면도 문제일뿐더러 공작가의 계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도 있었다.

‘갓난아이일 때 밖에 본 적이 없지만 아서의 딸이 마음이 가는데...’

딸뿐만 아니라 후작의 부인조차 본 적이 없었다. 듣기로는 몰락 귀족의 딸이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황급히 혼인을 해 버렸을 때에는 모든 귀족들 뿐만 아니라 황제인 자신 또한 적잖이 놀랐다.

그의 친우로서, 또한 황제파의 결합을 위해 적당하고 좋은 여인을 소개해주려던 차에 자신에게 말도 않고 혼인해버린 그가 섭섭하기도 했다.

‘뭐, 그때는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저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혼인 소식을 듣고 7개월쯤 지났을까. 출생신고와 함께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의 그를 보았을 때 서운했던 마음도 잊고 그에게 축하 어린 우정의 타박을 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속도위반은 너무했지 않냐는...

‘지금 추억에 잠길 때가 아니지.’

자신이 염두에 둔 것은 아서의 딸이긴 하나 공작들의 세력도 무시하지 못하는 데다 무엇보다 약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아서의 기세가 한층 험악해졌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하인리히는 알아챘다.

‘제 딸을 넘겨주기 싫다는 거지.’

아서는 뼛속까지 기사이기 때문에 권력에는 그다지 욕심이 없었다. 아니, 필요 이상의 욕망이 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소드마스터가 될 수 있었으리라. 모두가 원하는 차기 황후의 자리도 그에게는 큰 의미가 되지 못할 것이다.

제 딸이 더 중요하겠지.

‘그래서 저 팔불출이 지금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군.’

하인리히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꺼냈다.

“공작들의 의견이 없다면 짐이 의견을 내도 되겠는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폐하.”

눈치를 보고 있던 레임 공작이 얼씨구나 하고 그의 말에 찬동했다. 뱀 같은 레임 공작 또한 아서가 권력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오랜만에 황제와 의견이 일치하던 차였다.

“짐은 인테제르 후작의 여식을 염두에 두고 있네만.”

일부 황제파 귀족들은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고 자신의 여식을 황후로 만들기를 원하는 귀족들은 분하다는 표정을 감췄다. 애초에 가문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므로 대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작의 생각은 어떠한가?”

“폐하, 인테제르가의 후계자는 소신의 여식뿐이옵니다. 폐하의 말씀은 대단히 황송하오나 인테제르가의 천년대계를 끊을 수는 없사옵니다.”

역시나 완강한 거부. 하인리히는 포용력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후작은 아직 젊으니 둘째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은가. 힘 좀 써보지 그래.”

“힘은 열심히 쓰고 있사오나 제 부인이 몸이 약하여 첫 출산 이후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부인을 힘들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하인리히는 머리를 감싸며 끙하고 소리를 냈다. 그러고 보니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영지에서 꼼짝을 하지 않는 후작 부인이었다. 가만히 지켜보던 레임 공작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후처를 들여 새로 후계자를 들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오.”

“본인은 결단코 후처를 들일 생각 따윈 없습니다. 부인도, 자식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애초에 후보가 제 딸만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다른 후작가에도 적절한 영애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허면 후작 영애에게 후작 작위를 물려주겠다는 소리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

리!”

“어째서 말이 안 됩니까? 여식에게 작위 승계가 가능한 것은 법으로도 정해진 사항입니

다.”

선선대황제 재위 시절의 큰 전쟁으로 인해 각 가문의 후계자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어나갔을 뿐만 아니라 빈자리를 지키던 여인들의 권리가 높아졌다.

그 때문에 여인에게도 작위 승계가 가능해지긴 했지만 그것은 대부분 자작가나 남작가 같은 하위 귀족가의 일이었다. 고위 귀족들은 오래된 고집으로 인해 양자를 들여서라도 아들에게 작위를 물려주었다.

“그렇긴 하지만 여인에게 어찌 후작가를...”

“어찌 말이 안 됩니까? 본인 또한 여인이긴 하나 백작가를 이끌고 있는 몸입니다. 그 말, 저희 베알 백작가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중립파의 베알 여백작이 끼어들었다. 그녀의 사업수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여 한미한 백작가였던 자신의 가문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지금도 황실의 물품의 삼 할은 그녀의 상단에서 납품되는 것이었다. 또한 자신이 여인이라고 무시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다.

“자, 자. 짐은 황태자의 약혼녀 후보를 거론한 것뿐이지 후작가의 후계자 문제나 귀족 가문 간의 분쟁을 불러일으키려 한 것이 아닐세. 그만들 자중하게.”

히일리히의 말에 라임 공작과 베알 여백작이 떨떠름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그 모습을 쓴 미소로 무마한 하인리히는 황태자를 힐끗 보았다.

자신은 여러 심복들의 도움으로 세력유지에 성공한 황제이긴 했으나 후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럭저럭은 하고 있으나 자신이 성군이라 생각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거 참, 초대 황제는 어떻게 몇 백 년에 걸친 후대 정비를 성공했는지.’

드래곤과 인간의 혼혈이었다는 초대 황제. 그 치세는 몇 백 년에 걸친 내전 없는 평화를 이루어내었다. 암군으로 기록된 황제의 치정 문제로 그 평화가 깨지긴 했지만 제국의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보았다. 특히 하인리히는 보다 현실적으로 그의 업적을 받아들였다.

“태자는 어떻게 생각하지? 네 약혼자이니 네 의견 또한 묻고 싶구나.”

그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직 어린 탓에 완고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생각이 깊고 다른 이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아들이었으므로.

“어찌 미래의 황후자리를 그리 쉽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천천히 후보들의 인성까지 고려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태자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가 그 많은 후보들의 인성가지 어찌 다 둘러볼 수 있다 만인가.”

히인리히의 말에 황태자의 눈이 반짝 빛났다.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술술 나오는 말은 막힘이 없었다.

“폐하의 말대로 그들을 모두 둘러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온데 몇 달만 지나면 소자는 열셋이 되옵니다. 아직은 미흡하나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고 제국의 사정을 직접 보기 위해 각 지방을 시찰하고 싶사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구나. 네 미래의 배우자를 네가 직접 보고 결정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겠지. 이렇게 탁상공론을 해도 결론이 쉬이 나오지 않을 것이니.”

황제의 찬성에 2황자파 세력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황궁에서 나와 직접 시찰을 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 입지를 세움과 동시에 귀족들의 견제와 감시까지 하겠다는 의미였으므로.

“허나 아직 어리신 전하께는 그런 고행은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훗날 성인이 되신 후에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떠한지요.”

“나는 황위를 이어야 하는 몸이오. 어리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물러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 생각하오.”

황태자의 말에 반대의 말을 한 2황자파 귀족이 입을 다물었다. 그 듬직한 모습을 보고는 하인리히는 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지.”

하인리히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두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는 평소보다 기품 있고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장을 나섰다. 황태자의 입지를 위해, 황권의 강화를 위해 지금은 귀족들을 눌러야 할 때였다.

“베알 백작.”

아리아는 자신을 부르는 낮은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뒤에는 중후한 분위기를 풍기는 인테제르 후작이 서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각하?”

“회의장에서 본인의 편을 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오.”

고개를 살짝 숙이는 그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그녀는 회의장에서는 펼치지 않지만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부채를 착 펼쳤다.

“아닙니다. 저는 남편 복이 없는지라 일편단심이신 후작 각하가 마음에 듭니다.”

아리아는 그저 후계를 잇기 위해 혼인했다. 일부러 작위를 이어받을 리 없는 백작가의 셋째 자제와 혼인하여 아이를 낳고는 남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남편이 싫은 것은 아니었으나 일이 너무나도 바빴다. 그러는 사이에 남편은 멀어졌고, 자신의 부에 기대어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남편에 비해 능력 있고, 애처가인 후작이 좋았다.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국 최초의 여후작을 만드실 것이라면 후계자 교육을 단단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제 사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으니까요.”

“알고 있소.”

“그리고 저보다 작위 높은 여인이 나타나는데 어수룩한 사람이면 배알이 꼴려서 못 참습니다.”

여장부의 당찬 말에 아서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황궁이 아닌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또 다른 여장부가 생각났기에.

‘그나저나 큰일 났군. 황태자를 보는 순간 이리스가 참지 못하고 목을 따버리면 어떡하지?’

상상하는 순간 오싹해져 몸을 부르르 떨자 아리아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서는 괜찮다는 뜻으로 손을 내젓고는 그녀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났으나 해결된 것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골치가 아파졌다고 해야 하나. 아내의 잔소리도 잔소리지만 자신의 딸이 황태자를 만나야 된다는 걱정이 앞섰다. 그 아이는 아직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으니까...

하인리히는 와인 병을 기울여 잔에 따랐다. 불만스러워 보이는 친우를 달래기 위해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오랜 만에 만났는데 계속 그런 뚱한 얼굴로 있을 건가?”

“송구합니다, 폐하.”

“그놈의 폐하 소리 좀 집어치워. 사적인 자리에선 그리 부르지 않기로 했잖아?”

하일리히의 말에 아서는 그의 앞에 놓인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 호쾌한 모습에 하인리히는 킬킬 웃으면서 빈 잔을 채워주었다. 채워진 잔을 또다시 들이켰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리히는 별 말 않고 술잔을 채웠다.

“보고 싶었다, 하인리히.”

“그러면서 수도에 얼굴도 비추지 않았지. 난 자네 부인과 떨어지면 죽기라도 하는 줄 알았어.”

그의 타박에 아서는 속이 씁쓸해졌다. 술 때문이 아니었다. 변함없는 친구가 반갑기도 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그를 대할 순 없었으므로.

‘네 아들이 내 딸을 죽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서는 오래 전 죽은 그를 다시 만나지 못하는 줄 알았다. 현실세계에서도, 꿈같은 지금의 세계에서도 다른 의미지만 하인리히는 아무것도 몰랐고, 알려 줄 수도 없었다.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며칠 독수공방이 그리도 괴로운가?”

“그런 게 아니야. 더군다나 요즘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집사람은 베개부터 던지는 걸...”

“싸웠냐? 그 나이 됐으면 얌전히 부인한테 잡혀 살아야지. 옛날에는 나도 많이 싸웠지만 요즘은 황후 말 잘 들으니까 그럴 일도 없더라고.”

하인리히가 너스레를 떨자 아서는 피식 웃었다. 이번에는 천천히 맛을 볼 요량으로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렸다.

“싸운 게 아니라 내가 큰 잘못을 했거든. 매일 밤 석고대죄를 하는데도 좀처럼 풀리지를 않는다.”

“흠... 후작부인이 한 성격 하나봐.”

구태여 자세한 사정을 묻지 않는 배려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서를 그런 그를 좋아했다.

“한 성격 정도가 아니야. 엄청 무섭지.”

“소드마스터인 자네가 어찌 우는 소리실까.”

‘그거야 종족 자체가 다르니까 우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하인리히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붉은 빛이 강한 와인은 꽤나 도수가 높은 것이었다.

“근데 우리 아들내미의 어디가 맘에 안 차기에 그리 완강한 거부야? 솔직히 좀 섭섭하다.”

“내 마음을 둘째 치고 우리 아가씨가 싫다는데 어떡해?”

“싫어? 왜? 보통 그 나이의 여자애면 왕자님을 꿈꾸는데... 물론 내 아들은 왕자가 아니라 황태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황녀인 우리 딸도 지겹게 말한다고! 왕자님이 보고 싶다고. 보고 싶으면 제 오라비를 보면 될 일인데.”

“그 아이는 당면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정치싸움 같은 데 말려들기 싫어해.”

“그 나이에 그것까지 생각하나, 보통?”

“보통은 아니지. 내 딸은... 특별하니까.”

“특별? 야, 내 아들보다 특별하냐?”

‘특별하다 못해 짊어져야 하는 무게가 다르지. 그리고 네 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죽여 버린다 해도 큰 문제는 안 되고 말이지.’

제국을 이어야 하는 황자는 더 있다. 너무나도 차가운 그 생각에 아서는 스스로도 놀랐다. 하인리히와의 우정이 퇴색된 것은 아니지만 우정과 딸은 비교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까지 싫다하면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이번 일은 이유 정도는 알아야겠다.

뭐가 문젠데? 8살에 불과한 어린아이에게 무슨 짐이 있는 거고.”

“내 딸은... 마법사야.”

그 말에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던 하인리히가 굳었다. 아서가 잔이 넘칠까 병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가만히 그를 바라던 하인리히가 입을 열었다.

“진짜?”

“그럼 거짓말을 하겠냐?”

“흠... 마법사, 마법사 황후라. 전례가 없기는 한데.”

하인리히가 고민에 빠지자 아서는 와인 병을 비우고는 찬장에서 독한 양주를 몇 병 꺼냈다. 전부 하인리히가 아끼는 일급품의 술이었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확실히 마탑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후작이 되나 황후가 되나 별반 차이가 없다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마법사라면 그렇겠지. 그러나 그 아이의 잠재력은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었어.”

‘인간이 아니니까.’

“성인이 되어 재능을 꽃피운다면 마탑의 마법사들이 전부 떼거지로 몰려와도 못 당해낼 거다. 그리고 그 아이는 너무 제멋대로 사는 아이라 황후의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아.”

은근슬쩍 자질의 문제를 삼으며 빠져나가려 했으나 그걸 놓아줄 하인리히가 아니었다.

“이번 참에 마법사들의 특례조항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마탑도 마법사가 제국의 황후가 되면 어느 정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황후의 기본적인 의무만 수행한다면 마법사로서 연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젠데? 왜? 평생 마탑에서 안 나오기라도 하겠대? 그럼 후작위는 어떡하고.”

아서는 짧은 고민에 빠졌다. 하인리히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그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우였고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없었다. 오죽하면 자신의 사생아 문제도 제일 먼저 자신에게 털어놓았을까. 오래전 지금과는 다른 약한 모습으로 죄책감에 떨었던 황제가 아닌 아버지였던 하인리히를 보았다. 그런 그에게 끝까지 거짓을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인리히.”

“왜?”

“지금까지 네게 숨겨왔던 게 있어.”

“...”

하인리히는 아무 말 않고 크리스털 잔을 꺼내 양주를 가득 부었다. 한 모금 홀짝이고서는 잔을 내려놓았다.

“숨기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네 딸이랑 관계된 거냐?”

“음...”

“안사람과도 관련 있고?”

아서가 고개를 들자 하인리히는 별 일 아니라는 투로 말했다.

“8년 전 네가 몰락귀족에게서 신분을 샀다는 건 알고 있어. 철저히 좀 하지 그게 뭐냐. 덮느라고 골치 아팠다고.”

“알고 있었어?”

“네가 얼굴도 안 보여 주기에 호기심이 나서 조사했지. 그러니 네 부인이라는 사람은 한미한 시골 끝자락에서 살고 있더군. 그래서 처리했지.”

“죽였나?”

“죄 없는 내 백성을 왜 죽여. 돈 쥐어주고는 새로 신분을 만들어 외국으로 보냈지. 다른 귀족들에게 들킬 염려는 없을 거야. 나도 정말 어쩌다가 안 거니까. 그래서, 부인

이 평민이었던 게 문제야?”

“그런 간단한 문제였다면 그냥 밀어붙였지. 네게 소개도 하지 않은 건 얼굴을 보이면 문제가 생기거든.”

“문제?”

아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벽에 달린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백금발에 붉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자의 초상화. 초대 황제가 자신의 어머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집무실에 내걸었고, 그 그림은 국정을 수호하는 의미가 되었다. 황제의 집무실에 처음 들어온 관료나 시종은 모두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림 속의 저 드래곤이랑 똑같이 생겼거든.”

그의 말에 그는 등 뒤를 돌아 초상화를 보았다. 어릴 적부터 지긋지긋하게 보아온 여인. 그 미모는 도무지 인간 같지가 않아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수긍하게 만든다.

“음... 그, 확실히 소란은 일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나? 해봤자 잠깐의 가십밖에 안 될 텐데.”

“...안사람은 인간을 싫어해. 사교계에 끌고 나가면 그 장소에 있는 인간을 전부 죽여 버리려 할지도.”

“마치 네 부인이 인간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 본인이냐? 설마?”

“본인은 아냐.”

“그렇지? 설마 본인은 아니겠지. 그냥 사람을 싫어하는 것뿐이지? 성격이 좀 과격... 아니 드세고.”

“쌍둥이 여동생이다.”

그 말에 하인리히는 입에 넣은 술을 그대로 뱉었다. 마치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것 같은 얼얼한 충격이었다.

‘쌍둥이 여동생? 드래곤의 쌍둥이 여동생은 드래곤 아냐?’

순간 아서가 농담이나 허풍을 떠는 건가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성격이 아니었다. 그의 진중한 얼굴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네 부인은 인간이 아니다?”

“그렇지.”

“그럼 네 딸은 초대 황제와 같은 인간과 드래곤과의 혼혈이겠네.”

“음.”

하인리히는 술잔에 담긴 술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리고는 한 잔 더 따라 남김없이 마셨다.

“아무래도 내가 취했나보다. 헛소리가 들리네. 오늘은 이만 마시자.”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인리히를 아서가 불러 세웠다.

“취한 것 아니니까 앉아. 난 엄청난 고민 끝에 털어놓은 거라고. 그 때문에 황후로 올리기 곤란한 거야. 여러모로 골치 아파지니까.”

하인리히가 다시 자리에 앉아 손깍지를 끼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따지고 보면 초대 황제의 사촌누이. 그리고 개국공신인 인테제르 후작가의 적통. 심지어 아서의 모친은 선황과는 달리 황후 소생의 적녀였다.’

제국법의 1조항. 황제의 자리는 드래곤의 피가 가장 짙은 자가 잇는다. 그러나 설령 황제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조항이었다. 천년이나 되어 그 피는 옅어져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난 이상 사정이 달라진다.

‘황위를 빼앗기지는 않겠지만 명분상 황위계승권은 주어진다. 그것도 아마 황태자 다음 가는. 게다가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달라붙을 인간들은 생각하면...’

“네 딸을 황제로 만들 생각은?”

하인리히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다. 황제의 눈이었고, 황제의 질문이었다.

“그럴 리가. 난 그저 그 아이가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야. 원래는 끝까지 숨기려 했어.

난 널 믿기에 말한 거다.”

“그래? 그럼 덮자.”

깔끔하게 계산을 마친 그는 빙긋 웃었다. 드래곤이 버티고 있는 이상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는 사안이었다. 그쪽이 덮길 원한다면 자신도 얼씨구나 하고 덮는 것이 최선이었다. 순식간에 황제에서 친우로 돌아온 하인리히가 진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다 그런 엄청난 여자를 잡았냐.”

아서는 양주를 병째로 들이키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잡은 게 아니라 잡힌 거야.”

나는 오늘도 기분 좋게 히페리온과 차를 마시러 나왔다. 그런 내 손에는 다과가 아닌 두꺼운 책이 들려 있었다. 전생의 내 유일한 취미는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것이었다. 이미 대부분 오래전에 읽은 책들이지만 히페리온과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다. 더군다나 오늘 고른 책은 전쟁사에 관한 것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만큼을 질 수 없었다.

“오늘에야 말로 그 건방진 콧대를 눌러주고 말겠어!”

그와 내가 살아온 시간은 다르다. 그 지식의 양도 비교가 되지 않지. 그러나 그의 한 가지 단점은 인간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는 의견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 항상 반박당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던 차에 그가 권한 이 책은 내 의욕을 불태웠다.

“나 왔어요, 히페리온.”

불과 두 달도 안 되었지만 너무나도 익숙해진 탓에 노크는 가볍게 생략하고 문을 열었다. 대부분은 문을 열기도 전에 그가 맞아주거나 열면 바로 히페리온이 서 있었기에 오늘도 그럴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집 안은 무척이나 고요했다.

“히페리온?”

그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붉은 머리카락의 사내가 히페리온의 침실에서 나왔다.

“안녕, 아가씨? 히페리온은 잠들었어.”

장난스럽게 말하는 그의 눈은 붉은 색이었다.

‘하긴 드래곤의 마을인데 인간일 리 없지.’

불타오르는 붉은 머리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물론 그에게 감정은 없었으나 그냥 기분이 나빠졌다.

“누구예요?”

“아스타의 제자. 히페리온의 친구.”

나는 책을 적당한 곳에 내려놓고는 그에게 다가갔다. 싱글벙글 웃는 그의 감정은 어쩐지 거북한 느낌이었다.

“너, 아스타의 조카 맞지? 요즘 히페리온이 죽고 못 사는.”

“죽고 못 사는 건 아니죠. 아직도 열심히 꼬시는 중이거든요.”

“쿡! 재밌는 아가씨네. 그놈이 잠도 안자고 널 기다릴 만하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꼬마한테 반하냐.”

그가 장난스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며 물었다.

“잠을 안 자다니요?”

“아아. 너 만나는 동안 연구를 못하니까 잠잘 시간에 연구했거든. 피곤해보이기에 재웠

지.”

“히페리온이 순순히 잠들었어요? 항상 나 기다리던데.”

내 물음에 그가 피식 웃었다. 그리고는 주먹을 들어올렸다.

“그럴 리가. 깔끔하게 기절시켰지.”

“...”

“그놈이 나보다 강하긴 하지만 맨날 책상놀음만 해서 좀 둔하거든. 기습 뒤통수 일격이면 기절정도는 시킬 수 있지.”

‘이 사람, 왠지 우리 엄마 닮았어.’

어쩐지 아스타의 제자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제자라고 하는 편이 믿길 것 같았다.

“그런 고로 오늘은 내가 놀아줄게. 참, 내 소개를 안 했네. 내 이름은 카일루스야. 아가씨는?”

“시엘이에요.”

“시엘, 시엘이라. 좋은 이름이네.”

내 이름을 곱씹듯이 발음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어쩐지 그 미소에서는 아스타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다. 그제서야 거북했던 느낌이 사그라들었다.

“뭐 하고 놀아줄 건데요?”

“뭐 하고 놀아줄까?”

볼을 매만지며 고민에 빠졌다. 기왕 온 거 히페리온은 보고 가고 싶으나 그가 언제 깰 지도 모르니 기다리기도 뭐했다. 그렇다는 것은 카일루스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처음 본 사람하고 뭘 한단 말인가.

그런 내 눈에 포착된 것은 아까까지만 해도 보기 싫었던 붉은 머리였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짧은 머리를 유지했지만 히페리온도, 카일루스도 긴 머리였다. 드래곤의 종특인가 잠시 생각하다 그에게 손짓해 소파 위에 앉혔다.

“뭐하게?”

귀여운 동생 보듯이 날 보는 카일루스의 머리를 돌리고는 그의 머리를 매만지기 시작했다. 관리라도 하는 건지 굉장히 부드러운 머리였다.

“가만히 있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의 머리를 땋기 시작했다. 히페리온의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생각했던 것을 다 해볼 요량이었다. 카일루스는 약간 당황한 듯 보였다.

“응? 뭐하는 거야?”

“예쁘게 만들어 줄 테니 가만히 있어요.”

어쩌면 수컷 드래곤은 괴롭히기 좋을지도 모르겠다.

히페리온은 얼얼한 뒤통수를 매만지며 일어났다. 날아오는 카일루스의 주먹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짐작가지 않았다.

‘기절이랑 수면은 다른 거라고. 미친놈아.’

시엘은 벌써 돌아갔을까.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밖에서 하이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하하하!”

시엘이었다. 아직 돌아가지 않은 건가. 그렇다 쳐도 저 웃음소리는 무엇인가.

‘설마 카일루스랑 같이 있는 건가?’

황급히 방 밖으로 나가자 소파에서 뒹굴고 있는 시엘이 보였다. 그리고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는 카일루스의 뒤통수 또한.

“재밌어, 아가씨?”

지친 듯한 카일루스의 말에 시엘이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으려 노력했다. 그러다 이내 히페리온을 발견하고는 반가움을 내비쳤다.

“어, 히페리온!”

그러자 카일루스가 뒤를 돌았다. 앞에서 보니 그 몰골을 상상 이상이었다. 카일루스는 남성적인 인상이 강했기에 양갈래가 무척이나 어울리지 않았다. 시엘에게 괴롭힘 당한 모습을 보니 그의 면상에 한 방 날려주겠다는 마음도 눈 녹듯이 사라졌다.

“쿡!”

히페리온이 짧은 웃음을 흘리자 카일루스는 양갈래 머리를 풀었다. 시엘은 아쉽다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좋아. 저놈 자는 동안 아가씨랑 놀아줬으니 나는 이만.”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황급히 일어나는 카일루스를 붙잡을 마음은 없었다. 이제는 자신이 시엘을 독차지할 시간이었으므로 그가 얼른 사라지기를 바랐다.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놀아줘요.”

“괴롭힘 당하는 건 한번으로 족해, 아가씨. 다음에 또 보자.”

미련 없이 떠나는 카일루스를 보내고는 히페리온은 시엘의 맞은편에 앉았다. 평소보다 물기가 어려 반짝이는 눈은 아름다웠으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신이 아닌 카일루스로 인한 모습이었기에.

‘아...’

그것은, 자연스러운 깨달음이었다. 그러나 굳이 입 밖에 꺼내거나 표현할 만큼 히페리온은 성급하지 않았다.

“잘 잤어요?”

“잔 게 아니고 기절한 겁니다.”

“그럼 오늘 밤에는 꼭 자요. 알았죠?”

“...”

“안자면 나 화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히페리온의 대답에 시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소파의 팔걸이에 팔을 괴고

는 말을 꺼냈다.

“시엘.”

“네?”

“당신에게 마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대신...”

“대신?”

“당신을 연구하게 해 주십시오.”

“...인체실험은 거절할게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천룡은 당신을 포함해 역사상으로 단 세 개체밖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프 드래곤의 자료 또한 부족한 실정이고요. 어쩌면 당신을 관찰하는 게 제 연구에 도움이 될 지도 모릅니다.”

히페리온이 연구하는 것은 인간과 드래곤의 본성에 대해서였다. 두 종족의 차이를 연구

하면 드래곤의 본질을 밝힐 수 있다는 게 그의 가설이었다. 그런 그에게 드래곤의 힘과 인간의 사고방식을 가진 하프 드래곤은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라는 것이 그의 변명

이었다.

“저야 바라던 바죠. 그렇지만 연구하느라 안자면 안 돼요!”

“주의하겠습니다.”

기쁜 듯이 미소를 짓는 시엘을 보고서는 히페리온은 검은 속내를 삼켰다. 드래곤의 세계에서는 스승이 반려가 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지금부터 마법을 배우기는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네요. 내일 다시 올게요.”

히페리온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나자 그는 희열어린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 그와는 반대로 문 너머에 있는 시엘의 표정은 무감정했다.

‘타인의 감정을 알아채는 데는 예민하다고 했건만.’

작게 한숨을 짓고는 아스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 따윈 진

작 알고 있었다. 숨기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딱히 지금은 뭐라 안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가 필요하다. 그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긴 해도 못할 것은 없었다. 다만 그 마음이 너무 커지기를 바라지 않을 뿐이었다. 언젠가 자신이 그를 상처 입힐 때를 위한 배려였다.

“미안하지만 난 임자 있는 몸이라서 말이죠.”

“다녀왔습니다.”

기분 좋게 귀가를 했으나 나를 맞아주는 것은 어머니의 분노였다.

“당신 미쳤어요! 그걸 말하면 어떡해!”

통신구 너머의 아버지를 향한.

“아니, 그게... 너무 물고 늘어져서 말이야. 하인리히도 덮겠다고 하고.”

“그래도 그렇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저지르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집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귀를 막고 있던 아스타가 나를 발견하자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렴, 시엘.”

“분위기가 어서 올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제야 어머니도 내가 온 것을 알고는 목소리를 죽였다. 통신구을 내리치고는 어머니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집에 가서 봐요.”

통신이 끊어짐과 함께 깊은 한숨을 들려왔다. 어머니는 비장한 얼굴로 내 어깨를 잡았다.

“딸, 아무래도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다.”

“네? 이제야 겨우 히페리온을 함락시켰는데요?”

“어머, 그놈이 이제야 백기를 들었니? 쓸데없이 고집만 세서는.”

“아니, 그보다도 왜요? 반년 정도는 있을 계획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난처한 얼굴로 대답하기를 주저했다. 그런 어머니 대신 아스타가 대신 말했다.

“황태자가 너를 만나러 온다는구나.”

그 말에 난 그 자리에서 딱 굳어버렸다. 수도에 가기를 꺼려한 것도 애초에 그를 피하기 위함이었는데 아예 찾아온다니 그 무슨 소리인가.

“왜요?”

“미래의 자신의 부인을 직접 선택하기 위함이라니 뭐니 하는데 보기 싫으면 그냥 엄마가 처리할게.”

그 처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이 갔다. 나는 어머니를 말릴까 말까 고민하다 결심을 굳혔다.

“됐어요. 살려두세요.”

“어째서?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

“전생에서 그 여자는 그를 이용했어요.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니 살려두면 이번에는 제가 이용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필요하다면 제가 죽일게요.”

내가 죽여야 했다. 그를 향한 원한을 어머니에게 맡겨둘 생각은 없었다.

‘뭐, 그는 아무것도 모르니 죽이는 건 좀 그런가?’

솔직히 영문도 모르고 죽는 것은 좀 억울할 것 같긴 하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 전생에 날 학대한 건 그인데.’

필요가 있으면 살려두고 아니면 죽인다. 그렇게 결론짓고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뭘 다 말해요?”

“그게... 네 아버지가 황제에게 너와 나의 정체를 다 말했다더구나.”

“네?”

조금 놀라기는 했으나 현 황제를 떠올리고서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그는 꽤 현명한 황제라고 평가받고 있는 데다 전생에서의 기억으로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 신중하고, 타인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점이 좋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점은...

‘어차피 5년 후면 죽을 사람인데, 뭐.’

내 정체를 밝혀봤자 황제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없다. 오히려 황권에 위협이 갈 수도 있다. 우선은 입을 다물 것이 자명했다. 그렇게 어물어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진실을 아는 자는 죽을 것이다.

‘게다가 딱히 약점도 아니고.’

전생에서는 불분명한 어머니의 출신이 내 약점이었다. 그러나 평범한 몰락 귀족도, 평민도, 창녀도 아닌 무려 드래곤이다. 그것이 드러나면 내게 득이 되면 되었지 실은 없다. 힘을 노리고 달라붙을 인간들이 싫어 숨기는 것뿐.

‘내 꿈은 칼립스랑 알콩달콩 사는 거니까.’

그가 보고 싶어 졌다. 무뚝뚝하지만, 다정한 미소를 지닌 그를. 그의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지금쯤이라면 그는 아마 황태자 휘하 기사단의 종자로 일하고 있을 것이다. 직접 만나는 것은 힘들겠지만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 황태자를 만나는 것이 꺼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기다려졌다.

“히페리온, 있어요?”

“평소보다 빨리 오셨군요. 무슨 일 있습니까?”

“그게... 미안해요. 나 아무래도 잠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내 말에 히페리온이 인상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예?”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일이 끝나면 바로 돌아올게요.”

나는 손을 모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를 빤히 바라보던 히페리온

은 굵은 책 한 권을 내게 건넸다.

“받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마탑이라는 곳에서 만든 마법서입니다. 기초적인 마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요. 한 달 뒤에 오십시오.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마법을 전부 마스터하고, 드래곤의 마법 원리를 깨우친 다음 질문 하나만 만들어 오십시오. 숙제입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수업 한 번 한 적 없는데 무슨 숙제란 말인가.

“저기요. 히페리온?”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문제고 자시고 난 마법의 마자도 몰라요. 이걸 던져주고는 어쩌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당신의 지식수준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 안

되면 포기하시던가요.”

약간 깔보는 듯한 그의 눈빛에 오기가 생겨 입술을 부루퉁 내밀었다. 그리고는 일부러 쌀쌀맞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됐어요! 질문의 답까지 알아서 구해올 테니까 두고 봐요!”

씩씩대면서 그의 집을 나서자 어머니가 양 손 가득 짐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그러니?”

“어머니, 히페리온이 제대로 가르쳐주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다짜고짜 책만 던져

주고 알아서 공부 해오라 하고.”

평소였다면 내 우는 소리를 받아주었겠지만 어머니는 시선을 회피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하니 어머니의 교육방식이 생각났다.

‘마력 운용 시범만 보여주고 바로 몬스터 소굴에 버려졌다고 했지.’

히페리온의 방식 또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나 어머니에 비하면 상당히 나은 걸지도 모르겠다. 어머니는 입을 가리고 웃으며 당황을 감추려 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어서 가요. 아버지가 기다리셔요.”

익숙하게 나를 감싸는 따스한 마력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히페리온의 집을 힐끗 쳐다보았다.

덜걱덜걱.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지나느라 바퀴소리와 함께 마차가 약간 흔들렸다. 어머니와 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텔레포트한 후, 마차를 잡아타고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시엘, 엄마는 황태자의 접대에 나설 생각이 없단다. 적당히 몸이 안 좋다고 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셈이야. 가문의 안주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겠니?”

“그건 문제없지만. 왜요? 역시 못 참으시겠어요?”

어머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저택의 하인들 또한 최소한으로만 두고 번잡하게 지나다니는 것을 금했다. 황태자도 황태자지만 그의 수행원들이 저택을 돌아다닐 것을 생각하니 나 또한 절로 기분이 안 좋아졌다.

“그게 아니라... 황태자가 엄마 얼굴을 알고 있거든.”

“네? 어떻게요?”

“정확히 말하면 아스타의 얼굴이지. 황제의 집무실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얼굴을 보이기가 꺼려지는구나.”

전생에서는 황제의 집무실 따윈 발걸음 해 본 적 없었다. 초대 황제의 모친이었던 드래곤이 수호하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그 드래곤은 아스타였다. 정작 본인은 저 멀리서 초연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 욕망이 뒤섞인 국정을 수호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했다.

“알겠어요.”

짧게 수긍을 한 나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떠나기 전, 아스타가 내게 준 것이었다. 구하기 힘든 하늘색의 안료가 칠해진 드래곤은 황가의 문장의 초기 형태였다. 그녀가 준 것이니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

목에서 빼내 품속에 넣은 후 마차의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황태자 전하를 뵈옵니다. 친히 본가를 방문해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인테제르 후작과 가솔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말은 예의 바르지만 무뚝뚝한 분위기가 그의 성정을 보여주었다. 이전에 방문한 귀족가들은 하나같이 내 마음에 들기 위해 안절부절못했으나 후작만은 달랐다.

“고개를 드시오. 이리 환대를 해 주니 나 또한 몸 둘 바를 모르겠소. 헌데... 후작부인은?”

“안사람은 황태자 전하를 맞을 준비를 하느라 그만 무리를 하여 고뿔이 났습니다. 전하께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직접 맞이하지 못 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후작이 엄청난 애처가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천년에 걸친 후작가의 가주가 몰락 귀족 따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 게다가 교묘히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 심기를 찔렀다.

“아니오. 후작부인이 몸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 나 때문에 괜히 부인을 고생시킨 점은 미안하오. 뒤에 있는 사랑스러운 레이디가 후작의 여식인가?”

후작과 척을 질 수는 없기에 웃으며 주제를 전환했다. 고개를 살짝 숙인 탓에 눈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늘색의 머리카락이 인상적인 여자아이였다. 내 물음에 그 아이는 한발 앞으로 나오더니 예를 취하며 인사했다.

“황태자 전하를 뵈옵니다. 인테제르 후작가의 장녀, 시엘이라 합니다.”

시엘, 고어로 하늘이라는 의미였다. 그녀의 머리와 잘 어울린다 생각한 순간, 붉은 눈이 드러났다. 새빨간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황태자인 나를 보면서도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

‘아무것도 읽을 수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황태자였던 나는 타인의 눈을 보고 감정을 읽는 것을 훈련받아왔다. 기사들의 충성심도, 귀족들의 간사함도, 후작의 불쾌함마저도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저 작은 여자아이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거지?

“그대와는 처음 보는군. 내 이름은 이미 알겠지만 이리 만났으니 내 인사를 해야겠지. 제국의 황태자, 라트로 폰 유피테르라고 한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입에 담았지만 그 눈은 변함없었다. 그 시선에 오싹해졌다. 만나왔던 영애들은 한 결 같이 부담스러운 감정만을 담고 있었으니까.

게다가 외모 또한 나를 사로잡았다. 하늘색 머리에 붉은 눈은 초대 황제가 가졌다는 신비로운 빛깔이었다. 아직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아름다운 얼굴까지. 사교계에 진출하면 크게 칭송을 받으리라.

“나야말로 만나서 기쁘군.”

작은 손을 잡아 그 위에 입을 맞췄다. 검술 훈련으로 어느 정도 굳은살이 잡힌 내 손과는 달리 아직 말랑말랑하고 따뜻했다. 고개를 들자 처음으로 감정을 담은 그녀의 눈이 보였다. 그 감정은 불쾌함이었다.

‘내가 싫은가?’

손을 놓아주자 남들에게 티가 나지는 않을 정도로 빠르게 손을 거뒀다.

“지내실 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후작은 눈치를 챘는지 그녀와 나를 갈라놓으며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괜히 뭐라 할 생각은 없었기에 그의 안내대로 따랐다. 후작에게 말을 걸며 조용히 뒤를 따라오는 그녀를 힐끗 훔쳐보았다.

‘허...’

교묘한 손놀림으로 치맛자락에 손등을 문대는 행동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어찌 그러십니까, 전하?”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오.”

작은 웃음을 흘리며 묻는 후작을 보니 어쩐지 열이 치받았지만 미소로 응답하며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황제, 아직은 황태자인 라트로의 얼굴을 보자 오래 전의 일이 떠올랐다.

“황후. 그대를 볼 때마다 짜증이 치민다.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어!”

그 후로 시작된 것은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공식석상이나 합방일 같은 어쩔 수 없는 날을 제외하고는 접점 없는 삶을 살았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고 그 또한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나를 향한 이유모를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가 두려웠다. 매를 맞는 것도 싫었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싫어하는 그가 싫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꼬맹이잖아.’

물론 기분은 나빴다. 내 손에 입을 맞추는 것도, 미소 짓는 것도 소름 끼쳤다. 그래도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것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문제네.”

내 방으로 돌아와서는 히페리온이 준 마법서를 펼쳤다. 생각보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수식도 풀 수 있었고 마법진의 구조도 이해할 수 있었다.

‘문제는 마력이 조절되지가 않아.’

마법을 시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 이상의 결과가 나와 버렸다. 물방울을 만들려고 했는데 흠뻑 젖어버린다거나, 찻잔을 들어 올리려 했는데 테이블이 들린다던가.

“왜 이러지 진짜...”

마법의 형태를 규정하는 것은 마법진, 마력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수식. 진과 수식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나 일반인도 가능한 간단한 마법조차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아...”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었기에 마법서를 옆구리에 끼고는 아버지의 개인 연무장으로 향했다. 지하에 있는 개인 연무장은 소드마스터인 아버지의 검기에도 견딜 수 있었기에 내 마법으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미 침대를 하나 부순 전적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특별히 내주신 장소였다.

“좋아. 그럼 심기일전해서...”

마력을 느끼고 마법진 안에 주입한다. 뭔가 느낌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뜨자 마법진은 빛나고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엥? 불덩이 어디 갔어?”

마법이 실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결과물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불이야!”

“설... 마...”

설마 설마 하며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가니 황급히 돌아다니는 하인들이 보였다. 저택에 있는 양동이란 양동이는 전부 찾아다니면서 움직이는데 소용없는 몸부림이었다.

‘마력을 담은 불은 웬만해서는 안 꺼질 텐데!’

불인 난 곳은 창고 쪽인 듯싶었다. 황급히 그쪽으로 가려는 나를 붙잡는 것은 라트로였다.

“놓아주십시오.”

“설마 화재가 난 곳으로 가려는 것은 아니겠지? 그대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나. 가만히 저택에 있는 게 방해되지 않는 일이야.”

“지금 방해는 전하께서 하고 계십니다.”

“뭐라?”

내 말에 내 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마음만 같아서는 강제로 뿌리치고 싶으나 섣부른 무례는 곤란에 빠질 수도 있었다.

“손님이 오신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죄송스러운 일이나 이것은 저희 가문의 일이고,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를 노려보던 라트로가 내 팔을 놓아주었다.

“그대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냐만은... 레이디를 그냥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나도 함께 가겠네.”

“그러시지요.”

지금은 그와 실랑이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치맛자락을 붙잡고서 열심히 뛰기 시작했다.

“물을 더 가져와!”

“불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열심히 물을 끼얹었다. 불똥이 튀는 가운데 한 하녀가 나를 발견하고는 다급히 말했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어서 몸을 피하세요!”

나는 숨을 삼키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전부 물러나!”

쩌렁쩌렁한 내 말에 하인들이 손을 멈추고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는 와중에도 불

은 넘실거리며 춤추고 있었다.

“아가씨?”

“그게 무슨...”

“전원 일정 거리 이상 물러나도록.”

어느새 온 것인지 아버지가 내 어깨를 잡고는 크진 않지만 위엄 있는 목소릴 말했다. 하인들은 양동이를 수습하고는 슬금슬금 물러났다. 모두가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자 나

는 치솟아 오르는 불길 가까이로 다가갔다.

“아가씨!”

눈을 감고는 다시 한번 마력을 끌어올렸다. 외워두었던 마법진을 이미지를 떠올렸다.

“라쿠스.”

눈을 뜨니 화염 위로 거대한 물 덩어리가 생성되었다. 그걸 떨어뜨리니 불의 기운이 약간 약해졌다.

‘아직 부족해. 상상하자. 상상하자.’

불타고 있는 건물 주변을 무수한 마법진들이 감싸기 시작했다. 일일이 수식을 계산할 집중력은 없었다. 적당히 마력을 때려 붓고 마법을 시전 하는 수밖에...

“라쿠스!”

생성된 물들이 일제히 터지고 불이 삽시간에 가라앉았다. 하인들이 경악스러운 신음소리를 삼켰다. 남아있는 불씨는 평범한 물로 끌 수 있을 듯싶어 손을 거뒀다. 일이 끝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감으로 굳은 몸이 풀어지자마자 다음 일이 벌어졌다.

펑!

화려한 소리와 함께 머리 위로 물벼락이 떨어졌으니까.

“아가씨!”

“세상에...”

힐데가 황급히 내게 다가와 나를 감쌌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손길을 받고 있는데 기분 좋은 듯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하...”

“아버지!”

내 볼멘소리에 아버지가 내게 다가와 재킷을 덮어주었다. 젖어서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떼 주면서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건물 하나쯤은 해 먹어야 인테제르 가의 후계자라 할 수 있지!”

“...”

“힐데, 시엘을 데려가서 씻기게. 그리고 부인에게 혼쭐이 나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아가씨, 이리 오세요.”

힐데의 뒤를 따라 저택으로 돌아가는데 멍청히 나를 보는 라트로와 그의 기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라트로를 힐끔 보고는 포근한 냄새가 나는 재킷을 여몄다.

나는 침대에 누워 황궁을 떠나기 전의 일을 떠올렸다. 아바마마는 약혼녀 후보에서 시엘

을 제외하라는 말을 하셨다.

“어째서입니까? 인테제르 후작 영애를 마음에 두셨던 건 폐하가 아니십니까?”

“...이유가 있단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되겠지만 일단은 후작 영애는 웬만하면 마음을 두

지 말거라.”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인테제르 가의 영지에 도착했다. 인테제르 후작이 자신과 2 황

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에게 압박을 넣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괘씸하군.’

훗날 황제가 될 자신의 장인어른 자리를 그리 쉽게 거절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회의에서 적대감을 내세우는 그의 행동이 심히 거슬렸다. 후작 영애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얼토당토않는 변명도 그렇고...

‘얼굴이나 확인해보자는 심산이었지.’

한낱 후작가에 자신이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기에 편한 마음으로 갔다. 지금껏 머무른 영지들에서 충분히 시달렸기에 휴식이 필요했다. 작은 호기심 정도만 가진 방문. 그럴 터였다.

“예뻤지.”

한창 욕구가 들끓을 나이라는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고작 여덟 살짜리에게 심장이 뛰었다.

단순히 얼굴이 예쁘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인간의 외모 같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말랑한 작은 손과 몸짓, 무엇보다 그에게 관심 없는 눈이 나를 자극했다.

“나 혹시 취향이 이상한가?”

침대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 나온 결론에 벌떡 일어났다. 하늘을 담은 그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손에 넣고 싶었다.

“그렇지만 약혼녀로 삼기에는... 괜찮지.”

그녀의 입지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 개국공신 가문의 적녀, 소드마스터의 딸. 게다가 그녀의 외조모는 적통 황녀였다. 흠이라고는 후작부인의 출신뿐이지만 신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약혼녀로는 그녀가 가장 괜찮은데... 어째서 아바마마는 그리 쉽게 포기하신 거지?”

후작이 아버지의 막역한 친우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사적인 감정에 휘

둘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대로 놓아주기에는 아깝지.”

무엇이 어찌 되었든 일단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으로 나서려던 찰나, 누군가가 큰 목소리로 소리쳤다.

“불이야!”

저택의 하인들이 화재를 막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호위 기사들은 나를 감싸며 말했다.

“전하, 저희가 상황을 살펴보겠사오니 방 안에 계시옵소서.”

내 목숨을 노린 자들의 소행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판단한 호위대장이 기사 한 명을 보냈다. 창문이 달린 방 안에 있는 것이 불안해 호위대장에게 말했다.

“내려가지.”

“허나 전하...”

“사람 없는 이 방보다는 차라리 밖에 더 안전하네. 후작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나을 걸세.”

소드마스터의 옆에 있으면 기사단 하나가 몰려와도 상관없으리라. 호위 기사들 모두가 그것에 동의하는 바였다. 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밖으로 향하는 길에 하늘색의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바쁜 듯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뭐...”

시엘의 옆에는 하녀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방비하게 혼자 있다니 이 얼마나 경솔하단 말인가. 나는 기사들을 밀치고 그녀를 붙잡았다.

“설마 화재가 난 곳으로 가려는 것은 아니겠지? 그대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나. 가만히

저택에 있는 게 방해되지 않는 일이야.”

지켜야 한다.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강박감이 마음을 좀먹었다.

“지금 방해는 전하께서 하고 계십니다.”

“뭐라?”

“손님이 오신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죄송스러운 일이나 이것은 저희 가문의 일이고,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지긴 무슨! 이런 가느다란 팔로 뭘 어쩌겠다는 것이야! 너 같은 어린아이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화는 중간에서 멈춰버렸다. 그녀의 눈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까처럼 불쾌감이 담긴 것도, 혹은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자신은 너무나도 작고도 하찮은 존재였으니까.

‘하찮다니...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버렸을까. 그 답을 내기도 전에 시엘은 내 손을 뿌리쳤다. 더 이상 그녀를 잡을 수 없다. 잡을 수 없다면 따라가는 수밖에...

“그대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냐만은... 레이디를 그냥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나도 함께 가겠네.”

시엘은 내 말은 신경도 쓰지 않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 나갔다. 하인들을 물리고 불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만 해도 재빨리 그녀를 끌고 나오고 싶었다. 그러나 시엘은 그런 걱정 따위는 한 방에 날려버리고 화재를 진압했다.

“마법?”

뒤에 서 있던 호위 기사가 홀린 듯이 중얼거렸다. 마법을 보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방금 시엘이 보인 것만큼 강력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아직 힘의 조절이 미숙한 듯 그녀는 물벼락을 맞아 흠뻑 젖고 말았다.

“아가씨!”

한 여인이 황급히 그녀를 감쌌다. 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후작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둘러주었다. 후작의 애정 어린 꾸지람을 듣는 그녀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아름답다.’

아름다웠다, 붉은 눈에 담긴 애정이, 사랑스러움이. 그러나 그것은 나를 힐끔 바라 보고 지나친 순간 사라져 버렸다.

“자, 모두들 불씨를 마저 진압하고 정리하게. 창고가 무너져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후작이 하인들에게 지시하자 하인들은 익숙한 듯이 자신의 일을 찾아 정리를 시작했다.

“전하,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합니다. 시엘에게 단단히 주의를 시켜놓을 터이니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애가 한 일인가?”

“아직 마법을 배우는 단계인지라 사고가 일어난 모양입니다. 전하께서 계시는 동안은 마법을 금지시킬 터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아니오. 굳이 그럴 필요 없소. 오히려 좋은 구경거리를 볼 수 있었소.”

“이참에 전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여식은 마법사가 될 인재입니다. 그런 인재를 황후 자리로 속박하기에는 이 제국에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약혼녀 문제는 내 생각해 보겠소.”

‘생각해보긴 무슨...’

어찌 그녀를 놓칠 수 있을까. 후작 영애라서, 마법사라서가 아니다 그녀 자체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이다.

‘가져야겠어,’

언젠가 그녀가 방금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여준 눈빛을, 아니 아예 그녀 자체를 전부 가져야 한다.

힐데는 수건을 내려놓고 어느 정도 마른 머리를 빗질하기 시작했다. 사각거리는 그 감촉이 기분 좋았기에 눈을 감았다.

‘마법이 성공했어.’

비록 마지막은 집중력이 흩어져 실패했지만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다.

‘어째서? 마력을 조절하고 증폭시켜주는 수식을 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마력조절이 쉽다니.’

수식을 잘못 풀었던 것일까. 아니, 아니다. 잘못 푼 것이라면 아예 마법이 발동되지 않았어야 했다.

“모르겠다.”

“아가씨, 움직이지 마세요.”

“알았어.”

어느새 빗질을 마치고 내 머리를 땋고 있던 힐데가 잔소리를 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아직까지 붉은 눈은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붉은 눈은 드래곤의 상징이란 말이지...’

내 절반은 드래곤이기에 붉은 눈을 가진다. 마력 또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짧은 수명과 본성은 인간의 것. 그렇기에 그 찰나의 생애 동안 드래곤이 침범하지 않는 영역에 발을 들일 수 있다.

‘그 침범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게 뭔데. 하여간 말은 아리송하게 해서는...’

히페리온의 말은 대부분 의미심장한 것들이었다. 다짜고짜 마법서를 던져주던 그 낯짝을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이가 갈렸다.

‘일단 그 양반한테 한 방 먹이려면 마법서부터 떼야하는데 감이 잡힐 듯 안 잡히네.’

“오늘 저녁식사는 황태자 전하와 함께 드시는 건가요?”

“응? 아무래도 그렇겠지.”

“황태자비가 되는 건 싫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자님의 신부가 되고 싶다고 하시더니.”

“힐데, 황태자는 왕자가 아니야. 내가 바란 왕자는 나를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였어.”

“그럼 아가씨의 왕자님은 어디 계시려나.”

힐데는 기분 좋게 콧소리를 내며 리본을 묶었다. 나는 힐데의 장난스러운 대답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맞다! 힐데, 나 잠시 나갔다 올게.”

“예? 어디 가세요?”

“내 왕자님 만나러.”

당황한 표정의 힐데에게 씩 웃어주었다. 화장대에서 떠나려는 순간 거울을 다시 한번 보았다.

“힐데, 나 이상한 데 없지? 머리 다시 할까? 아무래도 좀 더 꾸미는 편이 나으려나?”

하얀 드레스는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머리의 일부분을 땋아 묶은 리본이 너무 어린아이 같아 보였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해드릴게요.”

“반으로 묶어서 올려줘.”

머리끈이란 머리끈은 다 꺼내고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망설임 끝에 옷이랑 잘 어울리는 하얀색 리본을 힐데에게 건넸다.

“올리라고요? 아가씨 나이에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머리핀 때문에 따가우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 그냥 해줘.”

힐데의 손이 바삐 움직여 순식간에 반 묶음 머리를 완성했다. 전생에는 주로 머리를 전부 올렸지만 단 한 번, 이 머리를 했을 때 그가 아름답다 말해준 적이 있었다. 비록 그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다녀올게.”

“설마 저택 밖으로 나가시려는 거예요? 그 왕자님은 어디 계신데요?”

“아니, 그냥 별채에 잠시 들르려는 것뿐이야. 기사단 좀 둘러보고 올게.”

“기사님들 훈련하시는데 방해하시면 안 돼요.”

“알고 있어.”

걱정 말라는 듯이 손을 내젓고는 방을 나섰다.

‘열두 살쯤 되었겠지.’

열다섯에 견습 기사가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황태자 휘하 기사단의 종자였다 들었다. 황태자 휘하 기사단은 호위 명목으로 따라왔고 근접 호위를 제외하고는 영지 기사단의 연무장과 가까운 별채를 내주었다. 아마 지금쯤은 연무장에 있을 것이다. 나는 연무장

을 향해 바삐 걸음을 움직였다.

부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다.

연무장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도착하자 나는 숨을 내쉬었다. 저 멀리서 기사들의 우렁찬 기합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기사들의 인영만 볼 수 정도의 거리였으나 내 시력은 평범하지 않았다. 기사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전부 확인할 수 있었다.

‘있다!.’

한 기사에게 물통을 건네고 있는 검은 머리 소년이 보였다. 그 얼굴을 보니 괜히 눈물이 핑 돌았다.

“칼립스.”

결코 닿지 않을 작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당장이라도 그에게 달려가 안기고 싶었다.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

그 사실 하나만이 나를 막고 있었다. 욱신거리는 심장이 괴로웠다.

‘괜찮아. 다시 나를 사랑하게 만들면 돼.’

그렇게 내 안의 욕망을 달래며 그의 모습을 눈에 새기고, 또 새겼다.

시엘은 물기 어린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느라 내가 다가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뭘 보는 거지?’

“...스.”

시엘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다. 거리가 약간 있는 탓에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

만 누군가의 이름인 듯했다.

‘그런 눈으로, 대체 누굴 부르는 거지?’

가슴을 쿡쿡 찌르는 질투가 나를 괴롭혔다. 시엘의 시선을 독차지하기 하고 싶었다.

“여기서 무얼 하는 거지?”

그녀의 시선이 내게로 돌려지고 잠시간 만족감을 느꼈으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물기는 채 가시지 않았지만 애정이 아닌 짜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책 중이었습니다.”

‘산책이라고? 웃기는 소리.’

그런 눈을 하고 달린 주제에 뻔뻔하게 산책이라 말하는 그녀의 작태에 실소가 났다. 그러나 실소를 미소로 감추고 상냥하게 손을 내밀었다.

“나도 산책 중이었으니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함께 해도 되겠는가?”

“...영, 광입니다.”

내밀어진 손 위로 겹쳐지는 작은 손을 느끼며 나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나는 아직 이곳에 대해 잘 모르니 그대가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겠군.”

“예.”

안내를 해 달라고는 했지만 손은 시엘을 잡아끌고 있었다. 시엘이 연무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결코 그쪽으로 갈 생각 따위는 없었다.

“그러고 보니 저택의 정원이 얼핏 보기에도 훌륭하더군. 그쪽으로 가지.”

“그러지요.”

시엘이 별말 없이 따르자 만족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생각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

일순, 한기가 몸을 휘감았다. 나와 그녀의 뒤에서 따라오던 기사들은 무의식적으로 검에 손을 올렸다.

“뭐지?”

암살자의 살기라고 하기에는 기이한 느낌이었다. 시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눈을 깜박일 뿐이었다.

“어찌 그러시는지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앞에서는 시종일관 무표정했던 시엘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잠시 그녀를 미소를 홀린 듯이 바라보다 고개를 휘저었다.

비록 시엘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죽일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저 미소를 지으며 어찌 그런 생각을 품을까.

‘기분 탓이겠지. 살기라니...’

정원에 들어서자 흐드러지게 핀 여름 장미가 보였다. 아름다운 광경에 잠시 감탄하고는 내 손을 잡고 있는 시엘에게 시선을 돌렸다. 장미보다 더 붉은 두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느리게 걷고 있는 모습은 좋았지만 아무 말도 없으니 어색했다.

“정원사의 솜씨가 좋은 모양이군. 장미가 참으로 아름다워,”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대는 내가 싫은가?”

아래로 향해 있던 눈이 나를 담았다. 느리게 걷던 걸음을 멈추고 눈짓을 하니 기사들이 멀리 물러났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헌데 어찌하여 나를 피하려 하지?”

내 말에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미소라기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웠지만...

“전하께는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꽤나 아팠다.

“내가 황태자인 것이 부담스러운 건가?”

“아니요. 전하의 지위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이 약혼녀를 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약혼녀가 되기 싫다는 뜻인가?”

“예, 싫습니다.”

“어째서?”

“전하의 약혼녀, 언젠가 제국의 황후가 된다 하여도 저는 행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대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이기에?”

“제 나이 때 소녀들이 다들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리고 저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질투를 감추기 위함이었다. 누군가를 떠올리는 그 아련한 눈이 참을 수가 없었다.

“여덟 살밖에 되지 않은 그대는 참으로 절절한 사랑을 하는군. 그런 그대가 참으로 마음에 들어.”

그녀는 방금 전에도 그런 눈을 했었다. 아마도 그녀가 사랑한다는 놈을 보고 있었던 거겠지. 그녀의 사랑스러운 눈빛은 마음에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점은 불쾌했다.

“그대가 혼인이 가능한 나이가 되려면 아직 1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 그대는 그동안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나?”

“저를 너무 무르게 보시는군요. 설령 그에게 살해당한다 할지라도 제 사랑은 변함없을 겁니다.”

“...어째서? 어째서 그리 단언할 수 있는 거지?”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대답을 고민하는 듯 작은 입을 다물었다.

“전하께 말씀드려도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또한 제 마음을 고작 말 따위로 전부 표현할 수도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전하의 여인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녀는 단호한 말을 남기고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붉은 장미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다.

“필리온을 불러라.”

내 부름에 시녀가 고개를 숙이고는 물러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보좌관인 필리온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부르셨습니까, 전하.”

“오늘 후작가의 연무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조사해서, 자료를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치워버리는 수밖에. 그녀를 내 손에 넣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냥 죽여 버릴까.’

멀리서 칼립스를 바라보는 것마저 방해했을 때부터 살인 충동이 치밀어 올랐다. 잠시 참지 못하고 억눌렀던 기운을 드러냈으나, 그 정도의 살기에 파드득 떠는 모습을 보고 맥이 빠져버렸다. 독기 어린 전생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기에...

그 여자에게 조종당했기 때문이었을까. 전생의 라트로는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다. 나를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 시종과 신하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였다. 그리고 끝에는 내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없는 억지를 부려 황후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었다. 그 당시의 그는 완전히 미쳐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생의 나는 참으로 멍청했던 것 같다. 아무런 반항도, 심지어 도망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황후의 자리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를 황후로 만든 아버지가 실망할까 봐. 더 이상 황후가 아닌 나는 버려질까 봐. 그 강박은 기사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와 라트로 앞에 엎드렸을 때, 그리고 라트로가 황후도 뭣도 아닌 더러운 창녀라 말했을 때 비로소 깨질 수 있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오해를 한 것이라, 모함을 받은 것이라 소리치는 칼립스를 라트로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잠시 생각하는 듯싶더니 그는 인자함을 가장한 미소를 지었다.

“칼립스, 네가 정 그렇게 간언 한다면 황후를 폐위시키지는 않겠다.”

그 말에 칼립스는 희망을 품었고 나는 절망에 빠졌다.

“칼립스, 네 손으로 죽이면 저년은 황후로 죽을 수 있다. 그러지 못하겠다면 저년을 끌어내어 드레스를 찢고, 강간범들에게 노리개로 던져줄 것이다. 저년이 죽여 달라 애원할 때는 그 사지를 잘라 만백성이 보는 앞에 걸어놓을 것이야.”

그 말을 듣자 칼립스는 황제에게 달려들었다. 호위 기사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는 것을 나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리석구나, 칼립스. 저년이 살아서 치욕을 당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리 해주지. 여봐라, 저년을...”

“안 돼!”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칼립스는 라트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는 애원했다.

“폐하, 제발..., 제발 자비를...”

“짐이 내리는 자비는 저년이 황후로 죽을 수 있게 해 주는 것뿐이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절망에 물든 칼립스의 황금색 눈이 나에게로 향했다. 나는 우는 것을 멈추고 미소를 짓고서는 말했다.

“죽여줘요.”

한 기사가 칼립스의 손에 자신의 검을 쥐여 주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나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웃으면서 지켜보던 라트로가 명했다.

“죽여라.”

결국, 나는 그의 손에 죽었다. 그러나 결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다시 생을 얻었고, 죽음으로써 어리석었던 황후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토할 것 같아.”

붉은 장미 사이에서 과거를 떠올리니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손으로 입을 막고 정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정원의 입구에 서 있는 익숙한 인영을 발견하자 나는

그대로 몸을 날렸다.

“어이쿠.”

무작정 달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싸 안아주는 품에 기댔다. 라트로와 같은 색이지만 전혀 달라 보이는 은발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아버지.”

“우리 아가씨가 무슨 일이실까. 기분이 안 좋니?”

“...”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아버지는 나를 안아 올리고는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딜 가고 싶니?”

“...”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을 잘 알고 있었다. 2층의 어머니의 방으로 향하는 그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으니까.

“죽일까?”

굳이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잘 알 수 있었다. 나는 피식 웃고는 작게 속삭였다.

“그건 역모예요.”

“역모쯤이야.”

어머니가 황태자를 죽이고자 하는 것과 아버지가 황태자를 죽이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어머니는 인간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이 나라의 후작이었으니까.

“그럴 가치도 없어요.”

“그는 너에게 집착하고 있어. 상당히 귀찮을 게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정원에 있는 것은 어떻게 아셨고요?”

“내 딸한테 집적대는 놈이야 뻔하지.”

미행을 붙였을 게 안 봐도 뻔했다. 나는 작게 키득거리고는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워 보이는 황금색 눈동자에 담겨있는 것을 예전에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안에 맹목적인 애정이 듬뿍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빠는 일이 있어서 함께 있어주지 못할 것 같구나. 저녁에 데리러 올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으렴. 알았지?”

“알겠어요.”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단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등을 돌릴 뿐이었다.

‘빨리 화해 좀 하시지...’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다. 가까이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반투명한 침대 휘장 사이로 보이는 모습을 감추고자 재빨리 문을 닫았다.

“어머니.”

“우리 시엘, 왔니?”

어머니의 방에 들어서자 호흡이 편해졌다.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이여서일까.

“갑갑하진 않으세요?”

“그럴 리가. 오히려 한 곳에만 있으니 마력이 안정되어 숨쉬기가 편하단다.”

‘마력이 안정...’

드래곤의 마을에서 어머니가 해 주었던 말이 떠올랐다. 공기 중의 마력의 밀도가 다르다

고. 그건 어머니의 방도 마찬가지였다.

“그래! 밀도였어!”

인간과 드래곤의 마력의 밀도는 다르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마력에 맞춘 수식

을 사용한 게 문제였다. 마법진에 맞춰 마력을 구성해도, 기본적인 파워가 다르면 당연

히 마법이 실패하기 마련이다.

“답을 얻었니?”

어머니가 상냥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마법을 실패할 때마다 지켜만 보던 어머니가 결국 힌트를 주었다.

“네! 감사해요, 어머니.”

“가구 정도야 수습하기 쉽지만 건물은 번거로워지니 앞으로 조심하렴.”

‘그게 이유였군요.’

어떠한 꾸지람도 잔소리도 없었다. 다만 약간의 조언을 줌으로써 불상사를 대비하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다.

“하하하...”

‘건물 태워먹기 전에 좀 알려주시지...’

이리스는 읽고 있던 책을 덮고 문 밖에 기척에 집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정한 걸음걸이로 남편이 멀어졌다.

‘슬슬 용서해줄까...’

시엘을 지키지 못해 화가 났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 또한 뭐라 할 말이 없는 처지였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자신의 마법을 뚫고 기적을 일으켰으니...

“어머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 고개를 돌리니 딸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엘은 평소에는 하지 않는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리스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익숙한 냄새가 나네. 역시 그 남자 때문에 황태자가 오는 걸 허락한 거였군.’

맹목적인 자신의 딸이 안쓰러우면서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반려란,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으니까.

“갑갑하진 않으세요?”

그러고 보니 오늘은 하루 종일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매일같이 돌아다니며 저택을 살피고 귀족가의 안주인 노릇을 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지만 역시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익숙했다.

“그럴 리가. 오히려 한 곳에만 있으니 마력이 안정되어 숨쉬기가 편하단다.”

시엘이 마법을 익히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았다. 몇 시간 전에 불이 난 것 또한 알고 있었지만 그건 굳이 신경 쓸 바는 아니었다. 다만 시엘이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길 바라는 마음과 스스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자그마한 힌트를 주었다.

딸을 똑똑한 아이였기 때문에 금방 답을 찾아내고는 기분 좋게 품에 안겼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머리핀을 빼주고는 손으로 빗어 내리며 부드러운 감촉을 즐겼다.

‘그러고 보니 정원의 장미를 전부 뽑아버려야 하는데.’

얼마 전 정원의 장미가 만개했다. 객관적으로 보면 무척이나 아름다웠지만 시엘이 그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던 게 기억났다. 회귀 이후, 시엘은 알게 모르게 붉은 색을 기피했다.

‘나도 변했군...’

예전이었다면 굳이 살아있는 꽃을 뽑지 않았을 거다. 뽑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겠지.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회귀한 이후로 시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행동은 아직 낯설었다. 언제쯤 돼야지 이 괴리감에 익숙해질까.

‘어쩌면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느껴야 할지도.’

200년 정도 남았던 자신의 수명은 50년 남짓으로 줄어들었다. 순리를 어긴 대가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아마 아서와 함께 자연스레 스러지겠지. 드래곤으로서는 꽤 오래 산 것이고 반려와 함께 생을 끝낼 수 있으니 큰 불만은 없었지만 단 한 가지가 걸렸다.

“네 인생 정도는 지켜볼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고른 숨소리를 내면서 잠이든 시엘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기뻐해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 시엘을 잃고 아스타처럼 되지 않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남겨질 시엘이 걱정되었다.

“인간의 부모들은 전부 이런 걱정을 안고 사는 걸까?”

평생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인간의 생각을 이리스는 지금에서야 알 수 있었다.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숨이 막혔다. 땀이 비 오듯이 흘렀지만 칼립스는 내색하지 않고 검을 휘둘렀다. 참는 것 하나는 익숙했기 때문이다.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100번 추가!”

열을 맞춰 함께 검을 휘두르고 있던 견습 기사들과 종자들이 얼굴을 찌푸렸다. 인테제르 후작령에 온 이후 기사단장이 군기를 더욱 철저하게 잡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인테제르 후작가 산하의 기사단이 밀레스 기사단 때문이리라.

‘황제 폐하의 호위 기사단을 제외하면 실력으로는 제국 최강이라 하더니 과연...’

황태자 산하의 피데스 기사단 또한 그 실력으로 수도에서 이름을 떨쳤으나 전쟁에서 후작과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밀레스 기사단에 비하면 그 역량이 달랐다.

‘그보다 더워.’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은 아니었지만 수도보다 남쪽에 위치한 인테제르 후작령은 너무나도 더웠다.

“20분 휴식!”

휴식이 떨어지고 칼립스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호흡을 안정시키려 노력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어째서일까.’

칼립스는 원래 비 오는 날을 좋아했다. 시원한 그 느낌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맑은 하늘색을 보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졌다.

“칼, 마실래?”

함께 종자일을 하고 있는 데이브가 수통을 건넸다. 칼립스는 감사히 받아 들고는 거침없이 들이켰다.

“남쪽이라 그런지 진짜 덥다. 이런 날씨에 다들 어떻게 훈련을 하냐.”

“익숙한 거겠지.”

피데스 기사단원들을 다들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그와 달리 밀레스 기사단원들은 힘들어 보이긴 했으나 계속해서 훈련에 집중했다.

“소드마스터를 직접 볼 수 있다 기대했더니 이게 뭐야. 코빼기도 안 보이고 죽어라 훈련만 시키잖아.”

“후작 각하는 황태자 전하를 모시느라 바쁜 거겠지. 높으신 분들이잖아.”

“높으신 분들이라...”

멍하니 중얼거리던 데이브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나무 뒤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칼립스는 텅텅 빈 수통을 다시 채우려 일어나다 데이브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았다. 그곳에는 부드럽고 폭신해 보이는 하늘색 머리카락이 나풀거리고 있었다.

‘여자애?’

머리카락을 묶고 있는 리본은 여자아이의 것이었다. 왜 기사단 훈련장의 나무 뒤에 숨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기사의 딸인가?”

그렇다 할지라도 훈련장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칼립스는 소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빼꼼 내밀어졌던 작은 이마가 자신을 다가오는 것을 알아챘는지 모습을 감췄다.

“넌 누구지? 왜 여기에...”

얼굴을 확인하려 했으나 소녀가 황급히 뒤를 돌았기에 볼 수 있는 것은 살랑거리는 하늘색 머리카락이었다. 특이한 머리색이라고 생각한 순간 소녀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다.

‘비단이네... 기사의 딸이 아닌가?’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십니까?”

혹시 몰라 공손히 묻자 소녀가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 붉은 눈이 드러난 한 순간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 한 발짝 물러났으나 자신보다 한참 어린아이라는 것을 깨닫고 머쓱한 기분이 들었다.

“그, 그게...”

분홍색으로 물드는 뺨이 퍽 사랑스러웠다.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옷차림과 표정. 칼립스는 소녀가 귀족이라 판단하고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레이디?”

레이디라는 말에 소녀의 얼굴이 완전히 붉게 달아올랐다. 허둥지둥 내젓는 손이 무척이나 작았다.

“칼, 휴식시간 다 돼가는데...”

데이브가 칼립스의 목검까지 챙겨서 다가왔다. 소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걸음을 멈췄다. 입을 헤 벌리고는 소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데이브의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소녀가 한 걸음 물러났다.

“너, 넌 누구니?”

칼립스는 상황 파악을 못한 듯 멍청한 질문을 하는 데이브의 옆구리를 꼬집었다.

“아, 왜!”

“바보야, 귀족이잖아.”

소녀가 알아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데이브는 그제야 소녀의 옷을 확인하고는 핏기 가신 얼굴로 입을 뻐끔거렸다.

“어, 어떡하지?”

“내가 아냐.”

칼립스는 소녀의 눈치를 살폈다. 곤란해하는 것 같긴 했지만 불쾌한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데이브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눈치 없는 새끼.’

마음만 같아서는 뒤통수를 후려치고 싶었지만 소녀 앞에서 폭력을 휘두를 수도 없었다. 그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기회를 살피고만 있었다.

“너희 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한 기사가 칼립스와 피데스를 불렀다. 밀레스 기사단 중에서도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오다 소녀를 보고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는 칼립스와 데이브를 지나치고는 소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항상 험상궂게 인상을 쓰고 있던 그의 얼굴이 놀랍도록 풀어졌다. 싱글벙글 웃는 그의 목소리에는 소녀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아가씨? 여기서 아가씨라면 설마 인테제르 후작의 여식?’

황태자의 약혼녀로 거론되는 귀족 영애였다. 그래도 이렇게 어릴 줄을 몰랐다. 해봤자 일곱 살 정도밖에 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황태자가 키가 커 동년배보다 몇 살을 더 먹은 것처럼 보였기에 둘이 비교하면 10살 가까이 차가 나는 것처럼 보이리라.

‘물론 귀엽긴 하지만...’

전날 황태자의 호위를 섰던 기사가 말하는 걸 들었다. 황태자 전하가 후작 영애에게 푹 빠졌다고. 그렇지만 저런 어린아이를 여자로 생각할 수 있을까? 캅립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무해도 황태자 전하 취향이 이상하신 듯.’

“또 놀러 오셨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옷을 입고 오시면 망가져서 마님께 꾸중을 들으시고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듯한 기사의 말에 칼립스는 의문을 품었다. 제아무리 가문의 기사단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함부로 놀러 와도 되는 장소는 아닐 텐데. 기사는 기사단이 방해받는 것은 상관없다는 듯이 그저 소녀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소녀는 허둥지둥 말하며 칼립스를 바라보았다. 칼립스와 시선이 마주치자 다시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오늘은 이만 갈게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리 가시면 기사단의 모두가 서운해 할 겁니다. 기사들과 대련은 하지 않으셔도 되니 그냥 잠시 보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련? 이런 작은아이가?’

무가의 여식이니 호신술이나 기본적인 검술 정도는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기사들과 대련이라니... 칼립스는 의문을 품었지만 그를 감추려 노력했다. 함부로 입을 열어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은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그럼 잠시만 있다 갈게요.”

“모시겠습니다, 아가씨. 거기, 너희들도 자리에 돌아가도록.”

“예.”

기사가 손을 내밀자 소녀는 그 위에 작은 손을 올렸다. 칼립스가 힐끔 뒤를 바라보자 그를 보고 있던 소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소녀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아름다운 미소가 완성되자 칼립스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허둥대던 작은 소녀가 우아한 여왕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왜인지 그리운 느낌...’

그립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가슴이 사무치는 미소. 심장이 욱신거리고 그 안에 담긴 것은 뜨거운 희열이었다.

“칼?”

“어? 어어... 가자.”

칼립스는 고개를 돌리고 소녀를 외면했다. 너무나도 격렬한 감정은 불쾌감마저 불러일으켰다.

‘뭐지? 이건 뭐냔 말이야.’

건드리면 터진다.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그러나 그 편린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것이었다. 그러니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칼립스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가 위험한 건가. 저 아이가 위험한 건가.’

더운 땀이 식어 서늘해졌다. 칼립스는 애써 표정을 숨기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데이브의 목에 팔을 걸고는 계속해서 걸었다. 뒤에서 따라오는 소녀에게는 결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피데스 기사단의 단장 알렉은 평소보다 얼굴을 굳히고 부하들의 훈련을 살폈다. 밀레스 기사단장, 딜런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딜런은 유피테르 제국 최고의 기사인 인테제르 후작의 옆에서 오랫동안 보좌해온 가신이었다.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용서가 없는 사람이었다. 인테제르 후작과 함께 전장을 누비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다. 알렉은 딜런의 빈틈없는 보좌가 있었기에 인테제르 후작이 열세였던 전장을 쓸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휴식 끝! 모두 집합해라.”

주저앉아 체력을 회복하고 있던 기사들이 하나둘씩 일어났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종자 둘까지 합해 모든 단원의 머릿수를 확인한 그는 아직은 종종거리는 듯한 걸음걸이로 다가오는 소녀를 발견했다.

“아가씨, 오랜만에 뵙습니다.”

딜런이 소녀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밀레스의 기사들 또한 소녀를 보고 밝은 미소를 지었다.

‘후작 영애인가?’

후작과는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다. 하늘색 머리카락과 붉은 눈은 이질적이었고, 날카롭고 절제된 느낌의 후작과는 달리 폭신폭신하고 따스한 느낌을 지니고 있었다. 어젯밤에 황태자의 호위로 돌렸던 기사들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후작의 친딸인가?’

인테제르 후작 영애에 대해서는 구설수가 많았다. 후작부인이 몰락 귀족 출신이며 단 한 번도 사교계에 얼굴을 들어낸 적이 없다는 점과 후작의 혼인 이후 7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점 때문이었다. 질 낮은 가십거리를 좋아하는 귀부인들은 후작 영애의 태생을 두고 떠들어댔지만 당사자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오래전 잠잠해진 소문이었다.

‘사실일 수도 있겠군. 저렇게까지 닮지 않을 수가 있나...’

그러나 후작 영애의 태생은 기사단과는 하등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지금 알렉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어린 소녀가 함부로 연무장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함부로 불만을 표할 수도 없었다. 피데스 기사단은 지금 후작의 호의로 연무장을 빌리고 있는 것이고, 소녀는 후작의 딸이었기 때문에.

‘인사 정도는 해야겠지.’

알렉은 정렬해있는 기사단원들에게 대기를 명령하고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러다 딜런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에는 잠시 눈을 비빌 뻔했다. 그의 얼굴이 인상에 어울리게 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웃을 줄도 아는군.’

황당한 심정을 삼키고는 그는 소녀의 앞에 섰다. 소녀가 그를 잠시 올려보다 치맛자락을 잡고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인테제르 후작가의 장녀, 시엘이라 합니다. 이리 저희 영지에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따로 불편하신 것은 없는지 여쭈러 왔습니다, 페르엘 백작님.”

매끄럽고 우아한 말투에 알렉은 작은 미소를 삼켰다. 어린 소녀는 마치 가문의 안주인처럼 말하고 있었다.

“알렉 드 페르엘입니다, 후작 영애. 후작가의 환대에는 저희야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흔쾌히 연무장을 빌려주신 것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굳이 연무장을 언급해 여인이 끼어들 자리가 아님을 말하자 소녀는 생긋 웃었다. 붉은 눈은 생각했던 것보다 예기를 품고 있었다.

“아닙니다. 이리 황궁 내의 기사단과 교류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오히려 저희 가문이 감사를 드려야지요. 모쪼록 남부의 검술과 수도의 검술을 서로 겨뤄보고 두 기사단 모두 한층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오...’

알렉은 작게 감탄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주인 흉내를 내던 소녀는 순식간에 후작가의 후계자로 변모해 두 기사단의 역량을 시험해보겠다는 발언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에

물러날 수는 없었다.

“허면 손수건을 던져주실 레이디도 오셨으니 대련을 펼쳐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케이렌 경?”

알렉의 제안에 딜런이 소녀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살짝 입을 가리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딜런 드 케이렌이 어린아이의 허락을 받는 광경이라니... 오래 살고 볼 일이군.’

10년 전, 피비린내 나던 전장에서 알렉의 정강이를 차며 호통 치던 그였다. 저 작은 아이에게 쩔쩔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두 기사단장이 합의를 하자 연무장이 어수선해졌다. 대련을 위해 바닥을 고르고, 소녀를 위해 의자를 가져오고. 그렇게 얼마 지나고 나서 각각의 진영이 완성되자 알렉은 딜런에게 물었다.

“어떻게..., 일대일 대련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합동 전투?”

“일대일 대련으로 하지요.”

의자에 앉아 생글생글 웃고 있던 소녀가 말했다. 그녀가 끼어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박하려 했으나 곧 이어지는 설명에 막혀버렸다.

“합동 전투야 어차피 두 기사단 모두 제국의 기본전술을 기반으로 한 합격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남부의 검술을 보러 오신 것인데 일대일 대련이 좋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었다. 알렉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 말이 소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후작 영애를 후계자로 생각한다더니... 거짓이 아닌 모양이군.’

시엘이 후작 위를 이어받으면 정계가 복잡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라트로가 시엘에게 한눈에 반했다는 것을 눈치챈 알렉은 그녀가 황태자비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눈앞의 소녀는 황후 자리에는 어울리는 인재인지 판단이 가지 않았다.

‘필요 이상으로 위험해.’

알렉은 황궁에서 구를 대로 구른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생각했다. 그러나 이 소녀의 미소는 짐작할 수 없었다. 이런 유형의 인간은 대부분 위험한 부류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단이 서로를 마주 보고 인사한 뒤 첫 대련의 기사들이 앞으로 나왔다. 두 기사는 모두 약간의 흥분과 긴장감이 어린 눈으로 서로는 바라보았다.

“시작!”

두 기사 모두 신경전을 벌이며 연무장을 빙글빙글 돌았다. 첫 대련부터 승기를 빼앗기면 기사단의 사기가 꺾일 수 있기에 알렉은 초조한 마음으로 연무장을 내려다보았다.

“하앗!”

먼저 선수를 친 것은 피데스 측이었다. 일격을 나눈 그들의 실력은 비등해 보였고 공방이 이어졌다. 날카로운 금속성이 울려 퍼지면서 기사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둘 모두 실력이 좋군요. 역시 남부의 검술은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화려하고 빠르다. 그것이 남부 검술의 특징이었다. 잘못하다 보면 쓸데없는 동작이 많아

져 체력을 깎아먹기 쉬우나 실력이 좋은 기사일수록 묵직하면서도 상대방을 혼란시키는 공격에 능숙했다. 다행히 선두주자로 나온 피데스의 기사는 화려한 검로에 현혹되지 않고 차분히 검을 쳐냈다.

고막을 울리는 마지막 검격이 끝나고 승기를 잡은 것은 피데스의 기사였다. 알렉은 일부러 무뚝뚝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첫 승리에 피데스의 기사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사기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밀레스의 기사들은 미간을 좁히거나 팔짱을 꼈다.

“훌륭한 솜씨입니다. 역시 중앙의 기사단이군요.”

“과찬이십니다, 케이렌 경.”

알렉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힐끔 옆을 보았다. 소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커다란 붉은 눈을 깜박일 뿐이었다. 다음 기사들의 대련이 시작되었으나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는 듯 느리게 움직이는 눈꺼풀은 얼핏 보면 어린 소녀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유혹적이었다.

‘아무리 봐도 사람같이 안 생겼군. 황태자 전하께서 빠지실 만도 해.’

희대의 예술가가 섬세하게 조각한 것 같은 인공적인 아름다움은 라트로의 취향에 꼭 들어맞았다. 물론 소녀에게 빠진 것은 라트로뿐만이 아니었다. 기사들이야 처음 봤을 때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 곧 정신을 차렸지만, 아직 나이 어린 견습 기사들과 종자들은 대련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녀를 힐끔힐끔 훔쳐봤으니까.

알렉의 신념은 일단 검을 잡으면 어떠한 유혹이 있든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사람 좋게 웃고 끝내겠지만 그들의 손에 검이 들려있으면 용납할 수 없었다.

‘조만간 정신교육 한 번 해야겠군.’

견습기사와 종자들을 훑어보다 알렉의 눈은 한 검은 머리 종자에게서 멈췄다. 칼립스, 얼마 되지 않는 평민 출신의 종자였다. 다른 이들과는 달리 그는 소녀를 훔쳐보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든 소녀를 보지 않으려 앞만 바라보는 것 같았다.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신경이 전부 후작 영애에게 쏠려 있어.’

무심한 듯 보였으나 알렉은 그의 표정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개를 갸웃거리고는 다시 옆의 소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제야 소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칼립스가 어째서 소녀를 외면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붉은 눈 안에 담긴 맹목적인 감정은 소름 끼칠 정도의 광기를 품고 있었다.

“흐음...”

알렉은 대련을 지켜보는 척하면서 턱을 쓸었다. 피데스의 기사가 열세였지만, 첫 승리를 따냈으니 그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바였다. 그보다는 황태자가 짝사랑하는 소녀와, 그 소녀가 바라보는 종자에 관심이 갔다.

‘그러고 보니 닮았군.’

검은 머리에 황금색 눈동자를 가진 종자 소년은 라트로와 많이 닮아있었다.

그러나 라트로의 은발머리와 종자 소년의 검은 머리와 함께 분위기 또한 대비되었다. 라트로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종자 소년은 딱딱하고 날카로워 보였다. 실제 행동 또한 그에 따라가는 듯했다.

‘칼립스였나? 분명 테렌 백작의 소개장으로 들어온 것 같았는데...’

황제의 심복인 테렌 백작은 해에 한두 명씩 재능 있는 소년을 데려왔다. 황궁 기사단의 종자로 적당히 섞여 들어가긴 했으나 이제 보니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

왜 황태자와 닮은 동년배의 소년을, 하필이면 황태자의 기사단의 종자로 추천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후일 황태자의 그림자로 만드는 경우, 나머지 하나는...’

알렉은 생각을 멈추고는 고개를 휘저었다. 만약 자신의 생각이 맞으면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황가의 어둠으로 묻힐 소년과 황가의 안주인이 될 소녀라니.

“영애, 외람된 말이지만 황태자 전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꿈꾸는 듯 황홀했던 붉은 눈이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알렉은 그 변화를 보고 속으로 외쳤다.

‘망했다. 괜히 떠봤군.’

“훗날 훌륭한 제국의 어버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소녀는 흠잡을 수 없는 대답을 읊었다. 그 말투에서 묻어나는 감정은 차분하면서도 격정적이었다.

“그런 것이야 만백성이 한뜻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말은 훗날 영애께서 황태자 전하와 함께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하의 옆을 지킬 그릇이 못 됩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제 성정이 타고나기를 말괄량이 기질이 있는지라 그저 신하로서 제국을 보필할 생각입니다.”

“말괄량이라니요. 후작 영애는 제가 본 또래의 영애들 중에서도 예의 바르고, 훌륭한 레이디입니다.”

“칭찬은 감사히 듣겠습니다.”

살짝 떠보기에는 시엘의 벽은 견고하고 높았다. 지금껏 들렸던 영지의 영애들은 하나같이 황태자를 보고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시엘은 황태자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전하를 싫어하면서 전하랑 닮은 종자에게 얼굴을 붉히는 건 뭔데?’

도대체가 종잡을 수 없다. 딱히 종자 소년과 이야기한 적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극명한 걸까.

“하하...”

알렉은 다가갈 수 없는 분위기를 흐리기 위해 헛웃음을 지었다. 시엘은 살며시 미소를 짓고는 대련에 시선을 돌렸다. 어느새 대련은 막바지로 치달았다. 알렉은 포기하고는 다시 대련에 집중했다.

그러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던 시엘은 갑자기 표정을 굳혔다. 시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다른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몰렸다.

“아가씨? 어찌...”

“딜런,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제국력 989년 8월 23일입니다.”

“대련을 중지시키세요.”

“예?”

“당장 병사들을 집결시키고, 영지 동문의...”

시엘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저 멀리에서 붉은색의 연기가 피어올랐기 때문이다.

“봉화! 습격인가?”

저 멀리서 한 병사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파발로 보이는 그는 연무장에 도착하자 숨을

고르고는 보고했다.

“케이렌 경, 현재 동문에서 몬스터들의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각하는?”

“파발을 먼저 받고 달려가셨습니다.”

“알겠다, 당장 병사들을 집결시켜 동문으로 간다!”

“딜런!”

다급하게 검을 집는 딜런을 멈춰 세운 것은 시엘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척이나 창백해져 있었다.

“아가씨, 당장 본채로 돌아가...”

“명령입니다, 딜런. 기사단의 절반을 남쪽 경작지로 보내세요.”

“예?”

“가서 지금 농경지에서 일하고 있는 영지민들을 전부...”

시엘은 잠시 숨을 내쉬었다. 잠시 뜸을 들인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차분한 말투로

딜런에게 명령했다.

“죽이세요.”

내 말 한마디에 소란이 멈췄다. 딜런은 가만히 나를 내려다보았다.

“아가씨, 방금 하신 명령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몬스터들이 쳐들어온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습격은 양동입니다. 그

배후가 노리는 것은 제국의 군량입니다.”

인테제르 후작령은 제국 곡식 산지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그 때문에 오래전부터 군량미의 공급지였다. 군량미에 문제가 생기면 군대가 위태로워지고, 군대가 위태로워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배후는?”

“체투스 연합국.”

“근거는?”

“...없습니다.”

내 말을 들은 기사들이 술렁거렸다. 딜런은 잠시 고민을 하는 인상을 찌푸렸다가 검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저는 그 명에 따를 수 없습니다. 아직 아가씨는 제게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 병사, 후작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각하께서 응전하시는 동안 영주의 권한을 아가씨께 넘기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딜런에게 명령할 권한은 충분하군요. 영주 대리로서 명령합니다. 첩자들을 전부 죽이세요.”

딜런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바닥에 떨어진 검을 주울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납득하지 못한다면 절대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말로 그를 설득시킬 시간은 없었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나는 토할 정도로 역겨운 잔상과 현실을 오가고 있었다.

“항명하겠습니다.”

“딜런 드 케이렌!”

“고작 여덟 살에 불과한 아가씨가 사람의 목숨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가씨가 틀렸을 경우에는 죄 없는 영지민들이 학살당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경에 내 말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군의 식량이 모두 오염된다! 체투스 연합국과 긴장상태에 놓여있는 지금 제국이 흔들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 이 말씀입니다!”

‘나조차도 납득하지 못하는 근거를 어떻게 내놓으란 거야!’

그러나 이 말을 내뱉을 순 없었다. 체투스 연합국과의 전쟁, 전쟁 당시의 치료 불가능한 전염병, 마탑의 일부 마법사들과 결탁한 첩자들. 제국의 휘청거림. 폐쇄된 마법사 사회의 개방. 전생의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오버랩되는 잔상은 내 기억이 아니었다.

“지금은 말해줄 수 없다.”

나중에서야 알았다. 습격 당시 혼란해진 틈을 타 영지에 침투한 첩자들이 농경지에서 일하던 농노들을 모두 살해했다. 마법으로 농노로 위장한 체투스의 첩자가 농경지에 마법약을 뿌렸다. 그로 인해 전염병으로 보이는 저주는 군량을 섭취한 병사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다.

모든 사실을 안 것은 마탑이 제국과의 협약을 맺고, 저주를 해제한 후였다.

“아가씨!”

“명령에 불복하는 기사는 필요 없다. 케이렌 경, 영주 대리의 권한으로 이 시간 이후 밀레스 기사단장직에서 해임하고 경에게 내린 기사 작위 또한 회수하겠다.”

“...”

“부기사단장! 당장 첩자들의 목을 내 앞에 가져와라! 증명은 그들의 목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아, 아가씨...”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경도 명령 불복으로 해임되고 싶은 건가?”

쿵하고 큰 소리가 들리고 눈앞에 나타난 것은 검이었다. 내 키보다 큰 검을 바닥에 꽂고는 딜런은 나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인테제르 가의 기사도 아닌 저는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제 신념에 따라 아가씨를 막겠습니다.”

“그 검을 내게 휘두르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물러나 주십시오. 아가씨께 검을 들이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봉화가 피어오르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있었다.

‘강행 돌파하는 수밖에...’

“그것이 그대의 신념이라면 검을 뽑아라.”

딜런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망설이는 듯싶더니 이내 검을 뽑아 들었다.

“케이렌 경, 일단 진정하고...”

상황을 지켜보던 페르엘 백작이 말리기 위해 딜런의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그에 아랑곳 않고 준비하고 있던 마법을 시전 했다. 마법진이 딜런을 감싸더니 커다란 얼음 꼬챙이가 그를 무릎 꿇렸다.

“윽!”

“부기사단장은 무엇 하고 있는 건가! 어서 가라!”

“조, 존명!”

밀레스의 기사들이 빠져나가고, 나는 딜런에게 다가갔다. 얼음 꼬챙이에 의해 행동이 제한된 그는 나를 노려볼 뿐이었다.

“이것이 실수라면 저는 아가씨께 결코 충성을 맹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지도 못하는 경의 충성 따위는 필요 없다. 이것이 실수가 아닌 것을 증명하면 경은 어떤 방법으로 사죄할 셈이지?”

“자결하겠습니다.”

헛웃음이 나왔다. 그는 전생과는 달리 내게 무척이나 다정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경의 목숨 따위는 필요 없으니 내 구두를 핥을 준비나 하고 있도록.”

나는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원래라면 본채로 돌아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후방 지원을 감독해야 했지만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했다.

“하아...”

욱신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나는 기사들이 듣지 못할 정도의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상,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책임 따위 알게 뭐야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알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싫어.’

내가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권리나 의무가 아닌 그저 내 욕심이었다.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생되는 책임이라면 내가 지는 것이 맞다. 나는 시선을 정면에 고정시켰다.

떠나지 않는 잔상은 내게 미래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갑자기 나타나는 이것을 무엇일까. 단지 내 환상일까? 아니면 마법의 틈새로 인해 일어난 이변일까?

‘그나저나 시간을 꽤 허비했는데 이미 늦었나? 그리고 기사들이 내 명령을 따를까?’

머리에 그 생각이 떠오르자 순간 세상이 뒤집히고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밀밭으로 이동해있었다. 아니, 이동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허공에 둥둥 뜬 채 그 어떤 것에도 간섭할 수 없었다. 밀밭의 농부들은 땅에 알 수 없는 액체들을 뿌리고 있었다.

“마법사 놈들, 아티팩트랑 마법약만 던져주고 발을 빼다니...”

“그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지. 그들이 원하는 건 제국과의 협약에서 우위에 서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들어. 전쟁에서 외세를 이용한다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연합국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제국과의 소모전은 불가피하니까.”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저들끼리 떠들어댔다. 곧이어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검을 든 기사들이 몰려왔다. 첩자들은 평범한 물통으로 위장한 마법약을 숨기고, 기사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기사 나리들?”

“영지가 마물들에게 습격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겠지.”

“예. 저희들도 혹시 몰라 피난을 가려했사온데...”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은 체투스 연합국의 첩자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 대리이신 후작 영애의 명으로 전원 처형하겠다.”

“예, 예?”

“전원 포진!”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첩자라니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랫것들에 불과합니다.”

대장 격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부기사단장인 가렐 경 다리에 매달렸다. 그 모습을 보자 기사들은 마음이 약해진 듯 주춤거렸다.

“저희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겁니다. 첩자라고 해도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 부단장님, 어떻게 할까요?”

“아가씨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전원의 목을 베도록!”

가렐 경의 호통에 기사들은 검을 뽑아 들었다. 첩자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후, 후퇴하라!”

농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명령이 나오자 기사들의 얼굴이 변했다. 그들은 도망치려 하는 첩자에게 검을 내질렀다. 피가 튀어 올라 아직은 초록빛을 띠는 밀에 뿌려졌다.

그 붉은 피가 날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헉!”

제정신을 차리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시야가 맑아지자 페르엘 백작의 얼굴이 보였다.

“영애, 괜찮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현기증이 났을 뿐이에요.”

의자의 팔걸이를 잡은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다. 방금 내가 본 것은 내가 가진 의문을 해결해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전생의 편린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간섭함으로써 벌어진 일이 보였다.

‘천룡의 능력인가?’

히페리온에게서 들은 것은 하프 드래곤이 지닌 특성뿐, 천룡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그렇기에 나는 내 능력을 전부 파악하지 못했다. 이건 천룡과 관련된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정확히 어떤 능력이지? 천리안이라도 되는 건가?’

건국신화에서 초대 황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었다 한다. 지금껏 나는 그것을 단순히 사람을 잘 파악하고 이끄는 재능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천리안도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닐 듯싶었다.

나는 새어 나오는 웃음을 애써 감췄다. 어이없어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진실이라면 이 참혹한 잔상이 모두 현실이라는 소리니까.

“영애,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첩자를 확인할 때까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영애는 아직 어립니다.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의외의 말에 놀라 페르엘 백작을 쳐다보았다. 나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자 그는 헛기침

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렇게 버티면 부러지기 십상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미 한번 부러졌는데.

“주의하도록 하죠.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래 봬도 아버지를 닮아 튼튼하거든요.”

페르엘 백작은 씁쓸하면서도 기묘한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두려움, 경계였다.

“아가씨!”

그때였다. 연무장까지 말을 몰고 온 기사들이 말에서 내려 내 앞에 무릎 꿇었다. 가렐 경이 들고 있는 보따리는 피에 젖어 있었다.

“보고하도록.”

“명에 따라 농경지에 있던 자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가렐 경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보따리를 내 앞에 놓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내 행동에 연무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더기로 쌓여있는 인간의 수급은 결코 좋은 광경은 아니었다. 나는 맨 위에 위치한 수급을 꺼내 딜런의 앞에 던졌다.

“이것이 증거다, 딜런.”

미처 눈도 감지 못한 남자의 피부는 짙은 구릿빛을 띠고 있었다. 아무리 농사일로 인해 살이 탔다 하더라도, 제국인은 선천적으로 결코 가질 수 없는 색이었다.

“제국인 치고는 상당히 독특한 피부색이 아닌가, 부기사단장?”

“처음에는 평범한 영지민이었습니다. 헌데 목을 베자 얼굴이, 얼굴과 골격이 변했습니다. 대체 무슨 조화인지...”

“마법사들의 개입이다.”

“마법사 말씀이십니까? 그들이 어째서...”

“최근 마탑의 낌새가 심상치 않았다. 마탑의 규칙을 어기고 정세에 관여하려는 세력이 나타났지. 자칫하면 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마탑의 일부 세력이 저지른 일이라도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한다. 게다가 인테제르 후작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한 이상 마탑과의 교섭에서 이익의 권리는 인테제르 후작가에 우선적으로 있다.

‘잘하면 마탑을 집어삼킬 수도 있겠는 걸?’

마탑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태껏 입을 다물고 있던 딜런이 나를 불렀다.

“아가씨.”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잠시 바라보다 다시 의자에 앉았다. 손짓으로 마법을 푼 다음 고고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딜런. 할 말이라도 있나?”

결코 바닥에 닿지 않았던 그의 마지막 한쪽 무릎이 마침내 내려갔다. 그리고는 그는 바닥에 머리를 세차게 박았다.

“감히 아가씨의 의심하였던 점, 죽음으로 갚겠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뚝뚝 흘러내리는 모습에 내 표정은 잠시 흔들렸다. 바보 같을 정도로 우직한 그의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대의 목을 베어봤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

“내 권위와 그대의 목숨, 둘 중 하나를 버리라 이건가? 미안하지만 난 둘 중 어느 것도 버릴 수 없어.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그대는 아직 내 사람이 아니니, 난 그대에게 무조건적으로 날 신뢰하라 강요할 생각은 없어. 명령에 불복종한 것은 처벌을 내려야겠지만.”

“제가 아가씨를 신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대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째서 그대의 신뢰를 바란다 생각하는 거지?”

“...”

“나는 그대에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충성심 따윈 요구한 적 없어.”

그것은 선고였다. 내게 있어 그는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선고. 사형을 면제받은 죄인은 고개를 푹 수그렸다.

“시간이 있었으면 그대를 설득했을 거야. 아니, 애초에 이런 무식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겠지. 하지만 내겐 시간도, 증거도 부족했다. 그 점을 참작하여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지.”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순종적인 그의 말에 나는 생긋 웃으며 다리를 꼬았다. 허공에 뜬 발을 고개 숙인 그의 코에 갖다 대었다. 그의 이마에서 떨어진 피가 구두의 앞코에 떨어졌다.

“핥아.”

“...예?”

“내가 분명 말하지 않았나? 내 구두를 핥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시간을 꽤 많이 주었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끝나지 않은 건가?”

딜런은 멍청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건 연무장에 있던 기사들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내가 왜 그러냐는 듯이 발을 살짝 흔들자 딜런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내 발을 감싸 쥐었다.

“영광입니다, 나의 작은 주인.”

“케, 케이렌 경.”

페르엘 백작이 딜런을 말리려는 듯했으나, 딜런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붉은 혀가 내 구두에 닿았고, 나는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만.”

계속해서 구두에 떨어지는 핏방울을 핥던 딜런은 내 저지에 손수건으로 구두를 닦고는 한걸음 물러섰다. 나는 여전히 무거운 머리를 손으로 지탱하며 말했다.

“이후의 처우는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딜런은 대기하고 있으세요.”

“예.”

나는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무사하실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동문은 어떻게 되었지?’

그 질문을 던지자 어두컴컴하던 주변이 다시 변했다. 이곳저곳에서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망루를 올려다보자 명령을 내리고 있는 아버지가 보였다. 붉은 피를 잔뜩 뒤집어썼지만 다행히 다치신 곳은 없는 것 같았다.

‘끝났나 보네. 하지만 피해를 많이 입었어.’

본래 이 시기에 몬스터들이 습격할 일은 거의 없었다. 경비가 허술해진 만큼 피해 또한 컸을 터였다. 그만큼 뒤처리가 힘들어질 것이다.

“아가씨.”

딜런의 목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다시 돌아온 현실에 익숙해지려 눈을 몇 번 감았다 뜨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문의 상황은 끝났습니다. 저택에 남아있는 의원들을 전부 보내세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경상자는 저택으로 보내세요.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영애께서 말씀이십니까?”

“간단한 치료 마법 정도는 가능합니다. 전 저택으로 돌아가도록 하지요.”

자리에서 일어나자 세상이 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잔상은 사라졌지만 머리가 너무나도 어지러웠다. 그리고 아까 전부터 이상하게 역겨운 느낌이 들었다.

‘시체 때문인가? 아니야, 뭔가가 찜찜한데...’

나는 인상을 찌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역겨운 느낌은 가렐 경에게서 풍기고 있었다.

“가렐 경, 그게 뭡니까?”

“예? 무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에게 다가가려 발을 떼자 순간 다리가 휘청했다. 딜런이 나를 황급히 부축했다.

“아가씨,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괜찮아요. 가렐 경,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 첩자 놈들이 가지고 있던 수통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농경지에 뭔가를 뿌린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손을 내밀자 그가 수통을 건넸다. 수통에 있는 약물은 소량이었지만 지독하게도 역겨운 마력을 품고 있었다.

‘뭘로 만들었기에 이런 거야?’

물통을 내용물은 손바닥에 조금 따랐다. 그 순간, 이번에는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살려 주세요. 제발, 제발.”

어린아이들이 겁에 질린 채로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한 여자에게 목을 잡힌 아이는 애처롭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절한 바람은 여자에게 닿지 않았고, 아이는 작은 비명을 내뱉고는 그대로 죽어버렸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엉덩이에 닿을 정도로 길었고, 타는 듯한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아텔라.”

내 목소리를 듣고서는 여자는 뒤를 돌았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심장이 들려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황후 폐하.”

과장된 몸짓으로 내게 인사하는 그녀 때문에 아이들은 움츠러들었다.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텔라뿐인 듯했다.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야 폐하께 가기 위한 준비지요. 이리 다시 만나니 좋네요. 실제로 만나는 게 더 좋지만 엿보고 계시는 중이니 이야기밖에 할 수 없군요.”

“엿봐?”

“어머? 아직 능력도 자각하지 못하셨어요? 폐하께서는 과거를 엿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리 폐하를 눈치챌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영혼과 내 영혼이 이어져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내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눈치챈 그녀는 비릿하게 미소 지었다.

“눈치도 빠르시지. 폐하께서는 제가 만든 마법약을 접촉하여 엿보고 계신 듯한데, 이 아이들은 마법약의 재료랍니다. 심장에서 짜낸 피와 마력으로 만들 예정이거든요. 아니, 만들었다고 해야 하나?”

“이런, 미친년이!”

나는 그녀에게 달려들었으나 내 몸은 그녀를 통과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킬킬대면서 나와 시선을 맞추었다.

“기다리세요, 폐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당신의 것을 빼앗으러 갈 테니까요. 당신이 황제의 아내가 되는 순간을 기다리죠.”

“내가 또 그 새끼랑 결혼할 것 같아?”

“무엄하기도 하셔라. 황제 폐하, 아니 황태자 전하께 어떻게 그런 망발을...”

“...”

“쿡, 많이 변하셨네요. 입도 험해지시고. 좋아요. 그럴수록 망가뜨리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한 십 년 뒤에 다시 만나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자 세계가 다시 뒤집혔다. 내 어깨를 흔드는 딜런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아가씨, 왜 그러십니까?”

정신을 차린 나는 바로 들고 있던 수통을 집어던졌다. 심장이 빠개질 듯이 고통스러웠고 거친 숨이 터져 나왔다.

“힉..., 힉...”

“아가씨!”

딜런이 황급히 나를 보았다. 그는 내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잠시 멈칫하더니 내 눈과 이마를 감쌌다. 차가운 손이 약간이나마 정신을 유지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폐는 불규칙하고 거칠게 공기를 갈구했다.

“물러나세요, 딜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얼굴을 감싼 손이 사라졌으나 시야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무작정 손을 내밀었다. 내 불안감을 감싼 것은 어머니의 손이었다.

“시엘, 엄마 봐.”

“헉..., 컥...”

“엄마 보고 천천히 숨 쉬어. 천천히.”

어머니와 맞닿은 손에서 마력이 느껴졌다. 따뜻한 기운이 가슴속을 정리해주는 느낌이었다. 호흡이 안정되자 흐릿했던 시야가 선명해졌다. 어머니의 눈은 면사포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너머의 눈이 드래곤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건 내 눈 또한 마찬가지일 터였다.

“어, 머니...”

울 생각은 아니었다. 그러나 몸이 안정되자 생리적인 눈물이 흘러나왔다. 눈물로 인해 또다시 시야가 흐려지고 그대로 어두운 세상이 나를 감쌌다.

“아..., 아아.”

나는 울고 있었다. 정말로 우는 것은 아니었지만 붉은 눈은 끊임없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이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이라는 여자, 정말 끔찍합니다.”

이 정도 악담은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내게 이런 말을 하는 당신은 누굴까.

“이거 하나만 알아둬요. 붉은 눈은 결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빛깔이라는 것을.”

나는 자조적인 미소를 짓는다. 그것은 내 정체를 밝히는 말, 나는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헉!”

경기를 일으키며 화들짝 일어나자 놀람과 걱정을 담은 눈으로 힐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가씨, 정신이 드세요?”

“여긴..., 내 방?”

“사흘을 내리 앓으셨어요. 다시 누우세요. 갑자기 움직이거나 목소리 내시면 안 좋아요. 제가 히페리온 님을 데려올게요.”

“히페리온? 그가 여기 와 있어?”

“예, 아가씨의 스승님이자 주치의이시라면서요? 그분이 어찌나 아가씨를 걱정하던지.”

“힐데도 만만찮게 걱정한 것 같은데.”

“넉살을 보니 정신은 확실히 드신 것 같네요. 누워 있으세요.”

서둘러 방을 나가는 힐데의 눈은 부어 있었다. 나는 흥건한 식은땀을 소매로 대충 닦고는 주위를 살폈다. 창밖은 황혼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누가 와서 이 쓸쓸함을 지적해다오.”

“저무는 황혼으로 내 사랑을 죄다 보여주겠다.”

낮은 목소리가 내 말을 이었다. 나는 푸른 머리를 가진 그를 보고는 생긋 웃었다.

“오랜만이네요, 스승님.”

“오랜만입니다, 제자님.”

그는 스스럼없이 내 옆에 앉고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삼일 간 땀을 흘리고 목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얼굴을 붉히며 그의 손을 쳐냈다.

“히페리온이 여긴 무슨 일이에요.”

“이리스가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제 멱살을 잡고 끌고 가더군요.”

“거짓말이야, 엄만 그런 적 없어.”

“예, 거짓말입니다.”

뒤에서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잠옷에 가운만 간단히 걸치고 있었기에 방에서 바로 텔레포트를 한 듯했다. 어머니의 부정에 웃으며 바로 실토하는 히페리온의 모습에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뭐예요, 진짜.”

“난 저놈한테 네가 아프다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부리나케 달려오더라.”

“한마디라뇨. 시엘이 이상한 마법약에 중독되었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던 분은 어딜 가셨나요.”

“어머, 어딜 가긴? 여기 있지. 그리고 나는 너한테 오란 말 한마디도 안했거든? 그냥 우리 딸이 마법약에 중독...까지만 말하니 바로 텔레포트 했으면서.”

“이리스, 당신은 마법약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니까요. 어지간하면 당신이 강제로 마법을 파훼했겠지만 제게 연락을 했단 것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변함없이 눈치가 빨라서 재수 없어.”

살벌한 신경전을 벌이는 어머니와 히페리온 사이에서 나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쩐지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머리가 아파오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손으로 만졌던 마법약에 중독되었어. 그것 때문에 쓰러졌고 엄마가 널 황급히 데리고 온 거지.”

“그럼 다른 사람들 전부 어머니를 봤겠네요?”

“얼굴은 가렸단다.”

“얼굴을 가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황태자에게 당당히 몸이 아파서 접대도 하지 못한다 말했는데, 저택을 활보하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렴. 네 연기력이 누구에게서 나왔겠니.”

“예,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셔서 두 배로 고생했죠.”

“피를 토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연구 샘플로 가지고 다니던 인간의 혈액입니다. 당신에게 신경 쓰는 사이 제 가방에서 몰래 빼서 그대로 삼키고는 바로 토해버리셨죠.”

“와우...”

의기양양하게 브이자를 만드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나는 감탄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었다.

“그런데 그 마법약 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 그것도 어린아이를 재료로 쓰다니. 당신이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독했습니다.”

“그러게요. 히페리온이 웬만한 마법은 안 통한다 해서 별생각 없이 접촉했는데 내 실수였어요. 설마 그 여자가 벌써부터 개입할 줄이야.”

“그 여자요?”

“내 적이요.”

그 대답에 히페리온은 빤히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가져온 가방에서 작은 환약 세 알을 꺼내 내게 건넸다.

“먹어요. 그동안은 물에 타서 먹였지만 그냥 먹어야 효과가 잘 듣습니다.”

“안 물어봐요? 그 여자가 누군지.”

“천룡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으니 섣불리 묻진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을 믿을 뿐이에요.”

무덤덤하지만 흔들림 없는 그 대답에 가슴이 조금 뭉클해졌다. 시큰해지려는 코를 들키지 않기 위해 환약을 입에 털어 넣었다.

그리고는 밀려오는 고약한 쓴 맛에 바로 후회했다.

“써!”

“당연하죠, 이번에도 무슨 약인지 확인도 안 할 게 뻔해서 일부러 엄청 쓰게 만들었습니다.”

“히페리온!”

내가 짜증을 내자 히페리온이 고요하지만 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 약간 찔끔해져 시선을 돌렸다.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당신을 방심하게 만든 내 잘못도 있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음, 그럭저럭? 마물에 의한 피해는 어느 정도 수습됐고, 농경지에 뿌려진 마법약은 히페리온이 해결하기로 했어.”

“히페리온이요?”

“히페리온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다 보였으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히페리온은 엄마가 마탑에 있던 시절의 제자고, 네 마법 스승이다. 이번 일은 히페리온과 대립하고 있는 마탑의 일부 세력이 벌인 일이니 히페리온이 우선 해독제를 만들고 추후에 공식적으로 마탑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둘러댔지.”

“그럼 사람들은 엄마가 마탑의 마법사라고 알고 있겠네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네 아빠 만난 이후로 마탑에서 나와 후작부인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걸로.”

“...그렇군요. 급조한 변명치고는 괜찮네요.”

“그나저나 그 년이었다고?”

“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틀림없이 전생처럼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보다 어머니.”

나는 생각 없이 어머니에게 물어보려다 히페리온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는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시간을 내주십시오, 시엘.”

“고마워요.”

히페리온이 방을 나가고 나는 바로 미소를 지웠다. 몸이 노곤했기 때문에 높게 기대 놓은 베개에 몸을 뉘었다.

“그 여자는 제게 십 년 후에 만나자고 했어요.”

“...”

“그 십 년 동안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죠?”

어머니는 침묵에 잠겼다. 턱을 만지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다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은 더 갖고 있으려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걸 네게 줘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가 건넨 것은 책 한 권이었다. 나는 그것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게 뭔가요?”

“카시스의 일기. 네게 남긴 그의 유산이란다.”

“...예?”

“이 안에는 세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 카시가 남긴 이것이 네 이정표가 되어줄 거

라 하더구나. 실제로 엄마가 만든 이 세계도 카시가 설계한 마법이었어. 읽어보렴.”

나는 그것을 받아 들고는 첫 장을 펼쳤다. 첫 장에는 알아볼 수 없는 문자로 이루어진 마법진이었다. 히페리온의 서재에서 봤던 드래곤의 고어와 비슷해 보였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고는 불만 어린 소리로 말했다.

“못 읽겠는데요.”

“다음 장은 읽을 수 있을 거야.”

팔락.

종이가 무척이나 부드럽게 넘어갔다. 천 년 전의 일기 치고는 상태가 무척이나 좋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보호 마법이 걸려있는 것 같았다.

「안녕, 시엘? 나는 네 사촌오빠 카시스야. 나는 네가 무척이나 익숙하지만 너는 나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겠구나.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와 내가 사는 시간은 다르니 이렇게 편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구나. 네가 살아있는 때는, 나는 이미 죽은 지 오래일 테니...

너에게 왜 이런 편지를 남겼냐 하면, 그것이 내 사명이었기 때문이야. 내 어머니나 이리스는 혼란한 인간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너를 위해 길을 닦고 준비하는 것, 그게 내 진짜 사명이야. 제국을 세운 것은 너를 위한 준비과정 중 하나에 불과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조금 혼란스럽지? 천 년 전의 내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지.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구나. 일단 요점만 말하자면 천룡들의 사명은 단 하나야.

사명이 무엇인지는 네가 직접 깨달아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해주지는 않을 거야. 다만 파툴키우스 때부터 이어진 사명은 나를 거쳐 네 대에서 완성될 거야. 천룡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사명을 완료하면 더 이상 천룡은 태어나지 않아. 즉, 네가 마지막 천룡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히페리온에게 천룡을 연구하는 쓸데없는 짓은 그만하라고 해. 이제 역사에서 천룡이 출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테니까.

...사설이 붙었네. 아무튼 명심해둬. 사명을 완료하지 못하면 이 세계는 멸망해. 그러나 나는 네게 사명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비록 나는 평생을 내가 맡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살았지만 그건 거지 같은 사명 때문이 아닌 너를 위해서였어. 네게 조금이라도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언젠가 너는 괴로운 선택을 해야 하고, 나는 네 마음 가는 대로만 선택했으면 좋겠어. 사명을 이루지 않아도 좋아. 거지 같은 사명이야 엿이나 먹으라지.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시작의 천룡은 앞으로를 위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어. 나는 파툴키우스를 보고, 또 너를 보기 위해 과거와 미래 둘 다를 볼 수 있지. 마지막 천룡인 너는 과거를 볼 수 있어.

나는 엿본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가 보여주는 대로 준비했지. 그러나 미래라는 것은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미래를 볼 수는 없어. 다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혹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은 단편적으로 볼 수 있지. 흔히들 그걸 운명이라 부르더라고. 나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네가 한 번 붉은 드래곤에게 살해당하고, 이리스가 내가 만든 마법을 바탕으로 허상 세계를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미래였어. 앞으로 네가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이 일어날 테고, 나는 너를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택하기를 원했어. 하지만 너는 과거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미래를 보지 못하지. 그래서 나는 네게 펜던트를 남겼어. 그 펜던트는 앞으로 내가 볼 모든 미래를 담을 거야. 펜던트를 매개로 너는 내가 본 미래를 과거로써 볼 수 있는 거지.

물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강제적 능력의 남발이기 때문에 네게 부담이 될 거야. 네가 마법약에 중독된 것도 미래를 강제적으로 봄과 동시에 과거를 보려 했기 때문에 육체가 견디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능력은 신중히 사용하는 게 좋아. 나도 몇 번 피 토해봤으니까.

앞으로의 미래는 때가 되면 순차적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그에 따라 이 일기의 뒷장도 볼 수 있을 거고. 시엘, 부디... 행복해지렴. 네 행복은 세계보다 중요해. 네게 무거운 짐을 남겨 미안하다.」

다음 장은 백지였다. 아마 때가 되었을 때 읽을 수 있겠지.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내게 보낸 편지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과를 난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은 어째서 사과하는 거지? 무엇을 보았기에?’

두려웠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해놓은 카시스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시엘?”

어머니의 부름 덕분에 나는 상념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일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니?”

“별 거 없어요. 저도 읽을 수 있는 건 아직 일부분 뿐이라서. 그나저나 카시스... 오라버니는 아스타보다 어머니를 닮은 것 같네요.”

중간중간에 산통을 깨는 말들이 특히나.

“무슨 소리야. 아스타가 변한 것뿐이야. 반려와 카시를 잃었기 때문에 아스타의 마음은 죽어버렸어. 대부분의 드래곤은 천 년 이상을 살지는 않아. 반려와 함께 생을 끝내지. 아스타는 카시의 유언 때문에 버텨왔던 것뿐이지만.”

아스타가 가진 공허함이 생각났다. 그 공허는 예전에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제게 그의 뜻을 전달해줘야 됐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드래곤을 위해서였어. 카시는 내가 로드의 지위를 버릴 것을 예견했던 거야. 로드는 마을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대신 아스타가 그 자리를 맡은 거지.”

“히페리온이 있지 않나요?”

“히페리온은 아직 어리니까. 언젠가는 로드가 되겠지만 적어도 한 세기는 더 기다려야 해.”

‘히페리온 500살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드래곤들의 시간관념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나는 하하 웃고서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일단 마탑부터 손에 넣을 거예요.”

“마탑을?”

“약점을 잡았으니까요. 이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넘어가기엔 아깝잖아요? 그리고 마법사들이 어떻게 그 여자랑 접촉했는지 알아야겠어요. 전 그 여자가 십 년을 잠자코 기다릴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탑... 마탑이라. 분명 카시가 옛날에 마탑과 맺은 계약이 있을 텐데?”

“제국과 맺은 계약이요? 제국이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대신 제국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아티팩트를 공급해주는 거였죠?”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도 맺은 계약이 있다 들었는데.”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는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갑자기 작은 바람이 손 근처에서 느껴져 보니 분명 덮어놨던 카시스의 일기가 펼쳐져 있었다. 백지였던 페이지에 검은 글씨가 서서히 나타났다.

“어라?”

“왜 그러니?”

“글씨가...”

“미안하지만 엄마는 안 보이는구나. 애초에 맨 앞의 마법을 제외하고는 너밖에 못 읽게 되어있거든.”

“흐음...”

「이 글을 본 순간은 네가 마탑주가 될 결심을 했을 때겠지. 뭐, 다른 마법사들처럼 원대한 야망 같은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하니까 하겠다 정도의 욕심이겠지만. 그렇지만 네가 그 결심을 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뻐. 방금 내가 보았던 마탑주가 된 너의 모습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 광경을 실현하기 위한 재미있는 생각도 떠올랐고.

내가 있던 시기의 마탑 역시 골칫거리야. 전쟁에서 용병처럼 활동하니까 그들은 전쟁이 계속되길 원하거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네가 보여준 미래가 어느 정도 실마리를 보여준 것 같아. 그리고 네가 마탑을 손에 넣는 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겠지. 자세한 이야기는 마탑과의 계약을 마무리한 다음에 전해줄게.」

「방금 전에 마탑과의 계약을 마치고 돌아왔어. 근 삼개월간 그 일에만 매달려 있었더니 우리 황후 폐하 눈총이 장난이 아니야. 아무래도 오늘 밤에 삐진 것 좀 풀어줘야지. 큼!

아무튼 나는 마탑과 두 개의 계약을 맺었어. 하나는 제국의 황제로서 제국이 마탑에 지원을 해 주는 대신 제국에 아티팩트를 공급하는 것. 아마도 제국을 이어 다른 나라들 또한 이러한 계약을 맺겠지. 살상 마법은 금지했지만 실용 마법은 편리하니까.

두 번째로 내가 천룡으로서 맺은 개인적 계약은 네가 마탑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야. 마법사들이 바깥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그들에게 드래곤들과 교류를 할 수 있게 해 주었어. 물론 현 드래곤 로드에게 두들겨 맞기는 했지만. 아! 그러고 보니 현 로드 레스, 그러니까 내 어머니와 이리스의 스승에 대해서 잘 모르겠구나.

레스는 내 스승이기도 해. 처음 드래곤의 마을에 갔을 때, 레스가 날 보더니 크게 한숨을 내쉬더라고. 나는 당시에 힘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고 레스가 내 스승이 되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었지. 어머니나 이리스는 누구를 가르치는 데 서투르거든.

네가 레스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 아쉽다. 그래도 걱정 마. 레스의 아들인 히페리온이 그를 빼다 박았거든. 얼마 전에 레스를 만나 그에게 앞으로 태어날 히페리온의 이야기를 귀띔해주니 무척이나 기뻐하더라고.

에구, 또 이야기가 딴 데로 새 버렸네.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나와의 계약을 위반할 거야. 물론 위반하라고 한 계약이지만 책임은 물어야겠지. 아마 처음에는 배 째라고 하겠지만 내가 절대 반박할 수 없게 만들어놨거든.

내가 맺은 계약은 내 후계자에게 넘기겠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 후계자는 마법 인장을 찍을 때 사용했던 팬던트의 소유자이고. 너에게 준 팬던트 말이야. 일단 마탑을 절대적인 을로 만들어놨으니까 비어있는 계약위반의 책임 공란은 네 마음대로 이용해. 그들은 내가 마법사들을 믿었기에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생각하겠지만 말이야, 멍청하게도. 그럼 다음으로 보게 될 내 편지에서 기다릴게.」

“카시스 오라버니, 진짜 철저하네요.”

“개가 좀 변태적일 정도로 꼼꼼하긴 했지.”

어머니의 애정 어린 한탄에 나는 웃음을 삼킬 수 없었다. 나는 킥킥 웃으며 목에 걸려있는 팬던트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자, 그럼. 이 환상적인 패를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요?”

딜런은 연무장 한가운데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복기를 하기 위해 앉았으나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가씨였다. 어릴 적 주군의 무모한 모습을 빼다 박은 말괄량이라서 시엘을 사랑했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시엘은 변해버렸다. 그녀는 이리스와 보다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마님이 인간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어.’

다른 사람보다 육감이 발단한 딜런은 자신의 주군이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왔을 때 눈치챘다. 이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 사실을 주군도 아는 눈치였고 그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태어나고, 모두가 행복했기에 괜찮았다.

“그 눈은 대체 뭐였던 거지?”

마님이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엘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물론 또래보다 힘이나 운동신경이 월등하긴 했지만 마님처럼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시엘은 아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건만... 인간의 것이 아닌 동공을 보자마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급히 숨겼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마님의 고향에 다녀왔다고 했지.”

이리스의 고향이라면 그녀와 같은 존재들이 득시글거리겠지. 그렇다면 변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다. 그러나 딜런이 아쉬운 것은 그녀가 품고 있던 순수함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은 여전하군.”

예전에는 그 순수함이 사랑스러웠다면, 지금은 그 기이함이 아름다웠다. 자신의 발을 내밀던 그녀에게 그는 또다시 사로잡혔다.

“아아, 다 늙어빠진 지금의 주군은 버리고 예쁜 아가씨를 모시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각하?”

“어떡하긴 뭘 어떡해. 예전 주군을 쓱싹하고 하루빨리 자유기사가 돼야지.”

“어? 그럼 지금 각하의 목 따도 됩니까?”

“내 목 따기 전에 네 목 잘릴 걱정부터 해라. 어디서 우리 딸한테 검을 들이대?”

“그리고 여덟 살짜리 아가씨에게 깨끗하게 졌습니다.”

딜런의 말에 아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둘이서 하는 달구경은 굉장히 오랜만이었고, 둘 모두 저절로 술을 떠올렸다.

“한 병 가져올까요?”

“한 병만?”

“두 병 가져오겠습니다.”

딜런은 자리에서 일어나다 갑자기 난 생각에 아서에게 물었다.

“각하.”

“응?”

“결국 마님의 정체는 뭡니까?”

“드래곤.”

“드래곤을 잡아오시겠다더니 드래곤에게 잡혀 사는 겁니까?”

“...”

조용히 입을 다무는 아서를 힐끗 보고서는 딜런은 고개를 내저었다. 술 창고를 향해 걸음을 옮기며 딜런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되짚었다.

「내가 그대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째서 그대의 신뢰를 바란다 생각하는 거지?」

“신뢰.”

아마 시엘이 말한 신뢰란 충성일 것이다. 즉, 그녀는 자신의 충성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자신은 이미 그녀의 아버지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니까.

물론 아서의 뒤를 이어받는 시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절대적인 충성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시엘이 그의 신념에 반하는 명령은 거부했으니까.

“아가씨는 마님을 닮았어.”

우직한 자신의 주군보다는 유연하지만, 그만큼 자비가 없다. 그리고 그만큼 위태롭다. 그녀를 지키고 싶지만 시엘과 자신의 세대는 달랐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를 지킬 기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들어오는 놈들은 더욱더 제대로 굴려야겠군.”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연락을 전부 미소로 응대하면서 라트로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마탑의 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체투스 연합국의 첩자 문제로 인해 정신없이 바빠지면서 시엘의 병문안조차 가지 못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때를 노리고 자신의 시찰을 막으려는 세력들로 인해 골치가 아팠다. 시찰은 둘째치고 시엘의 작은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하, 안에 계시옵니까?”

“들어와.”

시종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났으나 라트로는 서류를 확인하느라 그에 신경 쓸 수 없었다.

“무슨 일이지?”

“후작 영애께서 깨어나셨다 합니다.”

“그게 정말인가!”

라트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곧 있으면 해가 저물 터, 지금 이 시간에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전하, 어찌 그러시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영애의 상태는 어떤가?”

“영애의 스승이라는 마법사가 상태를 보러 들어갔사온데 하녀의 말에 따르면 열도 내렸고 정신도 온전하다 합니다.”

“다행이군.”

라트로는 책상 위에 쌓여 있는 서류더미와 바깥을 번갈아 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영애에게 병문안을 가겠다 일러라. 시간은 그래, 내일 정오가 좋겠군.”

“예, 그리 전하겠습니다.”

시종이 나가고 라트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엘이 의식을 찾지 못한 사흘 동안 라트로의 심장은 꺼멓게 타들어갔다. 그로써 라트로는 자신이 시엘에게 얼마나 빠져있는지 인식하게 되었다.

“사랑이라는 거 참,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의 두서없는 질문에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보좌관, 앨버가 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다 미묘한 웃음 지었다. 그 모습에 왠지 울컥해진 라트로가 흰 눈을 뜨고 앨버를 노려보았다.

“왜, 뭐!”

“아니, 황태자 전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새삼 감개무량하여...”

“나는 자네의 그런 점이 싫어.”

큼 하고 헛기침을 한 앨버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는 장황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전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전하의 춘추도 어언 열셋이십니다. 슬슬 여인에 눈을 뜨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대상이 성인 여성이 아닌 여덟 살의 어린 영애라는 것이 남들과는 달라 비범하시긴 하나 황제 폐하와 같은 순애보로 이름을 남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전하께선 항상 감성적인 부분보다 정치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셔서,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장차 제국을 이끌어갈 군주로서...”

“그만, 자네가 곤란할 때마다 펼치는 일장연설에는 이제 학을 땔 정도야. 그리 시시때때로 강조하지 않아도 자네가 외교부 장관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니 이제 그만하게.”

“예? 외교부요?”

“자네의 그 잘 돌아가는 입을 어찌 내 밑에만 두겠나. 외교부로 쫓아내야지.”

“싫습니다. 거긴 재정부 다음으로 일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능한 자네가 가야지.”

라트로가 씩 미소를 지으니 앨버는 울상을 지으며 다음 서류를 넘겼다. 겨우 조용해지나 싶었더니 때마침 요란스레 울리는 통신구에 라트로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냥 부숴버릴까 보다.”

“그럼 바로 수도로 귀환하셔야겠죠. 이번 시찰의 조건이 언제든 황궁과 연락이 닿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바마마는 쓸 데 없이 걱정이 너무 많아.”

“그야 전하께서 황태자이신 이상 위험은 항상 따르는 법입니다.”

라트로는 사람 좋게 앨버의 말을 웃어넘기며 통신구에 손을 댔다. 발신자는 인테제르 영지 다음으로 들릴 예정이던 백작가였다.

“전하, 오랜만에 뵙사옵니다.”

깡마른 인상의 중년 사내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라트로는 위엄 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참으로 오랜만이군. 어쩐 일인가?”

‘미안하지만, 우리 만난 적이 있던가?’

“소신, 후작가에 있던 불상사를 듣고는 전하의 안위가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실례를 무릅쓰고 전하의 무탈하신 모습을 이 두 눈에 새기고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아, 백작의 충심은 아주 잘 알겠네. 그래서 용건이 무언인가?”

“예? 아니, 그것이 전하의 안위를 확인하고자...”

“내 안위를 확인하고자 황궁 통신구를 사사로이 사용했단 말인가? 그것 참 충성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뚫겠군, 아주.”

“부, 불쾌하셨다면...”

“아니, 아닐세. 그보다 날 이리 재촉하는 것을 보니 백작의 여식이 아주 참한 영애 인가 보군. 지금 소개해 줄 수 있는가?”

“예, 허나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시는 편이...”

“하루빨리 얼굴을 보고 싶어 그러네. 레이디의 미모가 통신구를 거친다고 죽겠는가?”

“아,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데려오겠습니다.”

백작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라트로는 미소를 풀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그리 애 닳아서 먼저 보여준다면 굳이 영지에 갈 필요는 없지. 앨버, 다음 일정은 빼고 후작가에 며칠 더 잔류하겠다 이르게.”

“예, 알겠습니다.”

라트로는 곧이어 만날 백작 영애를 기다리며 시엘의 병문안 선물로 가져갈 꽃은 뭐가 좋을지, 환자에게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라트로는 꽃다발을 손에 들고 다시 한번 옷차림을 점검하고서는 방문을 두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유순한 인상의 여인이 보였다.

“황태자 전하를 뵈옵니다.”

“후작 영애는 안에 있는가.”

“송구하오나 지금 히페리온 님께서 와 계신지라 잠시만 기다려 주신다면...”

“히페리온?”

“아가씨의 스승이십니다.”

“아아, 그 마법사인가. 나도 언제 한 번 만나보고 싶었으니 상관없네. 지금 안에 들어가도 괜찮겠는가?”

“예?”

“힐데, 안으로 모셔.”

듣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던가. 라트로는 작게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방에 들어서자 침대 헤드에 기대앉아있는 시엘이 보였다. 약간 초췌해 보이는 얼굴에 마음이 쓰렸지만 무사한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황태자 전하를 뵙습니다. 송구하오나 육체가 미령 한지라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점을 사죄드립니다.”

“아니야, 그대가 이리 무사한 모습을 보니 더 바랄 것이 없군. 여기 선물이네.”

라트로가 내민 꽃다발을 받아 든 시엘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애써 씁쓸한 미소를 감춘 라트로는 침대 옆에 앉아있는 푸른 머리의 미남자와 시선을 마주쳤다.

푸른 머리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라트로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그에게서 시선을 옮겨 시엘을 보았다. 힐데에게 꽃을 넘기던 시엘은 미미하게 인상을 찡그리더니 라트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스승님, 인테제르 제국의 황태자이신 라트로 폰 유피테르 전하이십니다. 전하, 이쪽은 제 스승이신 히페리온...님입니다.”

‘시엘과 같은 붉은 눈.’

라트로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보는 붉은 눈이었다.

“만나서 반갑소, 히페리온 공. 우선 이번 사태를 수습해준 것과 영애를 치료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오. 이번 사태의 주범이 공과 대립하는 세력이라 들었소만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제국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길 바라오.”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제자를 치료하는 일에 감사를 받을 이유는 없지요. 오히려 시엘에게 마법약에 대한 주의를 주지 못했던 제 불찰입니다. 허면 두 분이서 담소를 나누시게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히페리온이 가방을 들고일어나려다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다시 자리에 앉아 가방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작은 약병에서 환약을 두 알 꺼낸 히페리온이 웃으며 시엘에게 건넸다.

“오늘치 약을 깜박할 뻔했네요. 자, 시엘. 약 먹어야죠.”

무덤덤하던 시엘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마치 원수라도 되는 듯이 약을 노려보기 시작했다. 잠시간의 정적 끝에 시엘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히페리온,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시엘의 작은 볼이 부풀었다가 이내 포기하고는 약을 입 안에 넣었다. 히페리온에 건네는 물을 받아 마시는 모습이 새롭고 또 귀여워서 리트로는 풀어지려는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시엘, 밤에 책 읽지 말고 꼭 주무세요. 몸을 회복하는 데 있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요.”

“네. 네. 잔소리 그만하고 제가 부탁한 일이나 잊지마세요!”

“지금 갑니다.”

히페리온의 잔소리를 여유롭게 넘기는 시엘은 라트로가 알던 것보다 다채로웠다. 그리고 시엘이 따르는 히페리온에게 질투가 났다.

‘질투하지 말자. 그녀의 스승이잖아. 나는 아직 약혼자도 뭣도 아니야.’

히페리온이 나가자마자 시엘의 표정이 다시 경직되었다. 시엘의 얼굴을 관찰하던 라트로는 그 변화에 놀라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합니다.”

“내가 빨리 온 것인데 무얼... 그보다 사제관계가 보기 좋군.”

“좋게 봐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힐데, 전하와 긴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나가줘.”

힐데가 차를 준비하고 나가는 동안 라트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시엘의 눈치를 살피고만 있었다. 지난번에 봤던 것보다 훨씬 냉랭하고 예기를 품은 눈동자가 괜히 건드렸다간 큰일 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명색에 황태자라는 놈이 어린 여자애 눈치나 살피고 앉아 있고...’

“전하,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탁?”

“이번 일로 인해 체투스 연합국과 마탑과의 협상은 불가피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빠져나갈 구실이 없게 최대한 빨리 협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마탑과의 협상을 조금만 늦춰주시기를 청합니다.”

“그건 제국민으로서 하는 부탁인가?”

“...”

“영애가 마법사라는 것은 알고 있지. 이번 일로 인해 마법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거야. 영애는 마탑의 책임을 축소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내가 왜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하지? 명색에 후작가의 여식인 그대가 제국보다 마탑을 우선시하는 것은 탐탁지 않아.”

“전하, 저는 제국민이자 마법사입니다. 이건 그 양측을 사이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해보게.”

“이번 일이 제 스승과 대립하고 있는 마탑의 일부 세력이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들의 목적은 마법사 사회의 개방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방식을 선택하긴 했으나 저도 마법사들이 진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국의 입장에서도 마법사라는 재원이 생기는 것이니 나쁜 것은 아니지요. 지금까지는 통신구 등의 실생활에 쓰이는 소량의 아티팩트 정도만이 유통되어 왔으니까요. 그러나 제국이 염려하는 바는 마법사들이 전쟁에도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마법사들이 용병처럼 활동하였다고 하니 힘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있지요.”

“잘 알고 있군.”

“그러나 저는 제국이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전란의 시대였고 마법사들은 연구비를 목적으로 활동하였지요. 초대 황제 폐하께서는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마법사들의 진출을 막았습니다.”

시엘은 막힘없이 말을 하다 목이 타는 듯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라트로 또한 찻잔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금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소규모 전투 이외에는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은 불확실하나 마법사들의 주목적은 마법의 연구에 있습니다. 전투 마법보다는 다른 마법들이 훨씬 발전되어있고 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전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다양한 용도의 아티팩트들 또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법이지. 전쟁이 일어나면 마법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그 때문에 제가 협상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마탑 내의 급진세력들을 모두 정리하고, 이번 일에 책임을 지는 겸 제국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호오, 유리한 협상안이라...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영애?”

라트로는 갑자기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방에는 분명 단 둘 뿐이었다.

“놀랐느냐? 여기다, 태자.”

라트로는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시엘의 하늘색 머리카락을 내려 묶은 리본의 루비 장식이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바... 아니, 폐하?”

“정말로 눈치 채지 못할 줄이야. 이거 괜찮군.”

“황궁에서 사용되는 통신구는 무겁고 큰 구형이 대부분이니까요. 지금 사용하는 통신구는 아직 미완성품이지만 휴대하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어떠십니까, 폐하? 제 가 어제 드린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건 영애의 협상안을 듣고 나서 하지. 그리고 태자는 상황을 잘 모르지 않는가.”

“그럼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자 전하께서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는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다 하셨지요. 해서 저는 마탑과 제국 간의 관계에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개혁안?”

“이번 일에 책임을 물어 제국에서 지원하던 연구비를 단절시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황궁에서 사용하는 아티팩트를 받았으나, 황궁 안에서 사용하기도 부족한 데다 하나같이 질이 떨어지는 저급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껏 제국은 손해를 입어왔습니다.”

“허나 지원을 끊는다면 그 아티팩트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마탑에게 제안하는 것이 마법사 사회의 개방과 함께 아티팩트를 판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매?”

“예, 제국에서는 마탑의 지원금을 그쪽으로 돌려 좀 더 양질의 아티팩트를 구매할 수 있으며, 마법의 대중화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탑이 가장 큰 고객인 제국에게 반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건가. 제국의 심기를 거슬렀다간 아티팩트의 판매량이 줄어들 테니까. 마탑의 상업화라... 재미있는 생각이야. 다만, 그게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는 거지?”

라트로의 물음에 시엘이 진한 미소를 피어 올렸다.

“방금의 개혁안은 황제 폐하께 올려야 하는 내용이지. 영애가 폐하와 지금 이렇게 통신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 허나 영애는 ‘황태자’에게 협상의 유예를 요청했네. 그렇다면 그 이유와 대가 또한 있겠지.”

“과연 명석하십니다. 부끄럽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아직 제 머릿속에 있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그걸 실행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때문에 황태자 전하께 유예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가로 내게 뭘 줄 것이지?”

“마탑은 앞으로 황태자 전하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마탑에서 영애의 위치가 어떻기에 이렇게 자신만만한 거지?”

“뭐, 아직은 햇병아리 마법사이지만 타고난 마력은 마탑 내에서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차 마탑의 탑주가 될 겁니다.”

“자신만만하군. 허나 영애의 재능만으로는 제대로 된 보증이 되지 않는걸?”

“아, 그건 짐이 보증하지. 영애는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재능의 소유자이니 말이야.”

“폐하... 알겠습니다. 영애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 대신 마탑의 탑주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영애에게 다른 대가를 받도록 하지. 그렇기 위해서는 기한이 필요하겠지? 기한은... 영애의 사교계 데뷔까지가 어떤가?”

“그러시지요.”

너무나도 선선히 승낙하는 모습에 라트로는 말문이 막혔다. 마탑 내부의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탑주라는 자리가 성인도 채 되지 않은 소녀가 오르기는 무척이나 힘든 자리라는 것쯤은 알았다. 그런데 저 자신감 뒤에는 무언가가 있다. 또한 황제가 그녀를 보증하는 것도 그 무언가 때문일 것이었다.

‘뭐 됐어. 부디 시엘이 실패하기를 바라야지.’

9년, 9년의 시간이 남아있었다. 그 시간 안에 시엘이 해내지 못한다면 그녀는 순순히 자신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라트로가 나가고 나는 다 식은 차를 천천히 마셨다. 갑자기 너무 많이 말했더니 목이 아팠다. 차를 한 주전자나 마시고 나서 서랍에 넣어두었던 일기를 꺼냈다. 새로 나타난 페이지는 없었으나 손에서 놓지 못하고, 표지에 그려진 하늘색 드래곤의 그림을 손으로 쓸었다.

“골치 아프게, 쯧. 재깍재깍 떠날 것이지.”

라트로가 일주일이나 더 머무른다는 사실에 기분이 안 좋아져 있었다. 지금 나는 힐데

와 히페리온의 감시로 인해 칼립스를 보러 가지도 못하는 처지인데 라트로의 얼굴을 더 봐서 뭐가 좋을까.

“심심해.”

“심심하면 엄마랑 공부나 할까?”

“엄마야!”

“응, 엄마 여기 있어.”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로 인해 나는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불만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나도 빨리 텔레포트를 배우든가 해야지. 맨날 어머니와 히페리온에게 당하는 입장이었다.

“공부요?”

“응, 공부.”

나는 잠시 어머니께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었다. 분명 히페리온이 공부랍시고 몬스터 소굴에 버려졌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자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다.

그런 내 생각을 눈치챈 건지 어머니는 방글방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유, 그런 못된 짓을 어떻게 우리 귀여운 딸한테 하겠어. 진짜 공부 말이야.”

“그럼 공부라는 핑계로 그런 못된 짓을 히페리온에게 하신 거예요?”

“...하, 하하.”

히페리온이 돌아오면 동정을 담아 어깨를 두드려줘야겠다 생각하고는 일기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보다 무슨 공부요?”

“으음, 그게 아무래도 조금 신경 쓰여서 말이야.”

“뭐가요?”

“시엘,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니?”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말대로 악몽을 꾸었다. 끓어오르는 용암과 햇빛이 보이지 않는 하늘, 그런 황폐한 곳에서 홀로 서 있는 꿈이었다.

“꾸었구나.”

“네, 무슨 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제가 꿈을 꾸었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네가 그 여자랑 접촉했으니까.”

“...그 여자가 제 영혼과 자신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 했어요. 그것과 관련 있는 건가요?”

“그래. 본래 세계에서 너와 그 여자는 하나였고, 지금은 둘로 떼어놨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나는 어머니가 하는 말을 이해했다.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

나와 그 여자는 서로를 부르고 있었다.

“...그것이 이 세계를 현실로 바꾸는 방법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과정이라 할 수 있지. 우선 이 세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주어야겠구나. 세계를 유지하는 거대한 힘이 있단다. 우리는 그 힘을 「실재」라 부르지. 그러나「실재」는 거대한 힘의 덩어리일 뿐이야. 그 덩어리 중 일부는 무수한 수로 쪼개져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단다. 그것이 한 존재를 이르는 말인 ‘조각’의 핵심이 되면서 가장 작은 단위, 영혼이란다.

‘조각’은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중앙의 영혼이 있다면 그 주위를 둘러싸는 조각의 외피가 형성된단다. 조각의 외피와 영혼의 껍질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은 남은「실재」가 채우게 돼. 이러한 모든 조각들이 모여 세계가 되는 것이란다. 벌집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차이점은 각각의 조각들은 크기와 모양이 저마다 다르고 그로 인해 생기는 빈틈들은 남아 있는「실재」가 영혼을 포함하지 않는 불완전한 조각을 만들어 채우지. 그것이 공기 중의 마력이고.”

“그렇다면 종족, 혹은 개인에 따라 조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명과 힘이 달라지는 건가요?”

“맞아. 조각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가지고 있는 영혼이 아닌 외핵 쪽의「실재」의 양은 다르지. 그 양은 수명이자 본인이 가진 마력, 종족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진 규격이 있긴 하지만 개인마다 다르지.”

“그렇다면 드래곤이 타고나는 조각의 크기는 인간보다 훨씬 크군요. 그게 드래곤이 오랜 수명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고요. 어째 불공평 해보이네요.”

“불공평이라... 그걸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것인 인간의 사고지. 드래곤들이나 다른 동식물들은 본능적으로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이 가진 힘을 수긍하며 살아간단다. 그것을 자연의 흐름이라 하는 거지.

애초에 모든 것은 하나이며, 핵심이 되는 영혼은 여러 조각으로 순환하는 것이지. 그런데도 굳이 존재를 나눠가며 월등과 열등의 차이를 따지고, 그것을 불공평이라 따지는 것은 인간뿐이란다.”

어머니의 동공이 순식간에 길쭉해지고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저 또한 어머니가 싫어하는 인간의 아이니까요.”

“그럴 리가 우리 딸이 싫다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깜찍하고...”

“네, 네. 아무튼 계속해주세요.”

“큼, 아무튼 그런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걸까. 다른 존재들은 자신이 타고난「실재」만을 소모하여 살아가는 것에 비해, 인간은 공기 중의「실재」를 흡수하여 조각의 크기를 타고난 변형시킬 수 있지. 대표적인 예가 네 아빠 같은 소드마스터지.”

“그렇다면 인간는「실재」의 양을 유지시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나 할 수는 있지만 하기는 어렵지. 우선 인간이 본능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실재」를 느껴야 하니까. 그러나「실재」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외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드래곤처럼 오래 살 수는 없어. 그래서 대마도사나 소드마스터같은 인간들이 소수인 거야.”

“그리고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인간처럼 조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프드래곤. 드래곤이 인간을 취함으로써 순간의 힘을 얻는다는 건, 일시적으로 하프드래곤화 된다는 거네요.”

“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물론 시간이 지나면 흡수했던 「실재」는 다시 빠져나가지만.”

“...그렇군요.”

“카시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알지? 카시는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어. 그래서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을 연구했단다. 그러나 일부분이라면 모를까,「실재」전체를 건드리는 것은 불가능했지. 애초에「실재」의 힘 때문에 조각의 껍질을 변형시킬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했지.”

“...”

“이 마법은 조각의 껍질을 복제한 후, 시간을 되돌리고 그 일부를 변형시켜 허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세계가 아직은 꿈에 불과하다고 말한 거야.”

“하지만 그렇다면 이 세계의 마력은 뭔가요? 실재가 없다며 이 세계는 마력 또한 없어야 해요.”

“그렇지. 엄밀히 따지면 그건 마력이 아닌 착각에 불과해. 이 세계는 ‘그것은 틀림없이 거기에 있다.’는 한 가지 생각에 기반해서 유지되는 것이지. 이건 꿈이니까. 그런 이 세계에서 실존하는 것은 오로지 둘밖에 없어.”

“저와 그 여자의 영혼인가요?”

“그래, 네 영혼과 융합한 그 여자의 영혼을 강제로 분리한 후, 지금의 조각에 집어넣은 거야. 대기 중에 퍼져 있는 모든 조각을 사용하면 조각 하나 정도는 간섭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원래 세계는...”

“당연히 조각 하나가 빠졌으니까 붕괴 직전이지. 아마 마법을 완성하지 못하면 바로 세계 멸망일걸?”

화사하게 웃으며 세계 멸망을 말하는 어머니를 보며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 그냥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일을 저지르고 보는 것은 우리 외가의 선천적인 성격인 것 같았다.

“아무튼 이 세계에「실재」가 있다는 것은 이 세계도 언젠가는 붕괴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실재」는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였던 이상 한 군데로 모이는 특성이 있으니까. 아마 시전자인 내가 죽으면 너와 그 여자 안에 있는 영혼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겠지. 그러나 그건 원래 세계의「실재」도 마찬가지지. 우선 너와 그 여자의 영혼을 다시 하나로 융합한 후, 마법으로 고정시키고 원래 세계의「실재」를 모두 끌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세계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거고.”

“괜찮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왜 하필 저였던 거예요?”

“고정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실재」가 필요하지. 영혼 둘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실재」의 양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야. 또한 영혼을 가져와야 했던 이유는 영혼에는 고유한 성질이 있고, 둘로 분산시켜 놓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붙잡아놓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

“카시스 이놈이 고정 마법진을 만들다 죽어버렸더라고. 그래서 고정 마법진을 완성해야 되는데 엄마는 인간의 마법은 문외한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는 이론조차 완성되지 않은 마법을 무작정 실행한 거예요?”

“...그땐 급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

“엄마!”

“하아...”

“땅 꺼트릴 일 있습니까? 왜 그래요?”

어머니를 쫓아내고서는 한숨을 푹푹 내쉬던 중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익숙한 얼굴이 보이고 나는 마음속으로 반드시 내 방을 텔레포트 금지구역으로 정해놓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그냥 우리 어머니의 무책임함을 실감하는 중이에요.”

“그걸 이제 실감하면 어떡합니까? 로드 자리도 제멋대로 내버리는 분인데... 아스타르테가 있어서 망정이지 없었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

나는 입술을 부루퉁하게 내밀고 히페리온의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가 그 모든 무책임한 일을 저지른 이유는 오로지 나 때문이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아마...’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나는 죽고, 세계는 그 여자로 인해 파괴되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카시스의 일기였다면 나였더라도 그랬을 것이다.

‘나 역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인간을 잡아먹어서라도 했을 거야.’

어머니는 조각을 변화시켰다. 그 뜻은 인간을 잡아먹었다는 소리였다. 나는 굳이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시엘, 잘 안 풀리는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왜 그래요?”

“아니요, 일이 너무 잘 풀려서 문제예요.”

내 대답에 히페리온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단정하게 땋은 푸른 머리카락이 그의 어깨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는 나는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히페리온, 나 바깥바람 쐬고 싶어요.”

“벌써 밖에 나가는 건...”

“밖에 나가고 싶어요.”

나는 눈에 힘을 주고 히페리온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히페리온을 결국 얼마 있지 않아 패배를 선언하고는 나를 안아들었다.

“잠깐만입니다.”

“응, 잠깐만.”

1층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도 나도 원하지 않았기에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가볍게 땅에 착지한 히페리온은 정원을 거닐기 시작했다.

“당신이랑 하는 산책은 처음인 것 같군요, 시엘.”

히페리온은 미소를 짓고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은 좋았지만 담요로 꽁꽁 싸여 걷는 것은커녕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불만스럽게 그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히페리온은 그것만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안고 있는 자세를 추켜올렸다.

“...”

“...”

익숙한 침묵이 맴돌았고 나는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한참을 걷던 와중, 며칠 전 황태자와 이야기를 했던 장미정원에 근처에 도착했다. 나는 붉은 장미가 보고 싶지 않아 히페리온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 말하려 했다.

“이상하군요.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어?”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며칠 전만 해도 눈이 아플 정도로 붉디붉었던 장미 대신 보라색 페튜니아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인위적으로 생장을 촉진시킨 꽃이군요. 아무래도 이리스가 한 것..., 시엘?”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몸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만 있었다면 배를 잡고 바닥을 굴렀을 것이다. 어머니의 행동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설마 단 사흘 만에 정원의 장미를 전부 다른 꽃으로 바꿔버릴 줄이야.

“하하하하...”

히페리온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았으나 나는 그에 신경 쓸 겨를이 아니었다. 보기 싫었던 붉은 풍경이 아름다운 보랏빛으로 물들어 내 마음을 괴롭히던 불안감을 한 번에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히페리온, 마음의 평온도 얻었겠다, 이제 그만 돌아가요.”

내 말에 히페리온이 페튜니아를 한 번 보고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는 걸음을 성큼성큼 옮기더니 근처에 있는 벤치에 나를 앉혔다.

“시엘.”

“네?”

“앞으로 히페리온 말고 리온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건 괜찮지만... 갑자기 왜요?”

“당신에게 약속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 증표로 날 리온이라고 불러주세요.”

“약속... 이요?”

“예, 저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페튜니아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작게 벌어진 입을 다물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빨랐다. 그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성인이 된 후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히페리온, 난...”

“내 마음을 받아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죽을 때까지 당신의 욕심과 어리광과 어떠한 무리한 부탁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난감함에 말을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당신과 나는 사는 시간이 달라요. 나는 채 백 년도 살지 못하고 스러지겠지만 당신은 그 후를 살아가야겠죠. 나는 당신은 아스타처럼 만들고 싶지 않아요.”

히페리온은 차기 로드였다. 그의 다음대의 로드가 그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살아야 했다. 내가 죽더라도...

“그건 당신을 바란 순간 각오한 일입니다. 다행히 드래곤에게는 망각이라는 것이 없지요. 저는 기억 속의 당신을 곱씹으며 버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당신을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덜 괴롭겠지요.”

“미안해요, 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괜찮은 건 아니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설령 당신에게 이용당할지라도 그저 당신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존재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욱신거렸다. 나는 히페리온을 좋아했다. 그는 내 스승일 뿐만 아니라 내 첫 친구였으므로.

“사랑합니다, 시엘.”

“시엘에게 마음을 주지 마.”

이리스는 시엘의 땀을 닦으며 말했다. 히페리온은 읽고 있던 책에서 시선을 떼고 그녀를 보았다. 잊을 수 없는, 이리스가 떠났을 때의 얼굴이었다.

“어째서요?”

“시엘에게는 이미 짝이 있으니까.”

“그건, 인간입니까?”

“그래.”

책을 탁 소리 나게 덮은 히페리온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인정할 정도라니, 꽤나 괜찮은 인간인가 보군요. 그렇지만 제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싫습니다.”

“리온.”

“제 마음입니다.”

히페리온의 말에 이리스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저런 눈을 하다면, 그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건 널 위해서이기도 해. 난 너마저 아스타처럼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는 이리스, 당신도 똑같지 않습니까? 비록 당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신의 반려는 당신보다 먼저 죽겠지요. 내가 아는 당신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버틸 겁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더 괴로운 것도 있는 법입니다.”

“난 내 남편이랑 죽을 거야.”

“소멸하겠다 이 말입니까? 시엘을 두고?”

“그래, 시엘은 두고 갈 수밖에 없어. 내 수명은 오십 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순리대로 죽는 것뿐이지.”

이리스의 말에 히페리온은 얼굴을 구겼다. 당장이라도 이리스에게 큰소리를 치고 싶었으나 시엘이 신경 쓰여 화를 꾹꾹 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수명이 대략 200년 정도 남은 걸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합니까? 제게 분명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700살이 되는 해, 로드 자리를 물려주고 소멸할 것이라고!”

“...”

“그때도 당신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주지 말라고요. 알고는 있었지만 당신은 정말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때는 당신 자신을 위해, 이번에는 당신의 딸을 위해 그리 말하는 겁니까?”

“히페리온 나는 지금도, 그때도 모두 훗날의 네가 상처입지 않길 바란단다.”

“...그러면 지금의 제게 상처를 줘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내 성격 알잖니? 싹이 나기 전에 밟아놓는 것. 네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상처만 남게 될 거야. 그러니까 히페리온, 포기해줘.”

“싫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시엘과 제 인생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리스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고 시엘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시엘이 죽을 뻔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첫 번째는 내 수명을 줄여가며 시엘을 살렸어. 나는 그걸 후회하지 않아. 난 엄마니까.”

“...”

“내가 포기한 시간만큼, 시엘이 행복하기를 바라. 내 어리석음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과 그 여자 때문에 빼앗겼던 행복을 이번에는 모두 누려야 돼. 나는 가족으로서의 사랑은 줄 수 있지만 여인으로서의 행복과 사랑은 그 남자밖에 줄 수 없으니까.”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안다면 나는 틀림없이 그를 죽일 테니까요.”

“현명하네. 쓸데없는 살상을 혐오하는 너다워.”

“다만 중요한 건 시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정해놓은 짝이 그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리스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킥킥대던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히페리온을 쏘아보았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야. 내 딸이 스스로 선택한 거지. 그 남자 또한 시엘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 이미 둘의 사이가 그러할 진데 네가 끼어들 틈이 있을 거라 생각해?”

이리스의 말에 히페리온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곧 그 붉은 눈을 날카롭게 빛내고서는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적어도 시엘이 저를 떠올릴 때 그리 슬픈 눈을 하지 않게 할 틈 정도는 있겠지요.”

“너...”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히페리온은 다소 거칠게 문을 닫고 시엘의 방에서 나갔다. 지금의 그로서는 이리스를 보고 싶지 않았다. 정원에서도 가장 외진 곳을 찾아 풀밭 위에 주저앉은 히페리온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질투가 났다. 시엘과 자신 사이에 항상 일정하게 쳐져 있는 선. 시엘이 품고 있는 애달픔까지는 자신은 결코 접근할 수 없었다. 그 애달픔이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니 걷잡을 수 없이 초조해졌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하려고 했건만... 일단 고백부터 해야겠군.”

경쟁자가 있다면 서두르는 수밖에. 시엘은 선을 긋는 것은 확실하지만, 갑자기 그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한 대처는 약하다. 부담스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람. 처음에는 그 정도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역할이 점점 커져 언젠가 그녀의 곁에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면 되니까. 그것이 행복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정말 치사해요, 히페리온.”

시엘은 그렇게 말하면서 히페리온의 손을 뿌리쳤다. 히페리온은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내게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곁에 있게만 해 달라니. 그게 얼마나 멍청하고도 비열하기 짝이 없는 소원인가요. 나를 대체 얼마나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시엘,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아,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난 당신을, 당신의 마음을 이용할 거예요. 당신도 그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내게 죄책감을 지우려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닌가요?”

“저런, 죄책감을 느꼈습니까?”

“...”

“제 의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이용당하는 것, 그것에 죄책감을 느꼈다면 시엘, 당신이 내 생각보다 상냥하고 또 그만큼 여리다는 거겠죠.”

“그만해요.”

시엘의 얼굴을 보고 잠시 흠칫한 히페리온은,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렸다.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보여주지 마세요.”

“내가 한때 가지고 있던 상냥함도, 나약함도 모두 그곳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악독해지더라도 반드시 행복해지겠다고 그 사람과 약속했어요.”

“시엘.”

“내게 이용당해도 좋으니 곁에만 있게 달라했죠? 좋아요, 당신 뜻대로 해주죠, 리온.”

시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맨발이 흙바닥에 닿았고, 몸을 감싸고 있던 담요가 흘러내렸다.

“그럼 지금 당장 전에 했던 부탁을 들어줘요.”

“알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 드리죠. 일단 침실에 당신을 데려다 놓고...”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내 발로 걸어갈 테니까.”

“하지만 맨발이지 않습니까!”

“뭐 어때요, 웬만한 일엔 상처도 안 나는 몸인데. 그리고 지금은 리온을 보고 싶지 않아요.”

“시엘, 당신은 정말...”

“리온, 당신의 소원을 뒤집어 말하자면, 당신에게 이용가치가 없으면 내 곁에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히페리온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고는 고개를 돌렸다. 시엘은 그런 그를 내버려두고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시엘...”

작은 목소리였지만 듣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걸음을 멈춘 그녀는 뒤를 돈 채로 그에게 말했다.

“돌아오면, 예전처럼 지내요. 스승과 제자로 돌아가자고요.”

시엘이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절대로 모를 겁니다. 내 바보 같은 행동이 전부 신중한 계산 끝에 나온 것이라는 걸.”

처음에는 당신의 동정심을 사야 하니까요. 그 뒷말을 삼킨 히페리온은 인간들의 눈에 띠지 않는 장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첩자에게 마법약을 전달한 마법사는 이미 사로잡은 지 오래였다.

‘그 마력..., 그걸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걸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마법사 급은 돼야 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세계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선택할 리 없는 비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공기 중의 마력을 정제하여 담아도 가능한 일, 굳이 인간을 죽일 필요는 없었다.

“선택할 리 없는 건 아닌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번 일에 시엘의 적이 관련되어 있다 했다. 그렇다면 마법약을 만든 장본인이 그 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시엘의 적은 두 분류로 압축할 수 있다. 최소 대마법사 이상의 인간, 혹은 드래곤.

‘만약 드래곤이라면...’

결계 밖의 드래곤. 그렇다면 인간을 이용한 것도 타당하다 볼 수 있다. 심장을 뽑아내고 남은 육체는 먹어 치우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또한 시엘의 적이 결계 밖의 드래곤이라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인간에게 중독된 드래곤들을 쫓아낸 것은 초대 천룡, 파툴키우스였으니까.

히페리온은 북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결계의 수호자 역할을 맡는 드래곤 로드의 후계자였다. 그 때문에 시스톨레 산맥에 걸쳐있는, 보이지 않는 결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거대한 결계에 틈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었다.

만약 결계 밖의 드래곤이 시스톨레 산맥을 넘은 것이라면.

“인간들의 시대가 끝날 수도...”

“대체 어떤 놈이 이딴 짓거리를 벌였어!”

마탑의 탑주, 제레미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원로들에게 소리쳤다. 일부 젊은 마법사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언제나 있었던 일이다. 제레미, 그 또한 젊을 적에는 마탑 안이 너무나도 좁게 느껴졌으니까.

“마법사란 새끼들이 연구하기 싫어서 실성했냐? 지원금 끊기면 무슨 돈으로 연구할 건데? 어!”

나이를 먹고 나서 이해했다. 한창 연구를 하던 시절에는 마법사는 굉장한 존재이니 그 어떤 곳에 속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한 개인이 가진 힘은 미력했다.

국가의 앞에서, 정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거 어쩔 건데!”

제레미는 유피테르 제국의 옥새가 찍힌 공문을 내던졌다. 공문뿐만 아니라 평소에 지키던 체통마저도 내던진 그는 당장이라도 쓰러지기 직전처럼 얼굴이 붉었다.

“탑주님, 일단 진정하심이...”

“진정? 진정하게 생겼어? 제국한테 싸움 걸고 진정하게 생겼냐고!”

제레미의 호통에 다른 원로들이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에 열이 좀 식은 제레미는 뒷목을 붙잡으며 의자에 앉았다.

“원로 분들 모두가 제 꿈이 무병장수라는 것을 알 겁니다. 제가 화병으로 이 자리에서 쓰러지기 전에 범인 잡아오십시오. 산 채로 제국에다 바칠 거니까.”

“그게... 행방이 묘연합니다. 아무래도 제국 측에 붙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국 측이 붙잡았으면 당장 들고 날뛰었지 이렇게 정중한 공문을 보냈겠습니까?”

“허나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공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체투스 연합국과 마법사들이 결탁해 제국의 영토를 침범하였으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때문에 제국과 마탑과의 계약을 수정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협상일은 후일 제국이 공지할 것이므로 마탑 측에서는 대기하길 바란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국 측에서는 손해 배상의 청구가 아닌, 계약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원로의 지적에 제레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또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다.

“정말로 마법사들이 관여한 일일까요. 이때를 기회삼아 지원금을 줄이려는 것은...”

“허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제국에서 꾸며냈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직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탑 측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모르는 상태이니 따로 조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로들이 내는 의견을 잠자코 듣던 제레미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이번 일이 제국 측의 조작이라면, 제국이 우리에게 시간을 줄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제레미의 지적에 다들 입을 다물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는 원로들을 둘러보다 심기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마법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바바토, 분명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이었지. 게다가 때맞춰 실종된 놈들도 한때 그에게 수학했던 놈들...“

“바바토 원로께선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간 쌓여 있던 불만들을 무시한 결과겠지요. 언제까지 마법사들이 이런 골방에 처박혀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흠..., 바바토 원로께서는 지금 그들이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레미는 턱의 수염을 쓸며 입가의 경련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자신의 동요를 그들 앞에서 보일 수는 없었다.

‘이 새끼다.’

아마 혈기 넘치는 젊은 마법사들을 조종한 것이겠지. 자신이 뒷배가 되어 주겠노라고.

하지만 제레미는 순수한 마법 실력으로만 이 자리에 기어오른 것이 아니었다. 타고난 눈치와 정치 감각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한 조직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 사건의 전말조차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증거를 잡아야지 그에게 책임을 물을 텐데 사건의 당사자들이 행방불명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일단 조사팀을 꾸리고 제국 측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듣기 좋은 미성에 모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계 태세를 취했다. 원로들의 회의실은 마력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마법사들은 이 안에서 마법을 펼칠 수 없었다.

“누구냐!”

“오랜만입니다, 탑주. 마탑에는 처음 와보는데 상당히 보기 좋은 광경이군요.”

푸른 머리카락의 미남자의 등장에 모두들 그 상태로 굳어버렸다. 압도적인 존재감 때문도 있었지만, 모두들 그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 차기 로드께서 어떻게 이곳에... 드래곤 마을과의 거래일은 아직입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요?”

“아니,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당신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을 데려왔습니다.”

“예? 그게 무슨...”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바깥 세계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렇다면 저희 드래곤들이 마탑과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히페리온의 말에 원로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들에게서 얻는 마법적 지식과, 시스톨레 산맥에서 나는 특수한 마석은 무척이나 중요했기 때문이다. 제레미는 얼굴을 굳혔다가 곧 얼굴에 철판을 깔고는 당당하게 말했다.

“이번 일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는 드래곤 일족에게는 없는 걸로 압니다. 천룡의 후계자를 데려오셔야지요.”

그의 말대로 드래곤들에게는 계약의 결정권이 없었다. 또한 드래곤들은 인간들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으니 이제 와서 마탑에서 제공하는 인간의 문물을 끊을 이유 또한 없었다.

“마침 잘 됐군요. 제가 데려온 분이 바로 그 후계자입니다.”

히페리온의 말에 모두가 정적에 휩싸였다. 제레미는 눈을 깜박이다 바보처럼 되물었다.

“...예?”

히페리온이 옆으로 한 발짝 물러나자 그의 옷자락을 잡고 있던 작은 어린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로브를 뒤집어쓰고 그의 다리에 매달려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눈치 채지 못했었다.

“저 아이가... 누구라고요?”

아이가 얼굴을 가리던 후드를 걷자 나풀거리는 하늘색의 머리카락과 붉은 눈동자가 드러났다.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제자이자 선대 로드의 딸, 그리고 마지막 천룡인 시엘입니다.”

“허, 허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천년이나 지난 계약을 어기자마자 천룡이 나타났다. 제레미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정신 차리자. 설령 천룡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하는 건 변하지 않아.’

마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마탑주로서의 그의 역할이었다.

“그, 그렇군요. 그럼 시엘... 양은 계약을 파기하러 이곳에 오신 겁니까?”

“그건 일단 다른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직 상황도 모르는 당신들이랑 무작정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시엘 양은 이번 일을 잘 알고 계신 모양입니다.”

“모를 수가 없지요. 제가 얼마나 고생하였는데요.”

“예?”

“리온.”

시엘이 히페리온을 부르자 허공에서 두 명의 남자가 떨어졌다. 허리를 부여잡고 잠시 끙끙대던 그들은 시엘이 쳐다보자 서둘러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자, 다시 한번 말해 봐요. 당신들에게 마법약을 주고 사주한 사람이 누구죠?”

“그것이...”

제레미가 자세히 보니 실종되었던 마법사들이었다. 꽤나 고생을 한 듯 피곤과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그들은 시엘과 바바토의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흐렸다.

“어머? 손가락, 돌려받고 싶지 않은가 봐요?”

시엘의 말에 제레미는 경련하다시피 떨고 있는 그들의 오른손을 보았다. 엄지와 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이 없었고, 채 핏기가 가시지 않은 붕대가 둘둘 말려 있었다.

“어서요, 지목할 손가락은 남겨줬잖아요.”

예쁘장한 얼굴로 해사한 웃음을 짓는 소녀에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압도되었다. 그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게 날카로운 눈빛과 잔혹한 말이 모두에게 공포감을 심어 주었다.

“저, 저기 계신 바바토 원로님입니다.”

시엘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자 의자에 앉아있던 그가 덜컹하고 주저앉았다. 소녀는 킥킥대면서 말했다.

“진정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 오해...”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뭐가 오해란 건가요? 그럴수록 자기 죄만 시인하는 꼴이라는 건 알아요?”

그대로 뒀다가는 당장이라도 바바토를 죽일 분위기인지라 제레미는 그를 보호하듯 시엘의 앞을 가로막았다.

“뭐죠?”

“확실히 저희 측에서 계약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마법사의 처벌은 저희의 일입니다. 일단은 물러나 주십시오.”

“...그러고 보니 제 풀네임을 말하지 않았군요. 제 이름은 시엘 드 인테제르, 유피테르 제국의 후작가인 인테제르 가문의 후계자입니다. 이번 일로 저희 영지민들이 많이 죽고 다쳤으며 저 또한 죽을 뻔했습니다.”

“예?”

“이거야 원, 사건의 전말을 모르니 말이 안 통하네요. 좋습니다. 일단 이야기부터 하죠. 대신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서 납득하신다면 저자의 신병을 넘겨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앉으시지요.”

의자가 마련되고 회의장엔 아까와는 다른 긴장감이 돌았다. 그 상황 속에서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시엘과 히페리온뿐이었다.

“열흘 전, 저희 영지가 몬스터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몬스터의 습격에 대비하는 사이 아티팩트를 사용해 농노로 위장한 체투스 연합국의 첩자가 농경지에 마법약을 뿌렸습니다. 그로 인해 유피테르 제국의 군량미로 들어갈 곡식이 오염되었습니다. 첩자들에게 마법약을 건넨 마법사들을 잡아 심문하니 저자를 지목하더군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일을 벌였는지 짐작 가는 바가 있습니까?”

“그것을 피해자인 제국 측에 물으면 어찌합니까?”

“그, 그렇지요.”

“하지만 제가 카시스 오라버니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짐작 가지 않는 것도 아니지요. 마법사 세계의 개방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카시스... 오라버니?”

“아! 초대 황제 폐하가 제 어머니의 조카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사촌 오라비이지요.”

제레미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새어 나오는 탄식을 삼켰다.

‘집안 계보가 어떻게 돼먹은 거야.’

“오염된 곡식을 먹으면 원인불명의 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 병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마법사 세계의 개방을 원했겠지요. 제국 측에서는 마법사 세계가 폐쇄된 것이 제국과의 계약 때문이라 생각하니까요. 진정한 후계자인 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은근슬쩍 카시스 오라버니 개인과 한 계약을 제국으로 돌려 파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드래곤들은 그에 관심이 없으니.”

“맞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마탑에 관여할 생각 따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헌데 하필이면 제 영지를 건드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이번에 죽고 다친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잘못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엘의 말에 원로들이 제레미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렇게 순순히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레미가 판단하기에는 버틴다면 단숨에 낭떠러지로 밀려 떨어질 것이 분명하니 무릎부터 꿇는 것이 최선책이었다.

“예, 마탑에 소속된 마법사가 벌인 일이니 저희 측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겠지요. 손해배상은 하겠습니다. 허나 그들의 신병을 넘기는 일은 생각해보아야겠군요.”

“...”

“추후 제국과의 협상 때 그들의 신병을 넘기든 말든 결정할 터이니 지금 이 자리에서 피를 보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어떻게든 협상을 늦춰보려는 제레미의 속셈을 눈치챘는지 시엘이 진한 미소를 피어 올렸다. 그 미소에 제레미는 잠시 흠칫하였다 깍지 낀 손으로 입가를 가렸다.

“제가 지금 제국인으로 이곳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게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죠.”

시엘은 목에 걸려 있는 황금색 펜던트를 흔들었다. 펜던트에 새겨진 하늘색 용이 그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녀는 명실상부한 천룡의 후계자였다.

“드래곤과 마탑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드래곤 측에서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레미가 힐끗 히페리온을 바라보았다. 무표정하게 시엘이 하는 바를 지켜보던 그가 제레미의 시선을 눈치챈 건지 인상을 찌푸렸다.

“확실히 저희 드래곤은 인간 세상의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허나 이번 일 상당히 불쾌합니다.”

“어째서...”

히페리온은 제레미에게 무언가를 던졌다. 제레미가 주워 든 것은 정체불명의 약물이 든 병이었다.

“그 마법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건 분석을 해 봐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피가 재료이니까요.”

“...예?”

“10세 전후의 어린아이의 심장에서 짜낸 피로 만들었습니다. 굳이 인간의 피를 사용하지 않아도 비슷한 효과의 약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인간의 피를 사용한 이유는 단 하나, 천룡인 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바바토에게 몰렸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아닙니다! 그 마법약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약을 준 여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 모릅니다. 저도 익명의 편지와 함께 받은 것이라 누가 보낸 것인지는.”

“이 약의 재료를 알고 있었습니까?”

“그럴 리가요! 알고 있었다면 사용했겠습니까?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물건을...”

바바토의 외침에 시엘은 소리 높여 웃기 시작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라기보다는 억지로 비튼 쇳소리였다. 웃음을 멈춘 시엘이 눈을 치켜뜨고는 바바토를 노려보았다.

“자신의 눈앞에 결과물이 없다면 그뿐이라 믿는 건가. 몬스터에게 잡아먹힌 영지민 모두가 네놈이 죽인 것이다! 편협한 시각으로 보고 네놈이 한 살인은 끔찍하지 않다 그리 주장하는 것인가!”

회의장에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호흡을 가라앉히고 불만스러운 얼굴로 팔짱을 꼈다.

“우선 진정하시지요, 시엘 양.”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하아, 알겠습니다. 저자의 신병은 책임지고 넘기겠습니다. 그러니 분노를 푸시지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저놈은 목을 잘라 성벽에 걸어놓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계약 때문입니다.”

조금 거칠어진 말투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나에게 협상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은 히페리온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썼고, 그의 말투는 협상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 느꼈기 때문에 나 또한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물론 때때로 이렇게 본 성격이 흘러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법약이 시엘 양의 목숨을 노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드래곤과 관련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만 실수를 범한 것이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이 휘말려든 것 같습니다만...”

“드래곤이 얽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봅니까?”

“...”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아텔라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곪아 터질 일이었다.

“그리고 저는 계약을 파기하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계약을 갱신하고 싶습니다. 천년 전의 계약이 지금에 와서도 효율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갱신이요?”

“저는 마탑이 한 두 계약을 모두 효율적으로 수정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탑주와 따로 상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건넨 방안을 수용할지 말지는 마탑 내에서 의논하고 결정하십시오. 확실한 건 마탑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마탑주는 생각에 빠진 듯 수염을 매만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탑주는 다른 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저자는 일단 지하 감옥에 가두고, 오늘은 모두 해산하십시오. 추후 계약을 협의할 때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나는 다른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풀어놓았던 기운을 거뒀다. 원로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이 회의실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도 힐끔힐끔 나를 쳐다보는 것이 어째 구경거리가 된 듯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

“탑주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닥쳐라. 그대의 목숨은 이미 내 소관이 아니야.”

바바토와 그의 수족들마저도 전부 끌려 나가고 회의실에는 나와 히페리온, 마탑주만이 남았다. 내가 히페리온을 빤히 쳐다보자 그는 어떨 수 없다는 듯이 내 머리를 헝클이고는 문 밖으로 나갔다.

“아! 이런 실례를, 차라도 드시겠습니까?”

“감사히 한 잔 받도록 하지요.”

마탑주가 손수 차를 끓이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차분해지자 주위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원형으로 배치된 가구들은 보통 회의장과 비슷했지만 바닥에 새겨진 마법진이 흥미로웠다.

‘마력 제한 마법진인가...’

“드시지요.”

김이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는 한 맑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다.

“정치라는 건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두뇌회전과 언변, 행동력 그리고 연기력까지 겸비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어떠한 사회라 할지라도 정치가 없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헌데 지금 그 말을 하신다는 것은 방금 시엘 양의 행동이 연기였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저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를 내어야 할 상황이기에 화가 난 척을 하였습니다.”

“...”

“제가 화를 내지 않았다면 탑주께서는 그자의 신병을 넘겨주는 것을 주저하셨을 것 아닙니까?”

“큼! 아무튼 시엘 양은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저요? 저는 말이죠. 마탑을 손에 넣고 싶습니다.”

내 말에 마탑주는 그대로 굳어버린 채,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멍청해 보이는 그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예?”

“말 그대로, 마탑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그건 곤란...”

“그쪽이 곤란하다 할지라도 제가 이 계약서의 책임 공란에 원하는 것을 써넣으면 그만이라는 것을 아시죠?”

내가 계약서를 펼쳐 그에게 보여주자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내 얼굴이 밝아질수록 그의 얼굴은 대비되듯 어두워졌다.

“뭐, 지금 당장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탑주의 자리를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리가 아까워서 이러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현 탑주께서는 진심으로 마탑을 위하고, 또한 그에 걸맞게 유능한 분으로 보이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칭찬의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곤란합니다. 탑주께서 무능하셨다면 얼마든지 입맛대로 굴릴 수 있었을 텐데...”

내 칭찬에 떨떠름한 감사를 표하던 그는 어이없다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계약서를 톡톡 두드리며 어떤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제 생각보다 마탑이 쓸모 있어지겠네요.”

“쓸모?”

내가 왜 그러냐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자 탑주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법사란 진리를 연구하는 자들, 마탑은 그런 마법사들이 모여 미래를 개척하는 장소입니다. 실리적인 이유로 쓸모를 따지는 것은 저희로선 대단히 불쾌한 일입니다.”

“아아, 죄송합니다. 확실히 탑주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요. 헌데 그거 아십니까? 그 진리를 연구하는 데 쓰이는 연구비를 다른 데에 돌리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은 백성들이 배를 곯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래를 개척한다 하셨습니까? 허면 답해보시지요. 왜 당신들의 연구는 당신들을 지원하는 대신 궁핍해지는 백성들의 미래는 개척해주지 않는 겁니까? 그대들이 개발한 양질의 아티팩트를 풀기만 해도 살릴 수 있는 이는 수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아귀처럼 받아 처먹었으면 결과물을 내놔야지요.”

탑주는 난처한 표정을 숨기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또다시 튀어나온 말투 때문에 짧게 혀를 찼다. 그것을 어찌 받아들였는지 탑주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죄송합니다, 말이 지나쳤...”

“저 또한 그리 생각합니다. 허나 마법사란 족속들은 쓸데없이 코만 높아서 말이죠. 제 딴에는 혼을 바친 연구물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풀 수 없다는 생각, 정말 이기적인 자들이 아닙니까.”

탑주는 씁쓸한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그는 통제가 풀린 듯이 속에 담아왔던 말을 풀기 시작했다.

“저 또한 배를 곯던 백성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마탑에 들어와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한때 배고팠던 기억은 잊을 수 없습니다. 허나 저와는 달리 다른 마법사들은 대부분 순수하게 연구를 위해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지요. 물론 그 점은 진리를 연구하는데 필요하긴 합니다만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

“다른 학문들은 인간의 윤택한 삶을 위해 발전하는데 왜 마법사들은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나는 씰룩이는 입가를 손으로 가리며 표정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정말이지, 지금까지 견뎌왔던 모든 불행을 보답받기라도 하듯, 이번 기회에는 행운이 가득했다.

“탑주님, 아무래도 저희는 의견이 같은 것 같군요. 제 생각보다 서로에게 잘 맞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레미는 소녀의 작은 입에서 흘러나오는 계획을 받아 적기 위해 정신없이 손을 움직였다. 마침점을 찍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는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떤가요?”

“아주 획기적인 계획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왜 떠올리지 못했던 걸까요.”

“그야 이런 개혁은 계기가 있어야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다행히 탑주님의 마음에 드신 모양입니다.”

“예, 이것이면 마탑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그러는 김에 고리타분한 마법사들의 입을 다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 수일 내로 제국에서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와의 개인적인 계약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앞으로 제국과 거래를 하게 된다면 마법사들의 진출은 불가피해지겠지요.”

“후우..., 좋습니다. 우선 시엘 양이 요구하시는 바를 말해주시지요.”

“일단 히페리온과 제 어머니가 마탑에 제적되게 해 주십시오.”

“예?”

“제국 측에서는 황제 폐하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제 정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와 히페리온의 신분을 마법사라 말하긴 하였는데, 혹여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우리의 뒤를 캐려 하면 마탑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 마디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계약을 어긴 마탑 측에 부과하는 책임사항입니다.”

“그런 것이야 어렵지 않죠. 헌데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후일 마탑이 제국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제국의 현 황태자를 지지해주십시오. 마탑과 제국과의 협상을 늦추기 위해 황태자와 거래했거든요.”

“허나 괜찮으시겠습니까? 시엘 양은 원한다면 황좌에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국 같은 무거운 건 싫어요. 후작이면 만족합니다. 아! 탑주의 자리도요.”

“죄송합니다만 시엘 양, 탑주의 자리란 그렇게 간단히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엘 양이 시험을 통과하고 정식으로 탑주가 되는 길만이 마법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허면 그 기회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계약사항입니다.”

“시엘 양, 하나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요.”

“만약 시엘 양이 훗날 제국의 후작이자 마탑주가 되고, 제국과 마탑 사이에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

“답을 내시기 어렵다면 생각할 시간을...”

“전 저를 택할 거랍니다.”

“예?”

“탑주님, 저는 선대 천룡처럼 모든 인간을 지키고 사랑하겠다는 헌신적인 생각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만을 위해 움직이고, 제 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황제가 되지 않을 거랍니다. 제 말 뜻 아시겠지요?”

시엘의 말에 제레미는 헛웃음을 삼켰다.

‘선택받고 싶다면 자신의 손아귀 안에 굴러들어 오라는 건가.’

나쁜 조건은 아니었다. 그녀는 존재 자체로도 강력했고, 앞으로 계획대로 마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국에 큰 연줄이 필요했다. 그렇게 판단한 제레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탑주로서 인정받으려면 마탑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언젠가 시엘 양이 시험을 통과하길 기다리겠습니다.”

외부의 인간은 탑주가 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시엘은 드래곤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대신 탑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했다. 얼핏 보면 명백할 정도로 마탑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그녀에게 탑주의 자리가 떨어질 것은 자명했다. 결국 마탑의 시엘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과하게 욕심부리지 않지만 원하는 것은 전부 얻는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원...’

그녀는 세상을 가질 수 있었지만 걷어찰 인물이었다. 제레미는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자신은 이미 그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녀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알게 될 것이었다.

“시엘 양,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덟 살이요.”

열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녀의 나이를 듣자마자 제레미는 허허 웃음을 지었다.

고작 여덟 살짜리에게 마탑이 놀아난 꼴이었다.

‘아아..., 대마법사가 돼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게 다행이군.’

제레미는 이미 육십을 넘긴 지 오래였으나 자신이 앞으로 삼십 년 가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전성기를 지켜보고 죽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기쁘기 그지없는 일일까.

“그럼 고리타분한 원로들을 설득하러 가보실까요?”

“물론이죠.”

제레미가 내민 손 위에 시엘의 그 작은 손이 얹었다. 평생 결혼조차 하지 않은 그였지만 어쩐지 갑자기 손녀를 얻은 기분이 들어 그는 웃으면서 시엘의 보폭에 맞춰 걸음을 옮겼다.

‘세계가 움직이는구나.’

마탑 안의 마법사들이 진출하고, 세상은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 황금기를 맞을 것이다. 그 시작은 아직은 어린 천룡과 대마법사의 작은 발걸음이었다.

유피테르 제국의 황가를 상징하는 색은 하늘색이다. 초대 황제였던 카시스 폰 유피테르는 신비로운 하늘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그 색은 황가에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황족들은 하늘색을 그들의 자부심으로 여겼다.

때문에 의복에 하늘색을 넣을 수 있는 것은 황족만으로 제한되었으나, 귀족들은 일생의 딱 한 번 하늘색 의복을 입을 수 있다. 17살이 되는 해의 신년파티, 각 가문의 귀족 자제들은 사교계에 진출함으로써 제국의 귀족으로 인정받는 행사였다.

그리고 나는 신년파티로 인해 무척이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시엘, 얼굴 좀 피거라.”

“연구 도중에 끌려 나왔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내 불퉁한 대답에 아버지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애초엔 난 사교계의 데뷔에 대한 기대감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전생에 내가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은 사교계였으므로...

“다른 귀족가의 자제들은 파티 때 입을 의상을 주문하느라 정신이 없다는데 너는 어찌 그리 태평한 것인지. 아무리 그래도 전통인데 하늘색 드레스를 안 입을 생각이니?”

“드레스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하지 못했다. 전생에서는 황실에서 라트로의 의복과 맞춘 최신 유행의 하늘색 드레스가 준비해 주었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입었다. 그러나 현재의 나는 황태자의 약혼녀가 아니니 그와 의복을 맞출 이유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황제 폐하의 병세는 좀 어떠신가요?”

“많이 괜찮아지셨다고 들었다. 신년 파티에서 안부라도 여쭙지 그러냐?”

전생과 달라진 점은 또 하나 있었다. 바로 황제 폐하께서 살아계신 것이었다. 언제, 어떠한 병에 걸릴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 폐하를 치료할 마법약을 개발하였다. 나로서는 아직은 라트로는 황태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널 위해 드레스를 준비해놨단다.”

“...아버지께서요?”

“그야 파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딸은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꿈쩍을 안 하잖니. 힐데가 발만 동동 구르기에 이 아비가 나섰지!”

어쩔 수 없는 웃음이 새어 나왔다.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로 인해 기분이 스르르 풀렸다.

‘좋아, 애교 서비스다!’

“사랑해요, 아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의 아버지에게 안기자 아버지는 승천하려는 광대를 억누르지 못하면서도 나를 타일렀다.

“시엘, 이동하는 마차에서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잖니.”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나 하는 걱정, 넘어지지는 않을 테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있어 어린아이이고 싶었다.

“네, 네. 잘못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어깨에 몸을 기댔다. 마차가 덜컹거리면서 나는 소리에 집중하면서 중단되었던 실험을 다시 머릿속에서 짜 맞추기 시작했다.

“역시 실험할 넓은 장소가 필요해요.”

“벌써 건물을 몇 개째 폭발시켰는데, 또 필요하다는 거니?”

“그렇지만 제가 시스톨레 산맥에서 연구하는 건, 아버지가 싫어하시잖아요.”

“그야 한 번 숲으로 가면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지. 가까운 데도 아니고 말이야.”

“아버지, 그냥 제가 히페리온 만나러 가는 게 싫다고 말하세요.”

“...”

조용히 입을 다무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히죽 웃었다.

몇 년 전, 내가 초경을 시작했던 날. 히페리온이든 누구든 흑심 있는 놈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한다고 소리쳤다가 어머니께 혼난 아버지였다. 이제는 말로 하진 않았지만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여전했다.

‘아무튼 못 말린다니까.’

아버지를 놀리기 위해 일부러 시선을 맞춰가며 움직이던 와중 마차가 멈췄다. 마부가 도착을 알리고 나는 아버지의 에스코트를 받아 마차에서 내렸다.

‘이래서 수도가 싫다니까.’

마차에서 내려 의상실에 들어서자마자 집중되는 시선이 불편해졌다. 몇몇 귀부인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몰렸다.

“인테제르 후작님? 허면 옆에 있는 레이디가 후작 영애?”

“그러고 보니 후작 영애가 올해로 17살이었죠.”

“여태껏 영지에서 꼼짝을 안 하더니 이제야 수도에 올라왔네요.”

저들 딴에는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속닥이고 있지만 내 청력은 그들의 듣기 싫은 목소리를 전부 잡아내었다. 인상을 미미하게 찌푸리자 점원이 우리에게 후다닥 달려왔다.

“어서 오십시오. 인테제르 후작 각하, 그리고 후작 영애. 특별실로 모시겠습니다.”

특별실의 문의 닫히고, 짜증 나는 귀부인들의 드레스 자락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해가 지날수록 인간에게 환멸을 느끼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점점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인간들에 한해서는 예외였지만.

“처음 뵙겠습니다. 마담 아르스라고 불러 주십시오. 고명한 분들을 이리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붉은 계열의 드레스를 차려입은 여자는 그리 기분 나쁜 느낌은 없었다. 인상은 강해 보이지만 눈빛이 맑은 것이 괜찮은 사람인 듯싶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담 아르스.”

“저야말로 이리 아름다운 분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해마다 많은 레이디들의 드레스를 만드는 것이 제 직업이지만 영애만큼 제 드레스에 어울릴 분은 또 없을 것 같군요.”

아름다운 푸른 눈을 과도하게 반짝거리는 것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담스러웠다. 나는 마담 아르스의 이름을 뒤늦게 떠올렸다. 평민에서 재능만으로 의류계의 정상에 기어오른 여성, 해마다 많은 레이디들이 그녀의 신작 드레스를 입길 원하지만 그 값이 만만치 않아 웬만한 권세가가 아니라면 아쉬움의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전생에서는 줄 서서 기다리기 귀찮아서 적당히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후작 각하께서 친히 오셔서 의뢰를 맡기셨기에 열과 성을 다했답니다. 부디 영애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담 아르스가 박수를 치자 장막이 걷히면서 완성 단계의 드레스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색의 드레스는 무척이나 아름다웠지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드레스 천 전체에 하늘색을 사용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황족 혹은 예비 황족뿐이었기 때문이다.

“...”

“마,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군요.”

“내가 마담에게 이 디자인으로 해 달라고 하였단다.”

“아버지...”

“황태자 전하는 아직 모르시지 않느냐? 네가 시험을 통과한 것을.”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짓궂은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의 표정이 전염되어 나 또한 씩 입꼬리를 올렸다.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마담.”

“아, 그럼 디자인은 지금 이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대로 진행...”

나는 찻잔을 입가로 가져가다 순간 보인 광경에 손에 힘이 풀렸다. 다행히 바닥에 푹신한 카펫을 깔아놔서인지 깨지지는 않았지만, 카펫이 찻물에 물들었다.

“어머나, 이런 실수를...”

“다치시진 않으셨지요? 금방 치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레스 값에 카펫까지 붙여 청구해주세요.”

“아닙니다, 영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레스의 장식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예?”

“조금 독특한 시도인지라 그에 필요한 준비는 이쪽에서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드레스 시안과 뭔가 그릴만한 것을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마담 아르스가 허둥대면서 드레스의 시안과 펜을 내밀었다. 나는 만면에 미소를 띠우고는 일순 보였던 드레스를 장식을 위에 덧입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마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시안을 보며 내 설명을 듣던 마담 아르스는 곧 눈을 반짝이면서 손을 맞잡았다. 성숙한 화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맑은 웃음이 그녀에 대한 호감도를 한층 높여주었다.

“이번 일이 끝나면 마담이 제 전속 디자이너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나는 그녀와 악수를 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 보았던 일기장의 한 부분이 떠올랐다.

‘카시스, 당신은 정말...’

이것이 평온한 삶을 깨는 전조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안배는 천 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파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회장 안은 이미 부산스러웠다. 앨버는 와인으로 목을 축이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상기된 얼굴로 하늘색 크라바트를 정돈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매년 보는 것이었다.

‘오, 저 청년은 꽤나 과감한데.’

대부분이 하늘색의 의복으로 크라바트를 선택하는 반면 그는 하늘색의 셔츠를 입고 있었다. 하늘색의 염료는 황실에서 규제 하에 유통되는 데다 그 값도 값인지라 관습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의복에 하늘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힘들었다. 귀족 영애들의 드레스조차도 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저나 따분하군.’

이제 막 백작가의 사람들이 회장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신분이 높을수록 늦게 입장하는 것이 관례인지라 황족이 들어오려면 한참 멀었다는 소리다.

“황태자 전하, 지금쯤 애가 타서 미칠 지경이시겠지.”

앨버는 작은 소리로 쿡쿡 웃으며 방금 전, 황태자의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전하, 신년 파티는 저녁입니다. 뭘 벌써부터 예복을 입고 거울만 보고 계십니까?”

“시엘이 사교계 데뷔를 하는 날인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있나.”

“기다리시지 말고 일하시면 됩니다. 일이요.”

앨버가 서류를 흔들자 라트로는 그를 잠시 흘겨보았다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에 머리가 아파진 앨버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내가 못살아. 작년에는 그렇게 가자고 난리를 쳐도 서류 붙잡고 결국 폐하보다 늦게 입장하셨는데.’

“전하의 마음속의 피앙세가 사교계 데뷔를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요즘 얼마나 바쁜 지 아십니까? 연말연초에 밀려오는 서류 양을 아시는 분이 지금 이러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앨버의 잔소리에 라트로는 불만 어린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앨버는 그도 놀릴 겸,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소신은 슬슬 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벌써?”

“일찍 가서 인테제르 영애가 회장에 입장하는 모습을 이 두 눈에 담아야지요.”

“자, 작년에는 내가 입장할 때 같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전하, 소신은 자작에 불과한 몸입니다. 일이나 건강상의 사정 때문에 뒤늦게 입장하는 것은 봐주지만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가야 된다고요. 작년에 면구하게도 지각하는 실례를 저질렀으니 올해는 일을 빨리 끝마쳐서라도 정시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거울을 붙잡고 계시는 동안 오늘 업무는 모두 끝마쳤습니다. 허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앨버가 상큼한 미소를 지으며 한쪽 눈을 찡긋하자 라트로가 분한 듯이 이를 갈았다. 본래 앨버는 후작가의 삼남인 만큼, 시엘과 비슷한 시간대에 입장해도 되었지만 라트로에게 잡혀 있기 싫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무실에서 탈출했다.

“그냥 일이나 할 걸 그랬나.”

황태자의 최측근인지라 앨버와 친분을 쌓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예법 때문에 섣불리 그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 문제였다. 그에게 말을 붙일 만한 사람들은 한참을 기다려야지 올 터였다.

앨버는 와인잔을 마저 비우고는 테라스로 나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아아, 오늘 경비를 맡았나 보군.’

서늘한 바람에 기사의 검은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는 있지만 이 겨울에 바깥에서 계속 서 있다 보면 몸이 차가워질 것이 당연했다. 외각 쪽이라 그런지 경비를 서는 기사들을 위해 배치한 화로조차도 없었다.

‘왜 하필 저런 곳을 맡아서는...’

눈에 잘 띄는 곳의 경비는 앞 다투어 자원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그는 일부러 외각 정원 쪽에 자원했을 것이다. 그것도 오늘 파티로 인해 빠지는 동료기사의 몫까지 떠맡았을 것이다. 아마 오늘밤 내내 저곳에 서 있겠지.

벌써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앨버는 입김을 호 불며 따뜻한 회장 안에 들어가려 몸을 돌렸다.

“그래, 당신은 그 어둠 속에 있으면 됩니다. 빛은 나의 주군이 있어야 하는 곳이니.”

아래에 있는 기사에게는 결코 들리지 않을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 앨버는 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잠깐 사이에 회장에는 앨버가 잘 아는 면면들이 가득 들어찼다. 순서를 보니 이제 곧 후작 가문이 입장할 때였다.

‘전하의 피앙세는 언제 오려나...’

오래전 보았던 작은 소녀는 아름다운 하늘색 머리카락을 지녔었다. 아마 수많은 레이디들 중에서 하늘색이 가장 어울리는 것은 그 소녀이겠지.

“인테제르 후작 각하와 후작 영애, 입장하십니다!”

“오! 드디어...”

재무부의 관리와 담소를 나누고 있던 앨버는 시종의 우렁찬 알림에 고개를 돌렸다. 앨버는 눈에 들어온 광경에 일순 굳었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인 듯 회장은 차례차례 침묵으로 물들었다.

하늘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머리카락은 맑은 하늘을 담고 있었고, 그 고혹적인 붉은 눈은 이유모를 경외심을 품게 하였다.

또한 그녀는 회장에 크게 걸린 초대 황제처럼 인간이라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마치 초대 황제가 여인으로 환생이라도 한 듯이...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장식하고 있는 하늘색의 안개꽃이 흔들렸다. 은사로 짠 레이스에 엮인 안개꽃은 본디 하늘색이 아니었다.

‘염료로 염색한 건가... 꽃을 염색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저만한 양의 염료를 어떻게?’

앨버는 곧 고개를 내저었다. 제국 군량미의 대부분을 납품하는 명문 인테제르가이다. 재물 따위 신경 쓸 것이 못 되었다. 그러나 관습을 무시하는 파격적인 드레스, 어찌 보면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었다.

‘예비 황족, 혹은 권위 있는 가문의 후계자.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후작 영애는 황태자비 자리를 거부하였는데?’

황가에서도 오래전, 시엘을 라트로의 약혼녀 후보로 거론하였다. 그러나 인테제르 후작이 거부의 의사를 표함으로써 무산되었던 일이다.

“후계자의 증표인가. 저것만큼 확실한 것 없긴 하지만 지나치군.”

공후작쯤이 되면 대량의 하늘색 염료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굳이 후계자도 아닌 자식에게 필요 이상의 투자를 할 필요는 없었다. 게다가 후계자는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드레스보다 필요로 하는 천이 적다.

인테제르 후작가의 적통은 시엘뿐이지만, 여성인지라 그 자리가 굳건하다 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인테제르 후작은 많은 양의 천이 들어가는 드레스 전체를 하늘색으로 준비함으로써 못을 박은 것이다.

‘명실상부한 후계자라 이건가. 전하께서도 힘드시겠군.’

앨버 또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9년 전, 라트로는 시엘과 모종의 계약을 맺었다. 그 후로 라트로는 언젠가 시엘이 자신의 반려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앨버는 그 자신만만함이 어쩐지 불안했다.

라트로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는 외척의 난립이 없고, 라트로가 만족한다면 누구든지 좋았다. 그렇기에 라트로에게 괜한 말을 하지 않았으나, 그녀가 상대라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붉은 눈은 그가 보아왔던 사람들 중 가장 위험한 눈이었으니까.

‘때때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홀리는 눈이 있지.’

지금 상황을 보면 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에게 홀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서는 시엘을 이끌었다. 평소 과묵한 그는 이 같은 파티에서 대부분 벽의 꽃을 맡았지만, 오늘은 단단히 작정한 듯 적당히 시선을 끄는 위치에 자리 잡았다.

“시엘, 뭔가 마시겠느냐?”

아서의 물음에 시엘이 잔잔한 미소를 짓자 주위에 있던 사내들은 절로 얼굴에 열이 올랐다. 시종에게서 샴페인 두 잔을 받아 든 그는 한 잔을 시엘에게 건넸다.

“술은 이번에 처음 마시는 거지?”

“아니요, 저번 생일에 스승님이랑 마셨는걸요.”

그 말을 들은 아서의 인상이 별로 좋지 않자 낮은 웃음소리를 낸 시엘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던 것과는 달리 날카로운 눈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던 남자들을 찔렀다.

그녀는 회장을 한 번 둘러보고는 아서의 귀에 뭐라 속삭였다. 그러자 아서의 얼굴이 단번에 찡그려졌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 채지 못하게 아서의 옆구리를 찌른 시엘은 그의 등을 살짝 밀었다. 아서는 가기 싫다는 듯이 시엘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머뭇거렸다.

“아버지?”

시엘의 재촉에 아서는 한 곳에 모여 있는 황제파의 귀족들에게 다가갔다. 그가 다가옴에 따라 절로 긴장한 이들이 자세를 바로잡았다.

“오랜만이오, 듀렌 백작. 게스틸 백작.”

아서가 그들 중에서도 무가인 가문의 백작들을 호명하자 그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아서에게 예를 표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각하.”

“그동안 잘 지냈는가?”

“각하를 뵙지 못하니 쓸쓸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그렇군. 앞으로 한동안 수도에 있을 예정이니 종종 만나서 대련이나 하지.”

“영광입니다. 헌데 수도에는 발걸음을 거의 안 하시더니 무슨 바람이 부셨습니까?”

“딸아이가 올해 사교계 데뷔를 하게 되어서 말이지. 아비로서 에스코트도 안 할 수 있나. 이번 사교계 시즌이 지나면 부인이 있는 영지로 돌아가야지.”

“애처가로 소문나신 후작 각하답습니다. 헌데 영애께서는...”

듀렌 백작은 아까까지 시엘이 있던 곳에 시선을 돌렸다. 아서의 대화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사이, 시엘은 그 모습을 감추었다.

“아! 딸아이가 멀미를 하는 것 같아서 잠시 쉬고 오라고 했네. 내 나중에 소개하여주겠네.”

“하하, 저야 언제든지 환영이지요. 멀리서 보았을 때에도 각하를 닮아 아주 기품이 넘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야 내 딸이니 당연한 일이지 않은가.”

평소 극심할 정도로 무뚝뚝한 아서였다. 그런 상기된 얼굴로 시엘을 칭찬하는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을 보니 그의 팔불출 끼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 모습에 가라앉았던 회장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졌다. 주로 황제파 사람들 쪽이었지만.

“레임 공작 전하 외 가족 분들 드십니다!”

백발이 성한 노인을 필두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들어서자 황제파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최근 레임 공작이 아들에게 작위를 물려주려 한다는 소리에 많은 귀족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오오, 오랜만이오. 인테제르 후작.”

“...오랜만입니다.”

“그러고 보니, 후의 여식이 벌써 열일곱이던가?”

“예, 그렇습니다.”

“허허, 분명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겠지. 장차 이 제국을 품을 만한 인물일 것이야.”

“...전하, 죄송하지만 제 여식은 일개 후작가의 여인일 뿐입니다. 그런 말은 삼가주십시오.”

“허나 황태자 전하께 가장 가까운 것도 후작 영애이지 않는가.”

“전하, 본가의 후계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제 딸은 오늘을 기점으로 소후작으로서 정계에 진출할 것입니다.”

레임 공작과 아서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앨버는 그 광경을 보며 꽤나 웃기는 꼴이라 생각했다. 아비도 아닌 자가 그녀를 황후로 추대하려 하고, 정작 아비는 그것을 막는 꼴이라니.

‘말세야, 말세.’

레임 공작이 시엘과 인테제르 후작가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은 알고 있다. 현 황제와 아서의 사이가 각별하긴 하지만 그 관계가 다음대로 이어진다는 법은 없으니까. 라트로가 외척이 된 인테제르 후작가를 경계하고, 인테제르 후작은 그대로 영지에서만 머무는 것, 그것이 레임 공작이 바라는 바였다.

‘머리카락이 세니까 더더욱 백사 같아졌구먼, 할아범.’

그의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못할 말을 삼킨 앨버는 시계를 한 번 보고는 회장의 입구를 바라보았다. 슬슬 라트로가 도착할 때쯤이었다.

“농땡이를 안 피셨으면 말이지.”

“황태자 전하께서 입장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몰렸다. 라트로의 은발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얼굴이 여인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다. 특히나 이번에 데뷔한 영애들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눈치였다. 라트로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에게 시선일 쏠렸다.

“오랜만이오, 후작.”

“황태자 전하를 뵙습니다.”

“내가 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오? 사적인 자리에서 후의 얼굴 한 번 보는 것이 어찌 이리 어렵단 말이오.”

“송구합니다, 전하.”

“탓하려는 것은 아닌데 그리 사과를 하면 내가 무안해지지 않소. 그나저나 후작 영애는...”

“제 딸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칼처럼 자르는 아서로 인해 앨버는 속으로 혀를 찼다. 오자마자 노골적으로 시엘을 찾는 작태 하며, 하필이면 타이밍이 환상적이었다. 그리고 칼 없는 전장의 주인공인 시엘은 정적 드레스 자락조차 보이지 않았다.

“내뺀 거였군.”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이었다. 아직 황제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다. 다만 그 방패막이로 자신의 아버지를 세워두었다는 게 문제였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프레어 자작.”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앨버는 라트로의 수족이긴 했으나 이런 일에까지는 끼어들지 않는 주의였다. 그가 빈 잔을 내려놓자 때맞춰 시종이 큰 소리로 외쳤다.

“제국의 어버이, 두 분 폐하 입장하십니다!”

트럼펫 소리가 크게 울리고 회장의 모든 이들이 고개를 숙였다. 앨버가 고개를 숙이면서 힐끗 보니 그가 아까 들어가 있던 테라스 방향에 하늘색 안개꽃이 만개해 있었다.

테라스에 나가자마자 나부끼는 바람 때문에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머리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정돈하고서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너무나도 그리웠던 뒷모습이 보였다.

‘왜 하필 이런 외진 곳에 있는 거야.’

날씨는 상당히 추웠고, 그가 몸을 녹일 만한 화로조차도 없었다. 잠시 몸을 부르르 떤 그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팔에 찬 얇은 팔찌를 풀었다. 중앙에 장식된 다이아는 매우 작았지만 간단한 마법을 새기는 것은 가능했다.

“그라티아.”

마법진을 떠올리고 주문을 외웠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잠시 당황한 나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버렸다.

“어라?”

그 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뒤를 돌았다. 그와 나의 시선이 마주치고 나는 황급히 입을 가렸다. 나를 확인한 그는 짧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맞다. 황궁은 마력 제한이 걸려 있었지.’

뒤늦게야 그 사실을 기억해낸 나는 제한 마법을 상쇄하도록 마법진을 변형하여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다.

“그라티아.”

마력이 빠져나가고 다이아가 은은하게 빛을 발했다. 나는 잠시 팔찌를 이리저리 살피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건네주지?’

갑자기 내민다고 해서 그가 받아줄 리 만무했다. 손에 걸려있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면서 고민에 빠졌다.

‘그냥 떨어뜨린다고 해도 그가 알아챈다는 보장도 없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회장이 시끌벅적해졌다. 아무래도 황태자가 회장에 들어온 모양이었다. 곧 있으면 황제와 황후도 올 터였고, 테라스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황제가 들어오면, 그는 뒤를 돌아 무릎을 꿇을 터였다. 나는 빛속성을 마법을 추가로 새겨 넣고 적당한 위치에 떨어뜨렸다.

“제국의 어버이, 두 분 폐하 입장하십니다!”

시종의 목소리에 황급히 테라스에서 나온 나는 치맛자락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다행히 늦지는 않았는지 내가 고개를 숙이고 아래층의 회장을 보자 천천히 옥좌로 걸어가고 있는 황제와 황후가 보였다.

“모두 고개를 드시오.”

황제의 말이 떨어지자 나는 서둘러 테라스의 문을 닫고는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지나가는 시종에게서 아무 잔이나 받아 들고는 황제를 바라보았다. 얼핏 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지만 아무래도 조각이 한계에 다다른 듯이 내부의 마력이 보통 사람의 두 배 이상의 속도로 새고 있었다.

‘역시 마법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뿐인가.’

마법약으로도 마력을 잡아둘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그대로 죽을 것이다. 황제의 병은 고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지.’

본디 4년 전에 황제는 쓰러져서 서서히 쇠약해져 죽었어야 했다. 그 후, 성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라트로가 황제가 되고, 체투스 연합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제국의 균열은 더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쟁도, 황권의 계승도 없었다.

“...”

버텨봤자 1년이었다. 마력이 새어나가는 것은 점점 더 가속화될 터였다.

‘슬슬 움직여야 할 땐가.’

“어느덧 제국이 건국된 지도 천년이 다 돼가오. 마법사들의 진출로 인해 몇 년간은 혼란하였으나 그만큼 제국은 발전할 수 있었소. 이것은 제국인 모두의 공훈이오. 건배합시다. 밀레니엄을 향해서!”

“밀레니엄을 향해서!”

잔을 기울이자 와인의 쓴 맛이 느껴졌다. 나는 주로 달콤한 맛이 강한 스위트 와인을 즐겨 마셨던지라 절로 인상이 써졌다.

“다음으로 올해 데뷔한 귀족 자제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남작가의 자제부터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가문의 자제들을 고르고 고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다. 신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인사는 내가 마지막이 될 터였다.

“시엘 양.”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반가운 얼굴이 보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제레미.”

“상당히 오랜만이군요.”

상당히라는 단어에 묘한 악센트가 들어가자 나는 슬쩍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그러고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항변하듯 말했다.

“오랜만인가요? 분명 지난번에도 본 것 같은데.”

“예, 그게 벌써 삼 개월 전입니다. 시엘 양이 제게 서류를 떠맡기고 개인 연구를 하러 떠난 지도 어언 삼 개월이지요.”

“...”

“시엘 양,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늙은이를 이렇게 부려먹어야겠습니까?”

마치 친할아버지 같은 푸근한 미소를 짓고서 잔소리하는 제레미에게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 나는 곤란함을 숨기고는 도망칠 구석을 찾아 주위를 살폈다. 마탑의 사절로 온 제레미 때문인지 시선이 내 쪽으로 몰리고 있었다.

‘곤란하네...’

특히 집요할 정도의 라트로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아직 그는 내가 마탑주가 된 것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철저할 정도로 정보를 통제했으니까. 라트로와 맺은 계약이 오늘까지인 만큼 내가 제레미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제레미, 잔소리는 나중에 들을게요. 뒤통수를 쳐 줄 사람이 있어서 말이죠.”

“하아... 시엘 양은 일국의 황태자를 그리 놀려먹어야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 작은 목소리로 제레미가 속삭이자 나는 허리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말했다.

“놀려먹다니요. 저는 그를 시험하는 것뿐입니다.”

“시험이요?”

“그를 의자에 앉게 할지 말지 말입니다.”

“...”

“물론 계약 상 마탑주로서는 그를 지지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저라는 개인은 또 다른 문제이지요.”

내게는 얼마든지 그를 끌어내릴 힘이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황제가 되면 여러 의무를 떠맡아야 하고 칼립스와의 관계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나는 적당히 똑똑한 인물이 평화롭게 제국을 통치하길 원했다. 그 적당히 똑똑한 인물에 라트로가 부합하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었다.

“후작 가문의 인테제르 영애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는 제레미에게 싱긋 웃어주고는 뒤를 돌았다. 옥좌 앞으로 걸어가 치맛자락을 잡고는 예를 취했다.

“제국의 어버이, 두 분 폐하를 뵙습니다. 인테제르 후작가의 장녀, 시엘이라 합니다.”

“사교계 데뷔를 축하한다. 짐이 영애를 갓난아이 때 보았거늘 어느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구나.”

“황공하옵니다, 폐하.”

“그리 격식 차릴 것 없다. 짐의 둘도 없는 친우의 딸이 아닌가. 또한 영애는 짐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하네. 영애가 진상한 약으로 이렇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 짐에게 있어선 은인이야.”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제국의 자식으로서 어버이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 말에 황제가 싱긋 미소를 지었다. 그 얼굴이 어쩐지 아버지와 겹쳐 보여 괜스레 마음이 쓰려왔다. 전생, 그리고 이번 생을 겪으면서 그가 얼마나 좋은 황제였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의 답례도 할 겸 나중에 영애를 사적으로 초대하도록 하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군. 이만 물러가도 좋아.”

내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다. 그제야 익숙한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폐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 혹여 후작 영애를 황태자비로 삼으려는 것은...”

“하지만 영애는 가문의 후계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 드레스를 보세요. 황태자비를 넘보는 욕심을 숨기지도 않잖아요.”

“후계자라고는 하나 작위를 못 물려받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 왜...”

“아아, 설마요. 아무리 후작 각하와 닮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미 신물이 날 정도로 들었던 말이다. 예전에는 상처받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그들이 입을 놀려대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벌레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비틀어 죽일 수 있는데...’

죽일 가치조차 없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고서는 그들에게 비웃음을 한 번 날려주었다. 그러자 시끄럽게 종알거리던 여자들이 부채로 입을 가렸다.

“자, 파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황후.”

황후가 황제의 에스코트를 받아 내려와서는 자세를 잡았다. 첫 곡은 정해진 대로 미뉴에트로 시작될 터였다. 깨끗한 음색의 피아노 소리를 시작으로 경쾌한 분위기의 춤곡이 들려왔다. 황제 부부가 능숙하게 춤을 추는 것을 나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흠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마주하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라트로가 보였다. 나는 그가 내민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대와 첫 춤을 출 수 있는 영광을 내게 주지 않겠나?”

나는 내게 내밀어진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는 쑥스럽다는 듯이 얼굴을 붉혔다. 그런 그의 얼굴이 보기 싫었다.

“영광입니다.”

내가 그의 손 위에 손을 올리자 그가 다행이라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어차피 내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행동이 같잖았다. 두 번째 춤곡은 왈츠였고, 그는 오른손으로 내 허리를 잡고 왼손은 뒷짐을 지었다.

“오늘 정말 아름답군, 그대.”

“칭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드레스가 그대의 머리카락과 아주 어울리는군. 헌데... 그런 드레스를 입었다는 것은 그대의 항복을 뜻하는 건가?”

“항복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애가 얼마나 영민한지는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바라는 다른 대가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지 않은가?”

그의 말에 나는 쿡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반은 즐거운 웃음이었지만 반은 비웃음이었다.

“전하, 기한은 오늘 파티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직 파티는 이제 막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성급한 남자는 매력이 없는 법이랍니다.”

“...알겠네. 이제 막 사교계에 데뷔한 그대에게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군. 그대를 배려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의 귓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전하의 성급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뭐?”

“제가 실패할 것이라 단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입니다.”

“무슨 소리지?”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그에게 미소를 지어 주었다. 어느새 댄스는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치달았고 라트로가 내 허리를 들고는 번쩍 들어 올렸다. 드레스 자락이 감기면서 레이스 사이에 엮어 마법으로 붙잡아두었던 안개꽃이 산산이 흩어졌다. 마치 꽃잎이 그와 나 사이를 휘몰아치는 것 같은 효과를 내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탄성을 내질렀다.

“...”

라트로는 적잖이 놀란 듯했지만 곧 능숙하게 다음 스텝을 밟았다. 안개꽃은 땅에 떨어지자마자 빛으로 변해 사라졌다.

“감사합니다, 전하. 제 성공적인 사교계 데뷔를 도와주셔서요.”

곡이 끝남에 따라 나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매몰차게 뒤를 돌았다. 전생에도 그랬듯이 이번 생에도 황태자인 그와 사교계 첫 춤을 추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얼마나 잘 이용하여 나를 선전하는가였다.

나는 그대로 옥좌로 곧장 걸어갔다. 황제는 파티의 스타트를 끊고는 자리로 돌아가 외국 사절들의 신년인사를 받고 있었다. 내 뒤에는 제레미와 또 다른 마탑의 원로가 따라붙었고,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가만히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다.

“시엘 양, 여기 마력 제한 구역인 건 아시지요?”

제레미의 말에 나는 킥 웃으며 대답했다.

“명색에 마탑의 탑주인 제가 이 정도 마법도 못 뚫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아...”

“뭐, 어때요? 이걸로 마탑의 선전도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안은 드레스에 마법을 사용하여 장식하는 것이 유행할 거라고요. 아니, 제가 유행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바로 그거죠. 여성들이 가장 돈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드레스나 귀금속이니까요. 장신구에 달린 보석에 마법을 부여해준다면 주문이 쇄도할 겁니다. 일회용 마법이든 아니든.”

“정말 돈 버는 것에는 끔찍할 정도로 타고나셨습니다.”

“끔찍하다니요.”

“가끔씩 시엘 양의 재능에는 소름이 끼쳐서 말입니다. 고작 열일곱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아니 그보다 더 어렸을 때도 당신은 귀족들의 생리를 너무 잘 아니까요.”

“...”

제레미는 농담조로 한 말이었지만 나는 그 농담을 받아줄 수 없었다. 그가 재능이라고 말한 것은 단지 내 처절함과 설움의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저는 그저 저치들이 얼마나 허영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 반짝이는 연회가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알고 있다. 당장이라도 토할 것만 같은 역겨움을 딛고 나는 이곳에 서 있었다. 누구보다도 화려한 모습으로.

“시엘 양?”

“우리 차례가 된 것 같네요. 나가죠.”

내가 앞으로 나가자 둘은 내 뒤에 섰다. 나는 다시 한번 황제에게 예를 표하면서 아까와는 다른 인사말을 입에 담았다.

“마탑의 탑주가 새로운 해를 맞아 제국의 황제 폐하께 인사 올립니다.”

“또 보는군, 영애. 아니지 지금은 탑주라 불러야 하나?”

“편하신 대로 불러주십시오.”

“...그럼 전대 탑주가 부르는 대로 짐 또한 시엘 양이라 부르지. 또한 다시 한번 인사를 해야겠군. 짐의 목숨을 구해 주어 고맙네. 덕분에 건강도 찾고, 이전보다 살도 쪘어.”

“폐하, 제가 만든 약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늦추는 것뿐입니다. 몸상태를 유지하셔야 약효를 잘 받으니 운동과 병행하여 체중관리를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하며 스트레스받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겠네, 알겠어. 어째 시엘 양이 황후와 궁의보다 잔소리가 더 심한 것 같으이. 이 얘긴 이제 그만하지.”

“...송구합니다. 사죄 겸 신년 선물로 폐하께 진상할 것이 있습니다.”

“음?”

제레미에게서 받아 든 작은 보석함을 열자 순도 높은 흑진주로 만들어진 브로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시종에게 건네자 그가 잠시 살피고서는 황제에게 바쳤다.

“아주... 질 좋은 진주군.”

“진주는 건강과 장수를 뜻하는 보석이지요. 또한 그 정도로 순도가 높다면 3개의 마법을 중첩해서 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능의 마법을 선택해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새기겠습니다.”

“허나 황궁은 마력 제한구역일 텐데.”

“제한된 양보다 적은 마력이라면 쓸 수 있습니다. 마법진을 새기는 것 자체는 많은 마력이 들지 않습니다.”

“호오..., 어떠한 것이 가능한가?”

“웬만한 것은 가능합니다만, 공격 마법은 새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군. 허면 혹 하늘을 나는 마법도 가능한가?”

“가능은... 합니다만, 새겨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티팩트라는 것은 항시 시전형과 단회용,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항시 시전형으로 한 번 새기면 그때 불어넣은 마력이 떨어질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보온 마법이나 빛 마법 등을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사용자의 마력을 불어넣어 새겨진 마법을 시전 하는 것인데, 이는 쓸 수 있는 범위의 마법은 많으나 마력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부양 마법은 마력이 많이 드는 것인지라...”

“그래?”

“예,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급격한 마력의 소모를 견뎌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고민되는군. 무엇을 택해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하신다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내 말을 들은 황제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니 그는 보석함을 닫으며 호탕한 웃음을 지었다.

“하하, 그렇게까지 해 준다니 고맙네. 조만간 결정하고 시엘 양을 따로 부르도록 하지. 이만 물러가 보게.”

“황공합니다. 허면 이만 물러가보겠습니다.”

우리를 구경하던 인파를 헤집고 벗어나자 막혔던 숨이 트였다. 이번 파티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한지라 어쩐지 맥이 빠지는 기분이었다.

“후우...”

“힘들어 보입니다, 시엘 양.”

“맞아요. 파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기분이에요.”

“그래도 잘 해냈습니다. 역시 시엘 양은 장사꾼 기질이 있다니까요.”

“네, 네. 남은 손님 접대는 제레미에게 맡길게요. 전 가서 좀 쉴래요.”

“벌써요?”

“오늘 할 일은 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의 업무는 사절입니다. 저도 모처럼 사교계 데뷔했는데 잘생긴 남자와 밀회 정도는 해봐야죠.”

제레미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젓자 나는 그의 어깨를 툭 치고는 곧장 테라스 쪽으로 향했다. 몇몇 인간들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그에 신경 쓸 정도의 여유는 없었다.

‘기분 나빠.’

맑은 바람을 쐬고 싶었다. 파티에는 너무 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나는 뒤를 돌지 않았다. 지금 돌아버린다면 표정관리가 안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신지요, 전하.”

“긴히 할 이야기가 있네.”

나는 욕을 삼키면서 테라스로 나왔고 그런 나를 따라온 라트로가 내가 열어둔 문을 닫았다.

“하실 이야기가 무엇인지요?”

“...어째서 숨겼지?”

“숨겨요? 무엇을요?”

“그대가 마탑주가 된 것, 어째서 말하지 않았느냔 말이다!”

내가 천천히 뒤를 돌아 그와 눈을 마주치가 그가 움찔했다. 표정관리가 안 되는 지금 나는 그에 대한 혐오와 경멸을 감추지 않았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제가 마탑주가 되면, 전하께 와서 알려야 할 의무라도 있습니까?”

“...”

“전하께서는 앉아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오셨지요. 허니 제가 당연히 실패할 것이고, 전하의 여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그건...”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하께서 갖고 계신 것 모두, 전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졌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모든 것을 잃어보았고, 가진 것이 없는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대는 후작가의...”

“내일 먹을 빵이나, 오늘 잠잘 곳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들을 지킬 힘. 저는 그것이 제게 주어진 줄도 몰라서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잃고 밑바닥에서 절망의 끝을 본 뒤에야 욕심이라는 것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

“전하, 저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간신히 되찾은 모든 것들을 다시 잃어버리는 기로에.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지킬 힘을 가지기 위해 갖은 발악을 했습니다.”

“...시엘.”

라트로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어떤 꼴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를 미소로 상대해줄 만큼 멀쩡한 상태가 아니었다.

“제가 9년 동안 힘을 얻기 위해 갖은 발악을 하는 동안 전하께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마탑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단지 제가 실패하기만을 바라셨습니까? 그 바람은 대체 어디의 누가 이루어준다 생각하셨습니까?”

“...”

“제가 만일 전하였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을 겁니다. 온갖 비겁한 술수와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원하는 바를 이뤘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전하와 저의 차이점이고, 우리가 결코 섞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양극단에 서 있는데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트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을 꼭 깨물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상 전하께서 자리를 비우시는 것은 곤란할 테니 이만 회장으로 돌아가시지요.”

“시엘.”

애달픈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라트로는 분명 나보다 컸지만 어린아이 같았다. 그래, 그는 덜 자란 어린아이였다.

“전하께 이름을 허락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대가 가진 아픔이 어떤 것인지 난 모른다. 그러나 이해하고 싶다. 그대를 이해하고 그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그것이 잘못인가?”

“...잘못이라 하면 절 이해하려 하지 않으실 건가요?”

“...”

“허면 제게 왜 물으시는 겁니까? 전하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다만 제가 그에 응해줄 거란 생각은 집어치우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매몰찬 나의 말에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는 회장으로 돌아갔다.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나는 방음 마법을 해제했다.

‘쓸데없이 귀찮게 하고 있어.’

이대로 그가 순순히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 몇 번, 그를 완전히 짓뭉개야지 사라지겠지.

“후우...”

드레스 자락을 손으로 말아 잡고는, 망설임 없이 테라스 난간에 발을 올렸다. 아래를 잠시 한 번 내려 보았다 그대로 뛰어내렸다. 하이힐을 신었으나 무리 없이 지면에 착지하고는 옷을 정돈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황금색의 눈동자가 나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드레스를 입고 2층에서 뛰어내린 여자니 어이없을 만도 하지. 그 생각이 든 나는 속으로 피식 웃고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혹시 제 팔찌 못 보셨나요?”

“...아! 혹시 이것입니까?”

칼립스는 품속에서 팔찌를 꺼냈다. 빛 속성의 마법을 추가한 덕분인지 어둠 속에서도 다이아는 빛나고 있었다.

“네, 맞아요. 잃어버리면 어쩌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2층에서 뛰어내리신 겁니까?”

“아..., 하하하.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냥 좀 답답해서...”

“답답하다고 2층에서 뛰어내리십니까? 다칠 수도 있잖습니까?”

“다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그랬죠. 이래 봬도 무가의 후계자라고요.”

“...”

“아무튼, 돌려주실 수 있나요?”

칼립스는 아무 미련 없이 내게 팔찌를 건네주었다. 그 변하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편해졌다.

“고마워요. 근데 기사님은 여기서 경비를 서시는 건가요?”

“예.”

“왜 하필 이런 외진 곳에서?”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흐음...”

나는 턱을 쓸어 만지면서 주위를 둘러보다 화단의 앞에 적당히 주저앉았다.

“뭐 하시는 겁니까? 드레스가 더러워집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더 보여줄 사람도 없는걸요. 기사님도 앉지 그래요?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을 텐데.”

“저는 괜찮습니다.”

“딱딱한 기사님이네.”

“...”

칼립스는 내가 나를 잠시 내려다보다 이내 자신의 외투를 벗어 내 어깨에 둘러주었다. 팔찌를 나에게 돌려주어 추울 텐데도 나를 배려하는 모습이 좋았다.

“고마워요.”

내가 웃으며 감사를 표하자 그가 헛기침을 하고는 이내 재킷마저 벗었다. 바닥에 재킷을 깔고서는 내게 앉으라는 듯이 손짓했다. 그 바람에 그는 한겨울에 셔츠 한 장만을 걸치고 있었다.

“잠깐만요. 기사님, 안 추워요?”

“괜찮습니다. 기사인 몸으로 레이디를 불편하게 만들 수는 없지요.”

썰렁한 찬바람이 밀려오자 그가 작게 몸을 떨었다. 나는 팔찌를 다시 그에게 건넸다.

“답례예요.”

“보상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알고 있거든요. 빌려주는 겁니다. 보온 마법이 걸린 아티팩트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따뜻할 거예요.”

“그걸 제게 주시면 레이디가 춥지 않습니까?”

“아, 좀! 그냥 받으라고요.”

그의 손에 억지로 팔찌를 떠넘기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밖에 보이지 않아서 차마

별이 빛나는 밤을 연출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나 실은 도망쳤어요. 사교계 첫 데뷔인데 말이죠.”

“후작가의 레이디가 그래도 되는 겁니까?”

“...날 알고 있나요? 수도에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오래전, 황태자 전하를 수행하여 인테제르 영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직 어린 영애를 보았습니다. 그 하늘색 머리카락이 쉽게 잊히는 건 아니니까요.”

“뭐야, 그럼 내가 여덟 살 때 봤다는 거네요. 그때 나 무섭지 않았어요?”

“무섭다니요?”

“솔직히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라 명령하는 여덟 살 짜리는 없잖아요.”

“영애는 그 상황에서 훌륭히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훌륭하지 않아요. 꼭 그렇게까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었어요. 나를 따르는 기사들이 피를 덜 묻혀도 됐었다고요.”

“기사란 손에서 피를 씻을 수 없는 자입니다. 기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손이 얼마나 피에 절어있는가가 아닌 주군의 명입니다.”

“그때의 난 그들의 주군이 아니었어요. 난 그저 내 첫 살인에 사용할 무기로 그들을 선택한 것에 불과해요.”

내 대답에 칼립스가 미소를 지었다. 검을 내려놓고 내 옆에 앉은 그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소중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끄는 자란 냉혹함과 비정함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법이다. 또한 자신의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함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훌륭한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영애는 이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상냥한 사람이네요, 기사님.”

그가 상냥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그의 이름도 알고 있었다.

“칼립스, 칼립스 드 바스타드입니다.”

모르는 것은 그였다. 나는 그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척했다. 그렇게 우리는 우연하게 오늘 처음 만났다.

“내 이름은 시엘이에요, 칼립스.”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외투를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격식을 차리면 바스타드 경이라 불러야 하지만 그러기 싫네요. 다음에 봐요, 칼립스.”

벙벙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는 그에게서 고개를 돌리고는 정원 쪽으로 걸음을 향했다. 더 이상 그를 보고 있다가는 눈물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지금 내 감정이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분간이 가질 않았다.

‘뭘까? 이 감정은...’

그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내 마음은 어딘지 불편했다. 전생에서는 그의 사려 깊은 배려에 행복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안쓰러웠다.

‘왜 당신은 아직도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는 거야?’

“...”

나만 행복해진 기분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행복해지길 바랐건만,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는 동안 그를 외톨이로 내버려둔 것만 같았다.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메마른 그의 감정을 박박 긁어가면서 받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바라기만 했어.”

‘다음 생에도 날 사랑해줘요.’

그것이 죽기 전 내 마지막 소원. 이 얼마나 이기적인 소원이었단 말인가. 정작 나는 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 없는데.

“왜, 왜, 왜...”

결국 참지 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손으로 얼굴을 덮자 손이 축축해졌다. 아아, 나는 언제나 이렇게 늦게 알아차리는 걸까?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는 듣지 못할 사과가 눈물과 함께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고대하던 그와의 재회는 슬픔이 그 기쁨의 앞을 가렸다.

“물...”

눈이 따가웠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근처에 있던 물을 따라 마셨다.

“...머리 아파.”

얼마나 운건지 골이 지끈거렸다. 시계를 보니 아침 수련마저도 빼먹은 시간이었다.

‘어떻게 돌아왔지?’

정원에서 울다가... 아버지가...

“하아..., 걱정하시게 만들었네.”

내가 모습을 보이지 않자 아버지는 결국 나를 찾아내었다.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데리고 수도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아마 마차에서 잠들었던 것 같다.

종을 흔들자 새로운 하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전생에서도 내가 황후가 되기 전까지 시중을 들어주었던 아이였다.

“부르셨습니까, 아가씨?”

“좋은 아침이야, 타냐. 아침 식사를 하고 싶은데 가벼운 걸로 준비해줘. 디저트는 오전 내내 먹을 분량으로 넉넉히 준비해 달라하고.”

“예,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타냐가 나가고 탁자 위에 있던 휴대용 통신구를 들었다. 지난 밤중에 무시했던 연락이 끝도 없이 쌓여 있었다.

“제레미, 어머니, 리온. 켁... 카일루스까지? 이 양반은 갑자기 무슨 용건이래?”

아침을 먹고 나중에 연락할 요량으로 통신구를 침대 위에 던졌다. 정교하게 조각된 천장의 문양을 따라가다 문을 바라보았다.

“배고픈데...”

어제저녁부터 먹은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위장이 요동을 치고 있었다. 간단한 토스트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아가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들어와.”

이불을 걷고 타냐가 가져온 쟁반의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 토스트에 홍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산더미처럼 쌓인 빵과 오믈렛에 두꺼운 베이컨, 스튜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타냐, 난 분명 가벼운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각하께서 다 드시지 않으면 배고프실 거라고.”

“아니, 난 어머니가 아닌데...”

어머니도 그렇고 드래곤들은 기본 식사량이 상상을 초월했다. 그러나 나는 일반 성인 남성 정도의 양만 지키면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식사를 본 적 없는 타냐가 고래를 갸웃거렸다.

“...디저트는?”

“무화과 토르테와 푸딩입니다. 아가씨 분으로 한 판 준비하고 있더군요.”

어머니는 특히 기분이 안 좋으실 때, 성인 남성의 다섯 배는 드셨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식사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는 했다. 그에 반해 나는 우울할 때 밥 대신 디저트를 많이 먹었고, 아버지는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

“다 드시지 않으시면 디저트는 없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시무룩해져서는 포크를 들었다. 오믈렛을 가르자 뜨거운 김이 새어 왔다. 조각을 내어 입에 넣으니 계란의 포슬포슬한 식감이 느껴졌다.

‘맛은 있네.’

영지 저택의 요리사는 오믈렛을 짭짤하게 만들었지만, 수도 저택에서는 설탕을 넣어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평소였다면 아침식사는 식당에서 먹었겠지만 오랜만에 침대에서 먹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다.

따끈따끈한 흰 빵을 베어 물며 손가락을 휘두르자 어제 파티에 참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붙들고 있었던 연구를 적어놓은 종이가 휘리릭 날아왔다.

“헉!”

급하게 숨을 삼키는 소리에 옆을 바라보자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의 타냐가 보였고, 그제야 나는 속으로 탄식을 삼켰다.

‘아차...’

수도에 올라오고 나서 데뷔식 전까지는 마법의 사용을 자제했기 때문에 그녀는 내가 마법을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즉, 그녀는 내가 마법사인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저... 혹시, 마법인가요?”

“응, 그렇긴 한데...”

“아가씨, 마법사이셨어요?”

“일단은...”

순식간에 타냐의 갈색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그 눈빛이 괜스레 부담스러워진 나는 슬그머니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무, 무슨 문제라도 있니?”

“사랑해요! 아가씨!”

밑도 끝도 없는 갑작스러운 사랑고백에 나는 들고 있던 빵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얘, 얘가 이런 성격이었나?’

“음..., 저기 말이야.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 자칫하다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어, 어머! 내 정신 좀 봐. 무심코 속마음이 튀어나왔네요.”

타냐는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는 뺨을 어루만졌다.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거지?’

“...마법사를 좋아하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마법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마법사는커녕 마법 한 번 보기도 힘든 걸요.”

‘그렇지. 마법이 상용화가 된 지는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시중에는 아직 기초 마법이 새겨진 아티팩트밖에 구할 수 없고.’

“그랬구나.”

나는 새로운 빵을 집어 들면서 그녀의 말을 여상히 넘겼다. 타냐는 바닥에 떨어진 빵을 주워서 손 뒤로 감추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아가씨가 딱 하고 나타나신 거죠.”

“마법을 배우고 싶니? 원한다면 적당한 마법사를 소개해줄게. 기초 정도라면 내가 알려줄 수도 있고.”

타냐의 얼굴이 확 밝아졌다 이내 시무룩해져서는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째서?”

“그야 아가씨의 상냥함에 기대 무언가를 얻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녀의 대답에 나는 식사를 하던 손길을 멈추었다. 쟁반을 옆으로 밀어놓고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는 키가 큰 편이었고, 그녀는 아담했기 때문에 시선차이가 꽤 났다. 내 붉은 눈과 마주한 타냐가 한 걸음 물러났다.

“왜?”

“네?”

“왜 좋지 않은 건데?”

“그건...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그녀를 내려다보다 나는 침대 옆에 있는 의자를 끌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손짓했다.

“일단 앉아.”

그녀가 자리에 앉아 나 또한 침대에 걸터앉았다.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하고는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왜 그러는 건데? 역시 내가 싫어서 그래?”

전생에 그녀가 나를 피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맡은 일은 성실히 했지만 그 이상은 내게 말 한마디조차 붙이지 않았다.

“아니에요! 오히려 아가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걸요. 아가씨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원래 허드렛일 하던 하녀였거든요. 아가씨가 저를 지명해주신 덕분에 봉급도 오르고, 궂은일도 줄어들고... 그렇지만 전 시중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왜 저를 뽑으셨나 했어요. 그래서 하녀장님께 물어봤더니 아가씨께서 제 사정이 안 좋은 걸 생각하셔서 선택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랬다. 전생에도, 이번에도 나는 적당히 조용하고 사정이 어려운 아이를 뽑아 달라 했다. 내가 직접 뽑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를 배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가 실수도 몇 번 했는데도 아가씨는 관대히 넘어가 주셨어요. 아가씨가 무척이나 상냥한 분이라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아가씨는 너무 물러요.”

‘물러? 내가?’

“제 일은 아가씨를 모시는 거예요. 제가 아가씨의 상냥함에 기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게 된다면, 저는 순수하게 아가씨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의 말이 내게 해답을 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가씨는 제 아버지랑 닮으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외삼촌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거의 퍼다 주는 수준이었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외삼촌은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그래도 저와 아버지에게 잘해주긴 했는데, 막상 저희가 어려워지니까 외삼촌은 거들떠도 안 보고 연락을 끊었어요. 물론 아가씨는 아버지랑 달리 가진 것이 많으시지만 저는 아가씨에게 기생해 살고 싶진 않아요.”

“...”

“저는 아가씨 자체를 좋아하는 거니까요. 아가씨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더 이상 아가씨께 받으면 제 마음이 바래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나쁜 거야?”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이 아프게 박혔다. 나는 칼립스에게 사랑을 바라기만 했지 표현한 적은 없었다. 마지막까지도 나는 그에게 사랑해달라고 했지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외로운 사람에게 나는 바라기만 했구나.’

그때는 내 외로움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오직 그에게만 매달렸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주고 싶었다. 그가 내게 주었던 것 이상으로.

“고마워, 타냐.”

내 감사에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나도 네게서 답을 받았어. 덕분에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탐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어.”

바닥에 박힌 두 자루의 검과 그 사이에 핀 맨드라미,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예복을 잠시 바라보다 두 팔을 벌렸다. 타냐는 내게 예복을 입혀주면서 나보다 더 긴장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뭘 그렇게 긴장하고 그래.”

“그래도 아가씨께서 오늘 후계자로 인정받는다 하니... 아가씨는 안 떨리세요?”

“인정받는 건 아니야. 어디까지나 가신들에게 공식적으로 처음 얼굴을 비치는 것이니까.”

가문 내에서도 여러 세력들이 있다.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비교적 자주 봐왔지만, 나를 탐탁지 않아 하는 세력들은 거의 본 적이 없다. 애초에 그들 대부분은 수도에 기반을 잡고 있었고, 영지에 온다 하더라도 스쳐 지나가듯이 본 게 전부였다.

‘어차피 적통은 나밖에 없는데 별 지랄들을...’

나를 볼 때마다 인상을 구겼던 이들이 생각났다. 아마 그들은 여인인 내가 고명한 무가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기분 나빴겠지.

‘그렇다고 분가의 사람을 후계자로 내세우면 또 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겠지.’

타냐가 치맛자락을 정돈하는 동안, 나는 재킷의 단추를 잠갔다. 눈앞에 놓인 흰 장갑을 빤히 바라보자 타냐가 내게 건넸다.

“이 장갑을 던질 일이 없기를 기도해줘, 타냐.”

“장갑을 맞는 것보다는 던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흐음,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요즘 건방진 소리도 한다?”

타냐의 볼을 살짝 꼬집었다 놓아주자 그녀가 볼을 매만지며 푸념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아가씨 옆에 있다 보면,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요. 애시당초에 아가씨가 험한 말만 안 쓰시면 돼요!”

“그래, 그래. 다 내 죄다.”

근 이주 동안 내내 옆에 붙어 있었던 타냐는 이제는 내가 뱉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조마조마한 얼굴로 나를 보던 그녀는 내 입버릇을 흉내 내는 지경까지 다다랐다.

‘입버릇을 진짜 고쳐야 하는데...’

순진하던 타냐가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긁어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일었다. 나는 장갑을 끼고는 다시 한번 옷을 정돈했다. 그때, 집사가 방문을 두드렸다.

“아가씨, 손님 분들이 모두 오셨습니다. 어서 내려오시지요.”

“지금 내려가지.”

문을 열자 안경을 추켜올리던 집사가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날카로운 눈을 무시하고 그를 지나치자 타냐가 나를 따랐다.

“헤른 양, 당신은 오늘 부엌일이나 도우십시오. 부디 손님 분들의 앞에서 실수하는 불상사가...”

“타냐는 오후에 내 심부름으로 자리를 비울 거야. 부엌일은 다른 아이를 시키지 그래?”

“...예, 알겠습니다.”

나를 탐탁지 않아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집사였다. 그는 인테제르 후작가의 가신 가문의 삼남이었고, 오래전부터 수도 저택의 집사를 맡고 있었다. 그는 집사로서의 의무에는 성실했지만 눈빛만큼은 숨기지 않았다.

‘확 뽑아버릴까 보다...’

무심코 튀어나올 뻔한 말을 삼키며 나는 1분 전까지만 해도 입버릇을 고치자 마음먹었다는 것을 상기해냈다. 솔직히 말해 내뱉어도 상관없는 말이었지만 여기서 더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싶지는 않아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집사도 회의에 참여할 건가?”

“저는 집사로서의 업무를 다할 것입니다. 회의는 제 형님이 참석하실 겁니다.”

“그러시겠지.”

“예?”

“아무것도 아니야.”

입가에 미소를 더더욱 끌어올리고는 복도를 거쳐 계단을 내려갔다. 저택에 딸린 회의실에 들어서니 서늘한 분위기가 나를 맞았다. 상석에 앉아있는 아버지가 싱긋 웃어주자 나를 찌르는 듯한 공기가 조금 가라앉은 느낌이었다.

“가신들에겐 처음으로 인사하는군요. 시엘 드 인테제르입니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걸음을 옮겨 비어있는 자리로 갔다. 구두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서 울렸다. 상석의 바로 옆에 앉으려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목소리를 냈다.

“영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물론 후계자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것을 어찌 묻습니까?”

“영애에게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순식간에 미소를 지우고는 지팡이로 몸을 지탱하고 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내 기억 상으로는 분명 그의 장손을 아버지의 양자로 들일 것을 주장하던 방계의 사람이었다.

‘꼴에 가문의 어른이라 이거지.’

“제게 자격이 없으면 그 누구에게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가문의 유일한 적통은 오직 저뿐인 것을요.”

“어찌 무가의 후계에서 적통만을 따지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그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웃는 것을 보이지 않게 입가를 가렸지만 그들에게 내가 웃고 있다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다.

“어찌 웃으십니까?”

‘그야 너무 내 생각대로 흘러가 주니 말이지.’

“아니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적통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계자가 되려는 것은 저 또한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허니 아가씨께서는 신부수업이나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헤리펠 남작이었나. 모욕 수준의 노인의 말에 또다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말을 가뿐히 무시하고는 말했다.

“허면 이제 저보다 강한 자를 데려와 보세요.”

“예?”

“그대들이 원하는 것은 실력 있는 정통한 후계자가 아닙니까? 제가 실력으로 그 정통성을 입증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까?”

“아가씨께서는 마법사가 아니십니까?”

“마법은 쓰지 않을 거랍니다?”

“제 말은 마법사 나부랭이가 어찌 인테제르 가를 이끌어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헤리펠 남작이 지팡이로 바닥을 한 번 찍었다. 나를 그를 어찌할까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마법사 나부랭이? 상당히 편협하고도 무례한 말이군.”

내 말에 몇몇 사람들이 급하게 숨을 삼켰다. 남작 또한 내가 주는 압박감에 벗어나지 못한 듯 손을 잘게 떨었다.

“마법이라는 것은 무예와는 다른 방식으로 마력의 운용을 연구하는 것. 내게는 마법이나 검이나 똑같이 내 힘일 뿐이다. 마법사 나부랭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모든 마법사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

“그대가 나를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면 그대의 어리석은 혀가 내뱉는 말을 내가 책임져줄 이유가 없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말해보시지. 이번에는 마법사로서 그 말을 들어볼 테니.”

“무슨...”

“내가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은 이 가문을 짊어질 후계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야.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세상을 볼 줄 모르는 그대를 어여쁘게 봐줄 이유가 없어. 이 가문의 일원인 것에 감사하도록, 헤리펠 남작.”

나는 의자를 천천히 빼내 여유롭게 자리에 앉았다. 내가 당당하게 후계자의 자리에 앉았음에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마법사인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이쯤에서 그만하지. 내가 분명 마법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들에게 인정받겠다 말했거늘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짜증 났거든.”

분위기는 이미 내게로 넘어와 있었다. 남은 것은 그들이 반박할 수 없게 이 선을 타는 일이었다.

“철저히 그대들의 방식에 따라 검으로 끝을 내 주지. 다만 내가 정당하게 이 자리에 앉을 경우, 나를 여인이라 무시했던 자들 모두 장갑 맞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어.

내 하녀에게 질 좋은 장갑을 여분으로 사 오라 말했거든. 자, 하녀가 돌아오기 전에 후계자 분쟁을 정리해 보지.”

주위를 둘러보니 아버지는 못 말린다는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었고, 딜런은 얼굴을 가리고는 대놓고 킥킥대고 있었다. 장갑을 사 오라는 것이 그렇게 웃겼던 걸까 잠시 생각하고는 화사한 웃음을 지었다.

“분가 중에서 이 자리에 도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

한 기사가 배를 부여잡고 실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엘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딜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가를 씰룩였다.

‘우리 아가씨, 이제 보니까 진짜 괴물이네.’

가끔씩 그가 시엘과 대련을 할 때, 그녀가 얼마나 힘 조절에 애를 썼는지 깨달았다. 검을 맞부딪치자마자 일격에 검들이 부러져나가니 이것은 대련이라 할 수도 없었다.

“아아, 연습용 검도 꽤 비싼 건데 말이지.”

날을 무디게 했다고는 하나 철로 만든 검이었다. 저렇게 검격 한 번에 일방적으로 깨질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 없습니까?”

“...”

“당당하게 나오기에 후계자 후보가 한 무더기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만 이게 끝입니까?”

시엘의 비아냥거림에 이미 패한 기사들이 분한 듯이 얼굴을 구겼다. 그러나 이미 진 이상, 그들에게는 뭐라 말할 권리가 없었다. 사전에 무기와 장비도 모두 점검한 데다 소드마스터인 아서가 증인으로 서 있는 이상 이 결투의 결과는 정당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 가문은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아, 마침 제 하녀가 오네요.”

그녀의 말대로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품에는 장갑을 가득 품고서는...

‘미친, 진짜 사 온 거야?’

시녀가 다가올수록 얼굴이 거무죽죽하게 변해가는 이들을 보자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장갑을 던지게 되면 그것은 대련이 아닌 결투, 즉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제국에서 내로라하는 기사들을 일격에 깨부수는 괴물과 목숨을 건 결투라...’

결과는 뻔했다. 그녀의 주위에 널려진 검의 파편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시엘이 검만 깨부수고 멈췄지만 결투라면 그대로 목을 베어도 상관없는 일이다.

“제가 일일이 던지기도 좀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씩 가져가실래요?”

시엘이 장갑을 머리 위로 흔들며 장난스럽게 말하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시엘은 장갑 더미를 전부 바닥에 버리고는 헤리펠 남작에게 곧장 걸어갔다.

“남작에게는 내 직접 장갑을 던져주지.”

“...”

“결투조차 응하지 않겠다는 건가? 나를 마법사라, 여인이라 깔보던 그대의 고고한 긍지는 어디로 갔지?”

입을 다물고 시엘을 지켜보던 에이든이 낮은 웃음소리로 클클 웃기 시작했다. 한참을 웃은 뒤에야 엄숙한 목소리로 그가 대답했다.

“아무래도 이 노인네가 눈이 멀었었나 봅니다. 아가씨의 무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인테제르 후작가를 이끌어갈 분입니다. 아가씨를 모욕한 것은 제가 모두 책임지고 목을 내놓겠습니다.”

“...”

에이든 헤리펠, 시엘의 말대로 제국 최고의 무가, 인테제르 후작가가 낳은 걸출한 인물 중 하나였다. 한때는 수도의 경비단장까지 지냈던 인재로, 그 성격이 대쪽 같기는 했지만 후작가를 위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던 이였다.

그 때문에 그가 은퇴한 후에는 후작가 내에서 그를 원로로 대접해주었고, 보수적인 분가들이 따르는 이였다. 그런 그가 꺾인 이상, 후작가 내에서 그녀를 막을 이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대의 인정을 받았는데 피를 보아야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그대를 살려주는 대신 그대는 가문의 어른으로써 해 주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는 줄곧 영지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의 사정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헤리펠 남작, 앞으로 인테제르 후작가와 소후작인 제가 수도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시엘의 말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에이든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닌 그가 대답했다.

“그런 것이야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인테제르 가의 가풍 자체가 명예로우면서도 정당한 무를 숭상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녀가 소후작이 된 것에 납득하면서 물러났다. 후계자의 자리도 공고해졌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가문 내의 결속력은 단단해질 터였다.

‘정말 무서운 분이라니까.’

가진 힘이 많든 적든 간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 시엘은 그것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약자와 강자 모두를 이해하는 눈이었다.

딜런은 숙취로 메스꺼운 속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원한 냉차를 들이켰다. 시엘이 후계자로 인정받고, 근 삼일 동안은 후작가 저택 내에서 술판이 벌어졌었다. 대부분이 무인이라 그런지 주당들이 가득했고, 딜런 또한 술이 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음주는 버텨낼 수 없었다.

‘그리고는 바로 서류처리라니 괴롭다...’

흐르지 않는 눈물을 삼킨 그는 눈앞에 펼쳐진 다정한 조손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떨어지자마자 형식적인 예의는 집어치우고 시엘을 꿀 떨어지듯이 바라보는 에이든의 모습에 딜런은 경의를 표했다.

“할아버지, 여기 계산이 안 맞아요.”

“으음? 어디 볼까?”

아마 밖에 있는 가신들은 방 내부의 분위기를 걱정하고 있겠지. 떠나기 전, 자신에게 둘의 사이가 흉흉해지지 않도록 중재해 달라 무언의 압박을 넣던 이들이 떠올랐다.

‘파렴치한 조손 사기단 같으니라고...’

저 둘이 진짜 친조손지간은 아니지만, 에이든은 시엘을 친손녀처럼 예뻐했다.

‘언제부터였지?’

아마 몇 년 전 에이든이 영지에 들렸을 때, 시엘이 검술을 배우던 것을 본 순간부터였을 것이다. 그때부터 시엘에게 푹 빠진 그는 이번 일에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설 정도였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좀 더 깐깐하고 완고해 보이게! 눈빛은 독사같이!”

“이, 이렇게?”

늦은 밤마다 어디선가 에이든을 납치해와 연기 지도를 하던 시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한 특훈 덕에 본래 에이든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덧씌워 만들어낸 연극 아닌 사기에 딜런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딜런, 손이 멈췄네요?”

“좀 봐주십시오. 전 에이든 님이나 아가씨처럼 나이 핑계로 술자리를 빠지지 못했으니까요.”

“누가 그렇게 마시랬냐? 어른이면 요령 있게 빠질 줄도 알아야지. 넌 너무 우직해서 탈이야, 탈. 우리 아가씨가 뭘 보고 배우겠어?”

‘아니,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판인데요...’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쿠키를 집어먹는 시엘의 태평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소름이 돋았다. 분명 그녀가 보고 있는 서류는 웃으면서 볼 만한 내용이 아닌데...

“저, 전 각하께 전해 드릴 서류가 있어서 잠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딜런이 문을 닫고 나가자 시엘은 서류를 무성의하게 팔락 팔락 넘겼다. 에이든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깊은숨을 내쉬었다.

“왜 그러세요?”

“아니다. 요 며칠간 이러저러한 일이 많았더니 어깨가 쑤셔서 말이다.”

“주물러 드릴까요?”

“이 노인네 어깨를 부수려고? 아서라.”

“에에, 힘 조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프긴 아파.”

에이든의 일갈에 시엘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쿠키를 하나 더 집어 들었다.

“근데요, 할아버지. 진짜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내일모레면 저승 갈 노인네가 뭘 더 욕심내겠냐. 아직 살 날 창창한 네 욕심이나 채워라.”

“...”

시엘이 에이든을 빤히 바라보자 그는 휙휙 돌리던 어깨를 멈추고는 푸근한 미소를 지었다.

“왜, 내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 찜찜한 게냐?”

“네.”

“많은 사람들이 내 성격이 대쪽 같은 데다 고집밖에 없는 노인네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나는 가신으로서 네 아버지의 성격에 맞게 보좌해주었을 뿐이다. 너는 네 아버지와 달리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니까 나 또한 그에 맞춰주는 거지.”

“...”

“시엘, 너는 사람을 너무 믿지 못해서 문제야.”

시엘이 쿠키를 집던 손을 멈췄다. 이제 그만 먹기로 결정했는지 손에 묻는 가루를 탁탁 털은 그녀는 소파의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저는 성악설을 지지하거든요. 인간은 어차피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너는 사람의 나약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게 오히려 네 발목을 잡고 있어.”

“그만하세요, 할아버지. 제가 범인류적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네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너는 네가 사랑하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을 죄다 적대적으로 보는 게 문제이지.”

“아니거든요.”

“아니긴 무슨, 신년 파티에서 그렇게 끔찍하다는 얼굴로 웃고 있었으면서.”

“그건... 그 인간들이 특히 싫은 거예요. 고귀한 척하면서, 뒤로는 끝없이 추한 욕망을 부리는 귀족들이.”

“욕심은 너도 만만치 않아.”

“그래도 할아버지, 저는 제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저들은 그저 밑도 끝도 없는 욕심일 뿐이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시엘, 모든 인간이 꼭 그런 건 아니란다. 물론 세상에는 멍청한 놈들이 대다수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현명한 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열 명 중에 아홉이 어리석다 해서 나머지 하나도 불신하다 보면 언젠가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믿으라고요?”

“그럼, 애초에 이 할아비는 살대로 산 몸이라서 이제 걱정되는 건 후계자인 너밖에 없단다.”

시엘이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보았다. 그녀의 붉은 눈과 정통으로 마주치자 에이든은 자기도 모르게 한기를 느꼈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시엘의 붉은 눈은 어린 소녀의 것이라 보기에는 힘들었다. 저 눈은 인간의 밑바닥을 알고 있는 눈이었으니까. 아마 그녀가 사람을 믿지 않는 것도 그 이유겠지.

에이든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이 어린아이가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아서가 속죄하듯 그녀에게 끝도 없는 애정을 쏟아붓는 것을 보았을 때,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이미 시엘은 그 애정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들쑤셔봤자 그녀에게 좋을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

“시엘, 이 할아비는 후계자이기 이전에, 손녀딸이나 다름없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그것은, 에이든 생애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삼 일 후, 대회의가 있을 것이다. 너 또한 이제 정식 후계자가 되었으니 참가해야겠지.”

아버지의 말에 나는 스테이크를 썰던 손을 멈추었다. 신년파티가 끝난 지도 벌써 두 달이었다.

“그러고 보니 슬슬 2분기가 시작될 때군요.”

분기마다 행해지는 귀족 대회의, 연초의 짧은 1분기를 끝으로 2분기에는 곧 시작되는 새해 농사를 대비한 정비에 대한 회의였다.

“아버지, 회의가 끝난 후, 폐하를 알현할 수 있을까요?”

“알현? 갑자기 무슨...”

아버지의 물음에 나는 눈짓으로 하인들을 물렸다. 방음 마법으로 소리를 차단한 후에 나는 그 물음에 대답했다.

“올해 안에, 황위 계승이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아버지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러고는 곧 아버지는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떨궜다.

“그래, 그렇구나.”

“죄송해요. 하지만 더 이상 폐하의 생을 붙잡아 두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니다. 하인리히는 주어진 시간 이상을 살았어. 벗을 또다시 보내는 것은 쓸쓸하지만 이미 각오해둔 바이다. 다만...”

“다만?”

“황태자를 황제로 추대할 것이냐? 그에게 황제의 권력을 주어도 될지 모르겠구나.”

“고민하고 있어요.”

내 말에 아버지가 묘한 미소를 지었다. 스테이크를 입 안에 넣자 육즙이 풍부한 부드러운 육질이 느껴졌다. 남은 조각이 꽤 컸지만 한 입에 넣고 씹었고 아버지는 그런 나를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바라보았다. 입 안에 있던 음식을 완전히 삼키고서는 입가를 닦았다.

“누구를 허수아비로 만들면 좋을지.”

마차의 덜걱거림에 따라 창밖의 풍경 또한 흔들렸다. 작은 창으로는 전부 볼 수 없는 높은 황궁이 점점 가까워졌다.

“곧 비가 내리겠어요.”

하늘은 아직 맑았지만 공기가 점점 습해지고 있었다. 서류를 읽던 아버지는 창 밖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내릴 것 같으냐?”

“아뇨, 여우비가 될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고 예정이 있으신가요?”

“음, 황궁 기사단에 잠시 들리려고 한다.”

“그래요? 알현을 끝마치면 황궁 기사단으로 갈게요. 집에 같이 돌아가요.”

“그래, 그러자꾸나.”

때마침, 마부가 마차의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나는 한 손으로 예복 치마를 잡고는 한 손으로 아버지가 내민 손을 잡고 마차에서 내렸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내가 마차에서 내리자 시선이 몰리는 것이 느껴졌다.

불쾌, 긴장, 경계. 여러 감정들이 느껴졌다.

“별로 환영받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당연하죠, 우리는 여자니까요.”

또각하는 구두 소리와 함께 붉게 입술을 칠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아버지의 옆구리를 찔렀다.

“오랜만이오, 베알 백작. 이쪽은 내 딸이라오.”

“시엘 드 인테제르라고 합니다.”

“아리아 드 베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가 내게 가지고 있는 감정은 호감이었다. 전생에서는 나를 별로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았던 그녀라 왜 지금 호감을 비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신년 파티 때는 아주 진귀한 구경을 했어요, 영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긋 웃자 그녀는 나를 품평하듯이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불쾌하지는 않았으나 달가운 것도 아니었다.

“허면 구경 값을 주셔야지요.”

조금은 날이 선 내 대답에 아리아의 눈이 커졌다. 너무 당돌한 대답이었나 생각한 나는 웃음으로 그를 넘겼다.

“농입니다.”

그 말에 아리아는 부채로 입가를 가린 채로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소리 죽여 웃던 그녀는 웃음을 참느라 미묘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다음에 그 값을 치르도록 하지요.”

“전년에 행해진 농지 개혁의...”

나는 재상의 지루한 언사를 들으며 주위를 살폈다. 따가운 시선 몇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특히 레임 공작이 말이지.’

내가 가문의 후계자로 대회의에 참석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 나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배포된 서류를 넘겼다.

‘저수지의 확대안...은 없군.’

올해는 흉작이다. 지난 몇 년간 풍작과 평작이 번갈아가면서 있었기에 필연적인 흉작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대회의에서 그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습니까?”

무거운 침묵이 회의장에 깔렸다. 나는 서류를 읽는 척하면서 어서 빨리 이 지루한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의견이 없으시다면 계획안대로...”

“잠깐.”

황제가 재상의 말을 끊자 귀족들의 시선이 황제에게 몰렸다. 그는 계획안을 내던지듯 내려놓고 한 마디 물었다.

“계획안 자체는 아주 좋네. 허나 이 계획안대로 정비되는 제국의 땅은 얼마나 되지?”

“...작년 기준에 따르면 농경지의 약 40퍼센트입니다.”

“40퍼센트, 그래 그중에서도 황실 직할령이 15퍼센트, 20퍼센트는 군량의 생산지인 인테제르 후작가. 남은 5퍼센트는 기타 등등.”

황제의 말에 크고 작은 헛기침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황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말을 이어나갔다.

“물론 계획과 현실은 다른 법이지. 어느 정도의 융통성도 필요한 법이야. 허나 최고의 인재들이 머리를 짜내어 내놓은 방안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네.”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황제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짐이 평생을 바친 업은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었지. 허나 체제를 정비해봤자 뭐하나? 그 체제에 따르지를 않는데.”

그 말에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지금, 황제는 내 예상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제국이 앞으로 발전하는 것은 내 다음 대, 황태자의 업이다. 그러나 그전에 정리는 하고 가야겠지.”

황제의 그 말은, 피바람의 예고였다.

“제국의 아버지, 황제 폐하를 뵈옵니다.”

“어서 오게, 앉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황제가 권한 자리에 앉았다. 시녀들이 차를 준비하고 물러나자 응접실 안에는 나와 황제, 그리고 황제를 호위하는 황실 기사들만이 남아 있었다.

“짐에게 알현을 청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듣는 귀를 물려주시기를 청합니다.”

내 말에 황제가 호위 기사들에게 물러가라는 듯이 손짓을 했다. 그러나 호위 기사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인상을 구겼다.

“하오나 폐하...”

“인테제르 후작가의 후계자다. 짐을 충신조차 믿지 않는 우군으로 만들 셈인가?”

황제의 말에 호위 기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응접실을 나갔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입을 열었다.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폐하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법으로 붙잡아 두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역시 그런가.”

황제가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가 마음을 추스르기를 기다렸다.

“짐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막상 시엘 양에게 직접 들으니 좀 버겁군.”

“송구하옵니다.”

“아니, 시엘 양이 송구할 이유가 어디 있겠나. 짐이 지금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 것도 다 시엘 양 덕분이거늘.”

“...”

황제는 후후 웃으며 손을 턱을 괴었다. 나를 탐색하는 그 황금색 눈을 힐끗 보고는 나는 다시 차에 시선을 돌렸다.

“어째서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지?”

“어째서 오늘 대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황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황권의 강화를 꾀하는 말이었다. 즉, 피바람이 불 것이란 소리였다. 왜 그가 죽기 직전에 이러한 짓을 벌이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시엘 양, 짐은 말일세. 그 무엇보다 제국이 중요하네. 비록 성군이라 불릴 재목은 아닐지 몰라도 짐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가고 싶어. 그리고 짐이 이대로 떠난다면 다음에 이 제국을 떠맡을 이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이야, 짐이 시엘 양에게 부탁 하나만 하지.”

“부탁, 말씀이십니까?”

명령이 아닌 부탁. 나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짐은 시엘 양이 귀족들의 숙청에 선봉을 서 주었으면 하네.”

황제가 말하는 귀족에는 귀족파뿐만 아니라 황제파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에는 우리 가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문들 또한 여럿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황제의 말은 황제파 내에서 인테제르 가문을, 정확히 말해서는 나를 고립시키려 한다는 뜻이었다.

“폐하, 저 또한 귀족입니다.”

“하하, 시엘 양이 어디 평범한 귀족들과 같은가? 초대 황제 폐하를 꼭 닮은 그 머리카락과 눈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눈앞에서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황제를 보며 나는 어찌할까 고민했다.

“폐하, 개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폐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섣불리 청소를 시작했다 폐하께서 승하하신다면 오히려 황권이 약화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건 맞는 말이야.”

“허니 부디 황태자 전하를 믿어주십시오. 황태자 전하께서는 분명히 폐하께서 못다 이룬 위업을 달성하고, 성군이 되실 겁니다.”

“정말 그리 생각하는가? 짐이 보기에는 시엘 양은 태자를 조금도 믿지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

“시엘 양은 그저 적당한 황제가 적당히 제국을 운영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시엘 양과 관련된 것을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바로 보셨습니다. 때문에 저 또한 황권의 강화를 바라지 않는 귀족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황태자 전하께서 강력한 황권을 손에 쥐고 이리저리 들쑤셔봤자 제게 이득이 되는 것은 하나 없습니다.”

“시엘 양의 이득의 관념은 다른 이와 꽤나 다르군. 보통이라면 더 많은 권력과 부를 탐하지 않는가? 내 부탁을 들어주기만 한다면, 자네의 가문을 제국의 제 1 가문으로 만들어 줄 것이야.”

“저를 인간의 잣대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황제 폐하.”

나는 황제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황제가 변한 내 눈을 보자 잠시 움찔거리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짐이 무슨 보상을 해 주면 되겠는가?”

“저는 더 이상 인간에게 바라는 것 따위는 없습니다. 힘도 재보도 이미 개인적으로 욕심부릴만큼 욕심부리고 있어서요.”

“허면 왜 수도에 진출한 것이지? 시엘 양이 정식으로 후계자로 인정받고 나서, 인테제르 가의 수도 활동이 활발해져서 말이야. 짐은 시엘 양이 아서처럼 은거하리라 생각했는데.”

“아.”

그의 말에 나는 짧은 수긍을 내뱉었다. 그것 때문에 애가 탔던 모양이군. 나는 히죽 웃고는 그에게 물었다.

“제가, 황가의 위협이 된다 생각하셨습니까?”

“...”

“폐하, 어찌 제 충심을 몰라보십니까? 저는 황권을 위협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습니다. 황가가 저와 제 사람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요.”

내 말에 황제가 열이 받은 듯이 얼굴 표정을 굳혔다. 나는 킥 하고 웃으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아주, 대단한 충정이로군. 헌데 황제가 된 내 아들이 시엘 양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가?”

“허니 폐하께서 잘 가르치셔야지요. 무엇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지.”

“송구하지만 폐하의 부탁은 듣지 못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디 저보다 청렴결백하고 애국심 높은 인재를 찾아보시지요.”

부디 몸조리 잘하시길 이라 마지막 말을 덧붙인 시엘이 떠나자 하인리히는 참아왔던 밭은기침을 내뱉었다. 압박감이 사라지자 순식간에 심장이 죄어왔다.

그가 가슴을 부여잡고 호흡을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는데, 물러났던 호위 기사가 응접실에 들어오면서 하인리히를 발견하고는 급히 그에게로 다가왔다.

“폐하,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다. 컨디션이 안 좋은 것뿐이니. 그보다 가서 황태자를 불러오너라.”

“그보다 황궁의를 부르시는 편이...”

“황궁의가 와도 소용없는 일이다! 어서 태자를 불러와라!”

하인리히의 불호령에 호위 기사가 경례를 취하고는 서둘러 응접실을 나섰다. 하인리히는 고함과 동시에 속 안에 있던 것을 내뱉어낸 것만 같은 개운함과 허탈감에 의자에 몸을 기댔다.

“하아...”

그는 황족이라는 이유로, 황제라는 이유로 평생을 불공평한 혜택을 받아왔다. 자신이 받은 혜택만큼 못 받은 이에게 돌려주려 노력했다.

‘노력했나?’

적어도 제국을 책임지는 군주가 되기 위해 개인적으로 버려서는 안 될 것까지는 버렸다.

하지만 마지막의 마지막에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려 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무너질 모래성이라면 자신이 무너뜨리고 새로운 토대를 만드는 것이 나았다.

그것이 황제인 그가 버려왔던 것들에 대한 예우였다. 아니, 그저 그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 증명하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제국이 강건할 수 있게, 황가가 흔들리지 않게, 백성들을 지탱한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황가, 황좌, 황제.”

그가 고개를 젖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에는 하늘색의 드래곤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그때, 마치 벼락이 꽂히듯이 하인리히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인리히가 기다리던 이가 문을 두들겼다.

“아바마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오거라.”

문이 열리고 라트로가 들어왔다. 평소였다면 하인리히는 라트로에게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잔잔한 눈으로 자신의 아들을 관찰할 뿐이었다.

“앉아라, 태자.”

평소처럼 라티라는 애칭이 아닌 공식석상에서 부르듯 태자라 불러 라트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곧 진중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하인리히의 말을 기다렸다.

“태자, 인테제르 영애를 마음에 두고 있지?”

“...예.”

“긴 말 하지 않으마. 그 마음을 버려라.”

라트로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하인리히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믿고 지지해주던 아버지였다. 이런 냉정한 얼굴은 그는 알지 못했다.

“싫습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다.”

“물론 인테제르 영애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차기 황제인 제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내 아들은 아니겠지.”

“황제 폐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솔직히 조건 면으로 보았을 때는 그녀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헌데 왜 제가 그녀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라트로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듯이 따졌다. 하인리히는 이마를 짚으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허면 태자, 황위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테제르 영애와 황위, 둘 중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말이다.”

“아바마마?”

“시엘 드 인테제르, 그 여인은 너무나도 위험한 존재이다. 황좌의 옆에 둘 수는 없어. 황좌의 내용물은 금이 아니라 금박만 입힌 고철이 될 것이다.”

“그녀가 마탑의 수장이라 이러시는 겁니까? 오히려 잘만 이용한다면 저희 제국에게 큰 힘이...”

“황태자, 나는 네 마음을 묻는 것이다. 만약 그녀가 황가의 위험이 되는 존재라면 너는 황좌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인테제르 영애의 옆자리를 택하겠느냐?”

하인리히는 흔들리는 아들의 결정을 기다리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어차피 하나를 버린 것, 둘이라고 못 버리겠나.’

검날이 부딪치면서 생긴 여파로 시엘은 한 걸음 물러났다. 그녀의 아버지인 인테제르 후작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보법을 사용해 바싹 붙었다. 그녀는 검등으로 그를 힘껏 밀어냈다.

그녀의 손에는 여성 검사가 잘 쓰지 않는 바스타드 소드가 들려 있었다. 그 무거운 검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것을 보면 근력과 노련함이 바탕이 돼야 했다. 칼립스는 그녀가 만든 검의 궤적을 보며 감탄을 내뱉었다.

‘나와 같은 바스타드 소드를 쓰지만, 타입은 다르군.’

칼립스는 탄탄한 기본기와 힘과 속도가 고루 잡혀있는 타입이라면, 시엘은 압도적인 힘과 그 힘을 완벽히 응용하는 기술로 승부하는 편이었다.

‘신기한 사람.’

살기를 흉흉하게 흘려대며 검을 휘두르는 모습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말괄량이처럼 웃던 신년파티 날의 밤과는 같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시엘은 그녀의 아버지인 인테제르 후작과 간격을 벌리고 주위를 돌고 있었다. 일곱 발자국, 시엘의 간격 안에 들어오는 거리였다.

선제공격을 한 것은 시엘이었다. 바스타드 소드가 공기를 가르며 인테제르 후작을 두 동강 낼 기세로 내리쳐졌다. 그러나 인테제르 후작은 그 공격을 흘리듯 사선으로 내려치고는 그녀의 목에 검을 겨누었다.

“졌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시엘이 땅에 꽂힌 검을 한 손으로 빼내었다. 저 가느다란 팔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는 걸까 하고 잠시 생각한 칼립스는 그의 손에 있는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격식을 차리면 바스타드 경이라 불러야 하지만 그러기 싫네요. 다음에 봐요, 칼립스.”

스스럼없이 이름을 부르는 그 입이, 상냥하다 속삭이며 휘어지는 그 눈이. 묘하게 칼립스를 자극했다. 돌려줘야지, 돌려줘야지 하면서 결국 삼 개월 가까이 지니고 있게 되었다.

애초에 그는 그녀를 만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무작정 저택으로 찾아가는 것은 실례라는 변명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나기를.

어쩌면 우연이라 볼 수도 있고, 어쩌면 노렸다고 볼 수도 있는 만남. 그의 주군인 라트로가 황제를 알현하러 가는 바람에 자유시간이 생겨버렸고, 인테제르 후작 부녀가 황궁 기사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걸음을 옮겼다.

“여기 있습니다, 영애.”

한 기사가 그녀에게 수통을 건넸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수통을 받아 들었다. 고개를 젖히고 물을 마시느라 드러난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 정신이 팔린 기사가 한둘이 아니었으리라.

‘왜 나는 저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걸까? 내게는...’

닮았다, 가슴이 사무치도록 사랑하는 그 사람과. 비록 그의 기억과는 다른 그녀는 당당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아 있었다.

“그나저나 어떻게 전해준다.”

얇은 팔찌의 중앙을 장식하고 있는 다이아는 희미한 빛을 띠고 있었고, 따뜻했다. 그 덕분에 그 동안 황궁경비를 춥지 않게 설 수 있었다.

“...”

칼립스는 팔찌를 다시 품속에 넣고 시엘이 있는 쪽을 보았다. 그러다 자신을 보고 있는 그 동그란 붉은 눈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위험해.’

마치 심장이 그에게 경고하는 것만 같았다. 두려움에 화들짝 물러났다.

‘뭐가?’

뭐가 위험하다는 걸까? 그는 가슴에 손을 대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신이 왜 이러는 걸까?

“어디 아파요?”

듣기 좋은 목소리에는 걱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자신을 올려다보며 얼굴을 미묘하게 일그러뜨리고 있는 시엘을 보며 칼립스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위험하긴 무슨.’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의 상태를 살피듯 위아래로 훑던 시엘은 그의 대답에 한 걸음 물러났다. 칼립스는 그녀의 상냥함에 싱긋 미소를 지었고, 시엘은 또다시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얼굴을 보았다.

“오랜만입니다.”

“오, 오랜만이네요.”

칼립스는 시엘의 발갛게 물든 뺨이 꽤나 마음에 들었다. 아마 대련 직후라 열이 오른 것이겠지.

“...”

칼립스는 입을 다물고 시엘을 살폈다. 하늘색 머리카락, 그때는 밤이었던지라 그녀의 머리카락 색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저 하늘의 색과 똑같은 그녀의 머리카락은 뛰어들고 싶게 만들었다.

“일단 자리를 옮기지 않을래요? 여긴 시선이 너무 많아서...”

그녀의 말대로 많은 기사들이 질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후작가의 후계자, 강하고 아름다운 데다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니 작위를 받지 못했거나 단승 작위인 기사들이 침을 삼킬 만하지. 그렇게 생각한 칼립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

“다녀오거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엘에게 다른 기사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살기를 흩뿌리던 후작이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칼립스는 그녀에게 손목을 잡혀 이끌려 가면서 후작을 흘깃 보았다.

어쩐지 후작이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라면 괜찮겠죠.”

허리에 두 손을 올리고 말하는 그녀는 어쩐지 귀여워 보였다. 그가 시엘을 빤히 바라보자 시엘은 생긋 미소를 지었다. 듬뿍 사랑받고 자란 사람,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을 돌려드리려 왔습니다.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하다는 한 마디로 땡이예요? 대여료는 내셔야죠.”

그녀의 말에 당황한 칼립스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봉급은 필요한 만큼을 제외하고는 전부 고아원에 보내고 있어 여유자금이 없었다.

“기, 기다려 주신다면 다음 봉급일에...”

“돈이라면 썩어 넘쳐날 정도로 있거든요? 제가 사고 싶은 건 당신의 호의와 하루, 어때요?”

“예..., 예?”

“실은 기원제 축제를 보러 가고 싶었거든요. 황궁 파티 말고 길거리 축제요. 하루 정도는 휴가 낼 수 있죠?”

“아, 예. 언제가 좋으십니까?”

“마지막 날로 하죠. 자세한 약속은 나중에 전령을 보내도록 하죠. 그럼 이만 가 봐도 될까요? 늦었다간 우리 아버지 삐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칼립스.”

칼립스, 그 세 음절이 꽤나 감미로웠다. 그가 그 감미로움에 취해 있는 사이 시엘이 다시 연무장 쪽으로 뛰어갔다. 그는 깜짝 놀라 그녀를 불렀다.

“인테제르 영애! 팔찌 가져가십시오!”

“대여료 정산할 때 돌려받을게요!”

그녀가 뒤로 뛰면서 손을 흔들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천진한 그 모습이 그의 마음속을 찌르는 듯했다.

‘왜 이렇지?’

솔직히 말하면 얼떨결에 잡힌 약속이었다. 무척이나 자유분방한 그녀는 막무가내였지만 싫지는 않았다. 어쩐지 심장 부근이 간질간질한 느낌이었다. 그 느낌이 그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것이라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칼립스는 알지 못했다.

“흥, 흐흠~”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시엘.”

나는 빗을 내려놓고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어있었던 소파에는 리온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었다.

“리온, 내가 분명 텔레포트로 내 방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그렇지만 시엘이 제 연락을 안 받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옷이라도 갈아입고 있었으면 어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하지요.”

내가 눈을 치켜뜨고 리온을 노려보자 그는 두 손을 들고는 순순히 사과했다. 리온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내가 내려놓은 빗을 집어 들고는 머리를 빗어주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콧노래까지 다 부르고는...”

“그냥, 뭐...”

내가 말끝을 흐리자 그가 싱긋 웃고는 내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다. 요즘 들어 손이라던가 머리카락, 이마 등에 키스를 하는 빈도가 늘어나 그를 제지해야 할까 고민하다 나는 결국 포기하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일이에요?”

“보고 싶어서요. 요즘 통 절 만나러 오질 않으니 쓸쓸하지 않습니까.”

“바빠서 그랬어요. 바빠서. 그리고 리온, 내가 마지막으로 만나러 왔을 때는 연구에 빠져서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내 말에 리온이 시무룩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져줄 수밖에 없었다.

“알았어요. 앞으로는 적어도 통신은 꼬박꼬박 할게요.”

“좋습니다.”

내 머리를 한 번 헝클어뜨린 리온은 내 볼멘소리에 기분 좋은 듯이 웃었다. 아무래도 오늘 내 옆에 붙어 있으려 할 것 같은 그 때문에 조금 곤란해졌다. 조금 있으면 칼립스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그러고 보니 오늘 인간들의 축제가 열리더군요. 같이 가보지 않을래요?”

“그렇지만 리온은 인간이 많은 곳은 싫어하잖아요.”

“당신이 함께라면야.”

“...그, 오늘 다른 사람이랑 약속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요?”

미소를 지으며 되묻는 리온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대답하기를 머뭇거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러났다. 그리고는 한 마디를 남겼다.

“푸른 리본.”

“네?”

“오늘 시엘이 저 푸른 리본을 달아준다면 이만 물러날게요.”

“리온?”

나는 그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 뒤를 돌아 그와 눈을 마주쳤다. 잔잔한 그 눈에는 어쩐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시간 날 때 오도록 하지요.”

뭐라 할 새도 없이 리온은 텔레포트를 시전하여 떠났다. 나는 짧은 그와의 대화를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쩐지 방금까지만 해도 둥둥 뜨는 것만 같았던 기분이 착잡해졌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났기 때문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는 그의 감정이 변하질 않기 때문일까.

“하아...”

나는 결국 땅이 꺼질 듯한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시렁줄을 당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타냐가 방에 들어왔다.

“부르셨어요, 아가씨?”

“응, 타냐. 허리 리본을 바꾸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

“어머? 아까까지만 해도 금색이 좋으시다더니 바꾸시게요?”

“응, 그냥... 저기 파란색으로.”

내가 손가락으로 푸른 리본을 가리키자 타냐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리본을 가져왔다. 내 허리의 리본을 바꿔 묶어준 타냐는 치맛자락을 정돈해주면 말했다.

“역시 파란색이 더 어울린다니까요. 아가씨 머리 색깔이랑 비슷하니까요.”

파란색은 하늘색의 대용품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 허리에 두른 리본은 하늘색보다 조금 옅은, 연한 푸른색이 아닌 히페리온의 머리처럼 짙푸른 색이었다.

“응, 그래.”

나는 떨떠름하게 대답을 하고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슬슬 칼립스와의 약속시간이었다.

“슬슬 가야지. 타냐, 모자 좀 가져다줘.”

“잠시만 기다리세요.‘

모자를 장식하는 리본까지 푸른색으로 갈아 끼운 타냐가 내게 모자를 건넸다. 나는 모자를 쓰고는 이상한 곳은 없는지 이리저리 살폈다.

“역시 아가씨, 평민들의 옷을 입어도 그 아름다움과 광채는 숨길 수가 없군요.”

“엑, 눈에 띄는 건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보다 상대 남성분은 에스코트하러 안 오신대요?”

“응, 그냥 중앙 분수대에서 만나기로 했어.”

내 대답에 타냐가 열성적인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명색에 첫 데이트 인데 예쁘게 꾸미시지도 않고 에스코트도 없고, 마차도 없고 이게 뭐예요.”

“평민 거리를 나가는데 쓸데없이 꾸며봤자 뭐해, 타냐가 말하는 대로 했다간 평민들한테 구경거리밖에 더 돼?”

“아가씨는 이미 얼굴 자체가 구경거리예요.”

“에이...”

나는 손을 내젓고는 타냐의 얼굴을 한 번 보았다. 두 눈이 불타는 것이 미행이라도 해서 칼립스를 확인하겠다는 생각이 훤히 보였다.

‘얼른 도망가야겠네.’

“그럼, 갔다 올게.”

발치에 마법진이 그려지자 타냐는 당황한 얼굴로 보다가 이내 포기한 듯이 나를 배웅했다.

“잘 다녀오세요.”

“선물 사 올 테니까 기분 풀어.”

“네에...”

그 대답을 끝으로 시야가 환한 빛으로 물들었다.

칼립스는 광장의 시계를 한 번 확인하고는 팔짱을 꼈다. 수려한 그의 모습에 주위를 지나가던 처녀들이 얼굴을 붉혔다. 다만 그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해서 선뜻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었다.

“거기 있는 오라버니, 땅만 보지 말고 저 좀 보시죠?”

장난기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하얀 원피스를 입은 시엘이 서 있었다. 칼립스는 눈을 크게 뜨고는 잠시 허둥대다 기사식으로 인사를 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테제르 영애.”

“저기요, 일부러 평민 옷까지 입고 나왔는데 계속 영애라고 부를 거예요?”

그녀의 말대로 시엘의 하얀 원피스는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허리에 묶은 리본만을 비단으로 사용한 복식은 부유한 평민들이 입을 법한 옷이었다.

칼립스 또한 평민 출신 기사들이 자주 입는 일상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기사와 레이디가 아닌 평범한 연인으로 볼 법한 상황이었다.

“그, 그럼...”

“시엘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그럼 뭐라고 부를 건데요? 참고로 저기, 그쪽, 야 같은 호칭은 거부하겠습니다.”

“그럼... 시엘 님.”

칼립스의 말에 시엘은 얼굴을 찡그렸다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은 이른 것이겠지 하고 한 걸음 물러난 그녀는 뒤를 돌아 골목길을 훑었다.

“자, 그럼 안내해주세요.”

“예?”

“저기요, 저 이런 데 처음이거든요? 팔찌 대여료는 채우셔야죠, 안내역 씨.”

“안내역...을 원하시던 거였습니까?”

“네.”

그녀의 대답에 칼립스는 안도와 서운한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어째서일까, 그녀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나? 하고 칼립스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저도 어릴 적 어머니와 한 번 와본 것이 전부고 그 외에는 전부 황궁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말대로 그는 어릴 적 기사단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줄곧 황궁 안 기사단의 숙소에서 살았다. 게다가 그는 이런 곳에서 노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회식 이외의 목적으로 거리에 나온 것은 손을 꼽을 정도였다.

“그래도 저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자, 가죠.”

안내역이라고 해놓고는 그의 손을 붙잡아 끌고 가는 시엘로 인해 칼립스는 잠시 당황했다. 모자 사이로 보이는 힐끗 그 붉은 눈에는 알 수 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왜...”

“응? 뭐라고 했어요?”

상점 거리에 들어서니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 그의 작은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터였다. 그러나 짧은 그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시엘은 그에게 귀 기울여 주었다.

“놓아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걷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판에서는 밀려서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걸요? 칼립스를 놓치면 나 미아 된다고요.”

“그, 그렇지만 이렇게 붙잡혀 가는 건...”

“아, 미안해요. 아팠어요?”

아프지 않았다. 힘을 최대한 빼고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그녀는 마치 자신이 다치기라도 할까 봐 조심하고 있었다.

‘힘이 세긴 하니까.’

다른 이를 위한 습관적인 상냥함이겠지.

“아니오, 아프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그녀에게 끌려가는 꼴이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칼립스가 곤란한 미소를 짓자 시엘은 눈치를 챘는지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의 옆으로 가서 팔짱을 꼈다.

“시, 시엘 님!”

“이러면 평범한 연인으로 보이겠죠?”

“연인, 연인이라니요...”

“그럼 오빠랑 여동생? 아, 닮지 않았으니 그건 무린가. 그냥 연인으로 해요.”

“그렇지만 만약 다른 귀족들이 알게 된다면 시엘 님의 평판에 누가 될 수 있습니다.”

“...”

칼립스의 말에 시엘이 입을 다물고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묘하게 가라앉은 그녀는 어쩐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남이 떠들어대는 평판 따위가 중요한가요?”

“앞으로 레이디의 혼삿길에...”

“칼립스, 난 평범한 결혼은 못할 거예요. 다른 레이디들이 원하는 젊고 능력 있고, 작위 있는 남자들은 나를 거부할 테니까요. 왜냐? 내가 자기들보다 더 잘났으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나를 깎아내리는 데만 열중하겠죠.

난 첫 데뷔 이후 사교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소문만 들었어도 알지 않나요? 그들이 내게 있어선 치졸하고 편협한 신랑감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걸.”

“시엘 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꿈꾸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 시엘 드 인테제르를 자체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목표거든요.”

당당하게 자신의 가슴을 툭 치며 말하는 그녀를 칼립스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를 꽉 채우고 있는 자존감은 칼립스에겐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습니까.”

“칼립스,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는 표정으로 수긍해봤자 거든요.”

“...”

칼립스는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놀라고 있었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까지 잘 알아차리는 것은 시엘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시엘이 그의 가슴에 손을 얹자 그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언젠가, 당신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 안의 결핍을 채울 수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 말에 칼립스의 심장 부근이 뻐근해졌다. 그것이 질투라는 것은, 그는 알지 못했다.

“거기 예쁜 아가씨! 맛있는 구름 사탕 먹고 가!”

한 잡상인의 호객행위에 시엘의 발길이 멈추었다. 시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좋아할 법한 구름 사탕이었다.

“두 개 주세요.”

뭐라 할 새도 없이 그의 것까지 주문해버린 그녀는 싱글벙글 웃으며 사탕이 만들어지는 것을 구경했다. 상인이 푸른색소를 반 스푼 넣고 막대를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하자 옅은 푸른색의 구름 사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자, 여기. 특별히 아가씨 머리카락 색이랑 맞췄어. 데이트 잘해!”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그녀의 머리카락 색과 맞췄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하늘색을 모방해 옅게 만든 싸구려 푸른색이 아닌, 그녀의 하늘색은 보기만 해도 숭고해지는 고귀한 색깔이었다.

시엘이 건넨 구름 사탕을 받아 든 칼립스는 그것을 약간 뜯어 입에 넣었다. 싸구려 단맛이 느껴지자 그는 스스럼없이 그것을 입에 가져다대는 시엘의 손을 막았다.

“이런 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싸구려보다는 차라리 다른 디저트를 사서 드시는 것이.”

“단맛에 싸구려고 뭐고 어디 있어요? 먹고 기분 좋아지기만 하면 되지. 원래 이런 데서 먹을 거 가리면 안 돼요.”

그러고서는 시엘은 칼립스의 손을 잡아 내리고는 구름사탕을 크게 뜯어 먹었다. 끈적끈적해진 손가락을 핥는 그 모습은 그가 보아온 레이디의 모습과는 괴리감이 컸다.

“...”

구름 사탕을 먹으면서도 주위에서 파는 간식거리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그러고 보니 나, 단 걸 좋아했었지.’

단 것을 찾아 먹을 수는 없었지만, 가끔씩 단 음식을 입에 댈 때마다 순식간에 접시를 비우고는 했다. 칼립스는 시엘에게 끌려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는 구름 사탕의 맛을 음미하기 시작했다. 혀가 텁텁해지는 단 맛은 그의 경계심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우리 저거 먹어요!”

닭고기를 끼워 구운 짭짤한 꼬치, 먹기 쉽게 조리한 튀김, 밀반죽 안에 여러 부재료를 넣고 진 빵까지... 수도의 축제인지라 여러 문화가 스며든 먹거리는 넘쳐났다. 시엘은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먹으면서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먹, 먹는 것은 이쯤으로 하고 다른 구경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벌써 배불러요?”

벌써라는 말에 칼립스는 어색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스스로도 다른 기사들에 비해 먹는 양이 적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요.”

“예?”

“왜 사과하는 거예요? 배부르면 배부르다 말하면 되는 걸 가지고.”

“아...”

시엘은 얼굴의 반을 가리던 모자를 다시 쓰고는 칼립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려져 있던 시엘의 눈은 예쁘게 휘어져 있었다.

“칼립스는 뭐 하고 싶어요?”

“그게...”

“길거리 연극? 서커스? 아니면 노점상에서 기념품 구경이나 할까요?”

“안내역은 저인데, 안내는 시엘 님이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시엘은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흐뭇하게 보았을 뿐이다.

“거리연극... 하는 것을 지나치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내역 씨가 데려가 주세요.”

칼립스는 풋 하고 짧게 웃고는 시엘에게 손을 내밀었다.

“예, 안내하겠습니다.”

상처 많은 큰 손과, 굳은살이 단단하게 박힌 작은 손. 두 사람의 손은 맞잡혔다.

“아아, 나의 사랑하는 이레네. 그대를 만나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어졌소.”

“카시스, 드래곤의 아들이여. 내가 사랑하는 분이시여. 드래곤의 삶을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

“바로 그렇소. 나는 지금껏 드래곤으로 살아왔으나 내 몸에 흐르는 피의 절반은 인간. 나는 그대를 만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오. 그대와 함께 살다, 주름진 손을 붙잡고 함께 죽고 싶소.”

“주름진 손이라고 하셨나요? 나는 그런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젊고 아름다운데, 나만 늙어가겠죠. 나만!”

“내가 가진 시간은 그대와 다르지 않소. 원한다면 나는 내게 주어진 젊음이라는 특권을 포기할 것이오.”

“정말인가요? 내 옆에서 함께 늙어 죽겠다는 건가요?”

“물론이오, 내 반려여.”

이레네 역을 맡은 배우가 상대 배우의 품에 뛰어들었다. 그 바람에 남자 배우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가발이 떨어져 순식간에 연극이 우스꽝스러운 희극이 되어버렸다. 나는 웃음을 참으려 노력하며 내 발치에 떨어진 가발을 주워들었다.

“여기요.”

당황한 남자배우가 가발을 받아들고는 감사 인사를 하다 내 눈과 마주치고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얼이 빠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던 그는 이레네 역의 여배우가 옆구리를 꼬집자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어차피 연극은 이레네와 카시스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배우들은 서투른 인사를 하고는 연극을 마무리 지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킥킥 웃으며 박수를 쳐주거나 동전을 던졌다.

“확실히 건국 신화만큼 보장되는 연극도 없긴 하죠.”

그렇게 말한 나는 금화 하나를 모자 안으로 던졌다. 배우들이 그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자 나는 칼립스의 손을 붙잡고 서둘러 인파 사이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시엘 님, 슬슬 해가 집니다. 오늘은 이만...”

“무슨 소리예요? 불꽃놀이는 보고 가야죠.”

“밤까지 계시겠단 소립니까?”

“당연하죠. 슬슬 저녁 먹을까요? 점심은 노점상에서 때웠으니 저녁은 가게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근처에.”

“네?”

“근처에 맛있는 가게를 압니다. 솔직히 말해선 술집 이외에는 거기밖에 모르지만요.”

멋쩍다는 듯이 말하는 그는 귀여웠다.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온 그 모습에 열이 오른 얼굴을 감추려 모자를 눌러쓰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입니다, 제도치고는 해산물 요리가 괜찮거든요.”

“그거 기대되네요.”

칼립스가 식당의 문을 열어주자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식탁을 닦던 정업원이 나를 보더니 환하게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신가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칼립스가 말한 대로 식당은 사람이 붐볐다. 방금 자리를 닦은 한 테이블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주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채수프와 폴포 가예고, 두 사람 분으로.”

“그리고 아히요와 맥주도요.”

내 추가 주문에 칼립스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이런 곳에서는 싸구려 와인보다는 평민들의 전문인 맥주가 더 맛있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시엘 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알잖아요? 남부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것, 우리 가문 기사들 옆에 붙어 있다 보면 그 정도는 쉽게 들어요.”

“그렇습니까.”

“물론 맥주는 마셔본 적 없지만 말이에요.”

“...이곳에서 파는 필스너가 도수 낮은 술인 것에 감사해야겠군요.”

“나 술 잘 마셔요. 어머니 닮았거든요.”

“후작 부인 말씀이십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랑 함께 술내기를 하실 때면 다음날 죽상 하고 있는 건 반드시 아버지 쪽이거든요.”

“하하...”

그렇게 칼립스와 가벼운 수다를 떨고 있는 사이, 주문했던 음식이 나왔다. 코를 자극하는 냄새에 기분이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자, 그럼...”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어깨에 걸친 머리를 전부 뒤쪽으로 넘겼다. 포크로 먹기 좋게 썰린 문어를 찍어 입에 집어넣자 그 감칠맛이 입 안에 퍼졌다.

“확실히, 좋은 문어네요.”

“요즘은 아티팩트가 발달해 해산물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흐음...”

기분이 좋아진 나는 나무통에 담겨 있는 맥주를 꿀꺽꿀꺽 마셨다. 아티팩트가 이런 물품의 유통에까지 퍼진 것을 보아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니까.

‘하지만 제국은 너무 평화에 찌들었군.’

실생활에 필요한 아티팩트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군과 기사단들이 보급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였다. 황궁 기사단인 칼립스가 그 겨울날에 보온 아티팩트조차 지급받지 못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물론 연합국과의 전쟁이 없었으니 그럴 만도 한 데다 결정적으로 공격 마법을 새긴 아티팩트는 풀지 않았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 웃으십니까?”

“돈 벌 생각.”

“아...”

“나는 아주 욕심 많은 여자거든요. 돈이든 힘이든 뭐든 가지지 않고서는 못 배겨요.”

“...”

“하지만 멍청한 것도 아니죠. 모든 욕심은 결국 나 자신의 행복으로 귀결되는 거니까요.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행복. 인간으로서는 가장 소박하고도 큰 욕심이죠.”

“시엘 님은 마치 자신이 인간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는군요.”

“바로 그렇소. 나는 지금껏 드래곤으로 살아왔으나 내 몸에 흐르는 피의 절반은 인간. 나는 그대를 만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오. 그대와 함께 살다, 주름진 손을 붙잡고 함께 죽고 싶소.”

나는 아까 보았던 연극의 대사를 읊으며 칼립스와 눈을 맞췄다. 그 대사는 실제로 생전의 카시스가 남겼던 말로, 그 연극의 가장 중요한 대사이자 황후의 보관에 새겨진 말이었다.

“초대 황제 폐하께서도 결국 바랐던 것은 수많은 무훈이 아닌 사랑하는 이와의 소소한 일상과 행복. 누구나 그 행복을 누릴 권리는 있어요. 그것이 황제든, 기사든, 식당의 종업원이든.”

“오늘 즐거웠어요. 팔찌의 대여료, 확실하게 정산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엘 님께 끌려 다니면서 잔뜩 얻어먹기만 했는걸요.”

“어머, 밥도 안 주고 부려먹지는 않거든요. 누굴 악덕 고용주로 보나.”

내가 손을 내밀자 그가 내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는 허리를 숙여 그 손등에 입을 맞췄다.

“기사님께 키스를 받았으니 나도 뭐가 한 가지를 줘야겠죠?”

“예?”

“나랑 친구 하지 않을래요?”

“친구...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친구. 안 되나요?”

나는 초조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그의 황금색 눈동자가 빛났다.

“시엘 님은 제가 친구로 삼을 만한 사람이라 보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잘것없다고 하던가요? 내 친구가 되어주면 칼립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혼내줄게요.”

내 대답에 칼립스가 웃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웃은 그는 내가 무안해질 때쯤이 돼서야 말했다.

“이런 저라도 괜찮다면,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시엘.”

시엘, 그가 불러주는 감미로운 두 음절이 마치 꿈만 같았다. 당신이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잘 부탁해요, 칼립스.”

그에게 오른손을 내밀자 그가 내 손을 맞잡았다. 잠시간의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아직 그를 보내고 싶진 않은데... 어떤 말로 그를 배웅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가씨, 이만 들어오셔야지요.”

랜턴을 든 집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칼립스를 살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서둘러 칼립스에게 말했다.

“시간이 늦었네요. 다음에 또 봐요, 칼립스.”

“다음에 또..., 시엘.”

칼립스는 잠시 머뭇거리다 내가 등을 떠밀자 뒤를 돌아 떠났다. 마차라도 부를 것을 잠시 생각하던 나는 집사를 돌아보았다.

“유스타프, 네가 직접 마중 나오다니 좀 놀랐어.”

“늦은 밤길에 아가씨를 걱정하는 것은 집사의 책무이지요. 게다가 그런 차림으로 평민들의 길거리를 나서셨으니 더더욱.”

‘그러니까 내가 평민인 척 하고 노는 것이 기분 나쁘다 이거지?’

“들어가시지요.”

“미안하지만 만날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서 말이야.”

“...아가씨, 친구 분은 골라 사귀셔야 합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만남을 갖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거 미안하군, 짐이 좀 바빠서 말이야. 기원제이다 보니.”

집사가 화들짝 놀라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는 집사의 앞에 서며 말했다.

“폐하, 아무리 재미있으셔도 제 사람을 놀리는 것은 삼가 주시지요.”

“이거 미안하네. 저 깐깐해 보이는 집사가 시엘 양의 사람일 줄은 몰랐거든.”

마법을 해제하자 로브를 덮어쓴 세 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황제가 후드를 벗자 집사는 화들짝 놀라 한 걸음 물러났다.

“화, 황제 폐하.”

“놀라게 해서 미안하군. 그 법도에 어긋난 친구가 짐이라서 말이야.”

“송구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집사가 서둘러 무릎을 꿇고는 땅에 머리를 박았다. 머리가 아파진 나는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말했다.

“폐하...”

“일어나도록. 짐은 암행을 잠시 나온 것이니 지금은 황제가 아니라 시엘 양의 격의 없는 친구일 뿐이지. 자네를 탓할 생각은 없어.”

“황공하옵니다.”

집사가 엉거주춤하게 일어나가 나는 그의 어깨를 툭 치고는 말했다.

“이만 들어가 봐. 나는 폐하와 이야기를 마치고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응접실을 준비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시는 편이...”

“아니.”

고개를 돌려 황제의 황금색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칼립스와 같은 빛깔의 눈이었지만 내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니까 필요 없어.”

집사가 잠시 나를 보더니 이내 내 손에 랜턴을 쥐어주고는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어느 정도 멀어지자 나는 입을 열었다.

“그래서, 어찌하시겠습니까? 칼립스를 놓아주실 건가요?”

지난번 선물 받았던 브로치에 마법을 새기고 싶다. 그 연락을 받고 나는 서둘러 알현 준비를 했다. 적포도색 드레스를 차려입고는 황궁으로 가자, 황제궁의 응접실에는 황제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은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국의 아버지, 황제 폐하를 뵙습니다.”

“아리 와 앉지.”

자리에 앉자 손에 소파 벨벳의 감촉이 느껴졌다. 벨벳을 약간 쓰다듬고는 나는 미소를 피어 올렸다.

“마실 것이 필요한가?”

황제가 내게 의중을 물은 것 치고는 응접실 안에 시녀는 없었다. 나는 빈 탁자를 힐끔 보고는 그를 거절했다.

“그보다 어떠한 마법을 새기고자 하시는지요.”

“그게 자네를 황궁에 불러들이기 위한 구실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지.”

“본론이라 하심은?”

“짐이 지난번에 시엘 양에게 부탁했던 것을 들어주었으면 하네.”

“...폐하, 그 일은 분명히 거절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랬지. 시엘 양은 분명 짐에게 그때 자네와 자네의 사람 이외의 이유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다 했지. 해서 짐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다네.”

“예?”

“시엘 양이 황가 그 자체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나는 황제의 말에 미소를 짓던 그대로 굳어버렸다. 잠시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는 황제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 무슨 소리를...”

“짐에겐 시엘 양을 내 양녀로 삼아 황가에 입적하고 황위를 물려줄 의향이 있네.”

“황태자 전하가 계십니다.”

“폐위하고 다른 귀족가에 양자로 보내면 되는 일. 그래, 아서에게 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군.”

“폐하.”

“그리고 시엘 양이, 황위를 잇기 전에 라트로와 자네를 혼인시키면 되는 일이 아닌가. 제국 최초의 여황과 그 부군, 혈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완전히 막무가내였다. 나는 이 상황의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길게 호흡했다.

“폐하, 제가 어찌 감히 황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가문을 역도로 몰아 멸문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농담은 그만하여주시지요.”

“언제까지 그리 얌전한 척을 할 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면전에서 나를 협박하던 자네가.”

으득,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했더니 화를 참느라 내가 낸 소리였다.

“정도껏...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제 와서 짐이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제국의 진정한 후계자여.”

“내가 카시스 오라버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유산인 제국이 아닌, 드래곤으로서의 유산이다. 내게 다 떠맡기는 그런 말은 삼가 주었으면 좋겠군.”

내 눈이 변한 것은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손톱이 뾰족해지고 손 등의 피부 일부가 비늘처럼 변했다. 벨벳 시트를 파고 들어간 손톱을 뽑고는 화를 삭이려 노력했다.

요즘 들어 눈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점점 변할 때가 있었다. 내가 성체가 되어간다는 증거이겠지.

“정말로... 인간이 아니었군.”

“이미 알고 있던 것 아니었나.”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다리를 꼬았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

“실제로 보는 건 또 다르지. 아주 진귀한 광경이군.”

“정말이지 골치 아프군. 원하는 걸 말해라, 황제. 타협점을 찾도록 하지. 단, 내게 황위를 떠넘기겠다느니 멋대로 날 혼인시키겠다느니 같은 개소리를 지껄일 거면 나는 당장 이 제국을 전복시켜 버리는 수가 있어.”

신랄한 내 말투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입가를 씰룩이며 웃음을 참고 있었다. 고작 이 정도 도발에 넘어갈 것이면 제국의 황제 자리는 지키지 못했겠지만, 그 여유로운 태도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참으로 무섭군. 살기가 따가우니 이만 진정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얼굴로 말해봤자 설득력이 없는데.”

“이미 죽을 날을 받아놔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니지만, 숨쉬기가 힘들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벌써부터 숨이 차면 안 되지.”

“...”

그의 말에 나는 풀어진 기운을 억지로 억눌렀다. 손과 이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황제가 한결 편안한 숨을 내뱉자 나는 딱딱한 목소리로 몰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드래곤의 힘을 드러내는 것은, 일종의 스위치 같은 건가? 말투가 확 달라지는군.”

“폐하.”

“응?”

“제가 존대를 하고 있다 해서 제 화가 사그라든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협상을 할 때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알겠네. 짐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황권이지.”

“그 때문에 저를 경계하시어, 제게 물갈이의 선봉을 맡긴 후 고립시키실 생각이셨지요.”

“그렇지. 헌데 시엘 양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으니 아예 시엘 양이 이 황가의 주인이 되어 준다면 된다 생각했어. 그 보상으로 내 아들과 짝지어주고자 했을 뿐이네. 이래 봬도 제국의 일등신랑감이야.”

“보상은 무슨, 절 옭아매려는 속셈이었겠지요.”

“시엘 양이 얌전히 짐의 부탁을 들어줬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는가.”

“폐하,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 텐가.”

“황태자 전하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짐이 이미 물어봤지. 짐도 그리 매정한 아비는 아닐세.”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일까. 눈앞에 있는 자가 매정한 부모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아, 제국의 황제이셨지.’

“짐이 태자를 시험하였거든. 황위와 자네, 둘 중에 무엇을 택하겠냐고. 대답은 뭐,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더군.”

“...”

산 넘어 산이다. 그냥 엎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나 자신을 다스리며 완만하게 넘어가고자 했다. 며칠 있으면 기원제, 칼립스와의 만남이 있는데 국상이 있으면 다 망치는 꼴이 아닌가.

“생각해 보니 참으로 시엘 양이 탐나서 말이야. 짐의 여식이자 며느리가 되는 것은 어떤가? 라트로가 싫다면 둘째를 주지.”

“좋습니다. 폐하의 아드님과 혼인하여 드리지요. 허나 황가의 성은 달지 않겠습니다.”

내 말은 황제도, 황후도, 황녀도 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황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응?”

“황가의 성을 달지 않은 아드님이 한 분 더 계시지 않습니까. 마침 저도 그분을 마음 깊이 사모하고 있으니 저야 좋지요.”

“칼립스를... 말하는 건가?”

나는 황제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물음을 무시하고는 나는 통보하듯이 줄줄이 말했다.

“또한 폐하께서 하신 부탁 또한 들어드리겠습니다. 선봉까지는 아니지만 폐하께서 수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지요. 허나 그 대가를 주셔야지요.”

“대가?”

“설마 대가도 없이 저를 부려먹으실 생각이었습니까?”

“아니, 아닐세.”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황제의 황금색 눈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과 똑 닮은 그 눈이 지금은 너무나도 역겨웠다.

“칼립스를 놓아주세요.”

“...뭐?”

“내 사랑을 라트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하인리히는 대답을 미뤘다. 칼립스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그의 말에 시엘은 진주 브로치에 기척과 모습을 지우는 마법을 새기고는 얼마든지 지켜보라고 했다. 그렇게 칼립스와 시엘을 관찰한 오늘, 하루 종일 칼립스 곁에서 시엘은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렇게 무방비하고도 행복해 보이는 표정은 하인리히로서는 시엘과 칼립스, 둘 다에게서 처음 보는 것이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웃을 줄도 알았나?’

늘 보이던 처연한 미소가 아닌, 그 나이 대에 맞는 맑은 미소. 하인리히는 아들의 미소를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하인리히는 자식들을 사랑했다. 딱히 라트로를 더 사랑하고, 칼립스를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라트로는 제국의 후계자였고, 칼립스는 우연한 실수로 태어난 아이였으니까.

‘그 죄는 내 죄지, 결코 칼립스의 죄가 아니야.’

칼립스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다른 자식들을 봤을 때처럼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하인리히는 아버지이기 전에 황제였다. 마치 쌍둥이처럼 꼭 닮은 라트로와 칼립스, 하인리히는 황제로서 비정한 선택을 했다.

황제가 되면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위험한 상황에서 황제를 위해 대신 죽을 그림자, 이러한 선례는 역사에서도 몇 번 있던 일이었다.

“칼립스가 평범한 제국의 기사로서 살게 해 달라는 것이었나?”

“예.”

“왜 그 아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시엘은 왜 그런 것을 묻냐는 듯한 표정을 잠시 보였다 이내 환한 미소로 대답하였다.

“그야 사랑하니까요.”

한 치의 터럭도 없는 순수한 애정, 하인리히는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시엘은, 아버지인 자신보다도 훨씬 더 깊이 그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폐하, 제가 어째서 폐하를 살린 줄 아십니까?”

“...”

“폐하가, 칼립스의 아버지이셨기에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도 다소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허나 제가 어리석었군요.”

“짐을 살린 것을 후회하는가?”

“예, 후회합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시엘의 대답에 뒤에 있던 호위 기사들이 발끈하였다. 하인리히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고는 아까와는 다르게 한 조각의 감정조차 담겨 있지 않은 무미건조한 붉은 눈을 응시했다.

“또한 폐하 같은 인간을 아비라 여기고 지금껏 살아온 칼립스가 너무나도 가엾습니다.”

그 붉은 눈에서 작은 감정이 새어 나와 타올랐다. 혐오, 그리고 경멸.

“폐하께서 더 이상 칼립스를 어둠 속에 붙잡아 두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그가 받지 못했던 애정을 쏟아 어 줄 것입니다. 대신 원하시는 대로 강력한 황권을 드리지요.”

그러니까 칼립스의 인생에서 꺼져주세요.라는 말은 덧붙이지 않았지만 시엘의 솔직한 심정이 그러하다는 것쯤은 쉽게 눈치챌 수 있었다. 하인리히는 문득 슬퍼졌다.

자신은 분명히 칼립스의 아버지이고, 그를 사랑하지만 타인인 시엘보다 못한 존재였다.

“폐하에게 조금이라도 칼립스에 대한 애정과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받아들이시라 믿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시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시엘이 들고 있던 랜턴의 빛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거리는 어둠에 물들었다. 굳게 닫힌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처량한 신세였다.

황제로 살아온 것이, 처음으로 후회되었다.

“환궁하지.”

호위 기사가 마차를 불러오겠다 했으나 좀 걷고 싶다는 이유로 고개를 내저은 하인리히는 뒷짐을 지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기원제에 걸맞게, 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었지만 하인리히에게 그 흥취에 빠질만한 여유는 없었다.

혀가 얼얼할 정도로 달게 만든 초콜릿 무스가 포크로 인해 짓뭉개 졌다. 나는 무스를 휘적거리다가 포크를 내려놓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가씨,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응, 들어와.”

집사가 손에 편지를 들고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케이크를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아가씨, 예절에 어긋나는...”

“집사, 예절에 어긋난 건 아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군. 기분이 더러워서 말이야.”

“...황궁에서 전서가 왔습니다.”

“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이십니다.”

집사에게서 편지를 받아 든 나는 페이퍼 나이프로 봉인을 뜯고는 편지를 확인했다.

「그대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처음이군. 가슴이 떨려 뭐라 적어야 할지 몰라 종이를 몇 장이나 허비했는지 몰라. 그러다 오늘 폐하께서 들려주신 시를 그대에게 적어주기로 결심했네.

맨드라미의 향기에 취한 나비는 온실을 빠져나갔다. 나비가 향한 곳은 별처럼 반짝이는 바닷속 나비들의 쉼터, 그곳에서 날개에 적신 물을 말려내고 다시 맨드라미 곁으로 돌아갈 것이다.

짧은 시이지만 참으로 아름답지 아니한가. 또한 그대가 마법을 새겨준 브로치를 폐하께 하사 받았네. 결과적으로 받은 것은 나이니, 아무래도 답례는 내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만간 한 번 차 한 잔 함께하지 않겠는가. 허면 그대의 답장을 기다리도록 하지.」

‘그렇군. 숙청에 나서는 건 라트로인가. 확실히 그러는 편이 황권 세습에는 더 낫긴 하겠지.’

“...무슨 편지입니까?”

“연서, 사랑에 관한 시가 쓰여 있네. 황제 폐하께서 지으신 시를 써 보내셨군.”

“태자 전하께서 아가씨를 마음에 담고 있는 모양이군요.”

나는 편지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 그것을 마법으로 태워버렸다. 그러자 집사가 당황한 얼굴로 소리쳤다.

“아가씨, 뭐 하시는 겁니까? 어찌 전하께서 보내신 편지를...”

“집사, 황태자 전하께서 인테제르 가의 후계자에게 연서를 보내실 리가 없잖아.”

“...예? 허면.”

“연서로 위장한 피바람의 전조지. 고전적인 수법이야.”

창문을 열어 검은 재를 바람에 날려버리고는 나는 집사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유스타프, 네가 날 아직 후계자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 강직한 네가 보기에 내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겠지.”

“...”

“이건 내가 보이는 신뢰의 표시다. 그러니 부디 내가 신뢰를 보여줄 때 나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 내가 참고 넘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아가씨.”

“나가줘. 혼자 있고 싶군.”

집사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는 집무실을 나갔다. 나는 의자에 앉아 편지지를 꺼내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전하. 티파티에 초대해주신다니 참으로...」

내 손은 딱 거기까지 쓰고는 멈춰버렸다. 편지지에 검은 얼룩이 점점 커지다가 이윽고 종이를 뚫어버렸다.

“후우...”

깃펜을 내려놓자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바람이 들어왔다. 코를 간질이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다 내 손에 있는 하늘색을 빤히 바라보았다.

‘나는 기뻐해야 하는 걸까?’

그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기뻤다. 하지만 씁쓸했다. 황제를, 그의 아버지를 위해 살아온 칼립스의 시간을 부정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를 위해 나는 많은 피를 이 손에 묻힐 것이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 좀 해. 어차피 변하는 건 없어.”

병사들의 손에 끌려가는 휘말린 사람들. 곳곳에 튄 피, 카시스는 어째서 내게 이런 미래를 보여주는 걸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일도 아닌데.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 누르며 새로운 종이를 꺼내 들었다. 형식적인 어구는 생각났으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너도 참 불쌍하다.’

결국 황제에게 있어 라트로나 칼립스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저 둘 다 황가를 위한 장기말이었을 뿐. 라트로에게 품었던 부정적인 감정도 순식간에 식어갔다.

이전에는 우리들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면 대답할 수 있었다.

“하인리히 폰 유피테르.”

진작에 퇴장했어야 하는 말, 그 말을 살려둔 것은 잘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크나큰 실수일까?

“티오테스 백작가.”

나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서류 중에 티오테스 백작가를 조사한 서류를 꺼냈다. 무기산업으로 인해 이전 전쟁에서 크게 부흥한 가문이었다.

‘후계자가 나랑 같은 나이군. 신년파티 때 얼핏 본 것 같기도 한 데.’

「어릴 적부터 검술 신동이라 불려 왔으며, 현재 익스퍼트 하급의 경지에 이르렀음. 자존심이 꽤나 강한 편이며, 현재 사교계에서 주목받는 귀족 자제 중 하나임.」

“열일곱에 익스퍼트 하급, 신동이라 할 만하군.”

보통 익스퍼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이십 대 중반 정도였다. 나는 서류 적힌 이름을 빤히 바라보았다.

“레이톨 드 티오테스.”

나는 손가락을 내려 그 밑 부분에 한 줄밖에 적히지 않은 이름을 짚었다.

“마리엘 드 티오테스.”

차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 차를 한 모금 홀짝 마시자 독특한 향이 코를 맴돌았다.

“입맛에 맞는가?”

“예, 좋은 차로군요.”

“얼마 전, 외국 사절단에게 진상받은 차라네.”

“이리 대접해 주시니 황공할 따름입니다.”

나는 차가 한 김 식으면 마실 요량으로 찻잔에서 손을 뗐다. 유리 온실에는 다양한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폐하께서 놓아준 나비는 언제쯤 맨드라미를 찾아 돌아올까요.”

“적어도 2년은 걸리겠지.”

“2년...”

십 년을 기다려왔는데 그 정도야 못 기다리겠냐만은 막상 당장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생각하니 막막해졌다. 하지만 그를 위한 것이었으니 억지로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쓸쓸해 보이는군.”

“...예, 혼자 남은 맨드라미는 쓸쓸해질 수밖에 없지요.”

내 대답에 라트로가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턱을 괴고는 억지로 웃음을 짓는 그에게 물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하의 자리를 위협하는 저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그건... 그렇지요. 마음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었으면 저는 그렇게 슬픈 날개를 지닌 나비를 사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가. 참으로 그 나비가 부럽군.”

라트로의 대답에 나는 싱긋 웃었다. 예전에는 라트로와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꽤 차분했다. 그 또한 칼립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처지였으므로, 괜한 동정심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긴 했어.’

기억도 하지 못하는 데다, 전생의 그는 아텔라에게 조종당했던 것이다. 아마 그 끝은 별로 좋지 못했겠지. 나는 입으로는 그를 이용하겠다 하면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그라는 말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킹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하지만 이 게임은 킹과 폰이 큰 차이가 없었다.

테이블 위의 체스를 두는 척하면서, 테이블 밑의 검이 완성되면 먼저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쪽이 이기는 것이었다.

‘용서를 한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당신은 그때와 다른 사람이라 생각되니까.’

날을 세우지 말자. 미소를 짓는 거야. 당신을 이용하기로 한 이상, 다른 장기말과 평등하게 대해 줘야지.

“전하나 저나,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랑에 사로잡혀 있군요.”

“...그렇군.”

차가 딱 알맞은 온도로 식어 있었다. 나는 차를 마시고는 오늘 티파티의 본론을 꺼냈다.

“전하, 요즘 사교계에서 떠도는 저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셨습니까?”

“...”

내 질문에 라트로는 얼굴을 찌푸렸다. 나와 달리 그는 활발한 사교활동을 펼치고 있었고, 제국의 일등 신랑감이었다. 내게 옆자리를 빼앗길까 봐 안달 난 사람들이 떠드는 험담 정도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쓸데없는 험담을 지껄이길 좋아하는 쥐떼들이지. 그대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도 가상하지 않습니까. 입이라도 놀려서 눈에 띄어보겠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요.”

“가상...하기는 하지, 다른 의미로.”

그의 언어유희에 나는 잠시 키득거리며 웃었다. 그러자 라트로는 얼빠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아, 송구합니다. 그만 웃고 말았네요.”

“아니, 아니야. 보기 좋군.”

“큼,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지요. 귀족들에게 있어 가장 악질적인 소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혈통 문제지.”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 아주 재미있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래봬도 귀는 열어두는 편이라. 제 어머니가...”

“그만 해도 되네.”

“아니요. 끝까지 말해야죠. 제 어머니가 길거리의 창녀였고, 아비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채로 아버지를 유혹해 후작부인이 되었다고. 그리고 꼭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모전여전이라는 단어를 말이죠.”

“그만!”

라트로의 큰 소리에 나는 말을 멈추었다. 고요한 찻잔 사이에 관상용으로 온실에 풀어놓은 새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대는 수치스럽지도 않은 건가? 그런...”

“수치스러운 필요가 무에 있겠습니까. 어차피 사실도 아닌 것을요.”

“...”

“예전에는 좀 더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면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아버지의 친딸이라 확신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의 저는, 제 머리카락이 꽤 좋습니다.”

“영애.”

“잡담은 그만하고 제 계획을 들어주시지요. 저를 둘러싼 소문을 꺼낸 것은 영지전의 빌미로 삼기 위함이지요. 저는, 영지전을 통해 백작가 하나를 집어삼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제국에 가문 및 영지 재산의 목록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세수의 불일치.”

“맞습니다. 폐하께서 원하시는 농지 세율의 정립과 2황자님을 주축으로 하는 반란모의는 확실히 준비해두겠습니다. 그 후에는 알아서 하시지요.”

“반란...인가. 아바마마 아니, 폐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건가. 그분은 정말 친아들을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는 건가.”

“아무렇지도 않다니요. 분명 괴로워하실 겁니다.”

“영애...”

“폐하께서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시겠지요. 그래서...”

“...”

“그래서 제가 폐하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뭐?”

“황가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면서도, 버린 이들에게 웃으면서 보이는 상냥함과 속으로만 하는 눈물 어린 사죄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만하게. 그래도... 내 아버지일세.”

“...송구합니다. 말이 지나쳤군요. 심사가 좀 뒤틀려있었거든요.”

“아니야, 영애의 마음이야 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역시 전하께서는 나비를 알고 계셨군요.”

라트로는 입술을 달싹이다 이내 다물어버렸다. 그의 심경은 꽤나 복잡해 보였기에 나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에 라트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나는 손바닥을 피며 그를 막았다. 어쩐지 의문을 표하는 황금색 눈동자를 보기가 껄끄러웠다.

‘동족 혐오인가.’

내가 황제를 비난했던 점은 결국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였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상관없어, 당신이 행복해진다면.’

이 손에 수많은 피를 묻히게 된다 할지라도.

시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라트로는 엉거주춤하게 앉아있던 자세를 풀고 완전히 의자에 기댔다. 짚을 엮어 만든 의자와 등받이에 깔아놓은 푹신한 쿠션이 안정감을 주었다.

‘바보 같은 사랑이라...’

부정할 수 없었다.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와 똑같은 눈을 보여주는데도 포기할 수 없었다.

“멍청한 새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병신 같은 놈.’

그렇게 자학적인 욕을 내뱉고 나자 그의 기분은 조금이나마 나아졌다. 스스로 인정해버리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가늘게 뜬 눈 사이로 꽃 위를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가 보였다.

“나비...”

칼립스 드 바스타드, 라트로가 자신을 꼭 닮은 소년을 안 것은 시엘 때문이었다. 어릴 적 순간의 질투심으로 인해 벌였던 헛짓거리, 찾아낸 것은 자신의 그림자로 사는 이복동생이었다.

그는 기사단 내에서 특이한 위치였다. 한 달의 절반은 다른 종자나 견습기사들처럼 훈련을 받지만,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꼭 행방이 묘연해지고는 했다. 아마 그의 대역을 맡기 위한 교육이었겠지.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라트로와 칼립스는 때때로 서로의 역할을 바꾸었다. 처음에는 아티팩트로 머리색을 바꾼다 할지라도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이가 쉽게 속아 넘어갈까 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칼립스는 기사단 내에서 필요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그의 사소한 행동이나 습관 모두가 고도의 훈련으로 라트로를 따라한 것이었다. 그 사이에 칼립스의 취향이라고는 단 한조각도 없었다.

버섯을 먹지 않고, 매일 다섯 번씩 소금으로 이를 닦고, 편두통으로 인해 자주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는 것까지. 라트로가 기사단에 있을 때 평소처럼 행동해도 그 누구도 의문을 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대역으로 생활하는 칼립스는 때때로 독이나 암습을 받기도 했다. 정세가 불안해질 때마다 바꿨던 거겠지.

라트로가 칼립스에게 맞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검술, 단지 그것 하나뿐. 심지어 그것도 칼립스가 검을 잡는 시간이 월등히 많았고, 이미 체계가 잡힌 검술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바스타드(Bastard).’

다른 이들은 바스타드 소드를 휘두르는 그의 모습 때문에 그 성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칼립스의 성은 그 의미가 아니었다. 너는 어디까지나 사생아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낙인.

“후우...”

라트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었다. 칼립스와 역할을 바꾸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던 날, 어이없게도 황태자의 호위 근무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피를 토하는 자신을 보았다. 그 생생한 기억, 무거운 죄책감.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삼 일 후, 내상을 완전히 회복하지도 못한 칼립스는 기사단의 훈련으로 돌아가야 했다. 병자인 척 침실 안에 틀어박혀 엄중한 경계 아래 보호받는 라트로와는 달리...

라트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동안 버려왔던 약을 심복을 시켜 몰래 그에게 전달해주는 것뿐.

‘황제가 되면, 황제가 된다면.’

“너를 자유롭게 해 주겠다 마음먹었다.”

아버지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넣게 된다면, 그림자 하나쯤은 내 마음대로 놓아줄 수 있지 않을까. 동생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형님이라는 말을 들을 순 없겠지만 너를 곁에 보살펴 줄 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다오, 라는 제멋대로 한 약속. 언젠가 자신의 옆에서 티아라를 쓴 시엘과 그리고 칼립스와 그의 부인. 네 사람이 함께 웃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그러나 시엘이 사랑한 것은 자신이 아닌 칼립스였다.

자신의 옆이 아니라 칼립스의 옆을 있기를 바랐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산 동생을 질투하는 자신이 혐오스러웠고, 또 혼란스러웠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

칼립스를 위해 시엘을 포기할까? 아니,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럼 칼립스를 없애? 그 불쌍한 아이를? 오래전 마음먹었던 것처럼 연적을 없애서라도 그녀를 손에 넣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시엘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전과는 달리 날을 세우지 않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었다.

말로 하자면 거슬리는 돌멩이에서 ‘거슬리는’이라는 수식어가 빠진 느낌? 굳이 밑바닥에 깔린 감정을 찾자면 동정심?

그것도 결국 황제인 아버지에게 황태자인 자신이나 사생아인 칼립스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장기말이었다. 내 사랑하는 이와 같은 처지라니 그것 참 불쌍하구나. 하지만 나는 칼립스가 아닌 너를 구원해줄 마음은 없단다.

그녀의 눈은 그리 말하고 있었다.

심장이 쓰렸다. 그는 아직도,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풍성한 드레스 자락을 신경 쓰며 계단을 내려가자 새하얀 연미복을 입고 있는 아버지가 보였다. 은발에 황금색 눈동자, 나는 그 빛을 보고는 싱긋 웃었다. 아버지가 나를 보시더니 따라 웃었다.

“예쁘구나, 우리 딸.”

“아버지도 멋져요.”

소드 마스터는 공기 중의 마력을 흡수해 수명을 연장시키고, 육체를 조절할 수 있었다. 물론 조각의 한계는 있지만 아버지는 해봤자 삼십 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다. 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러나 내 아버지처럼 보이고 싶은 모습이었다.

빈틈없이 꽉 짜인 몸과, 젊고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후작이라는 위치는 설령 기혼자라 해도 군침을 삼키게 만들겠지. 더더군다나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부인이라면.

“우리 아버지 귀부인이 보면 한눈에 반하겠네.”

“그런 말 하지 마라. 네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는 건 이 아비니까.”

농담기라고는 조금이라도 섞여 있지 않은 그 말에 나는 킬킬 웃고는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아버지는 다른 손으로 내가 두른 숄을 여며주고는 걸음을 옮겼다.

“괜찮겠느냐?”

“무엇이요?”

“네가 가장 싫어하던 소문이었잖니.”

“괜찮아요.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가, 아빠는 걱정이란다. 트라우마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잊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네가 또 상처 입을까 봐.”

나는 아버지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요즘 들어 힘이 점점 세지고 있어 힘 조절을 하는 데 감이 안 잡혔다. 자칫하면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특히나 그게 내 소중한 이라면, 나는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워요.”

“역시..., 그만두는 편이.”

“나 말고 지켜보는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상처 입을까 봐요.”

“시엘.”

“이제 그런 걸로는 상처받지 않아요. 물론 불쾌하긴 하지만 못 참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내 걱정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무튼 오늘 파트너 역할이나 잘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레이디. 타시지요.”

나는 아버지의 에스코트를 받아 마차에 올랐다. 두 번째 파티의 시작이었다.

“인테제르 후작 각하와 후작 영애 입장하십니다!”

하인의 외침에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몰렸다. 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와 걸음을 맞췄다.

“오랜만입니다, 각하. 사교계에선 두문불출하시는 분이 제 생일파티에 참여해주시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오랜만이오, 테이넬. 영지에 있을 때는 선물밖에 못 보냈지만 수도에 있는데 내 어찌 백작의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 있겠소. 우린 생사를 함께한 전우가 아니오.”

“각하...”

듀렌 백작은 감격스러운 듯이 말을 삼켰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살폈다. 균형이 잘 잡힌 다부진 몸에 갈무리된 기운, 적어도 제국의 소드 익스퍼트 상급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겠다 생각했다.

“옆에 계신 레이디는 소문이 자자한 그 따님이십니까?”

“음, 내 소개가 너무 늦었소. 내 딸 시엘이라오.”

“처음 뵙겠습니다, 듀렌 백작님. 시엘 드 인테제르라고 합니다.”

“테이넬 드 듀렌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애.”

“말씀을 낮춰주십시오. 아버님의 전우 분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관계라는 것이 어찌 나이로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제 열린 귀로 듣기로는 영애는 제게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저는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 드리는 것뿐이지요.”

“...감사합니다, 듀렌 백작님. 이리 치켜올려주시니 제 마음이 절로 붕 뜨는 것 같군요. 앞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손을 뻗자, 아공간에서 검 한 자루가 나왔다. 내가 아름답게 세공된 검집과 레이피어를 건네자 백작은 그것을 받아 들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겉보기에는 보통 기사들이 쓰는 실용적인 검과는 괴리가 컸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영애.”

“드워프가 만든 검에 마법 세공을 하였습니다. 백작님의 검술은 찌르기를 기반으로 하는 쾌검술이시지요. 길을 잘 들이시기만 한다면 설령 드래곤의 비늘이라 하더라도 뚫을 수 있을 겁니다.”

내 말에 눈빛이 달라진 듀렌 백작은 검을 뽑았다. 검신을 손으로 훑던 그는 레이피어에 마나를 주입했다. 그의 눈 색깔을 닮은 초록빛의 오러가 검을 둘러싸자 검날이 파르르 떨렸다.

“이리... 귀한 검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들고 말고요. 감사합니다, 영애.”

듀렌 백작이 고개를 꾸벅 숙이자 나 또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주위의 시선을 어느 정도 끌었다 싶어 나는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

“파티의 주인공을 너무 오래 붙잡아두고 있었군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잠시만!”

“...무슨 일이신지요?”

“마침 첫 곡이 시작할 시간이군요. 제게 영애와 춤을 함께할 영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생긋 웃으면서 그가 내민 손을 잡았다.

티오테스 백작가의 장녀, 마리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댄스 플로어에서 펄럭이는 분홍색의 드레스 자락이 꼴도 보기 싫었다.

‘왜 하필...’

그녀는 가문의 후계자, 레이톨보다 15분 먼저 태어났다. 타고난 재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마리엘 쪽이 성취가 빨랐다. 그러나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

어렸을 적에는 평등하다 생각했다. 그러나 레이톨이 마나를 다루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틀어졌다. 마리엘이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아버지는 남동생에게 마나 운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부터 마리엘은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불공평은 쌓이고 쌓여 사교계 데뷔에서 폭발했다.

데뷔를 맞아 레이톨은 하늘색 셔츠를 선물 받았다. 마리엘이 받은 것은 남은 비단으로 만든 하늘색 머리끈 몇 개였다. 레이틀의 셔츠를 만들고 나니 마리엘에게 돌아갈 하늘색 염료가 남지 않았던 것이다.

머리끈 정도로 만족하는 것은 자작가나 남작가의 여식 정도였다. 다행히 마리엘의 모친이 데뷔식 때 사용했던 허리 리본을 물려받아 사교계 데뷔 때 고개를 들 수 있었다.

그런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엘은 하늘색의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그녀의 하늘색 머리카락과 똑같은 드레스는 마치 그녀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만 같았다. 당연히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끌렸고, 황태자의 첫 댄스 신청도 그녀의 차지였다.

그때는 그것이 화가 나지 않았다. 다만 범접할 수 없는 세계에 있는 그녀가 부러웠고, 자신이 초라하다 느꼈을 뿐이다.

‘왜 하필 오늘인 거야.’

시엘이 마법을 부여한 드레스를 선보인 뒤, 사교계에서는 그를 따라한 패션이 들불처럼 번졌다. 마탑에서 마법 부여에 높은 값을 책정했기 때문에 마법 드레스의 가격이 보통의 세 배정도로 뛰어버려, 웬만한 권세가의 레이디가 아니라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마리엘의 아버지, 티오테스 백작은 그녀에게 미안했는지 드레스 한 벌을 선물해주겠다 했고, 마리엘은 드레스 자락에 붙은 나비장식이 날개를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주문했다.

마리엘은 오늘 파티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레이디는 자신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쩌면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아직 젊은 백작과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사내를 만나 나고 자란 가문을 떠나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엘이 나타났다. 신년파티 이후로 쏟아지던 모든 초대들을 거절하던 그녀는 마법을 부여하지 않은 평범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나 그 누구보다 빛났다.

“마리엘, 춤출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레이톨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리엘은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꼭 쥐었다.

“내가 너랑 춤추려고 여기 온 줄 알아?”

와작, 하는 소리에 아래를 내려다보니 부채 살이 부러져 있었다. 마리엘은 한숨을 내쉬고는 레이톨을 지나쳐 휴게실로 향했다. 지금은 레이톨도, 그 누구도 꼴도 보기 싫었다.

‘사내로만 태어났으면...’

티오테스 백작가도, 검의 신동이라는 이명도 모두 자신의 것이었을 터였다. 마리엘은 늘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시엘은 여인의 몸으로도 후계자의 지위와 힘, 그리고 마리엘이 마지막으로 매달리던 사교계까지 차지했다.

“아니야, 그 여자는 외동딸이잖아.”

시엘에게 남자 형제가 있었다면 분명 자신처럼 모든 것을 빼앗겼으리라. 마리엘은 그 말로 자신을 달래려 했다. 마리엘은 휴게실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러나 문고리를 잡는 순간, 휴게실 안의 말소리가 들렸다.

“왜 인테제르 영애는 드레스에 마법을 부여하지 않았을까요?”

“시시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솔직히 인테제르 영애는 마법을 부여하는 데 돈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긴... 직접 부여하면 되니까 돈이 들진 않겠네요. 대신에 보석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것 같던데.”

“맞아요. 저는 은사로 수를 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작은 다이아몬드를 알알이 박아 넣었더라고요. 세상에나, 어쩜 그렇게 사치스러울 수가...”

“뭐, 다른 권세가들이 마탑에 쏟아부은 돈이 전부 인테제르 영애 치맛자락에 박혔을 테니까요.”

마지막 말이 마리엘의 귓가에 내리쳤다. 지금 자신이 휴게실 안에 들어가 봤자 우스운 꼴밖에 더 되지 않겠는가. 오늘 그 드레스를 입고 온 것은 마리엘 뿐이었는데.

“안 들어가실 건가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공기를 울렸다. 그녀의 뒤에 다가오는 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에 마리엘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았다. 인테제르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부채로 입을 가린 시엘이 서 있었다.

“아, 아닙니다. 들어갈 거예요.”

시엘이 고개를 살짝 까닥이며 한 걸음 물러나자 마리엘은 묘한 압박감을 느끼며 문을 열었다. 그러자 테이블에 앉아서 수다를 떨던 귀부인들의 시선이 시엘과 마리엘에게로 몰렸다.

안주인이 없는 듀렌 백작가는 귀부인들의 휴게소 배치에 골머리를 썩지 않기 위해, 공용으로 쓰는 넓은 방을 하나 준비하고는, 두세 명씩 들어갈 수 있는 곁방을 여러 개 준비해 두었다.

공용 휴게실이 또 다른 사교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머나, 티오테스 영애 아니세요? 어쩜, 드레스가 너무 아름다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법을 부여한 드레스를 비웃던 여자였다. 마리엘은 가식적인 미소를 끌어올리고는 자연스레 그녀들의 무리에 끼어들었다.

“감사해요, 자작 부인. 부인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또한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머나~, 과찬의 말씀이세요.”

마리엘이 언급한 목걸이는 작은 다이아를 줄처럼 연결한 것이었다. 보통이라면 형식적인 칭찬으로 말했겠지만, 옆에는 아예 다이아몬드로 만든 드레스를 입은 시엘이 앉아 있었다. 고도의 돌려 까기를 눈치챈 자작부인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다.

“그나저나 티오테스 영애, 인테제르 후작 영애와 친분이 있으셨나요? 어쩜 두 분이 같이 들어오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저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던 시엘이 입을 열었다. 하늘색 속눈썹 사이로 드러난 붉은 눈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겼던 귀부인들은 정신을 차리고는 부채로 붉어진 자신들의 얼굴을 가렸다.

“그랬군요. 오해해서 미안해요. 난 또 두 분이서 친분이 있으신 줄 알고... 소후작이신 인테제르 영애가 사교계에 얼굴을 드러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아닙니다. 그래도 티오테스 영애라면 없는 친분을 지금 만들고 싶군요.”

“네..., 네?”

“한 사람의 무인으로서 티오테스 백작가를 무시할 수는 없지요. 제가 즐겨 쓰는 검 중에서도 티오테스 상단에서 구매한 검이 있답니다.”

“그, 그러신가요?”

“아, 이런 이야기는 좀 거북한가요? 죄송합니다.”

마리엘은 속에서 발끈하는 감정을 삭이려 노력했다. 평범한 레이디였다면 거북해할 만한 이야기가 맞았다. 그러나 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마리엘에게 있어서는 다른 의미로 신경을 긁는 이야기였다.

“아니요, 저 또한 무가의 여식입니다.”

“그렇군요. 검의 기본 정도는 배우셨지요? 자세가 바르셔서요.”

“...네에, 어릴 때 동생이랑 함께 배웠습니다.”

“동생이라면 신동이라 불리는 티오테스 영식 말하는 건가요? 두 분이 나이가 같으셔서 쌍둥이인 건 알았지만, 영식 쪽이 동생인 건 몰랐네요.”

“저희들끼리는 누나 동생 구분이 없지만 말이에요.”

“그래요? 저는 형제가 없는지라... 조금 부럽네요.”

‘배부른 소리, 형제가 있었다면 나처럼 다 빼앗기고 살았겠지.’

마리엘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는 시엘에게 똑같은 미소를 지어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 가진 여자였다. 아마 무언가를 빼앗기는 절망 따위는 모르겠지.

“부럽기는요. 있으면 속 썩이는 게 동생이랍니다. 검밖에 모르는 녀석이거든요.”

“하하, 소문 자자한 신동도 영애에게는 매일 투닥거리는 동생인가 봐요.”

“그런 법이죠.”

“...”

시엘의 말을 여상히 넘기며 아래를 바라보던 마리엘이 그다음 말이 들려오지 않자 의아함에 고개를 들었다. 시엘은 마리엘을 약간 안타까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러시나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애도 검을 계속 배웠더라면 좋은 검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녀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 전생의 나와 닮은 점이 많아서 그런 걸까? 그래서 그런지 나는 마리엘의 감정을 아주 잘, 느낄 수 있었다.

‘열 받았겠지.’

나는 그녀에게 아주 잘 대해줄 생각이었다. 선물과, 호의와, 친절을 아낌없이 베풀어줄 생각이었다. 나는 마리엘에게 있어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줄 것이다.

‘너에게서 남은 것마저 빼앗아야 하니까.’

알량한 동정심? 아니다. 그저 나와 닮은 이에게 미움받고 싶지는 않다는 이기심이었다.

“이제 그만 가봐야 될 것 같네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른 여자들도 뒤따라서 일어났다. 나와 마리엘의 대화에 끼기 위해 눈치를 살피던 날벌레들이었다.

‘저들에게는 싸가지 없어 보이는 편이 낫겠지.’

“그럼, 다음에 봐요. 티오테스 영애.”

나는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고는 매몰차게 뒤를 돌았다. 정신적인 피로감이 몰려왔다.

“...”

‘돌아갈까. 이제 할 일도 없는데.’

한동안 사교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라면 더 있어야 하지만, 하루 종일 먹은 것이 없어서 그런지 집에 가서 코르셋을 벗어던지고 뭐라도 먹고 싶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회의감이 들었다. 그냥 전부 쓸어버릴까. 내 사람들만을 남겨두고 전부...

‘매일매일 신에게 기도할게요. 당신이 언젠가 나처럼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지기를.’

귓가에 맴도는 그 말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눈을 한 번 감았다 뜨자 눈물을 흘리던 여자는 사라지고 나는 다시 연회장에 서 있었다.

“아아, 정말 미움받기 싫었는데.”

어차피 미움받을 운명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뻐근한 뒷목을 주무르며 연회장 밖을 나갔다. 아버지가 아직 사람들에게 잡혀 있었지만, 알아서 돌아오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마차를 타고 집에 갈 생각이었다.

“시엘.”

나는 걸음을 옮기던 그대로 굳어버렸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칼립스.”

“오랜만입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어..., 제가 와선 안 되는 곳이었습니까?”

실수다. 나는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다. 아스테리아 아카데미에 있어야 할 당신이 여기 왜 있냐고 물을 뻔했다.

“아니, 여기서 만날 줄은 몰라서... 좀 놀랐어요.”

“시엘을 만나러 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떠나요?”

“아스테리아 아카데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적어도 2년 동안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

“아쉽네요. 이제 막 그대랑 친구가 되었는데 말이죠.”

“기다릴게요.”

내 대답에 칼립스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다.

“좋은 기회잖아요. 기다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와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다. 칼립스는 내 얼굴과 잡힌 손을 번갈아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대는 어쩌면 제 행운의 여신일지도 모릅니다.”

“행운의 여신이요?”

“아니, 행복의 여신이라 하는 편이 낫겠군요. 시엘, 그대와 친구가 되면서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행복한가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도 괜찮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찌르르 울렸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의미로 손짓을 했다. 그는 의아한 얼굴로 허리를 숙였다.

“행복의 여신 말고 그냥 행운의 여신 할게요. 대신 행복은 당신이 직접 만들어나가세요.”

그의 얼굴을 붙잡은 나는 그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췄다. 놀란 그가 얼굴을 붉히며 한 걸음 물러났다.

“어..., 어...”

“당신의 여로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이마에 붉은 립스틱 자국이 묻은 채로, 그는 어쩔 줄 몰라하며 입만 벙긋거렸다.

“여신님의 가호도 있으니까 분명 칼립스는 잘 할 거예요.”

사랑해요.라는 말이 무심코 흘러나올 뻔했다. 더 이상은 내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내 방의 좌표를 떠올리며 텔레포트를 준비했다.

“잘 다녀와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마에 립스틱 자국 좀 닦고요.”

화끈, 조금 진정되었던 칼립스의 얼굴이 다시 새빨개졌다. 나는 키득키득 웃으며 마법진에 마력을 불어넣었고 그렇게 칼립스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손수건, 빌려줄 테니까 다음에 줘야 해요.”

그가 손수건을 건네받자마자 시야가 뒤바뀌고 나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서 있었다. 나는 볼을 잡아당기며 입가에 걸려있는 가벼운 미소를 지우려 노력했다.

“으아...”

거추장스러운 드레스 자락을 찢어버리고 그대로 침대로 뛰어들었다. 손가락만 까닥하면 마법 등을 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미친년처럼 실실 웃었다.

“아아, 역시 이런 건 심장에 해로워. 여유로운 여자 흉내라니.”

사실은 여유 따위는 한 자락도 없는데. 당장이라도 그의 옆자리를 독차지하고 내 것이라 표시를 하고 싶었다.

‘아직은 아니야. 2년만 기다리자. 그 사람이 날 감당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때까지.’

어차피 그는 언젠가 내 옆에서 웃어줄 테니까. 여유를 가질 수 없도록 나로 꽉꽉 채워준 상태로.

붉은 용암이 적신 대지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알면서도 발을 딛기가 싫었다. 여기저기 흩어진 것은 뼈와 살점들. 나는 볼을 닦았다. 입가의 피가 볼의 눈물과 섞여 묻어 나왔다.

“...?”

나는 왜 울고 있는 것일까. 굶주림은 해소되었고, 배를 채운 것은 만족감인데.

“어?”

내가 먹은 것이 무엇이지? 난 대체 누굴 잡아먹은 거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아, 아아?”

구역질이 밀려왔다. 나는 중독되어 있었다. 인간들에게...

“기다려라. 기다려. 내 언젠가 너마저 삼켜버릴 것이야.”

밉다. 밉다.

나를, 우리를 이곳에 밀어 넣은 네가. 내 몸속에 흐르는 피의 기억, 고맙게도 중독이 된 터라 비뚤어진 살욕 만은 점점 더 타올랐다. 이 살욕에 몸을 맡기면 정말로 되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장 혐오하던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언제까지나 증오할 것이다.

“파툴키우스!”

나는 그 이름을 외치면서 침대에서 퉁겨 일어났다. 온몸에는 식은땀이 가득했고, 손은 비늘에 뒤덮여 있었다.

뾰족해진 손톱으로 이불을 움켜잡았기 때문에, 비단이불에 구멍이 났다. 나는 기운을 갈무리하려 안간힘을 썼다.

“젠장, 말 좀 들으란 말이야!”

꿈틀대는 손을 휘두르자 침대의 한쪽 기둥이 무너졌다. 침대 천장이 기울어져서야 손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들어오지 마!”

내 고함에 타냐가 문을 열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다. 나도 모르게 살기를 담은 기백을 쏘아 보냈나 보다.

“하..., 마력 운용을 잘못한 것뿐이야. 난 괜찮으니까 내가 나올 때까지 들어오지 마.”

“하, 하지만 아가씨...”

“타냐, 지금 당장 물러나도록 해. 이건 명령이야.”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울렸다. 타냐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후다닥 물러났다.

“내가 본 편린의 전부를 원한다. 그것이 과거든, 미래든.”

그러나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열이 뻗쳐서 목에 걸려 있던 펜던트를 집어던졌다.

“씨발, 피 토해도 상관없으니까 보여 달라고! 이름만 천룡이냐!”

벽에 부딪친 펜던트가 바닥을 굴렀다. 보통 물건이었다면 벽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어야 했는데, 열 받게도 작은 흠집조차 없었다.

“던지는 장면을 엿보기라도 했나 더럽게 튼튼하게 만들었네.”

나는 시간을 엿보는 것을 포기하고는 아까 보았던 장면을 곱씹기 시작했다. 그 타오르는 증오의 감정은 아직도 선연히 남아있었기에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붉은색.”

온통 붉은색이었다. 하늘도, 땅도 손도, 발도, 입도, 머리카락도.

“아텔라?”

아니, 아텔라가 아니었다.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무언가. 그리고 ‘그것’은 파툴키우스를 ‘알고’ 있었다.

‘가설 하나, 아텔라의 모친 혹은 그 직계 윗세대.’

하지만 아텔라도 아닌 존재를 내가 그렇게까지 동조했다는 것이 이상하다. 가능성은 해봤자 1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가설 둘, 그것은 아텔라에게 잡아먹힌 미래의 나다.’

꽤나 신빙성이 있었다. 천룡을 시간을 엿볼 수 있으니까. 그 많은 시간들 중에 우연히 마주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겠지. 언젠가 내가 파툴키우스를 만나고, 그리고 아텔라에게 져서...

“아니야, 그건 미래가 아니라 과거였어.”

그럼 뭐지? 대체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머리 아파. 이놈의 편린은 제대로 뭘 보여준 적이 없어요.”

나는 곧 무너질 듯한 침대 천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를 주워 들고는 물컵에 물을 따라 들이켰다. 미지근한 물이 몸속을 어느 정도 식혀주는 느낌이었다.

“음..., 이 꼴을 타냐한테 어떻게 보이지?”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침대, 게다가 한쪽 벽은 금까지 가 있었다.

그리고... 타냐를 겁먹게 만들어 버렸다. 밀려오는 자괴감에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렸다. 요즘 따라 정말 나 자신이 조절되지 않았다.

‘이러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 어떡하지?’

요즘은 누군가를 만나기가 꺼려졌다. 별생각 없이 잡는 것도 그들에겐 너무 강한 힘이니까. 그나마 괜찮은 것도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였다. 카시스의 일기를 뒤지고 또 뒤져봤으나 이 힘을 제한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봉인구를 만들어야겠어.”

누군가가 다치기 전에 스스로 나 자신을 봉인해야 했다. 만약 나로 인해 내 사람이 다친다면 나는 아마 미쳐버릴 것이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은 늘어나..., 이건 또 뭐야?”

저택에 누군가가 숨어들고 있었다. 그것도 대낮에, 소드마스터와 수많은 기사들이 있는 인테제르 가의 저택에. 첩자라면 아주 신박한 미친 짓이었고,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일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찾을 이는 누구일까.

답은 하나밖에 없었다, 황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네.”

무례한 손님에게 걸맞은 준비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군요.”

나는 서류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돌려 내 앞에 나타난 남자를 응시했다. 내게서 아무 대답도 없자 검정 일색의 남자는 무안해진 듯이 허둥대다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암공의 그림자, 유렌입니다. 황제 폐하의 전언을 전하러 왔습니다.”

“...”

그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자 난 그제야 다시 서류에 시선을 내려 사인을 했다. 유렌은 아무 말 없이 내가 서류를 처리하는 것을 기다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서류까지 모두 처리한 나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뭔가 마시겠나요?”

“괜찮습니다.”

그의 대답에 나는 단 한 잔의 차를 탈 정도의 찻잎을 계량했다. 찻물이 우러나는 잠시 동안 이야기를 끝낼 생각이었다.

“불쾌하군요.”

“예?”

“폐하께서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싫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불쾌하네요.”

“그게 무슨...”

“실은 저택에 들어오는 당신을 죽게 내버려두고 모른 척 입을 싹 닦을까 고민했거든요. 마법으로 만든 함정을 끄기가 귀찮아서. 한 시간 동안 환상 마법에 갇혀서 헤맸잖아요.”

침이 꼴깍하고 삼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살려주고 듣는 전언이 무엇인가요? 시시한 거라면 제대로 된 전언을 들고 온 사람을 기다렸다 같이 손잡고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폐, 폐하께서...”

“폐하께서?”

“무기의 마법 세공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유렌의 말에 나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사업계획안을 던졌다.

“폐하께 이건 미끼라고 전하세요. 서면으로만 끝나야 하는 일이라고.”

“예? 하지만...”

“하지만 뭐죠?”

“폐하께선 인테제르 영애가 이득을 볼 일을 놓치실 리 없다고.”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원래의 나였다면 이걸 진짜 사업화했겠죠. 근데 그러면 폐하께도 이득이 되잖아요? 그냥 폐하 엿 먹이려는 거예요.”

“엿...”

“걱정 말라고 전해요. 다른 데 팔아먹을 생각도 없으니까. 이만 나가줄래요?”

“...예, 알겠습니다.”

유렌이 사라지고, 나는 남은 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칼립스가 아스테리아 아카데미로 떠나고 나는 요즘 묘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분명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어딘가가 어긋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꿈 때문인가.’

“후우...”

“땅 꺼지겠습니다.”

“리온, 내가 분명 저번에...”

“이번만 봐주세요. 급한 일이거든요.”

“급한 일이요?”

“결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꽈당,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넘어갔다. 그러나 나는 그를 신경 쓸 여유 따위는 없었다.

“이상이요?”

“진정해요, 결계가 깨진 것은 아니니까.”

“무슨 문제인데요?”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구멍이요?”

“당신의 적이라던 그 여자.”

히페리온의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역시... 오늘 꿨던 꿈은 그냥 넘어갈 만한 것이 아니었다.

“결계 밖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 여자가 드나들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아스타르테가 탐색해보고 있긴 한데 섣불리 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내가 갈게요.”

나는 아공간에 보관해 놓았던 망토를 꺼내 들었다. 셔츠와 바지의 간편한 차림으로 있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의 비늘로 만든 건틀렛을 끼자 압박감이 몰려왔다.

“시엘.”

“...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손바닥을 빤히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새 다가온 리온이 나를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과민한 반응이 튀어나왔다. 속으로 아차 하고 있는데 리온이 내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리온은 결계석으로 가세요. 차기 로드인 당신이 나서면 어쩌자는 건가요? 최후의 보루는 남겨둬야 합니다.”

“시엘.”

“히페리온, 냉정해지세요. 설령 내가 죽더라도 당신은 죽어서는 안 돼요. 기억 속의 나를 곱씹으며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 말에 히페리온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나는 그를 툭 밀어내고는 머리를 묶었다.

“그리고 히페리온, 이제 나보다 약하잖아요.”

나는 오래전부터 시스톨레 산맥의 이곳저곳을 탐색했지만 이렇게까지 깊이 온 적이 없었다. 구름이 보일 정도로 높은 곳에서 나는 결계를 살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이거군요.”

어린아이 정도나 겨우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구멍, 이 구멍으로 아텔라가 빠져나왔다는 건가? 대체 어떻게?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지.’

“아스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날 빼내거나 내 손을 잘라주세요.”

아스타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찢어진 결계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는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과거를 엿보기 시작했다.

“우득, 우득.”

다이아몬드만큼이나 단단한 손톱이 깨지고 벌어져 피가 나고 있었다. 손톱으로 파헤치고, 몸을 부딪치고, 마법과 브레스를 수없이 날리자 작은 틈이 벌어졌다. 아텔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결계를 찢기 시작했다.

“쳇.”

짧게 혀를 참과 동시에 아텔라는 아직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구멍에 무작정 몸을 밀어 넣었다. 아마 아스타가 결계석에 정기적으로 불어넣는 마력으로 인해 결계가 재조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껏 찢어놓은 구멍이 다시 막히기 전에 그녀는 몸을 던진 거다.

“아악!”

결계의 뾰족한 부분들이 그녀의 복부를 찌르고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뼈를 으스러뜨려가면서도 결계를 넘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으극, 윽.”

안 그래도 붉디붉은 그 여자는 피로 인해 더더욱 붉어지고 있었다. 왜 저렇게까지... 거부감이 든 내가 한걸음 물러서자 그녀가 고개를 휙 돌렸다.

“기... 다려. 곧 빼앗으러 갈 테니까.”

“미친년.”

내 일갈에 그녀는 킥킥대며 웃기 시작했다. 웃느라 몸을 떨어댈 때마다 상처에서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정말로 궁금했다. 어째서 그녀는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 어째서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는 걸까?

“아아, 정말 황후폐하는 변하질 않으시네요.”

“뭐?”

“눈빛이나 얼굴은 꽤나 좋아지셨는데, 여전히 그 미련한 사고방식은 역겨워요. 나는 그냥 당신이 싫은 거예요. 이유 따위가 필요 있나요?”

거짓말이다.

아무리 그녀가 미쳤다고 해도 자신의 몸을 으스러뜨려가며 나를 미워할까. 무언가 이유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으며 내가 그녀를 가엾다 생각할 리가 없을 테니까.

“결계 밖은 너 말고는 아무도 없나?”

“...”

내가 몸을 움직여 결계에 끼어있는 그녀를 지나쳤다. 실체가 없는 내 몸은 결계를 쉽게 통과했다. 내 예상대로 용암이 흐르는 붉은 대지에는 작은 생명의 기운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네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드래곤인가. 하긴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버틴 것도 용한 거지. 참으로...”

가엾구나. 입으로 내뱉지 않은 그 말을 알아들은 건지 아텔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모습이 자못 우스워 나는 진하게 미소를 피어 올렸다.

“너...”

“외로웠던 거지? 혼자인 것이. 원한다면 내가 곁에 있어 줄게.”

나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시 결계를 통과하여 그녀의 앞으로 갔다. 허리를 숙여 그녀와 시선을 맞추고는, 황후였을 때의 자애로운 미소를 만들었다.

“그러니 어서 와서 내 일부가 되어주렴.”

내 것을 빼앗으려는 너마저, 나는 집어삼킬 것이니까.

“시엘!”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에게 화답하듯 나는 손을 흔들어주고는 현실로 돌아왔다. 내 손에는 투명한 비늘이 잡혀 있었다.

“비늘로 막아둔 건가.”

어떻게 비늘 고유한 색깔을 뺀 건지는 모르겠지만 투명한 비늘은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아마 그 때문에 구멍이 발견된 것이겠지. 내가 힘을 주어 비늘을 빼내자 구멍은 순식간에 줄어들어 원래대로 돌아갔다.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은 필요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아텔라가 결계 밖으로 도망칠 수 없게 막아놓는 것이었다. 결계 밖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자. 이건 어디에 쓸까.”

강도로만 보면 어머니의 비늘보다 더 단단한 것 같았다. 싫어하는 붉은색도 아니어서 더더욱 거부감도 없었다.

“응?”

비늘을 살펴보던 도중 나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끼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디선가 느껴본 감각, 비늘에 남아있는 기운은 몬스터의 것과 비슷했다.

“...”

“시엘, 왜 그러니?”

내가 비늘을 든 채로 멍하니 있자 아스타가 나를 불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나는 그녀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계도 수복되었으니까 이만 돌아갈까요?”

“돌아가도 괜찮은 거니?”

“...네?”

“이 결계, 이대로 괜찮은 거야?”

그 물음에 나는 아스타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스타의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읽기 어려웠다. 그녀의 공허함 외에는 느껴지는 것이 거의 없었으므로.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그녀가 두렵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아가씨, 주인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녀의 알림에 마리엘은 귀걸이를 고르던 손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방은 수많은 드레스와 장신구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내일 저녁에 있을 파티를 위해 새로운 옷과 장신구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만족할 수가 없던 참이었다.

‘뭐지? 요즘 돈 좀 썼다고 뭐라 하시는 걸까?’

고작해야 드레스 몇 벌에 작은 귀걸이나 목걸이 따위가 아닌가. 드레스야 가문으로 청구했지만 장신구는 자신의 용돈 내에서 해결했다.

‘또 잔소리 꽤나 듣겠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준비를 마친 마리엘은 서재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티오테스 백작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자신의 예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자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고, 이런 때는 마리엘에게 무언가 ‘양해’해주길 바라는 것이 있을 때였다.

“찾으셨나요?”

“그래, 마리. 이리 와 앉아라.”

마리엘이 자리에 앉자 티오테스 백작은 손수 차를 따라주었다. 그 과장된 몸짓에 불안해진 마리엘은 인상을 미미하게 찌푸렸다.

“무슨 일이신데요?”

“얼마 전, 듀렌 백작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것을 기억하느냐?”

“네.”

“거기서 인테제르 후작 영애와 친분을 쌓았다지?”

인테제르 후작 영애라는 말을 들은 마리엘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러나 티오테스 백작이 바라는 반응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그녀는 생긋 미소를 지었다.

“친분을 쌓은 것까지는 아니고... 인사를 나누긴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가문이 무기산업을 하다 보니 가문 쪽에 관심이 있으신 듯하더군요.”

“오오, 그래?”

백작의 얼굴에 화색이 돋자 마리엘은 속으로 역겹다는 생각을 했다. 신년 파티 때만 해도 레이톨이 시엘 때문에 묻힌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씨근덕거리지 않았던가.

‘레이, 그 녀석은 입 닥치고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꽤나 불만이 많아 보였지.’

동생의 마음이 어떠하든 자신과는 상관없다. 그러나 마리엘은 그 마음을 숨기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그러시나요?”

“그, 생일파티 때 후작 영애가 듀렌 백작에게 선물로 준 검을 보았느냐?”

“...네, 아주 아름다운 검이더군요.”

“그 검이 사실은 마법 세공을 한 아주 강력하고도 새로운 무기라고 하더구나. 폐하께서 이번에 새로운 무기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 사업계획안이 황궁까지 들어간 모양이야. 아무래도 세공 쪽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그 바탕이 되는 무기는 아니지 않으냐.”

‘아하.’

그러니까, 인사라도 해 본 내가 다리를 마련해주길 바라는군. 그렇게 판단한 마리엘은 자못 곤란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니 마리, 네가 인테제르 영애에게 말을 해 보는 것은 어떠하냐? 응?”

“...그것이 아버지, 제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인테제르 영애께서 제가 여인의 몸으로 검을 배웠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긴 했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기초 이상으로 배운 적은 없고 그분은 레이톨에 버금가는 실력을 가진 대단한 검사이니까요. 공통 관심사도 없고, 신분도 낮은 제가 섣불리 말을 걸기는...”

“영애가 네게 관심을 가졌단 말이지? 그 인테제르 영애가?”

“네, 제가 검을 계속 배웠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해주시긴 했지만 아마 인사치레였을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인사치레가 아니야. 너 또한 레이 못지않은 재능이 있단다, 아가. 영애는 괜한 인사치레를 할 사람은 아니란다.”

아버지가 그녀에 대해 대체 뭘 아신다고요.라고 말하려던 마리엘은 눈을 크게 뜨고는 놀란 척을 했다. 그러고는 금세 시무룩한 얼굴로 푸념을 풀어놓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릴 적 일인걸요. 저는 이제 평범한 레이디에 불과한데, 이 이상 그분의 시선을 끌 수 있을 리...”

“지금이라도 다시 배우면 되지 않느냐? 네 검이나 사교계 활동에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말하거라. 이 아비가 다 들어주마. 대신 가문을 위해 인테제르 영애와 친분을 다져줄 수 있겠니?”

마리엘의 손을 꼭 잡는 그에게 해보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리엘은 시엘을 떠올렸다. 아름다운 얼굴에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나, 자신만만한 그녀가.

‘당신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신은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군요.’

어쩌면... 마리엘 또한 그녀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콰앙!”

큰 폭발음과 함께 시야를 가리던 연기를 걷어냈다. 내 신호를 받은 히페리온이 거대한 머리를 내 쪽으로 돌리고는 크게 포효했다.

“크아아아!”

히페리온의 마력이 담긴 포효에 눌린 몬스터들의 움직임이 조금 둔해졌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몬스터 사이를 달렸다. 히페리온의 포효를 견뎌낸 몇몇 몬스터들이 내게 덤벼들었으나 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베어 넘기며 눈앞의 방위선을 향해 달렸다.

“히페리온, 백업.”

내 말에 히페리온이 화염 마법을 날려 사각에 있던 몬스터들을 날려버렸다. 덕분에 무사히 드워프 방위선에 도착한 나는 그대로 결계를 펼쳤다.

“브레스!”

히페리온의 입이 벌어지고, 그가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뱉자 몬스터들이 얼어붙었다. 뒤이어 내려친 번개에 의해 산산이 깨진 얼음조각들만이 가득했다.

“저, 저... 천룡이시여.”

가쁜 숨을 고르고 있던 와중에 나는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화들짝 놀라는 드워프 병사가 보였다.

“무슨 일입니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왜 몬스터들이 이렇게...”

그 물음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결계를 닫기 시작한 시점부터 몬스터들이 비이상적으로 날뛰고 있었다. 지금은 그 원인을 알아볼 여유도 없이 몬스터들을 정리하는것만으로도 바빴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드래곤 측에서 수습 중에 있습니다.”

“예? 왜 드래곤들께서...”

드워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문을 표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표면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드래곤의 마을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반응한 것은 이상하다 할 만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자연의 조화가 무너질 만한 일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아...”

자연의 조화, 그 말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였다. 드워프 병사가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생긋 미소를 지었다.

“시엘.”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아름다운 푸른색 비늘을 가진 드래곤이 나를 기

다리고 있었다.

“다음은 남쪽입니다. 어서 가야 합니다.”

“알았어요. 빨리 끝내죠. 밤에는 파티도 있고 말이에요.”

“파티...라고요? 또 인간들 사이에 섞이는 겁니까? 그 사교계라는 곳은 질색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체 왜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음 한 번만 참석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페리온.”

“당신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

“시엘, 나는...”

“빨리 가요. 시간 없어요.”

나는 말을 얼버무리고는 부양 마법으로 몸을 띄웠다. 평소였다면 히페리온 위에 올라탔겠지만 굳이 마법을 사용해 이동한다는 것은 그를 거부한다는 뜻이었다. 히페리온은 불만족스럽다는 듯이 콧김을 내뱉고는 날개를 펼쳤다.

“타세요, 시엘.”

“나는 괜찮아요.”

“도착하면 또다시 전투에 들어가야 합니다. 쓸데없이 마력 소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에 나는 결국 항복을 선언하고는 그의 등 위에 앉았다. 그가 나를 배려해서 바람을 차단하고는 날아올랐다. 나는 아래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며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가끔씩 혼란스럽습니다.”

“뭐가요?”

“당신이 이대로 평생 제 등에 타 줬으면 하는 마음과, 언젠가 성체가 되어 당신과 함께 날고 싶다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으니까요.”

“...”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이 대견하면서도 당신을 제 곁에 붙잡아놓고 싶은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를 바라보는 스승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제 마음은 그런 흐뭇한 감정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앞에서는 저는 스승이 아닌 이기적인 사내에 불과하니까요.”

“리온은 언제까지나 내 스승이에요.”

내 대답에 히페리온이 쿡쿡 웃었다.

“이젠 시엘이 스승인 저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부하죠, 부하.”

“그, 그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때는 히페리온 안심시켜 주려고 그냥 말한 거였어요!”

”네,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엘의 명령은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저보다 강한 시엘한테 맞을 테니까요. 시엘은 이리스를 닮았으니까요.”

“히페리온!”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 높여 그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왁자지껄한 파티장의 귀족들과 섞인 나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영애. 이번에 레일 왕국에서 특산품으로...”

한 백작이 자신이 투자한 상품을 홍보를 위해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열변을 토하는 것을 듣는 척하며 샴페인 잔을 빙글빙글 돌렸다. 피로로 인해 눈이 따가웠다.

“피곤해 보이는군, 그대.”

부드러운 목소리,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황태자 전하를 뵙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라트로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여유로운 모습을 빠르게 훑으며 그에게 인사를 했다.

“황태자 전하를 뵙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딱딱한 인사를 하는 것인가.”

“인사는 중요한 법이지요.”

“...그것도 그렇군. 오랜만에 보는군, 인테제르 영애.”

“예, 오랜만입니다.”

그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거리가 너무 가까웠던 지라, 의식적으로 반걸음 물러났다. 아무리 파티장이라 혼잡하였다 할지라도 내게 다가오는 이 하나 눈치 채지 못한 것은 한심한 일이었다.

‘역시 오늘은 쉴걸 그랬어.’

드래곤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여기저기서 치이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었다. 며칠 정도는 연구를 핑계로 그냥 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 그래, 이제 마법진 연구도 시작해야지. 아텔라가 완전히 넘어온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그녀는 결계 밖으로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할 테니까. 남은 것은 그녀를 잡아 세계를 연결하는 것뿐이었다.

‘그것뿐인가? 정말로?’

대체 내가 알고 있는 게 뭘까. 천룡의 사명도, 일어난 일도 일어날 일도 아무것도 모른다. 어릴 적에는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 하였지만,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도 이러고만 있으니 조바심이 났다.

초조함, 불안함, 슬픔, 착잡함.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날뛰고 있었다.

“영애,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은가?”

“공기가 탁해 기분이 안 좋아진 것뿐입니다. 잠시 바람을 좀 쐬고 오겠습니다.”

“에스코트 해 주지.”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쉰 나는 라트로의 손을 잡고는 정원으로 나갔다. 평소와는 달리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일이야 늘 많지요.”

“...피 냄새가 나는군.”

라트로의 말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확실히 요 며칠간은 몬스터의 피를 뒤집어쓰다시피 하며 지냈다.

“그런가요? 목욕에 향유까지 발랐는데 말이죠.”

“아니, 그대의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표정에서 느껴진다는 뜻이야.”

“아아..., 요 며칠 몬스터들이 날뛰고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방 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더군. 몬스터들의 활동 시기도 아닌데 이상한 일이야.”

“예.”

나는 라트로의 말을 한 귀로 흘려들으며 대답했다. 내 권태로움을 눈치챈 그가 입을 열었다.

“그대에게는 내가 보이지 않는가?”

“예... 예?”

“나는 그대에게 대체 무엇인가?”

“...”

“그거 아나? 그대가 나를 보는 눈은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눈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게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아나?”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

“전하께서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나는 다정한 미소를 짓고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손아귀에 손을 아주 약간 넣자 그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전하께선 돌멩이보단 개미에 가까우시지요. 돌멩이라면 차라리 이리저리 움직이며 눈에 거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뭐?”

“전하, 저는 개미가 참 싫습니다. 이 세상에는 밟아 죽일 개미들이 너무 많고, 또 그 개미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밟아야 하니 참으로 피곤할 따름입니다.”

라트로는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도닥이며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러니 조용히 살면서 내 눈 앞에 띄지 말거라, 개미 새끼야.”

오러에는 단계가 있다. 집중 끝에 오러를 처음 만들어내는 단계는 소드 비기너, 집중하는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원하는 때에 오러를 바로 만들어 내는 단계를 소드 익스퍼트 초급, 오러로 검신의 길이와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단계를 소트 익스퍼트 중급, 그리고 소드 익스퍼트 상급이 되면 오러에 자신만의 색이 생겨난다.

“하아, 지친다.”

하루 종일 연무장에서 체력 단련을 하고는, 밤에는 파티까지 참석하려니 몸이 버텨나지를 못했다. 어릴 적에는 곧잘 뛰었던 것 같은데, 오랫동안 운동의 쉬니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졌다.

‘고작 이 정도로 무슨! 하루라도 빨리 비기너 단계에 돌입해야 해.’

우선 마리엘이 해야 되는 일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었다. 뒤처진 만큼 빠르게 달려야 했다.

“어디 있는 거야, 진짜.”

항상, 늘 화려한 자리에서 모두의 시선을 끌면서, 정작 찾을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거 아나? 그대가 나를 보는 눈은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눈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게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아나?”

사내의 비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사랑싸움이라도 하는 것이겠지.

‘진짜 절절하게도 말한다. 귀족 자제가 무슨 사랑 때문에 비참씩이나...’

슬그머니 고개를 든 호기심 때문에 얼굴만 확인하고 가자하며 나무 뒤에 숨어 두 남녀를 보았다. 마리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여인의 머리카락은 그녀가 찾고 있던 색이었다.

‘어..., 인테제르 영애? 그리고 상대는.’

맙소사, 저 반짝이는 은발은 제국에서 두 번째로 고귀한 남자였다. 제국의 황태자가 시엘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다음 말은 시엘이 라트로에게 속삭이듯이 말해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라트로의 표정을 보아하니 결코 좋은 말은 아닌 듯했다.

얼어붙어있는 라트로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시엘은 뒤를 돌았다. 마리엘이 숨어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시엘 때문에 마리엘은 당황하며 주위를 살폈다.

‘왜,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도망칠 구석이 없었다. 게다가 걸어오는 시엘의 분위기가 범상치 않은 것이 단단히 화가 난 듯싶었다.

“어떤 쥐새끼가...”

기품 있는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욕설이 들려오자 마리엘은 간신히 입만 뻐끔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붉은 눈이 그녀의 공포심을 부채질했다.

“그, 그게 일부러 보려던 것은 아니고 지, 지나가던 길에...”

“...티오테스 영애?”

살기등등하던 방금과는 달리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마리엘은 뭐라 대답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없었다. 여전히 위압적이면서도 사람을 홀리는 붉은 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아...”

시엘이 깊은 한숨을 내뱉자 마리엘은 정신을 차리고는 어깨를 들썩였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시엘은 빙그레 미소를 짓고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원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산책이나 같이 하실래요?”

방금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억양과 태도에 마리엘은 어떨떨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시엘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이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시엘이 어떠한 사람이든 마리엘은 그녀와 가까워져야 한다. 자신의 원래 목적을 간신히 기억해낸 그녀는 평온을 되찾고는 시엘이 내민 손을 잡았다.

“흐음...”

마리엘의 손을 한 번 강하게 잡았다 놓아준 그녀는 친근하게 팔짱을 꼈다. 그녀의 미소가 모두 가면이라는 것을 안 마리엘은 거북한 감정이 들었지만, 미소로 응수해주었다.

저벅저벅.

어째서인지 정원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마리엘은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심하며 시엘과 걸음을 맞췄다.

“검, 다시 시작했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손에 있는 쓸린 상처를 보면 알아요. 지난번에 내가 한 말에 꽤나 열 받았나 보네요.”

“네? 아, 아니에요.”

“어라? 열 받으라고 한 소린데 정말 화 안 났어요?”

방긋 웃으면서 하는 말에 마리엘은 기가 찼다. 남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알고 찔렀다는 소리가 아닌가.

‘성격 정말 거지 같다.’

“화... 났으면요?”

“으음, 합격?”

“합격요?”

“실은 당신을 시험했거든요. 당신이 백작위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네?”

“억울하지 않나요? 여인이라는 이유로 작위도, 관심도 그 무엇도 받지 못하고 그저 이용만 당하는 것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모르지 않을 텐데?”

“...”

“나 또한 후작가의 유일한 후계자가 아니었다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황후가 되어야 했겠죠.”

‘지금 장난해? 황후?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여야지.’

“솔직히 말하면 황후, 괜찮죠.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한 존재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나의 행복은 황후가 되는 것이 아니죠.”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아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시엘의 그 말에는 어쩐지 강박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은 마리엘이 처음으로 느낀 시엘의 순수한 욕망이었다.

“...”

“단지 여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째서 우리는 재단되는 인생을 살아야 하죠?”

그 말이 마리엘의 깊은 곳을 찔렀다. 그녀가 꾹꾹 참아왔던 말들을 시엘은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게요.”

“답은 간단해요. 저들은 힘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뭐든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인과 사내로 나누기 이전에 강자와 약자로 나뉘는 법이죠.”

“...”

“마리엘, 당신은 여인인 것이 억울한 가요? 아니면 약자인 것이 억울한 가요?”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마리엘은 이 대답에 자신이 평생 갈망했던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마리엘의 불만은 여인으로 태어나 모든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업신여김 받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고, 늘 자신이 여인만 아니었다면의 생각을 했다. 그런 그녀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저는 여인이라는 약자인 것이 억울해요.”

“허면 강자가 돼야죠. 성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니 강자가 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당신의 재능과 능력을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요?”

“티오테스 영애, 당신의 눈에 나는 약자인가요? 아니면 강자인가요?”

“당신은... 강자예요.”

“그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강자였을까요?”

“...”

“아니에요. 나는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왔고, 지금의 내 힘은 내 고통과 비명의 대가입니다. 티오테스 영애,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줄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까지 끌어올려줄 손을 말이죠.”

내가 내민 손을 마리엘은 홀린 듯이 쳐다보았다. 그러나 아직 그녀는 나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요. 다음 세대의 고위 귀족에서 여인은 나밖에 없잖아요? 나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내 편을 만들고 싶어요.”

결국 귀결되는 것은 나의 이익이다. 그 말에 마리엘은 손쉽게 넘어가 내 손을 잡았다. 경계를 완전히 누그러뜨리지는 않지만 내가 완전히 제 편이 아니라는 말에 날 믿어버리는 그 모습이 웃겼다.

‘고작 이런 간단한 암시에 걸려들 줄은...’

그녀를 유혹하는 말에, 그녀에게 내미는 손에 약간의 마력을 담아 현혹 마법을 펼쳤다. 만약 조금만 더 의심이 적은 사람이었다면, 조금만 덜 염세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런 가벼운 암시에 넘어가진 않았겠지.

‘오히려 이런 사람일수록 더 쉽게 넘어가버리니까.’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녀를 조종까지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이상의 현혹 마법이라면 나중에 망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우연이었지만 생각보다 잘 됐어.’

그녀에게 접근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거예요, 그 증거로 서로 이름을 부르기로 하죠, 괜찮나요?”

“네.”

마리엘은 거리낌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떨어질 것이다.

“마리엘, 당신은 백작이 되길 원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쌍둥이 동생인 레이톨을 실각시켜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 유능함을 알게 해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후계자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분은 아니에요.”

“궁지에 몰려야 당신에게 눈을 돌린다는 뜻이군요? 잘 키워놓은 후계자를 버릴 수밖에 없게. 가장 쉬운 방법은 티오테스 영식을 망가뜨리는 건데...”

“그건...”

마지막 말에 마리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으면서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다. 나는 픽 웃고는 그녀를 도닥였다.

“걱정 마요. 그냥 해본 말이니까.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레이톨은 눈치 없고 독선적이긴 하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진정해요.”

그리고 잠시 자는 것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마리엘이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 이내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나는 그녀를 안아들고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아, 역시 드레스 입은 채로 누군가를 옮기는 건 불편하네.’

풍성한 드레스 자락이 시야를 가린다. 나는 근처 벤치에 그녀를 앉히고는 그 옆에 털썩 앉았다.

“처음부터 너무 몰아붙였나? 감을 못 잡겠단 말이야.”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은 처음이었다. 달콤한 말로 타인의 감정을 유도한 적은 있지만 마법까지 쓴 적은 없었다. 이런 정신계 마법일수록 다루기 어렵고, 자칫하다간 정신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

“진짜 망가지면 안 되는데 말이지.”

나는 고른 숨소리를 내는 마리엘을 툭툭 치면서 중얼거렸다. 벌겋게 부어오른 손바닥을 잠시 응시하다 밤하늘을 보았다. 여전히 별은 없고 저 멀리 초승달만이 홀로 떠있었다.

“내가 엄청나게 나쁜 존재가 되더라도, 당신은 나를 사랑해줄 거죠?”

“더워...”

소파에 축 늘어진 카일루스는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히페리온은 그런 카일루스를 힐끔 보았다 다시 책에 눈을 돌렸다.

“리온, 브레스 한 번만 쏴주라. 진짜 더워 죽겠다.”

“헛소리. 고작 그따위 이유로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여태까지는 잘 참더니만 왜 갑자기 불평이야?”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기후도 그렇고 공기고 그렇고, 레드드래곤인 만큼 더위에 민감하긴 하지만, 그에 대한 내성도 확실히 있는데 말이야. 이번 여름은 마치 내 안의 열을 안쪽에서 계속 가열하는 것 같아.”

“...”

“넌 뭔가 아는 거 있냐?”

“기록에 따르면 결계 밖은 화산지대라고 한다. 복구하긴 했지만 결계에 구멍이 났던 영향이 아닐까?”

“흠..., 그런가?”

“나는 너 때문에 열 받는데 이만 꺼지지?”

“싫어, 네 옆이 그나마 시원하단 말이야.”

어쩌다 이런 놈한테 코가 꿰여서는...하고 한숨을 짓던 히페리온은 읽던 책을 내려놓았다. 확실히 그 또한 습기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느끼고 있던 바였다.

목을 드러내기 위해 긴 머리를 잡아 위로 말아서 비녀를 꽂았다. 그로 인해 드러난 히페리온의 하얀 목을 카일루스는 빤히 바라보았다.

“뭐야, 왜 그렇게 봐?”

“아니, 이렇게 보니까 참 참하다 싶어서. 우리 리온.”

카일루스가 콧소리를 섞어가며 나긋나긋하게 우리 리온이라고 부르자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소름이 돋는 것이 느껴졌다. 진지하게 그를 창밖으로 내던져버릴까 고민하던 히페리온은 미친놈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가?”

“신경 꺼.”

“또 아가씨한테 가?”

“...”

“너 가는 거야 뻔하지. 근데 갈 때마다 상처받고 돌아오는 주제에 왜 계속 찾아가냐?”

“내가 상처받을수록 시엘은 내게 미안해할 테니까. 그녀 자신에게 애정을 주는 나일수록 더더욱. 요즘 들어 시엘은 점점 더 나를 신경 쓰기 시작했어. 그걸로 충분하다. 언젠가 내 생각밖에 못하게 될 테니까.”

“...미친놈.”

“적어도 그녀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인간보다는 내가 그녀에겐 더 낫지 않나?”

생긋 웃는 그를 빤히 바라보던 카일루스는 짧게 한마디를 했다.

“멈출 때를 찾는 것이 좋을 거야.”

“흥.”

카일루스의 경고를 들은 체도 하지 않은 히페리온은 그대로 텔레포트를 시전했다.

“시엘, 저 왔습니다.”

문을 두드린 히페리온은 대답을 기다렸으나 어떠한 대답도 들려오지 않자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다. 안에 있는 건 분명한데.’

조심스럽게 문을 연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는 시엘을 발견하고는 픽 웃었다. 여름이라 그런지 얇은 실내용 드레스를 입은 것이 예쁘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많이 피곤했나 보네요.”

여름이 되면서부터 몬스터들의 활동이 줄어들어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몬스터를 소탕하랴, 사교계 활동과 후계자의 일을 수행하랴 정신이 없었다.

‘거기다 무슨 연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구실에 박혀서 안 나올 때도 있었고.’

쉴 때도 되었지, 그렇게 생각한 히페리온은 시엘의 무릎에 얼굴을 폭 묻었다. 시엘에게서 나는 특유의 체취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확실히 머리를 올리니까 고개를 숙여도 바닥에 끌리는 일은 없군.’

얼마 전, 그의 등에 탄 채로 하늘을 날고 있던 중에 시엘이 직접 깎아 만들어준 비녀였다. 평소 머리를 하나로 땋거나, 아니면 그대로 풀고 다니던 히페리온에게 있어 비녀는 생소한 것이었다.

“목이 드러나는 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카일루스가 뚫어지게 쳐다봤던 것처럼 히페리온의 목은 희고 가는 데다 얼굴 자체도 중성적인 면모가 강했다. 그의 키가 크지 않았다면 여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터였다.

‘시엘이 계속 인간들과 섞이고자 한다면 언젠가는 나도 모습을 드러내야 할 테니까.’

그녀가 사교계라는 곳에서 인기가 아주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것 자체에는 불만이 없었다. 이토록 아름다운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사내가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그 사내들이 반한 것은 그녀 자체가 아니라, 그녀의 외모와 신분 따위에 반한 것이었다는 거다.

‘몬스터의 피를 뒤집어쓰나, 보석으로 치장하나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어리석다. 그리고 그런 시엘이 언제나 자신을, 자신만을 바라봐준다면.

“흐흠...”

상상만으로도 짜릿해지는 기분에 저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의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위에서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압박감과 역겨움에 화들짝 놀라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시엘?”

“리온 뭐 하는 거예요? 남 자는데...”

눈을 비비면서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말하는 시엘은 평소와 같았다. 그러나 방금 전 느꼈던 기분 나쁜 기운은 분명 시엘이 풍기던 것이었다.

‘뭐지? 왜...’

툭, 느슨하게 고정시켰던 비녀가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흑단목으로 만들어진 비녀가 데구루루 굴러갔다.

아스타르테는 결계석 위에 손을 올리고는 파툴키우스의 조각상을 올려다보았다. 그런 아스타르테의 뒤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뭐해요,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아스타르테는 그대로 고개를 찌푸렸다. 붉은 눈동자에 담겨있는 장난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아스타르테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을 알면 그녀와 가까운 드래곤들이 놀랐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만, 어머니는 어머니인걸요.”

“내 아들은 죽었어.”

카시스의 임종 때, 아스타르테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은 죽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인간의 생을 누리다 행복한 끝을 맞이했다는 것을.

“어라? 그럼 나는 뭐지?”

그가 하늘색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면서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아스타르테는 고개를 휙 돌리고는 다시 거대한 드래곤의 조각상을 올려다보았다.

“너는 저 조각상이나 다를 바 없어.”

“...”

“신으로 추앙받는 어리석은 존재의 찌꺼기일 뿐이지.”

“부정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찌꺼기라는 표현은 너무하다고 보는 걸? 나 또한 시엘을 위한 안배일 뿐이야.”

“시엘을 위한? 웃기지 마. 인간을 위한 이겠지. 시엘의 미래는 암흑보다 깜깜한데.”

“나는 시엘에게 선택권을 줄 거야. 결국은 그 아이가 선택하게 될 텐데 왜 내가 나쁜 것 마냥 말하는 거지?”

“선택권? 웃기지 마.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쥐어주고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찢어버릴 것이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라 강요하는 것뿐이잖아.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떠넘기고!”

어느새 장난기가 사라진 눈은 시린 예기로 빛났다. 그는 아스타의 볼을 쓸어내리면서 말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위해, 이 계획에 동참한 건 너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해서였어!”

“그래, 네 아들을 위해서. 고작 그가 살 백 년 남짓한 시간을 위해서 천 년간 모두를 속인 건 너야.”

“...”

“너는 나를 싫어하지. 내가 평생 네 아들을 괴롭혔던 파툴키우스의 찌꺼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내 안에는 카시스의 찌꺼기도 있어. 이제 와서 시엘을 동정해봤자 그 아이

가 가장 증오할 것은 카시스와 너라고.”

“파툴키우스!”

“난 파툴키우스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카시스인 것도 아니지. 너야말로 그렇게 부르지 마. 다른 이름이 있잖아?”

“스스로에게 신의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아주 많은 것이 달라지지.”

그의 하늘색 머리카락과 어울리는 맑은 미소에, 아스타르테는 이를 갈았다.

“그래, 먹어라. 나를 잡아먹어라. 하지만 너 또한 결국 고독을 먹고사는 존재가 될 것이야.”

“상관없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면.”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겠다는 건가? 어리석은 천룡이여.”

“그래, 이제 나는 천룡이 아니다. 천룡의 운명을 거부했다. 나는 천룡이 아닌 신이 되겠다.”

“아하하하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나는 감았던 눈을 떴다. 그러자 차를 마시고 있는 마리엘이 보였다. 나는 잠시 여기가 어딘지 생각했다.

“시엘, 차는 입맛에 맞으시나요?”

아기자기하고 달콤한 디저트, 향기로운 차와 꽃, 따스한 햇살. 나는 지금 티오테스 백작가의 티파티에 참석했다.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나는 그동안 밤의 무도회는 참석하긴 했지만, 귀부인들과 귀족 영애들의 티파티에는 참석한 적이 없었다. 그것도 무도회에서는 대부분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귀족 남성들과 주로 말을 섞었다.

‘내가 싫어하는 건 여인들의 사교계니까. 내 입장이 독특하기도 하고.’

귀족 영애이기 이전에, 나는 소후작이자 마탑의 주인이었으니 상층부의 관리들은 나를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귀부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쳤는지 내 소문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내 이름에 인테제르라는 성이 박혀있는 한, 나는 가까워지면 ‘좋은’ 사람이었다. 내가 단 한 명이라도 귀족 여성과 가까워진다면, 그동안 꺼려했던 이들이 벌 떼처럼 달려들 것이 뻔했다. 그리고 나는 마리엘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나저나 정말 놀랐습니다. 제 딸아이가 요즘 외출이 잦다 했더니, 인테제르 영애와 만나고 있을 줄이야.”

“제가 이런 티파티에 참석할 기회도 많지 않고, 동성 친구도 없어서 섭섭하였는데 우연한 기회로 친해져서요. 지금은 마리엘은 제 소중한 친우랍니다, 부인.”

“어머나, 저희야 영광이지요. 요즘 사교계에 얼굴을 비추는 일이 많아지셨다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후계자 문제로 바쁘셨던 것이겠지요.”

“아아, 그렇죠. 마탑의 사업 문제로도 조금 일이 있었고요.”

“어머, 마탑의 사업이라 하시면 그, 마법 세공 말인가요? 황가에서 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지금은 무기 쪽으로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 제가 일찍이 선보였던 드레스도 마법 세공의 일종이니까요. 장신구나 보석 등이 마법을 새기기에는 안성맞춤이니 그쪽으로도 진출시킬 생각입니다.”

내 말에 몇몇 여인들의 눈이 반짝였다. 가문의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입한 귀금속은 실질적으로 귀부인들의 사재로 분류되어, 이혼한다 할지라도 따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물품이었다. 게다가 세공을 할 경우 그 가치는 몇 배로 뛰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었다.

“...뭐, 계획이 통과되는 건 몇 달 후의 일이겠지만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면 부인께 작은 선물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정말이신가요?”

“당연하죠, 마리엘의 어머님이신걸요. 기왕이면 얼마 전에 마리엘에게 선물로 준 비녀와 세트로 맞춰드릴까요? 요즘 모녀가 함께 맞추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그, 그래 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지요.”

백작부인은 시선을 돌려 마리엘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비녀를 보았다. 흑단목을 깎은 다음 가넷을 방울방울 단 비녀는 화려한 비녀와는 달리 깔끔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히페리온의 비녀를 만들어주면서 같이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사용한 가넷은 최상급의 스페샤르타이트 가넷이었다.

“정말 항상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시엘.”

“그럴 리가요, 마리엘. 친구 사이인걸요.”

“하지만...”

“마리엘,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생긋 웃으며 말하자 마리엘뿐만 아니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귀부인들마저 얼굴을 붉혔다.

“그나저나 이 타르트 정말 맛있네요. 제 마음에 꼭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코르셋과 여러 이유 때문에 디저트에 그렇게 많이는 손을 대지 못하고 케이크 한 조각을 가지고 차를 세잔이나 비우고 있었다. 나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잔뜩 차려져 있는 디저트를 마음껏 먹었다.

‘이거 하나는 좋네. 전부 내 차지니까.’

요즘 들어 점점 식욕이 왕성해지고 있었다. 이러다가 어머니보다 더 많이 먹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 살은 안 찌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결론지은 나는 시녀에게 타르트의 추가를 부탁했다.

“천박하기도 하지. 아귀처럼 먹어 치우는군.”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작게 속삭이는 말을 들은 나는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부채로 입을 가리고 있던 한 귀족 영애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어찌 그러시나요?”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자연스럽게 시선은 내가 쳐다보았던 테이블 쪽으로 몰렸고, 몰래 나에 대해 험담을 속삭이던 여인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마리엘에게 미리 부탁하길 잘했지.’

본래 소규모로 열던 티오테스 백작부인의 티파티는 이번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백작가 이상의 귀족 여성들을 초대하는 대규모로 열리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나에 대한 저급한 소문을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한 테이블에 모았다.

“그러고 보니, 저도 며칠 후에 티파티를 한 번 열어볼까 합니다.”

“어머, 정말요? 그러고 보니, 인테제르 후작가의 정원이 훌륭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 기회에 구경해볼 수 있을까요?”

연무장이 아니라 정원이 훌륭하던가? 하고 잠시 생각하던 나는 미소를 그려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요즘 맨드라미가 아주 아름답게 피었답니다.”

...

마리엘을 포섭했으니, 내게 남은 일은 사교계의 장악이었다. 본디 밝을수록 어둠이 생기는 법, 내가 앞에 나서면 뒤쪽에서 나를 욕하는 일도 잦아질 터였다.

굳이 따지자면 밤중에 귓가에서 앵앵대는 모기랄까?

‘아, 또 인간을 벌레로 생각하네. 요즘 왜 이러지?’

“피곤한 일이 많아서 그런가?”

“피곤하세요? 차라도 한 잔 하실래요?”

내 옆에서 바느질을 하던 타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물었다. 티파티에서 차는 충분히 마신 터라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으응, 괜찮아. 차 한 잔으로는 끝날 피로가 아니야.”

피로를 없애려면 먼저 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부터 날려버려야겠지.

“아아, 일하기 싫다.”

“농땡이 피우시면 안 돼요.”

타냐의 잔소리에 나는 턱을 괴고는 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어째 타냐, 점점 힐데를 닮아가는 것 같아?”

“예? 힐데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내 유모, 지금은 영지 저택에 있지. 힐데 잔소리 피해 왔더니 이젠 타냐가 잔소리를 하네. 불쌍한 내 인생.”

“게으른 아가씨한테 일일이 잔소리하는 제 인생이 더 불쌍하거든요!”

미묘하게 얼굴을 찌푸리며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타냐로 인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해가 저물어가서 그런가, 창문을 통해 주홍색의 빛이 쏟아졌다. 타냐는 주름진 얼굴을 피고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타냐, 왜 그래?”

“아가씨, 나중에 아이 꼭 많이 낳으셔야 해요? 아아, 이 미모를 후대에 남기지 못하면 인류의 손해예요. 진짜 우리 아가씨 너무 아름다우셔.”

얼굴을 붉히며 수줍은 소녀처럼 어쩔 줄 몰라하는 타냐를 보며 나는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라...”

‘나보다는 칼립스를 많이 닮았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내 머리카락과 눈 색은 유전될 일이 없으니까 검은 머리로...’

칼립스가 떠난 지도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었다.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번 여름은 유독 긴 것 같아.”

“맞아요, 얼마나 더운지. 해가 져도 더위 때문에 버티지를 못하겠다니까요.”

“그래? 그렇게 더운가?”

“그렇게 더운가라니... 역대 최악의 더위라고요, 아가씨. 수도가 거의 남부의 한여름 수준이고, 전국에서 일사병으로 사람이 픽픽 쓰러지고 있다던 걸요?”

“헤에..., 의외네. 남부인들은 더위에 강한데 말이지. 전염병이나 안 돌았으면 좋겠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뭄이 와서 올해는 흉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흉작, 슬슬 올 때도 됐지. 요 몇 년간은 줄곧 풍작이었잖아.”

“그렇긴 하지만 흉작이 오면 인테제르 가문의 사정이...”

“그 정도로 흔들리진 않아. 그리고 흉작이 될 걸 예견하고 저수지와 다른 쪽의 사업도 확장했으니까. 그리니 우리 영지는 다른 곳만큼 타격은 크지 않을 거야. 지금 걱정해야 할 건 전염병이지. 그것만큼은 예측 불가능하니까.”

나는 무미건조하게 중얼거리면서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서류에 적혀 있는 영지의 인구수는 내게 어떠한 느낌도 주지 않았다.

“흉작이든, 전염병이든,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 솎아내는 재앙은 조만간 닥칠 거야.”

내 말에 타냐가 입을 꾹 다물었다. 잠시간의 침묵 후에, 그녀는 어렵게 입을 떼었다.

“아가씨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계세요.”

“뭐?”

“너무 높은 곳에서, 너무 많은 것을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의 죽음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계신 것 같아요.”

“...”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해도, 사람이 죽는 건 슬픈 일이잖아요.”

“맞는 말이야. 나는 인간을 개미와 별반 다르다 생각하지 않거든.”

내 대답에 타냐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내 사람은 달라. 내 사람이 조금만 다쳐도 나는 화를 낼 거고, 슬퍼할 거야. 그리고 타냐, 너는 내 사람이지.”

“...아가씨.”

“내가 유별난 건 인정하지만 그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아닐까? 어디의 누군지도 모르는 이나, 관심 없는 이가 죽었다고 하면 세상 떠난 것처럼 오열할 사람은 없어. 그냥 ‘그렇구나, 안 됐네.’ 정도지.”

“그건 그렇지만, 요즘 들어 아가씨의 그런 냉소적인 성향이 더 강해지신 것 같아서요. 제가 느끼기에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무례한 소리일지 몰라도 가끔씩 미소를 짓지 않으실 때 눈빛이 너무...”

“너무?”

“뭐라 형용할 순 없지만, 미워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항상 내 곁에,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의식적이지 않은 내 모습을 지켜보는 타냐가 하는 말이니 틀림없을 터였다. 그리고 타냐는 의외로 감이 아주 좋았다.

“기분 더러워졌어.”

“죄, 죄송해요. 역시 제가 너무 주제넘었나요?”

“아니, 아니야. 그냥 내가 요즘 너무 과민해진 것 같아.”

“아가씨...”

“오래간만에 영지나 내려갔다 올까? 타냐도 같이 갈래?”

“네? 그래도 저는 수도 저택 일이...”

“이젠 내 전속 하녀니까 상관없지 않아? 다른 이에게 맡겨버리면 되는 일이야.”

“그래도..., 집사님께서.”

“내가 된다고 하는데 그 누가 이견을 펼친다는 거지?”

무심코 툭 튀어나온 말은 내가 느끼기에도 평소와는 톤이 달랐다. 타냐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숨기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미안, 타냐. 집사한텐 그렇게 전해줘. 길진 않을 거야. 이동은 텔레포트로 할 거니까.”

“정말요?”

텔레포트라는 소리에 얼굴이 확 밝아진 타냐는 평소보다 과장된 몸짓을 펼쳤다. 나는 미소를 짓고는 그녀에게 물러가 보라는 뜻으로 손을 내저었다.

타냐가 나가자 나는 일부러 의자를 끄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붉게 물들어있었다.

“역시 난 그 여자와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

“오러라는 것은 체내의 마나를 검에 두르는 것입니다. 마나는 곧 생명력이기 때문에 오러를 남발해서는 안 되죠.”

나는 마리엘이 들고 있는 검의 검신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자세를 교정했다. 한낮의 뙤약볕 아래 서 있기 때문인지 그녀의 이마에서 끊임없이 땀이 흘러내렸다.

“마나를 최소한으로, 최대의 효율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 증거로 오러에 자신만의 색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체내의 마나뿐만 아니라 자연의 마나까지도 끌어다 쓸 수 있게 되는 경지를 소드마스터라 합니다. 그래서 소드마스터가 백 명의 소드 익스퍼트 상급보다 더 강하다 하는 겁니다. 마나의 제한이 없으니까요.”

“...네.”

지글지글 올라오는 복사열로 인해 호흡이 가쁜 모양인지 마리엘은 잠시 뜸을 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힘든가요?”

“괜찮습니다.”

“...”

솔직하게 힘들다 하면 쉬게 해줄 텐데... 속으로 한숨을 쉰 나는 무영창으로 그녀에게 온도조절 마법을 걸어주었다. 이것으로 열사병이 걸리는 일은 없을 터였다.

“우선은 오러를 꺼내는 방법부터 배워야겠죠. 자신의 체내의 마나의 흐름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도 체내의 마나는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마나의 흐름이요?”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검을 들고 있던, 들고 있지 않던 호흡에 의식을 맞추고 미세한 양의 마나를 잡아내는 것이 우선이에요. 숙제로 내줄게요. 내가 돌아오는 날까지 한 번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오신다고 했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시엘.”

“체력단련은 꾸준히 하는 대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

마리엘이 불만스러운 듯이 나를 올려다보자 나는 빙긋 웃으면서 그녀에게 찬물에 적신 수건을 건네주었다.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무리하다간 쓰러지기 십상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 더뎌질 뿐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할 줄 알아야 해요.”

“네, 알겠어요.”

마리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건에 얼굴을 묻었다. 깊은숨을 내뱉는 것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평소보다 태양이 커 보였다.

“한동안은 비가 내릴 일은 없겠어요.”

“그러고 보니 가뭄 조짐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렇겠죠.”

“맞다, 티파티는 어떻게 하시게요? 요즘 너무 덥다 보니 야외에서 여는 티파티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열어야죠. 연다고 했으니까.”

“올 사람이 있을까요?”

“기어서라도 오게 만들면 되죠. 뭐, 파티 도중에 더위로 쓰러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하게 돈지랄 한 번 할 거니까.”

“돈, 지랄...”

내 단어 선택에 놀랐는지 마리엘의 눈동자가 동그래졌다. 나는 킥킥 웃고는 하녀가 준비해놓은 차가운 물통을 볼에 가져다 대었다.

“돈지랄 맞죠. 누구는 일사병으로 죽어나가는데, 누구는 비싼 마법과 얼음을 남용해가며 우아한 티타임이나 가지니 말이에요.”

“하, 하하...”

“본래였다면 그런 가치도 없는 파티에 쓸 돈을 영지민의 구휼에 썼겠지만, 사교계에 발을 담기로 한 이상 한번쯤은 해야 하니까요.”

“...”

“마리엘, 난 늦어도 가을에는 영지로 돌아가야 해요. 추수와, 식량을 노린 몬스터들의 습격 때문에 영지를 지켜야 되거든요. 한 번 가면, 해가 지날 때까지 못 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과를 보이고 싶다면 서둘러야 해요.”

“많이... 짧네요.”

“걱정 마요. 그 안에 당신이 오러를 다루게 하는 것은 쉬우니까.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아까운 재능이었다.

“나는 우리 가문 내에서 유일한 적통이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후계자로 낙점받을 수 있었지만, 당신의 동생은 아니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열아홉, 성년이 돼서야 완전히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레이톨을 앞질러야 한다는 말이죠.”

“슬슬 백작이 조바심을 낼 때가 됐겠죠. 당신과 내 사이가 긴밀해진 것은 사교계에 널리 퍼졌으니까.”

“그것에 대해선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일부러 싫어하는 사교계까지 나서면서 제게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까요.”

“내 친우를 위해서라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로 성과를 보이라고요?”

그녀에 대답에 나는 후훗 소리 내며 웃었다.

“마리, 나는 당신이 참 좋아요.”

똑똑하게도, 내 손바닥 위에서 잘 굴러주니까.

...

“그럼 티파티용 의상은 이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담, 한 가지 맡기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어머니의 여름용 드레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평상복으로 마흔 벌 정도요. 어머니가 마음에 드신다 하면 앞으로도 일을 맡기고 싶은데요.”

마흔 벌이라는 소리에 마담 아르스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저야 영광이죠. 헌데 피팅을 한 번쯤은 해 봐야 되는데, 후작부인께서는...”

“아, 어머니는 영지에서 나오는 것을 꺼려하시니 마담이 직접 와 주었으면 합니다. 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텔레포트로 가면 금방이니까요. 하루만 시간을 비워주세요.”

“물론이죠, 문제없습니다. 삼일 내로 시안을 만들어 보내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품에서 작은 초상화를 꺼내 마담에게 건넸다. 나와 어머니가 그려진 초상화였다.

“어머니의 분위기에 잘 맞춰 디자인해주세요. 활동성 있으면서도, 고급스럽게요. 가격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멍하니 초상화 속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던 마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작욕구가 불타오른다는 듯이 눈을 반짝였다.

“아아, 영애의 미모가 어디서 왔나 했더니 후작부인을 똑 닮으셨네요. 어쩜, 그 완고하고도 기사 중의 기사이신 후작님이 제국 제일의 애처가가 될 만하네요.”

“하하, 그런가요? 확실히 딸인 제가 봐도 두 분 사이가 평범하시지는 않죠.”

“어머나, 정말 보기 좋으시겠어요.”

나는 그녀의 간드러진 감탄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로 그녀를 빤히 바라보자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언가 더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마담, 내 작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가 쥐를 잡으려 하는데, 덫이 필요해서 말이죠. 어머니의 인상착의가 사교계에 퍼지도록 실수인척 하며 초상화를 흘려주실 수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영애께서 주문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마담.”

“천만의 말씀을요. 저희 VIP 고객이신 걸요. 서비스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마담 아르스의 대답에 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만 가자, 타냐. 어머니가 기다리시겠어.”

“네, 알겠습니다.”

내 뒤에서 얌전히 대기하고 있던 타냐가 무거운 짐가방 두 개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간단히 챙기라 했는데 뭘 저리 바리바리 싼 거야. 드레스나 기본적인 것들은 영지에도 있는데.’

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텔레포트의 마법진을 짜기 시작했다. 나와 타냐의 발밑이 빛나면서 복잡한 마법진이 나타나자 마담 아르스는 잠시 놀란 얼굴을 보였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게 인사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영애.”

“...마담, 한동안은 일을 가려서 받는 게 좋을 거예요.”

“예, 조언 감사드립니다.”

마담 아르스는 그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평민의 몸으로 사교계와 밀접한 의상계에서 대성한 사람다웠다.

“텔레포트.”

시야가 어지럽게 흔들렸다 다시 안정되자마자 뒤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텔레포트를 처음 하는 타냐가 멀미를 하는 듯했다.

“괜찮니?”

“괜... 우읍!”

입을 틀어막으며 고개를 돌리는 타냐를 위해 멀미약을 한 알 건네자 그녀가 급하게 받아먹으며 속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나는 쓴웃음을 짓고는 가방을 들어 올렸다.

“아가씨, 제가 들게요!”

“속도 안 좋고 무게 때문에 휘청거리면서 무슨... 저택까지 열 발자국도 안 남았으니까 내가 들어줄게.”

“하지만...”

“내 가방 위에 토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하나 들던가.”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종종걸음으로 앞서 나간 타냐가 저택의 문을 두드리려 손을 뻗는데, 갑자기 문이 쾅 열리더니 안쪽에서 누군가가 튀어나왔다.

“우리 딸!”

내게 달려드는 어머니에게 밀려 넘어지지 않으려 다리에 힘을 주고는 어머니를 마주 안았다. 익숙한 체향이 너무나도 좋았다.

“얼굴 좀 보자, 시엘.”

어머니가 내 볼을 두 손으로 잡더니 눈을 맞췄다.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는 붉은 눈은 잠시 나를 살피더니 이내 가벼운 장난기가 서렸다.

“우리 딸, 엄마를 두고 잘 놀다 왔니? 아유, 볼 탱탱한 것 봐라.”

“우우, 암마...”

“심지어 완전히 돌아온 것도 아니고, 고작 일주일만 있다 또 수도로 올라간다며? 그 인간 많은 데가 뭐가 좋다고 붙어있니?”

“나두세여.”

“일주일간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지?”

“더 할 일 있능데...”

“어허, 자유를 되찾고 싶지 않나?”

“우음...”

끊임없이 내 볼을 조물딱 대던 어머니는 피부가 빨개질 때쯤이 되어서야 볼을 놓아주었다.

“시엘, 어서 오렴.”

“다녀왔습니다.”

이리스는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든 시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시엘은 전체적으로는 이리스를 꼭 닮아 있었으나, 꼭 다문 입매라던가 손발의 생김새는 아서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나만 아는 거지.’

두 사람을 꼼꼼히 본 이리스만이 알 수 있는 것, 이리스는 속으로 기분 좋은 웃음을 지으며 시엘에게 담요를 덮어 주었다.

“으음, 칼립스...”

“어머? 얘 좀 봐라?”

잠꼬대로 자신의 반려를 부르는 시엘을 보며 이리스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래, 좋을 때지.”

이리스 또한 시엘처럼 아서, 단 한 사람만을 보았던 때가 있었다. 물론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 반려였으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때와는 달랐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 행복이 계속될 거라 생각했어.’

어리석었다. 어리석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에 뛰어들긴 했으나 현실은 그보다 더 잔혹했다.

“처음부터 내가 다른 것을 버렸으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시간을 되돌려 뒤바꾼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상처로 남은 그 선택을 이리스는 여전히 후회하고 있었다. 이리스는 고개를 숙여 동그란 시엘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

익숙한 세 음절, 드래곤에게는 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세 음절만으로 버틸 수 있다 생각했었다.

“사랑해.”

그가 내뱉은 담백한 세 음절에 이리스의 눈이 휘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미풍에 긴 백금발이 흐트러지고, 아서는 손을 뻗어 그를 정돈해주었다. 태연한 듯, 이리스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준 아서는 대답을 기다리듯이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으음,”

잠시 고민하는 듯이 오물거리는 입에 키스하고 싶다 생각한 순간, 갑자기 이리스가 아서를 덮쳤다. 풀밭 위에 그를 눕히고 그의 입술에 짧게 입을 맞춘 그녀는 생긋 미소를 지었다.

“내 대답은 이거야.”

주체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에 아서는 이리스를 꽉 끌어안았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숲, 그리고 강하고 아름다운 연인. 아서는 모든 것을 얻은 것만 같았다.

부디 이 행복이 계속되길.

“너를 만나서, 참 다행이야.”

“왜?”

네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시작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낯간지러운 말까지는 차마 할 수 없었던 아서는 붉어진 자신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 슬며시 이리스의 눈을 가렸다. 이리스는 그런 그가 귀엽다는 듯이 까르르 웃었다.

“그거 알아? 드래곤에게 있어 반려는 일생에 단 하나 뿐이야. 반려와 함께하는 순간이 드래곤의 생에 있어 가장 최고의 순간이자, 진실한 때라고들 하지.”

“...”

“그래서 드래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해. 그것이 자신과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일수록 더더욱.”

“어째서?”

“반려가 곁을 떠나면, 드래곤은 호흡은 내뱉지만, 결코 산 것이라 할 수 없대. 그래서 자살하는 드래곤도 꽤 있어.”

“그건... 싫어.”

“걱정 마. 네가 죽어도 난 죽을 수 없어. 내게는 의무가 있거든. 히페리온이 내 자리를 물려받기 전까지는 난 살아있어야 해.”

이리스는 아서의 배 위에 올라타고는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거칠거칠한 감촉을 음미하던 그녀는 눈을 뜨고는 그의 황금색 눈동자와 마주했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어. 너를 사랑해도 좋은 것일까?”

“...”

“하지만 결국 고민해봤자였어. 평생에 단 한 번뿐이라면, 너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거든.”

“그거 영광이네.”

“당연하지! 이 몸을 평생 떠받들도록. 너를 위해 천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줬으니까!”

“기다린 거야?”

“음..., 솔직히 나는 카시의 후손과 사랑에 빠지리라 생각하진 못했어. 어찌 되었든 카시는 내 조카고, 너는 그 카시의 후손이니까. 따지면 나는 네 선조 격이지. 그래서 솔직히 좀 이상한 기분이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뭐, 드래곤에게 있어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카시는 우리가 사랑에 빠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야. 그 아이는 미래를 볼 수 있었으니까.”

“그거 진짜였어?”

“응, 천룡의 특수한 능력이래. 뭐, 그 아이는 비밀이 많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을 감추고 있겠지. 아무튼 카시가 나한테 말해준 적이 있어. 미래의 이모부를 위해 좋은 성을 준비해놨다고. ‘완전무결한’, 그게 네 이름이잖아.”

“정확히는 가문의 이름이지. 설마 그게 나를 위한 거였다니.”

“뭐, 어찌 되었든 우리의 만남은 천 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거 좋네.”

아서가 그렇게 말하자 그를 빤히 내려다보던 이리스는 그의 배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움직여 그의 귓가를 만지작거렸다.

“뭐해?”

“좋으면 더 좋은 거 해볼까?”

도톰한 귓불을 만지던 이리스는 손톱을 세워 그의 귓불에 손톱자국을 내었다. 아서가 아프다는 듯이 인상을 찡그리자 이리스는 웃으면서 말했다.

“건강에 좋대.”

그리고는 손을 내려 그의 목줄기를 쓸어내렸다.

“읏, 잠깐.”

아서가 미약한 신음을 흘리자 이리스는 후훗 웃으면서 본격적으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서는 그녀의 매혹적인 웃음에 홀려 몸을 맡겼다.

...

“요즘 정세가 불안하다, 아서.”

“휴전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

“맞아, 그러니 돌아와 주었으면 해.”

하인리히의 말에 아서는 작은 신음을 흘렸다. 이리스의 마음을 얻고, 행복에 취해 시간이 지나는 것에 무뎌져 있었다. 가문도, 제국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알겠어, 빠른 시일 내로 돌아가지.”

“그리고 연락 좀 자주자주 해라. 난 네가 드래곤한테 잡아먹힌 줄 알았잖아.”

“...미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그리고 수도로 올라가기 전, 영지에 잠깐 들려야 할 것 같아. 너무 오래 비워두었어.”

“맞아, 제발 좀 고모님한테 효도해라.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문을 지탱하신 분인데, 아직까지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속을 썩이고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끊는다.”

혀를 차며 통신구를 끈 아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낡은 나무의자가 삐걱거렸다.

“하, 이리스한테는 뭐라 말하지?”

‘다음번에 돌아오면 널 묶어다가 결혼식장에 던져 넣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신부는 널 두들겨 패서 갱생시킬 만한 아이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본 어머니는 화병을 던지면서 야차처럼 그에게 소리쳤다. 으스스 소름이 든 그는 팔을 문지르며 여관을 나섰다.

“이리스!”

아서는 팔을 크게 휘두르며 저 멀리서 다가오는 이리스를 불렀다. 평소였다면 그에게 달려들었을 이리스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아서는 고개를 갸웃하다 그녀에게 다가갔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서.”

“응?”

“나랑 혼인해줄래?”

“...”

그녀의 청혼에 잠시 멍하니 있던 그는 이내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는 신음을 흘렸다.

“아, 진짜.”

“싫어?”

“아니! 좋아. 좋은데...”

“그런데?”

“선수를 빼앗겼잖아.”

푹하고 한숨을 내쉰 아서는 품속에서 반지를 꺼냈다.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반지를 이리스의 손에 끼워준 아서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디, 저와 혼인해주십시오.”

“그래, 그러자.”

아서는 행복을 감추지 못하고 환하게 웃었다. 이리스는 의미모를 미소를 짓고는 그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인간들은 신전에서 혼인을 맺는다지?”

“음, 제국민은 대부분 파툴키우스 신전에서 신관의 주도 하에 혼인을 하고, 서약서를 받지.”

“서약서? 그거 중요한 거야?”

“뭐, 부부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니까.”

“그래? 그럼 이 근처에 파툴키우스 신전이 있나?”

“산 아래, 마을에 작은 신전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기왕이면, 나와 함께 인테제르 영지에 가서 식을 올리자. 어머니께 우리가 혼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그건 무리야. 나는 이 시스톨레 산맥에서 벗어날 수 없어.”

“...뭐?”

“내가 드래곤 로드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드래곤 로드의 의무는 시스톨레 산맥의 결계를 지키는 것, 난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 그러면 왜 내 청혼을 받아준 거야?”

“인간들의 사회에서는 법적인 혼인관계 외에서 태어난 자식을 배척한다지? 난 내 아이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

“뭐?”

아서의 되물음에 이리스는 평온한 얼굴로 말했다.

“나 임신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네가 데리고 떠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아이를 위한 거야.”

“그게 어떻게...”

크게 소리를 지르려던 아서는 간신히 목소리를 줄였다. 임산부에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그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우리 아이를, 나를 그렇게 쉽게 버리겠다 말할 수 있어?”

“미안해.”

“적어도 나는 버려도 아이는 버리지 말아줘. 떠나라고 하면 떠날게. 만나고 싶지 않겠다 하면 만나지 않을게.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엄마인 당신이 있어줘.”

“그렇게 쉽게 끝나는 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난 이 아이가 평범한 인생을 살길 바라. 아스타가 말해줬어. 이 아이는 카시스의 뒤를 이은 새로운 천룡이라고.”

“...뭐?”

“천룡으로 산다면, 하프 드래곤으로 산다면 많은 고통이 따를 거야. 난 바라지 않아. 그러니 나는 곁에 있어줄 수 없어. 내가 곁에 있는다면, 이 아이는 결국 천룡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

“이리스.”

“어쩌면, 의무고 뭐고 다 버리고 너와 함께 갔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카시스가 피에 젖은 채 아스타 품에 안겨서 우는 것을 몇 번이나 봤어. 마지막엔 모든 걸 얻었다고? 아니, 카시스는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걸 얻고도 늘 자신의 운명 때문에 괴로워했어. 나는 이 아이가 괴로워하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거야.”

한 줄기 눈물이 이리스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카시스는 전부 알고 있었어.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운명에서 도망칠 방법까지 마련해줬어. 드래곤의 피를 봉인하고 평생 동안 드래곤과 접촉하지 않으면,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 헤어지자.”

“이리스.”

“부탁이야. 제발... 이 아이를 지켜줘. 비록 나는 곁에 있어줄 수 없더라도, 너는 이 아이 곁에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까지... 지켜봐 줘.”

그녀의 눈물을 처음 본 아서는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어깨를 떨며 우는 자신의 연인을 품에 안았다.

“차라리 내가 너와 같은 드래곤이었다면, 그래서 태어날 아이도 완전한 드래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 혼인하자. 지금 바로 마을로 내려가서 혼인식을 올리자.”

“...”

“그러니까 웃어줘.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줘. 우리 아이가 우리에게 와준 날이잖아.”

“사랑해, 아서.”

“나도, 너와 우리 아이 모두를 사랑하고 있어.”

“나, 아서 드 인테제르는 하늘에 고한다. 이리스를 아내로 맞아 가정을 꾸리고,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사랑하는 연인에서 이제는 가족이 될 아내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을 맹세한다.”

“아아아!”

산실 안에서 이리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리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길로 신전에 가서 혼인식을 올린지도 벌써 팔 개월이었다. 팔 개월 간의 짧은 행복이었다. 빨리 돌아오라 재촉하고, 또 재촉하는 하인리히에게 사정을 해가며 얻은 시간. 아서는 그동안 이리스와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하기만을 바랬다.

‘나쁜 아버지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는 하지만, 네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시간이 너무 완벽해서 네가 언제까지고 이리스의 배속에 있길 바랐다.’

하지만 이리스는 진통을 시작하였고, 아서는 산실 밖에서 혼인식 때의 맹세를 계속 중얼거리며 끝없이 기다렸다.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더 이상 이리스의 고통 어린 비명을 듣고 싶지 않아 빨리 아이가 건강히 나와 주기만을 기도했다.

“아악!”

마지막 비명을 끝으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서는 천천히 문으로 고개를 돌렸다.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이 그를 덮쳤다.

“들어와요.”

그렇게 또 한참으로 기다리고, 문이 작게 열리면서 이리스와 똑같은 얼굴을 한 아스타르테가 말했다. 아서는 산실 안으로 들어가자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이리스가 보였다.

“이리스.”

“아서.”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야 잠깐 자면 금방 회복돼. 그것보다 이리 와서 아이 좀 봐. 너무 예뻐.”

그녀의 품에 안겨 입을 오물거리고 있는 아이는 너무나도 작고 새빨갰다. 몇 가닥밖에 없는 하늘색의 머리카락은 드넓은 창공의 색깔이었다.

“당신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어.”

아서의 말에 이리스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쉽게도 당신보다는 나를 더 닮았더라고. 카시스가 그려놓은 그림을 봤는데, 진짜 나랑 똑같이 생겼지 뭐야.”

“다행이다. 당신을 많이 닮아서...”

아서는 벅차오르는 기쁨과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별의 시간이었다.

“아스타르테.”

이리스는 아무 말 않고 어깨를 떨며 눈물을 삼키는 아서를 보다 아스타르테를 불렀다. 아이를 건네받은 아스타르테는 봉인 마법을 펼치기 시작했다.

“아이 이름은 시엘로 하자.”

“시엘?”

“고어로 하늘이라는 뜻이야. 원래였다면 그런 이름은 피했겠지만, 그러기에는 저 하늘색 머리카락이 너무 예쁜걸.”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아서는 어느새 잠든 시엘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린 시엘의 동그란 이마에는 드래곤의 피를 봉인하는 마법진이 빛나고 있었다.

“마법진은 시간이 지나면 안 보이게 될 거예요. 눈동자 색 또한 붉은색이 아닌 다른 색을 띠게 될 겁니다.”

“다른 색 말입니까?”

“네, 황금색이에요. 당신을 닮은...”

“나를 닮은...”

아스타르테에게서 시엘을 받아 든 아서는 시엘의 머리를 받치기 위해 아스타르테가 가르쳐 주는 대로 어깨를 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스타르테는 고저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떠나세요.”

“네? 벌써... 말입니까? 적어도 며칠, 아니 하루만 있다가.”

“아이가 가는 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보호 마법을 걸어 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들과 너무 많이 접촉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드래곤의 피가 날뛸 테니까요. 바로 떠나세요. 아이를 도와줄 이를 우연하게 만날 겁니다.”

“하...”

“몸이 약할 겁니다. 잔병치레도 자주 하고, 본래 가져야 했던 재능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야겠죠.”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평범한 인간으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이리스는 알고 있습니까?”

“아직은 몰라요.”

“...그게 정말로 시엘을 위한 겁니까?”

“그것도 몰라요, 하지만 이 아이가 천룡의 생을 산다면 이 아이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대신 받아내야 하겠죠.”

“...”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신의 고통만을 감당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내 아들이 한 말이에요. 나도 자세히는 몰라요.”

아스타르테가 아서의 짐과 시엘에게 필요한 물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지쳐 잠든 이리스의 입술에 키스하고는 슬픈 목소리로 작별을 고했다.

“안녕, 이리스. 사랑해.”

...

“아앙! 으아앙!”

“쉬, 착하지. 시엘.”

작은 승합 마차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지자 다른 이들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시스톨레 산맥 근처 오지 마을에서는, 마차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승합 마차를 겨우 얻어 탈 수 있었다.

‘말도 두고 올 수밖에 없었고.’

영지에 도착하는 대로 말을 되찾으러 사람을 보내야 했다. 전장에서 함께한 애마를 두고 온 것이 착잡했다.

‘어쩔 수 없어. 말을 타고 가면 시엘에게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질 테니까.’

“아우아! 아으!”

시엘이 작은 손으로 아서의 은발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다. 아서가 머리를 잡힌 채 쩔쩔매자 가만히 보고 있던 한 중년 여성이 그에게 말을 건넸다.

“딸이우?”

“예? 예.”

“태부터가 남다르구만. 크면 미인이 될 거야. 반짝반짝한 아빠를 닮았나?”

“아니오. 엄마를 닮았습니다.”

“그렇구만. 애 엄마는?”

아서가 가만히 입을 다물자 중년 여성은 한숨을 내쉬고는 손을 내밀었다.

“아직 초보 아빠라서 애 안는 것이 어설프구만. 그러니 애가 불편하다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지. 이리 줘 봐요.”

잠시 망설이던 아서는 시엘이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자 마지못해 시엘은 건넸다. 능숙하게 시엘을 받아 든 중년 여성은 곧 몸을 작게 흔들며 시엘을 어르기 시작했다.

“어디까지 가는 길이우?”

“유피테르 제국, 인테제르 영지입니다.”

“잘 되었구만. 나랑 아들놈은 수도로 가는 길이니 가는 길까진 도와 드리리다.”

“가, 감사합니다.”

“아유, 엄마도. 그놈의 오지랖은.”

“야, 이놈아. 너는 이런 적 없었는 줄 알아? 넌 더 심했어.”

“네, 네.”

아들로 보이는 한 청년이 머리를 긁으며 잔소리를 피하다 아서의 검에 시선을 돌렸다.

“용병?”

“아니오. 기사이오.”

“하긴, 용병치고는 얼굴에 귀티가 흐르네. 내 살면서 이렇게 예쁜 남자 처음 보네.”

“큼...”

“아가야, 어떡하냐. 네 아빠 때문에 시집 못 가게 생겼다. 눈이 높아져서... 악!”

“입 좀 다물어라.”

“하하.”

아서가 낮은 목소리로 웃자 시엘 또한 까르르 웃었다. 중년 여성은 그 모습을 보고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보니 눈은 아빠를 꼭 닮았네.”

“예.”

“근데 왜 이런 갓난애를 데리고 먼 길을 가슈?”

“어머니가 고향에 계십니다. 아이 엄마와... 헤어지고, 혼자서 북쪽에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곧 있을 전쟁에 참전해야 합니다.”

“쯧쯧, 결국 전쟁이 벌어진다고?”

“그렇겠지요.”

“목숨 귀히 여기슈.”

“그럴 생각입니다.”

“에이, 엄마도 참. 제국, 그것도 저 양반이 가는 인테제르 영지에 소드마스터가 있는 거 몰라? 혼자서 성을 무너뜨린다던데?”

“이놈아, 그래도 전쟁이면 사람이 죽기 마련이야.”

“맞는 말씀입니다.”

“참, 그러고 보니 그 소드마스터 본 적 있소? 기사면 영주님 얼굴 한 번은 봤을 거 아뇨?”

아서는 잠시 뭐라 해야 할지 고민했다. 본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아서는 결국 거울 볼 때마다 보는 얼굴이니까 하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진짜 키가 2미터는 되고, 근육질에다가 야차 같은 얼굴이오?”

내가 왜 그렇게까지 괴물이 되었지? 그리고 아들의 묘사처럼 생긴 자신의 부하 기사를 생각하다 아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소드마스터면 사람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랑 하나 못 지키는... 평범하고도 무력한 사람.’

“그리고 헛소문을 주워들으신 모양이군요. 후작님은 경국지색이라고 불리셨던 레이엔타 황녀 전하의 외모를 물려받았습니다.”

묘하게 아서의 목소리의 어조에 힘이 들어가자 청년은 무안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이제 잠들었네. 애기 아빠가 안아줘요. 버릇이 들어야지. 머리 받치고, 그렇게.”

불편한 듯, 잠시 얼굴을 찡그렸던 시엘은 아서가 자세를 바로 하자 이내 평온한 얼굴로 단잠에 빠져들었다. 아서는 시엘이 깰까 봐 그 자세 그대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기 이름이 뭐예요?”

“시엘입니다.”

“시엘? 특이한 이름이네.”

“고어로 하늘이라는 뜻이지요. 아이 엄마가 이 하늘색 머리카락을 보고 지어 주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이참에 통성명이나 해요. 한참은 같이 가야 할 텐데. 난 데네브, 이쪽은 우리 아들 케일.”

“아서입니다.”

“아이를 도와줄 이를 우연하게 만날 겁니다.”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초대 황제 폐하.’

...

아서는 뜨거운 물에 쌀가루를 넣고 휘휘 젓기 시작했다. 끈기가 생길 때까지 한참을 끓여야 했다.

‘이제 겨우 국경선인가. 영지에 도착하기만 하면 바로 젖어미를 구해야겠군.’

어린 시엘에게 계속 암죽만 먹이는 것이 못내 미안했다. 차라리 승합 마차 중에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낙이라도 있었으면 돈을 주고 젖동냥이라고 했을 텐데.

“후, 후.”

한 끼 먹을 분량을 남기고 암죽을 예비 물통에 담은 아서는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으면서 죽을 식히기 시작했다. 아스타르테가 쌀가루를 많이 챙겨주어서 한동안은 걱정 없을 듯했다.

“내가 먹일 테니까 아기아빠도 밥 좀 먹어요. 잘 먹어야 버티지.”

아서가 죽을 끓이는 사이 시엘을 봐주고 있었던 데네브가 죽그릇을 빼앗듯이 들고 갔다.

“부, 부인.”

“난 먼저 대충 먹었어요. 가서 우리 아들내미랑 같이 먹어.”

한쪽 구석에서 빵을 뜯고 있던 케일이 손을 흔들었다. 아서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로 다가가 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엘 쪽으로 계속 고개를 돌리자 잠자코 밥을 먹던 케일이 입을 열었다.

“그냥 맘 편히 먹으쇼. 아부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엄마가 홀로 날 키워가지고 오지랖이 넓은 거니까.”

“나도 그렇소. 해서 부인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는군. 닮았거든.”

“허이구, 우리 엄마같은 어머니를 두셨다니 참으로 안 됐구만. 무슨 일만 있으면 등짝부터 때리는 분인데.”

“...차라리 그게 낫지. 내 어머니는 화병을 집어던지시는데.”

“그건 대체...”

“하하, 조금 무서운 분이오.”

케일과 대화를 나누며 말고기 육포를 뜯던 아서는 돌연 손을 멈췄다. 고개를 휙 돌린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서의 허리춤에 달려있던 검이 철그럭 소리를 냈다.

“포위되었군.”

“응?”

“케일, 자네는 당장 어머니를 모시고 마차 안으로 들어가게. 내 딸아이도 잠시 부탁하지.”

“갑자기 무슨...”

“빨리!”

아서의 고함에 케일이 얼떨결에 벌떡 일어났다. 저마다 밥을 먹던 사람들의 시선 또한 몰렸다.

“모두들, 행동을 멈추고 당장 일어나시오! 노인과 여성, 아이는 마차 안으로 들어가고, 무기를 가진 자는 앞으로! 없는 자는 몸을 보호할 만한 것을 찾으시오.”

“뭐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요?”

마차를 이끌던 마부가 아서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아서는 검을 꽉 쥐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합 서른일곱, 살기등등한 데다 말을 타고 포위를 좁혀오고 있소. 아마 도적떼겠지. 도망치는 것은 이미 글렀으니 싸우는 수밖에.”

“그게 무슨...”

“땅에 귀를 가져다 대보시오. 이미 가까워져서 땅이 울리기 시작했으니까.”

마부가 땅에 손을 대 보더니 창백해진 얼굴로 크게 외쳤다.

“어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노약자는 마차 안으로 들어가시오! 도적떼입니다!”

그제야 아서의 말에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케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서의 옆에서 단도를 쥐고는 주위를 연신 살폈다.

“진짜,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

“들어가 있지.”

“됐소. 안 그래도 남자는 얼마 없는 마당에 나만 들어가 있을 수 있나.”

케일이 짐짓 용감한 듯이 말하자 이서는 픽 웃었다. 단검을 너무 세게 쥔 탓에 케일의 손이 새빨개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내들은 마차를 둘러싸고 지키시오. 마차만 지켜준다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어떻게 혼자서...”

“걸리적거리지 말라는 소리다.”

아서의 기백에 눌린 이들이 주춤거리며 마차를 에워쌌다. 아서는 검을 가볍게 한 번 휘둘렀다.

“흠.”

‘국경에 가까워졌는데 하필이면...’

캉!

마차를 향해 날아오던 화살을 쳐낸 아서가 눈을 가늘게 떴다. 아무래도 마차를 수비 범위 내에 두려다 보니 행동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엘을 놔두고 한눈을 팔 수도 없는 노릇.’

뒤이어 날아온 몇 발의 화살을 마저 쳐내고는 단도를 뽑아 오러를 실은 후 투척했다. 무언가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주위 도적들의 동요하는 소리가 들렸다.

‘흐트러졌군. 역시 도적떼에 불과한가.’

이미 제국과 레아스 왕국은 전쟁 분위기로 고조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총사령관인 자신이 이렇게 무방비하게 국경을 건넌다는 것은 왕국에게 무척이나 큰 틈을 보이는 행위였다.

“전쟁... 인가.”

“어떤 새끼야!”

아서가 잠시 상념에 빠져 있는 사이 도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인을 잃은 말 한필까지 함께.

“뭐야, 칼잡이가 있었나? 짜증 나게.”

“경고한다. 물러나라.”

아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적들은 저마다 시시덕거리며 그를 비웃었다. 아서는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다 다시 한번 말했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 물러나라.”

“이봐, 머릿수를 보고 말...”

도끼를 어깨에 지고 있던 도적의 말을 채 끝나지 못했다. 아서가 검을 한 번 휘두르자 도끼와 함께 그의 코 위로 잘려나갔기 때문이다.

“우, 우와아악!”

“이런 미친...”

“저 새끼, 중급이야!”

“으아앙!”

도적들의 비명에 놀랐는지 마차 안에서 시엘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잠시 마차 쪽으로 고개를 돌린 아서는 미간을 좁히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물러나라 그러지 않았나. 내 딸아이가 울잖아.”

“뭐?”

“시엘이 울지만 않았어도 살려서 보내줄 용의가 있었는데... 안 되겠다.”

도적들이 도륙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로 충분했다. 단잠을 자던 시엘을 깨워버린 것.

“우웨엑...”

케일은 옆에 있던 마부가 역겨움을 견디지 못하고 토사물을 뱉어내자, 똑같이 구역질을 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마치 주위로 빙 둘러서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다.

“넷, 다섯...”

피범벅이 된 손으로 태연하게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도적들의 머리를 세고 있는 아서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분명 자신의 딸과 있을 때는 어쩔 줄 몰라하면서도, 사랑스러워 미치겠다는 눈으로 딸을 내려다보던 다정한 그의 눈은 날카롭고도 싸늘했다.

“끄, 끝났니?”

“엄마, 나오지 말아요.”

“서른일곱.”

마지막 도적의 수까지 센 아서가 뒤를 돌자 케일은 흠칫하며 한걸음 물러났다. 아직까지 살기가 갈무리되지 않은 상태의 아서를 정면으로 바라보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군. 시엘은 다시 자나?”

“아...”

마차를 살짝 걷어 데네브의 품에 안겨 도롱 도롱 자고 있는 시엘을 확인한 케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군.”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마차로 다가가던 아서는 케일이 흠칫하자 걸음을 멈췄다. 그러고는 피가 엉겨 붙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는 곤란한 듯이 물었다.

“아무래도 이 모습으로 시엘을 안는 것은 좋지 않겠지?”

케일이 열성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아서는 검을 한번 휘둘러 피를 털고는 집어넣었다.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압감이 줄어들자 케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서는 씻기도 힘들고... 어떡한다.”

“그, 그 반나절만 더 가면 국경마을이긴 합니다.”

“이 꼴로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지 않은가.”

‘오랜만이라 조금 심하게 날뛰었고 말이야.’

아서에게 있어서는 피와 시체는 익숙한 것이었다. 전쟁을 겪고 나면 모두가 똑같아진다.

‘하지만 이 모습을 시엘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그 아이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만, 언제나 좋은 모습만을...

“그러고 보니 오는 길에 작은 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방 다녀오도록 하지. 먼저 국경 마을로 향하고 있으시오.”

“도, 도적들이 또 나타나면 어찌합니까?”

“뭐, 기감을 펼쳐도 주위에 인기척은 없으니 괜찮을 것이오.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걸 터뜨리시오. 내 십분 내로 달려올 테니.”

아서가 던진 화약탄을 받아 든 마부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서는 어깨를 한번 돌리고는 뛰기 시작했다.

“아, 잠깐! 샘은 마차로 세 시간 거리...”

“한 시간 내로 돌아오도록 하지! 먼저 출발하시오!”

눈 깜짝할 사이에 작은 점이 된 아서를 케일은 멀거니 바라보았다. 검을 들고 있기에 그저 기사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저렇게나 강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다.

“얼굴은 곱상하게 생겨서는...”

사람은 역시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

...

“우루루, 시엘. 여기 봐라.”

“아우, 부!”

“바보 같다. 그만 해라.”

“마아!”

“봐라, 시엘도 맞다고 수긍하잖니.”

“엄마도 진짜, 애가 옹알거린 거 가지고 맞아는 무슨.”

케일이 볼멘소리를 내뱉자 시엘이 까르르 웃었다. 그 모습에 데네브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예쁘구나. 역시 딸을 낳았어야 했어. 시커먼 사내놈이 아니라.”

“나, 나도 어릴 땐 예뻤다면서!”

“지금은 안 예쁘잖아.”

“으음...”

“이 아이는 미인이 될 거야.”

“헤에..., 근데 역시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아빠가 하도 무시무시한 사람이라서.”

“무시무시하다니?”

“도적들을 전부 아서, 그 사람이 물리쳤다고 말했잖아. 꿈에 나올까 무섭다.”

“...”

“다 죽었어, 순식간에. 그리고 바보같이 실실 웃으면서 딸밖에 모르는 양반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래.”

“역시 사람은 겉만 봐서는 안 되지?”

“당연하지. 하지만, 자기 소중한 사람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야.”

“우아?”

“아이고, 아가. 침 좀 그만 흘리렴.”

시엘의 입가를 닦아준 데네브는 마차 안을 살폈다. 데네브는 케일의 말대로 마차에서 아예 나가지 않았지만 호기심에 잠시 밖을 살폈던 몇몇 여인들이 창백한 얼굴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저기요, 마부 양반.”

“무슨 일입니까?”

“잠시 쉬었다 가지요. 사람들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이 정도 왔으면 잠시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기 아빠도 기다려야 하고.”

마부는 불안한 눈치였으나 마차 안 사람들의 침묵에 어쩔 수 없이 마차를 멈췄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시작한 지 사십여 분 만이었다.

“아아.”

한바탕 자고 일어나 시엘은 기운차게 옹알이를 했다. 알아듣지도 못할 옹알이를 일일이 받아주던 데네브는 마차의 바퀴 자국을 따라 지나온 길로 시선을 돌렸다.

“으으, 으아앙!”

“그래, 그래. 배고프지? 밥 먹자.”

배고픔에 울어대는 시엘을 어른 데네브는 수통에서 암죽을 조금 덜어냈다. 꿀떡꿀떡 잘 삼키는 시엘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너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건만 참 다사다난 하구나. 엄마 젖도 못 먹고, 이리 고생하면서.”

“에에...”

“이제 그만 먹게?”

시엘의 입가를 닦고 등을 두들겨주던 데네브는 저 멀리서 다가오는 먼지구름을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저게 뭐니?”

“아아, 왔네.”

어느 정도 모습이 보이자 속도를 늦추고는 망토의 흙먼지를 툭툭 턴 아서가 미소를 지으며 곧장 시엘에게로 다가왔다. 트림을 한 시엘은 말간 눈으로 아서를 바라보았다.

“시엘.”

“아아!”

아서를 보자마자 팔다리를 휘젓던 시엘은 데네브의 품에서 벗어나자마자 얌전해졌다.

“요즘 아주 시끄러워졌네. 건강한 아이로 자랄 거요.”

“...그, 렇습니까?”

미묘하게 말을 흐리는 아서로 인해 데네브는 고개를 잠시 갸웃거렸다. 어쩐지 아서의 표정이 씁쓸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부인, 수도로 가서 장사를 하신다 하셨지요?”

“그래야지, 아들놈 색시도 찾아줘야 하고.”

“혹시 인테제르 영지로 오실 생각은 없습니까?”

“...네?”

“지낼 곳도, 돈도 부족하지 않게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영지에서 기반을 잡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저희 시엘이 조금만 더 자랄 때까지 돌봐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걱정 마십시오. 유모와 젖어미는 따로 구할 것입니다. 그저 시엘을 돌보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아이가 놀랄까 봐 그럽니다. 원하지 않으시다면 몇 달만이라도 좋으니...”

“이봐, 아서.”

케일이 아서의 말을 잘랐다. 아서가 그에게로 시선을 돌리자 험악한 얼굴을 한 케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어째서, 곧 전쟁 날 나라로 가는 줄 아쇼?”

“...”

“도망치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 때문에. 장사는 핑계고.”

“그게 무슨 소리지?”

“빌어먹을 상황이지. 우리 아부지는 용병 겸 뒷골목에서 사는 돼먹지 못한 양반이었고, 위험한 일에 말려들어 죽었소. 그것 때문에

엄마랑 나는 평생을 쫓겨 살았고. 아니 지금도 쫓기고 있소.”

“그렇군.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혼란스러워질 제국의 수도에 몸을 숨길 생각이었다고. 그러니 같이 가주지는 못할 것 같군. 호의는 고맙소.”

“쫓기지만 않으면 문제없는 건가?”

“뭐?”

“언제까지 도망 다니며 살 수 있는 노릇도 아니잖소?”

“칼 꽤나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오. 아버지가 어디다 숨겨 놓은 건지 모르는 자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금? 그러면 더더욱 편하겠군. 얼마지?”

“뭐?”

“돈이 문제라면 내가 대주도록 하겠소. 뭐, 나라 하나를 살 정도의 돈이 아니면 문제는 없지.”

“...대체.”

“왜 그러는 거요?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데네브가 의심 어린 눈빛으로 아서에게 물었다. 그러나 아서는 티끌 하나 묻지 않은 듯한 맑은 얼굴로 대답했다.

“내 딸을 위해서.”

...

“다녀오셨습니까, 주인님.”

집사를 필두로 한 사용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아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인사를 받았으나 케일과 데네브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우, 우아!”

“자, 시엘. 집에 왔으니 짜증은 그만 부리렴.”

얌전히 아서의 품에 안겨 있던 시엘이 짜증을 부리자 아서가 그를 얼렀다. 그러자 집사의 눈이 커졌다.

“그... 아기씨는?”

“내 딸.”

“사고 치셨습니까?”

“사, 사고 아니야! 정식으로 혼인해서 낳은 거야.”

“허면 마님은 어디 계시는지요?”

“그, 시엘을 낳다...”

“...그렇군요. 허면 빨리 아기씨의 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저분들은?”

“아아, 여기까지 오면서 시엘을 돌봐주는 것을 도와준 사람들이야. 내 손님이니 잘 대해줘. 시엘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데네브 부인에게 맡길 생각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오수 중이십니다. 큰마님께서 깨어나시지 전에 목욕과 식사를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아니, 식사는 어머니랑 함께...”

“최후의 만찬은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마님께서 주인님이 오시는 걸 알고 창을 손질하고 계시더군요.”

“...”

“승낙으로 알고 식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제르 영지저의 집사, 노아는 예법에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자신을 골리는 것임을 모르지 않는 아서는 착잡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럴 만도 하지.’

거의 일 년 반 만이었다. 아서는 시엘을 하녀에게 맡기고 방으로 올라갔다. 익숙한 듯 어색한 방의 풍경에 그는 눈을 감았다.

“이리스.”

‘너와 이곳에서 함께 살고 싶었는데.’

“주인님, 목욕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아서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다. 안온한 감각이 몸을 감싸고, 그는 잠시 그 편안함을 즐기다 통신구를 꺼냈다.

“하인리히.”

황제 직통의 통신구가 몇 번 깜박이더니 금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아서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야, 이 개자식아!”

“아이고.”

통신구 너머로 들려오는 큰 소리에 아서는 귀를 막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잠시 헉헉거리며 숨을 내쉬던 하인리히는 아서가 슬그머니 손을 내릴 쯤에 다시 크게 소리 질렀다.

“너 진짜 죽여 버린다!”

“예, 예. 폐하. 소신은 폐하의 손에 목이 떨어지기 전에 어머니의 창에 꿰뚫려 죽을 팔자이옵니다.”

“하, 영지냐?”

“그래. 방금 도착했다.”

“1년, 내가 1년 동안 전쟁 막으려고 별 짓을 다했다.”

“미안.”

“이게 미안 한 마디로 될 것 같아? 전쟁터에서 제대로 구를 줄 알아라.”

“그래, 주군께 승리를. 전쟁은 확실히 내가 책임지고 끝낼게.”

“대체 뭐하다 온 거냐?”

“아..., 혼인했어. 그리고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태어나는 것까지는 보고 싶어서.”

“혼인? 아이?”

“맞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쁜 딸이야.”

“부인은 함께 온 거냐?”

“아니. 아이를 낳다 죽었어.”

“...”

“아이 엄마는 죽었지만, 내 딸은 적자다. 적법한 혼인 관계에서 낳은 거야. 그렇게 알아두고 서류 준비해줘. 이번에 수도 올라가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출생신고도 하고 계보에 올리게.”

“부인이 귀족이 아니었나.”

“귀족은... 아니지.”

“골치 아파지는군. 그래, 알았다. 최대한 빨리 올라와라.”

“그래, 가능한 한 빨리 갈게.”

통신이 끊어지고, 아서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한 번 쓸었다. 용건만 전달하기는 했지만, 하인리히의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자신과 시엘의 처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그도 아서도 잘 알고 있었다.

“촤악!”

물을 한 번 머리 위로 끼얹고 아서는 몸을 닦았다. 습기가 그의 시야를 흐렸다.

“집사!”

“예, 주인님.”

“역시 식사는 어머니와 함께 해야겠다. 그리고 시엘은?”

“아기씨는 목욕 중이십니다.”

“그래, 빠른 시간 안에 젖어미를 구해줘. 방은... 내가 어릴 적 쓰던 방으로 준비하고.”

“...괜찮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인테제르가의 유일한 적자다. 괜찮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지?”

한순간에 날카로워진 아서의 기운에 노아는 고개를 숙였다. 노아가 물러가고 아서는 머리를 마저 털었다.

‘...우선은 시엘의 정통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 먼저야. 괜찮아, 혼인증명서가 있으니 파툴키우스교에서 시엘을 인정해줄 거야. 국교의 인정을 받으면 큰 문제 될 것은 없어.’

“다 잘 될 거야.”

아서는 그렇게 되뇌며 영지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의 발목을 붙잡는 불안감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

날카로운 창끝이 식탁의 중앙을 갈랐다. 그로 인해 깨진 접시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아서는 오러로 자신과 시엘을 보호했으나 큰 소리는 막을 수 없었기에, 소리에 놀란 시엘이 울음을 터뜨렸다.

“으아앙!”

“어머니, 고정하십시오. 시엘이 울지 않습니까.”

아서의 말에 기가 찬 레이엔타는 이를 우득 갈았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나 있느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혼인을 하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께 알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리석은 놈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 모든 것을 네가 원했고, 책임지고 한 일이 맞아?”

“물론입니다. 제 아이를 제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다. 제게 사랑을 가르쳐주신 것은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아서의 거침없는 대답에 레이엔타는 움찔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지친 몸짓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고는 아서의 품에 안긴 시엘을 바라보았다.

“이리 줘 보렴. 한 번 안아보자.”

아서가 시엘을 넘겨주자 익숙하게 그를 넘겨받은 레이엔타는 우는 시엘을 달래기 시작했다.

“미안하구나, 아가. 할미가 놀라게 했지.”

“히잉, 흐끅!”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시엘의 눈은 맑은 황금색이었다. 자신, 그리고 아들과 똑같은 빛깔을 눈을 본 레이엔타는 미소를 지었다.

“눈은 너를 닮았구나.”

“예.”

“아서, 이 어미가 욕심이 많다는 것은 너도 알고 있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한때 황제가 되고 싶었고, 그리 될 힘과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유일한 적통 황녀였으며, 황제가 되기 위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까지 했지.”

“...”

“유력한 후보였던 몇몇 형제들은 전쟁으로 죽거나, 혹은 내가 죽였다. 이 어미가가 제국 최초의 여황이 되리란 것을 그 누구도 의심치 않았지. 하지만 나는 제국을 눈앞에 두고 사랑을 택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제국보다 더 욕심이 났던 것은 네 아버지였으니까. 후회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내 욕심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만족했고, 때문에 너에게 사랑을 가르쳤다.”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레이엔타는 자신의 아들과 손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의 이름이 시엘이라고?”

“예, 고어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예쁜 하늘색 머리카락을 보고 이리스, 제 부인이 지어주었습니다.”

“잘 지었구나. 초대 황제폐하의 색깔이야. 한 번도 보지 못한 며느리지만 좋은 사람이었겠지.”

“아우.”

“어머니, 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혼자 남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니까.”

레이엔타의 말에 아서는 비로소 무너져 내릴 수 있었다. 아서는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는 레이엔타의 다리에 얼굴을 묻었다.

“시엘이, 제 딸이 너무 가여워서, 미안해서. 그녀를, 이리스를...”

“그래.”

“저는 아버지입니다. 이제, 이제.”

두서없는 아서의 말에도 레이엔타는 가만히 아들의 어깨를 도닥였다. 두 자루의 검 사이에 핀 맨드라미, 인테제르 가문의 문장을 보며 레이엔타는 공허한 물음을 던졌다.

“너에게, 사랑을 가르친 것이 잘한 일이었을까?”

“폐하, 인테제르 후작이 당도하였습니다.”

“들라하라!”

아서는 곧장 걸어와서는 기사식 인사를 하였다.

“나의 주군, 황제 폐하를 뵙습니다.”

“어서 오게, 후작.”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하하, 아서, 네가 그런 걸 묻다니. 내가 너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잤다.”

“미안.”

“됐고,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자. 자리에 앉아.”

아서가 자리에 앉자마자 하인리히의 보좌관이 그의 앞에 두꺼운 서류더미를 내려놓았다.

“군에 관한 모든 것이다. 빨리 읽고 네가 지휘하기 편하게 재편성해. 이 주 주지.”

“와아, 자비 없네. 고작 이 주?”

“이 주도 빠듯해. 지금 국경은 완전 교착상태라고. 전면전으로 들어가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지. 참, 여기 내 혼인증명서와 시엘의 출생증명서이다. 둘 다 파툴키우스 교에서 공인받은 거니까 처리해줘.”

“그래, 부인 사망 일자가 정확히 언제냐?”

“시엘이 태어난 날과 같아.”

“...그래, 유감이다. 이건 내가 처리해줄 테니 이만 나가봐.”

“고맙다, 하인리히.”

아서의 보좌관이 서류뭉치를 챙겼고, 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칫하고는 황제의 의자 뒤 벽면에 걸려있는 초상화를 올려다보았다.

“왜 그래?”

“아니, 아니다.”

하인리히는 아서가 시선을 준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서는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초상화 속 여인을 그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이내 체념한 듯이 등을 돌렸다.

“아서.”

“왜?”

“아니, 그냥 불러봤어.”

그냥이라고는 말했지만 사실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서의 쓸쓸한 뒷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기운 내라.”

“그럼 서류 좀 줄여줘.”

“일해.”

아서의 푸념을 가차 없이 끊어버리고 그를 쫓아낸 하인리히는 눈앞에 놓인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읽었다.

“날짜가... 애매하군. 이 자식 사고 친 거야? 아니면 칠삭둥이인 거야?”

섣불리 물어보기에는 예민한 문제였다. 하인히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눈이 빠지도록 바쁜 나날 때문에 자주 두통이 일었다.

“아, 몰라. 일단 계보에 올려놓으면 알아서 하겠지. 이거 처리하고. 국경선의 군 배치는...”

똑똑, 하인히리가 다음 서류를 집어 들며 보좌관에게 지난번에 지시한 일을 묻고 있는데 집무실의 문을 누군가가 두드렸다.

“무슨 일인가?”

“송구하옵니다, 폐하. 혹 인테제르 후작 각하께서 곁에 계시는지요?”

“후작은 방금 나갔네만, 무슨 일이지?”

“저, 그것이...”

“무슨 일인가? 급한 일인가?”

“인테제르 영지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후작 각하의 모친, 레이엔타 후작부인께서 사망하셨다 하옵니다.”

“...뭐라!”

하인리히가 의자를 박차며 일어났다.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던 서류더미가 쓰러져 사방으로 흩어졌다.

“후작은, 후작은 어디 있는가!”

“아, 아마 기사단으로 향하신 걸로...”

“이런...”

하인리히가 주먹을 꽉 틀어쥐었다. 핏줄이 불거진 그의 손이 그가 얼마나 동요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후우. 당장 보츠 후작과 그 외 군 사령관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후작은... 방금 그 급보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장례식을 마치고 수도로 귀환하라는 황명을 전하라.”

“예, 폐하!”

하인리히의 명에 문 밖에 서 있던 시종과 황제 직속 보좌관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인리히는 바닥에 널려진 서류가 밟히는 것에 아랑곳 않고 집무 책상으로 돌아가 종이와 펜을 꺼내 들었다.

「후작 프레데릭 드 보츠를 임시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기한은 인테제르 후작이 귀환하기 전까지, 인테제르 후작의 전권을 위임하도록 한다. 또한 보츠 후작은 빠른 시일 내에 군의 절반을 재편성해 출정할 것을 명한다.」

하인리히 폰 유피테르, 마지막에 매끄럽게 서명을 한 하인리히는 잠시 머뭇거리다 옥쇄를 쾅하고 찍었다.

...

“어머니!”

아서가 저택 안으로 들어오며 밀친 문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갔다.

“집사, 어머니는?”

“지하실에 모셔놓았습니다. 주인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모시겠습니다.”

노아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면서, 아서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생각하였다. 분명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창을 던지던 그의 어머니가 왜 갑자기 죽었다는 것일까. 고약한 거짓말임이 틀림없었다.

“왜..., 대체 왜?”

“심장마비입니다. 아기씨 방에서 쓰러지신 것을, 나중에 하녀가 발견했습니다.”

노아가 두꺼운 철문을 열어주자 아서는 힘 빠진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갔다. 얼음덩이 위에 반듯하게 눕혀진 그의 어머니에게서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다.

“옆은?”

“아기씨의 유모, 데네브 부인입니다. 마님이 돌아가시고 다음날에 똑같이 쓰러졌습니다.”

“부인이 왜?”

“마찬가지로 심장마비입니다. 혹여 병인가 하여 같이 모시고는 의원을 불러 검시하였으나, 모두 심장마비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노아가 나가고 아서는 레이엔타의 손을 잡았다. 싸늘하고 딱딱한 손은 그가 모르는 것이었다.

“이게, 갑자기 이게 대체 무슨...”

왜 갑자기 시엘을 돌보던 두 사람이 죽은 것인가.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아서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붉은 눈의 여인이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이리... 아니, 아스타르테?”

“오랜만이네요, 아서.”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당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러 왔어요.”

“해야 할 일?”

“아서, 당신은 시엘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죠? 그럼 무고한 이 하나를 희생시킬 수도 있죠?”

“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 있는 둘, 그리고 당신이 죽여야 할 하나. 그 셋으로 시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늘 무표정했던 아스타르테가 미소를 지었다. 아서는 그 미소가 참으로 소름 끼치다 느꼈다.

“시엘의 운명을 바꾸다니요? 시엘의 운명은...”

이미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와 이리스가 헤어졌는데.

“고작 힘을 봉인하고, 드래곤과 멀리 한다 해서 천룡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예?”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이의 운명을 뒤틀어서 말이죠.”

“...그게, 내 어머니가 죽은 이유입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당신의 어머니와 그 옆의 여인이 죽은 직접적인 원인은 시엘의 마나 때문이에요. 시엘은 봉인으로 인해마나가 불안정해요. 그게 시엘이 몸이 약한 이유이기도 하죠.”

“...”

“더더욱, 마나를 조절할 줄 모르는 시엘은 자신이 배출해내는 마나의 양이 평범한 인간에게 얼마나 독한 것인지 모를 테죠. 봉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인간의 수명 내에 자신이 가진 모든 마나를 써야 하니까요. 그것이 순리죠.”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나요? 그래요, 우선 시엘에게 한 봉인은 드래곤의 피를 봉인함으로써 그 아이가 마나를 다룰 수 없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소드마스터인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살면서 자신이 타고난 마나를 정해진 수명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그건 시엘의 힘을 봉인했든 아니든 상관없는 것이죠. 결국 체내의 마나를 앞으로 모두 소모하지 못할 거라는 걸 판단한 시엘의 몸이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양을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 인해 시엘 주위의 마나 농도가 급속도로 높아졌고, 그것이 주위의 인간에게는 좋지 않게 작용한 것이지요.”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물론이죠. 내 아들이 내게 말해줬는걸요. 천룡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명의 목숨이 희생되어야 하며, 편하게, 자연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요.”

“편하게?”

아서의 말이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아스타르테는 망연자실한 표정의 그를 바라보았다.

“아쉽게도 셋이 아니라 둘이었네요. 한 명 더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시엘 옆에 누군가를 밀어 넣어 죽게 만드는 건 힘들겠죠. 아서, 당신이 적당한 사람을 하나 구해 죽이세요.”

“웃기지 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아서가 아스타르테의 멱살을 잡았다. 멱살을 잡혔음에도 아스타르테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당신 딸을 위해서잖아요.”

“하! 이런 짓거리가 내 딸을 위해서라고?”

“아니면? 이미 죽은 두 사람은 대체 뭐 때문에 죽은 건가요?”

“...”

“당신이 시엘 곁에서 죽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소드마스터이기 때문에, 「조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부모인 당신이 죽으면 시엘이 앞으로 자라는 데 있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무슨...”

“한 사람만 더 죽으면, 시엘을 구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그렇게 묻는 아스타르테를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아서는 거칠게 그녀를 밀쳐 버리고 머리카락을 부여잡았다.

“왜, 이런 일이...”

“이리스가 시엘이 천룡의 생을 살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리스도 알고 있었나?”

“아니요, 세 명이 죽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몰라요. 나는 단지 이리스와 시엘을 위해 내 아들이 마련해놓은 방안을 대신 실행해주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해서까지 피해야 하는 운명이 대체 뭔데?”

“당신을 전부를 알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일부분만 알려준다면, 시엘이 천룡으로 산다면 시엘은 자신의 소중한 이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겠죠. 게다가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 카시스와 파툴키우스와 완수하지 못한 사명을 그 아이는 전부 감내해야겠죠.”

“...”

“이제 한 명만 죽이면 돼요. 한 명만 죽이면, 시엘은 제국의 황후로, 인간 여인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며 살 수 있을 거예요.”

달콤한 아스타르테의 목소리가 아서를 현혹했다.

...

“아서, 아니 영주님. 큰마님께서도 아가씨 곁에 있다 돌아가셨다 들었습니다. 제 엄, 아니 어머니는 정말로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까?”

“우연일 뿐이야. 나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일세.”

“우연일 뿐이라고요? 세상에 어떤 우연이 멀쩡하던 사람을 둘이나 심장마비로 죽인답니까? 시엘, 그 아이에게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야. 갓난아이에게 있긴 뭐가 있겠는가. 우연하게 악재가 겹친 것뿐이야.”

“하지만!”

“그만! 자네 어머니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도 돌아가셨어.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지껄일 거면 이 영지에서 나가주게.”

“...원하신다면.”

케일의 대답에 아서는 품속에 준비해두었던 돈주머니를 그에게 건넸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버리고 가지. 자네 마음대로 하게.”

아서가 떠났다. 케일은 집을 한번 둘러보았다. 크진 않지만 깔끔한 집이었다. 데네브와 케일을 위해 아서가 마련해준 집은 데네브가 없으니 쓸쓸하기만 했다.

“저주받은 것 아닙니까? 그 아이 말이에요.”

“설령 그것이 저주라 할지라도, 내 딸은 축복 속에서 자라날 거야.”

“...당신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었어.”

케일에게 있어 어머니인 데네브는 모든 것이었다. 어린 자신을 데리고, 집요한 추적을 피해 도망치고 또 도망쳤다. 이제야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듯싶었으나 데네브는 영원히 떠나버렸다.

“젠장..., 젠장!”

낮게 욕지거리를 내뱉은 케일은 무작정 짐을 싸기 시작했다. 다음날이면 데네브의 화장식이 있을 것이다. 연고가 없기에 별다른 조의를 받지 못할 테니, 유골을 챙기고 바로 떠날 생각이었다.

“엄마..., 그러니까 내가 괜한 오지랖은 부리지 말랬잖아.”

저주받았음에 틀림없다. 그 아이를 낳다 어미가 죽었고, 그 아이를 돌보던 아이의 조모와 유모였던 자신의 어머니가 전부 죽었다.

“저주가 아니라면, 내가 저주하면 되지.”

케일은 반쯤 제정신이 아니었다. 막무가내로 짐을 챙기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인테제르 영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됐다.

“엄... 윽!”

등 뒤에서 느껴지는 화끈한 감각. 케일은 천천히 뒤를 돌았다. 떠난 줄 알았던 아서가 가라앉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당...”

“그래, 저주해라. 내 딸이 아닌 나를. 어차피 난 지옥에 떨어질 놈이니까.”

날카로운 검이 갈비뼈를 부수고 심장을 갈랐다. 케일은 얼마 가지 못해 그대로 절명했다.

“이제 되었습니까?”

“네, 이제 시엘은 평온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시엘의 마나을 흡수하는 마법진을 두고 가죠. 시엘의 몸에 붙이면 알아서 작동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곁에는 항상 많은 양의 보석을 두세요. 보석은 마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리스는 절대로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이죠. 내가 이리스의 눈을 흐리려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나 또한 내 동생이 슬퍼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등 뒤의 이리스의 기척이 사라지고, 아서는 채 눈을 감지 못한 케일의 눈을 감겨 주었다. 자신이 죽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즉사시킬 수 있었으나, 아서는 그러지 않았다.

케일이, 자신을 원망해주길 바랐다.

“딜런, 뒤처리를 부탁하지.”

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딜런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하늘에는 기묘한 색의 달만이 홀로 떠있었다.

“각하.”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런 일을 맡겨 미안하다.”

“한 번 뿐입니다.”

“...그래.”

“내일은 큰마님의 장례식이니, 어서 가서 쉬십시오.”

“그래.”

자기 전에 시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그 말을 삼킨 아서는 빠른 걸음으로 저택으로 돌아갔다. 목욕으로 옅은 피 냄새를 지우고, 시엘이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다.

“잘 자네.”

색색거리며 잠든 시엘에게 아서는 복잡한 마법진이 그려진 작은 종이를 이마에 붙였다. 마법진이 빛을 발하더니 이내 시엘의 몸속으

로 스며들었다.

“우으?”

잠에서 깬 시엘이 칭얼거리며 아서에게 안아 달라 팔을 벌렸다. 그 티 없는 황금색의 눈동자와 마주치자 아서는 역겨움을 참을 수 없었다. 시엘을 위해 무고한 이를 죽인 자신이, 자신 때문에 사람이 셋씩이나 죽었다는 것도 모르는 시엘이, 모든 것이 구역질이 났다.

“아..., 아...”

“우으아!”

아서가 자신을 안아주지 않자 시엘을 짜증을 부리며 소리를 질렀다. 한 걸음, 두 걸음, 주춤거리며 시엘의 요람에서 점점 멀어진 아서는 다급하게 방에서 뛰쳐나왔다.

“커헉! 헉..., 헉...”

정원으로 뛰쳐나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서는 눈물을 흘렸다. 시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정신적 지주였던 그의 어머니가 죽자 아서의 마음은 꺾여버렸다.

“어머, 어머니. 이리스, 시엘.”

아서는 도저치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감당한 자신이 없었다. 그저 하염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며, 울부짖을 뿐이었다.

마리엘은 자신의 손에 들린 비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시엘이 떠난 지 나흘,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던 마리엘은 시엘이 처음부터 마나를 느낄 수 있는 실마리를 쥐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녀의 끝에 달려있는 가넷 장식에는 알마다 마법이 새겨져 있었다. 물론 그 안에는 고순도의 마나가 담겨 있었다. 마나가 한 곳에 응축되어 있으니, 그 이질감을 느끼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후우...”

약 십 여분 간의 집중 끝에 마리엘의 손에서 아지랑이 같은 투명한 오러가 피어올랐다.

“하하...”

그녀가 그토록 바랐던 오러, 시엘에게 검을 배우기 시작한 지 단 이주만에 그녀는 소드 비기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속도라면, 레이를 따라잡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마리엘이 느끼기에 일 년 반 정도면 검술은 어찌 되었든 소드 익스퍼트 초급의 경지에는 오를 수 있을 터였다. 그것을 깨닫자 마리엘은 씁쓸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렇게나 축복받은 재능을 가지고도 그동안 허비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아가씨, 주인님께서 부르십니다.”

비녀를 붙잡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마리엘은 하녀의 말에 얼굴을 들었다. 그래, 슬슬 부를 때도 되었지. 하며 그녀는 비녀로 머리를 올리고는 방을 나섰다.

“어디 계시지?”

“집무실에 계십니다.”

“그래, 알았어.”

2층의 집무실을 향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마리엘은 자신과 똑같은 녹빛의 눈과 마주치고는 인상을 구겼다. 오늘도 파티에 가는 모양인지 연미복을 차려입은 레이톨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어, 마리.”

“누나, 겠지.”

“누나는 무슨, 쌍둥인데. 그보다 요즘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 얼굴 보기가 힘들어.”

“굳이 얼굴을 봐야해?”

“뭐야, 왜 이렇게 까칠해? 난 그냥 파티나 같이 가자고 하려 했는데 낮에는 나가 있고, 밤에는 잠만 자니까 그랬지.”

“요즘 바빠.”

“네가 바쁠 일이 뭐가 있어?”

“적어도 매일같이 파티 가서 놀기만 하는 너보다는 유익한 삶을 보내고 있단다, 동생아.”

“흥, 아무튼 난 간다.”

레이톨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고, 마리엘은 그가 만진 어깨를 주무르며 실소를 지었다.

“바쁠 일이 뭐 있냐고?”

‘파티에서 노는 것밖에 하는 일 없는 새끼가...’

마리엘의 입에서 이가 갈리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핏발이 선 눈이 저 멀리 사라지는 레이톨을 따라갔다.

‘가장 쉬운 방법은 티오테스 영식을 망가뜨리는 건데...’

바람이 불듯 스쳐 지나가는 시엘의 말을 떠올린 마리엘은 잠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녀가 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떤 것일지 순간 상상해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톨은 마리엘과 한 배를 빌어 태어난 동생이었으니까. 싫어하긴 해도, 미워할 수는 없었다.

“후우...”

마리엘은 몸을 돌려 계단을 마저 올라갔다.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는 것만 같았다.

‘궁지에 몰려야...’

‘잘 키워놓은 후계자를 버릴 수밖에 없게...’

‘레이톨을 실각...’

시엘의 말이 마리엘의 발목을, 치맛자락을, 어깨를 붙잡았다. 집무실로 향하는 그 몇 걸음 동안 마리엘은 계속해서 고민했다. 자신이 어떤 수를 내놓아야 하는 지를.

‘나 또한 후작가의 유일한 후계자가 아니었다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황후가 되어야 했겠죠.’

집무실의 문을 두드리려던 마리엘의 손이 딱 멈췄다.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마리엘이 가만히 문밖에 서있자 방 안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마리엘은 문을 두드리며 계획에 마침표를 찍었다.

똑, 똑, 똑.

“들어오거라.”

“실례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름칠은 한 덕분인지 약간은 삐걱거렸던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고개를 들자 카우치에 다리를 꼰 채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티오테스 백작이 보였다.

“늦었구나.”

“죄송합니다. 레이톨에게 붙잡혀서요.”

“...그 녀석 또 파티에 간다고 하더냐?”

“네.”

“망할 놈, 사교계에 데뷔했다고는 해도 적당히 해야지.”

매일같이 파티장에서 밤새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후에나 일어나는 나태한 생활이 계속되자 티오테스 백작은 레이톨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소드 익스퍼트 초급이라고는 해도, 오러를 자유롭게 다루기 시작한 것을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었다. 레이톨의 검술 스승에게서 날이 갈수록 검술 훈련에 쏟는 시간과 집중력이 낮아진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앉아도 될까요, 아버지?”

“아, 그래. 앉아라.”

마리엘이 자리에 앉고 하녀가 차를 따랐다. 하루 종일 시가를 피워대는 티오테스 백작의 재떨이를 바라보며, 마리엘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 같군.’

요 며칠간, 훈련이 끝나면 시엘이 직접 타주는 맛있는 차에 길들여진 마리엘은 담배냄새에 찌든 차를 당장이라도 뱉어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간신히 꿀꺽 삼킨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인테제르 영애와 가까워졌다지? 아주 잘했다.”

“...잘한 것일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 제가 인테제르 영애와 가까워져 봤자 소용없습니다. 인테제르 영애는 아버지의 예상보다도, 제 생각보다도 훨씬 무서운 사람입니다.”

“계속해 보거라.”

“아버지는 제가 인테제르 영애와 가까워짐에 따라 가문의 무기산업과 마탑의 마법 세공의 사업결합을 염두에 두고 계셨지요. 시엘, 아니 인테제르 영애도 그 때문에 제게 처음부터 관심을 보였던 거겠죠. 하지만 인테제르 영애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업을 자신의 곁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종류?”

“저희 가문은 무기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테제르 영애가 듀렌 백작에게 검을 선물한 일을 계기로 관심을 보이셨지요. 그 전에는 드레스였습니다. 단 한 번으로 사교계에 열풍을 불어 일으켰지요.

또한 폐하께 진상한 브로치, 그 브로치에는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마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인테제르 영애는 장신구류에 마법 세공을 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장할 것이라 공언한 바 있습니다.”

“...”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그녀는 확실히 마법 세공의 파트너로서 우리 가문을 염두에 두고 있긴 하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밑바닥일 것이 뻔합니다.”

“어째서? 무기는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인 텐데!”

“전쟁은 끝난 지 오래입니다, 아버지.”

“...”

“물론 9년 전에 체투스 연합국과의 불화가 있었습니다만, 그 불화를 정리한 것은 인테제르 영애였습니다. 인테제르 영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마탑이 상업화되면서 실용 아티팩트가 대거 등장하게 된 것도 전부 그 사람의 계획이었지요. 평화의 시대에서 무기를 만들자 목에 핏대를 세우고 외쳐 봤자입니다.”

“...”

“인테제르 영애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위기사들에게 선전할 소량의 무기입니다. 고작 그 정도로 해서 우리 가문에 이익이 떨어질 거라 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다른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이미 늦었어.”

“맞습니다. 다른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이미 늦었지요. 그러니 인테제르 영애의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요.”

“뭐?”

“제가 방금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테제르 영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버지, 본디 국제 관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게 이익을 얻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야?”

“아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인테제르 영애가 하겠지요. 게다가 백작가에 불과한 저희 가문이 전쟁을 그렇게 쉽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크흠...”

“아버지의 말씀대로 저희 가문은 인테제르 영애에게 더더욱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침체된 무기산업에 활로를 열어줄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작 명목상의 친구에 불과한 저로서는 인테제르 영애에게서 조언 몇 마디를 받은 것이 한계입니다. 그것 또한 영애가 심심풀이로 제가 검을 가르쳐주면서 그녀가 보는 정세를 지나가듯 말해준 것이지요.”

“요즘 외출이 잦았던 것이 인테제르 영애에게 검을 배웠기 때문이냐?”

“네, 하루에 몇 마디씩 툭툭 던져주는 정보들을 끌어 모으려 갔다가 의외의 것을 얻었지만요.”

“의외의 것?”

“아버지, 저 얼마 전에 소드 비기너가 되었습니다.”

“...축하할 일이구나.”

“예, 정말 놀라울 따름이지요. 레이톨의 검술 스승에게 배울 때는 조금의 진전도 없었던 것이, 인테제르 영애에게 배운 지 단 두 달만에 소드 비기너가 되었으니까요.”

“그, 그래? 영애가 잘 가르치는 모양이구나.”

마리엘은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다. 레이톨의 스승이 일부러 자신에게 헛된 마나 운용 방법을 가르쳐준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시켜서일 터였다.

“그리고 저는, 높은 확률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테제르 영애가 소드마스터일 것이라는 사실을요.”

“...뭐?”

티오테스 백작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간신히 되물었다. 시엘 드 인테제르가 마탑주로서 대마법사라는 것을 알려진 바였다. 그러나 소드마스터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애초에 대마법사보다 세간에 잘 알려진 소드마스터는,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무도의 귀재가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달성하는 경지였다.

그만큼 그 파급력은 성 하나를 단신으로 격파할 정도라 알려져 있다. 20년 전의 세고비다 왕국과의 전쟁 때, 아서 드 인테제르가 단신으로 마지막 방어기지였던 레이뎀 성을 함락시킨 일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티오테스 백작도 소드 익스퍼트 중급의 검사였기에 알 수 있었다. 소드마스터라는 경지가 얼마나 까마득한 것인지를.

“어떻게...”

성인도 되지 않은 소녀가 소드마스터일 수가 있나. 불세출의 천재라 불리는 인테제르 후작마저도 이십 대 초반이 되어서야 소드마스터가 되었다.

“참으로,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생각되지 않아?”

그 말을 끝마친 나는 가넷 귀걸이를 집어던졌다. 아무리 매개체가 있다 한들 원거리에서 정신 조작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지.”

힌트는 모두 주어줬으니. 저녁 내내 그녀에게 달라붙어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것도 입 아플 지경이었다.

“그것 말고도 할 일은 넘쳐난다고.”

가을에 수확한 식량을 노린 몬스터들의 습격, 그를 대비한 기사단 및 영지병의 재편성, 수확제 준비와 마탑의 서류까지.

“으음, 역시 보좌관을 한 명 두는 편이 나을까?”

지금까지는 보좌관 없이 살아왔지만 역시 가문의 일을 본격적으로 맡게 되었으니 일을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마탑 일의 절반은 제레미가 맡아주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서류가 꼬인단 말이지.”

왼쪽의 산은 마탑 서류요, 오른쪽의 산은 가문 서류로다.

‘말 그대로 양대산맥이구나.’

나는 잠시 쉴 요량으로 자리에서 빠져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정원의 꽃을 대대적으로 맨드라미로 바꾸고 있어 약간 어수선하였지만, 그 어수선함이 나쁘지는 않았다.

“으음..., 뭔가 까먹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까먹은 게 뭘까 잠시 생각하던 나는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 보니 요즘 황제 상태를 안 살폈네.”

곧 죽을 것 같으면서도, 꾸역꾸역 버티는 황제가 참으로 질기다 생각되었다. 칼립스가 자유로워진 그날부터 황제에게는 그 어떠한 약도 전해주지 않았고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그 어떠한 연락도 취해오지 않았다.

“빨리 뒈져버리라는 뜻이었는데.”

어째서 침묵하는 것일까? 숙청이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는 아득바득 버틸 인물이라 생각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

“꼴에 자존심을 세우는 건가...”

“저리 치우게!”

저택 안에서 날카로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시 목소리가 들려온 방이 어딘지 살피다 그대로 점프하여 열린 창문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옷 치수야 대충 맞추면 되는 일이 아닌가!”

“허나 후작부인, 맞춤복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그 사람에게 딱 맞게...”

“내가 싫다 하지 않는가!”

“무슨 일입니까?”

“시엘, 엄마 좀 살려줘.”

어머니의 말에 마담 아르스와 그녀의 조수들이 쩔쩔매며 내 눈치를 살폈다. 마담 아르스는 잠시 상황을 살피다 내게 말했다.

“치수를 재려 했는데 후작부인께서 완강히 거부하셔서 말입니다.”

“...아아, 어머니가 조금 예민하셔서 낯선 사람이 만지는 걸 싫어하십니다. 줄자 주세요. 내가 재도록 하죠.”

“흥!”

“어머니, 올해 옷은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제가 재면 괜찮죠?”

내가 웃으면서 어머니를 뒤에서 껴안으니 어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마담 아스르에게 나가 있으라는 뜻으로 턱짓을 하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는 방에서 나갔다.

“어머니, 제 선물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니. 그냥 인간들이 불편해서 그래. 집안의 하인들이야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만은...”

“그러면 역시 티파티는 취소할까요?”

“그러지 않아도 돼. 우리 딸이 필요한 일인데.”

“저한테는 일보다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엄마는 괜찮아. 그보다 치수를 재 주렴.”

“네, 뒤로 도세요.”

어머니의 어깨 치수를 재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앞에 놓여 있는 거울에 비친 나를 진득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우리 딸 참 예쁘구나 싶어서.”

“어머니를 닮았는걸요.”

“...그래, 그렇지. 날 닮았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시엘, 행복하니?”

“...그런 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쩐지 지쳐 보여서.”

“확실히 요즘 일이 많아서 조금 힘들기는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원했던 것이니까.”

“히페리온에게서 전해 들었다. 결계가 뚫렸었다지?”

“네. 그리고 그 여자가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

“마법진의 연구는 진행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버린 걸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가 점점 그 여자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엄마도 알고 있어.”

일부러 외면하고 있던 사실을 어머니가 입 밖으로 꺼내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줄자를 떨어뜨렸다. 내가, 나라는 존재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감각은 끔찍한 것이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꾹 참아내려 했으나, 어머니의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괜찮아.”

“무엇이요?”

대체 무엇이 괜찮다는 걸까? 나는 전혀 괜찮지 않은데.

“엄마는, 아니 엄마랑 아빠는 네가 무엇이 되던, 무슨 짓을 하던 너를 사랑할 거야. 설령 네가 이 세계를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를 사랑한단다.”

“알고 있어요.”

“아니, 너는 모르고 있어. 엄마는 네 운명을 되돌리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너를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했어. 네 아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는 네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죽어줄 거야.”

“...그 마음은 사랑인가요? 아니면 죄책감인가요?”

“사랑이란다. 시엘,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야.”

모르겠어요, 어머니. 사랑이라고는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항상 죄책감이 서려있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항상 안타까움이 깔려 있어요. 그것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인가요?

‘너는 여전히 역겹구나, 시엘.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항상 의심하고 스스로 내버리지.’

‘아니야! 아니야.’

붉게 칠한 입술이 속삭이는 말을, 나는 오늘도 부정한다.

...

마리엘은 머리에 꽂힌 비녀를 한 번 확인하고는 앞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티오테스 백작부인이 서 있었다.

“마리,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그런가요?”

마리엘이 씩 웃으며 대답하자 티오테스 백작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티오테스 백작부인은 요즘 들어 자신의 남편이 마리엘에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무척이나 기뻤다.

‘그 양반도 미안해서겠지. 아무리 레이가 후계자라고는 하지만, 일생에 한 번 뿐인 사교계 데뷔였는데 그렇게 차별을 한 건 심하긴 했어.’

“그나저나 레이톨 그 녀석은 아직도 놀기만 하는 거니? 정말 누가 데려가려는지.”

“아마 레이톨을 휘어잡을 멋진 영애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어머, 도착했나 보네. 내리자.”

백작부인의 푸념 어린 가벼운 말에 마리엘의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마차에서 내려 하인의 안내에 따라 인테제르 후작가의 저택에 들어선 두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분명 꽤 많은 가문의 마차가 도착한 것을 보았지만, 정원에는 몇몇의 하인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테제르 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티오테스 백작가의 두 분, 초대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마리엘이 초대장을 건네주자 그것을 확인한 유스타프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보석에 대고 말을 했다.

“아가씨, 확인하였습니다. 두 분, 이쪽으로 오시지요.”

유스타프가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마법진이 그려져 있었다. 티오테스 백작부인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다.

“이, 이게 뭐지?”

“오늘 티파티는 인테제르 영지에서 열린다더군요.”

“뭐? 남부에 있는 인테제르 영지에 어떻게...”

“걱정 마세요. 시엘이 괜히 대마법사겠어요?”

마리엘이 웃고, 티오테스 백작부인이 당황해하는 사이에 마법진이 빛나기 시작했다. 티오테스 백작부인이 눈을 꼭 감았다 뜨자 눈앞의 풍경이 변해 있었다. 만개한 맨드라미와 세심하게 장식된 테이블, 그리고 푸른 하늘까지. 마치 환상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어머나, 세상에나.”

“인테제르 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백작부인, 그리고 마리엘.”

“오랜만이에요, 시엘.”

“오랜만에 뵙네요, 인테제르 영애.”

“예, 오랜만입니다. 백작부인. 남부는 많이 덥죠? 어서 자리에 앉으세요. 한결 시원해지실 겁니다.”

하녀의 안내에 따라 지정받은 자리에 앉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테이블마다 걸린 마법 덕분에 한낮에도 쾌적하게 햇살을 즐길 수 있었다.

“오시기로 한 분은 거의 다 오신 것 같군요. 더 이상 지체하기도 그러니 슬슬 티파티를 시작할까요?”

시엘의 말에 마리엘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번 티파티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얼굴이 보였지만, 시엘의 험담을 했던 몇몇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 그녀들에게도 초대장을 보낸 것으로 아는 마리엘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늘 본가의 파티에 참여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티파티에 참여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건강상 수도에 올라오시지 못하여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을 본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나는 대로 수도로 되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니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시엘의 말에 사교계 몇몇 인사들의 눈이 반짝거렸다. 소문만 무성했던 얼굴을 보이지 않는 후작부인을 드디어 볼 수 있다는 것에 흥분한 것이겠지.

“어머니를 모셔와.”

하녀가 저택 안으로 들어가고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얼음을 가득 담은 아이스티가 한잔씩 돌아갔다. 마리엘은 가만히 유리컵의 표면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둔 것뿐이야.’

“마리엘, 왜 그래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에요. 그냥 파티에 늦은 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아아. 방금 전에 급보가 들어왔는데 오는 길에 중앙 대로에서 마차 사고가 일어난 모양이더군요. 아쉽게도 사고 때문에 발목을 붙잡힌 분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아아,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말, 그러게 말이에요.”

마리엘은 이 일이 시엘이 계획한 일임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미소를 지으며 모르는 척을 할 뿐이었다.

“후작부인께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녀의 말에 시엘은 잠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택 쪽에서 연보라색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백금발의 여인이 다가왔다. 티파티에 참석한 귀부인들이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어, 어머...”

“세상에나.”

시엘과 거의 똑같다 할 정도로 닮아 있었지만, 시엘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여인이었다. 마치 꿈속에서 튀어나온 듯,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인테제르 후작부인은 누가 보면 시엘과 쌍둥이 자매라 해도 믿을 지경이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어머니이신 인테제르 후작부인입니다.”

“이리스 드 인테제르라고 합니다.”

꾀꼬리 같은 미성이 흘러나오자 몇몇 사람들은 같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붉혔다. 그럼에도 그럴 것이, 사람을 홀리는 것은 똑같지만, 시엘은 타인을 압도하는 기운을 풍겨 다가가기 힘들다면, 이리스는 절로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앉으세요, 어머니.”

시엘이 짓고 있는 미소는, 마리엘로서는 생소한 것이었다. 아아, 당신은 소중한 이 앞에서 그렇게 미소 짓는구나.

“티오테스 영애인가요?”

“예, 후작부인.”

“시엘에게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제 딸아이가 또래 동성친구가 없어서 걱정 했었는데 영애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친구..., 마리엘 자신과 시엘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손을 잡은 사이라는 것을 알면 저 미소는 어떻게 변할까. 이리스의 맑은 미소는 쉽사리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다.

‘후작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후작부인은 몸이 약하다 들었다. 때문인지 어머니를 대하는 시엘의 손짓은 아주 섬세하고도 조심스러웠다. 문득 마리엘과 시선이 마주친 시엘이 가볍게 눈을 찡긋했다. 마리엘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맞춰주기로 했다.

“아, 아니에요. 저야말로 시엘이 있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요? 앞으로도 시엘을 잘 부탁할게요. 제 딸이 아빠를 닮아서 무모한 일만 저지르거든요.”

손을 모으며 맑은 미소를 짓는 이리스로 인해 마리엘은 절로 붉어진 얼굴을 식히려 손부채질을 했다. 시엘과는 다른 의미로 사람을 유혹하는 이리스로 인해 버틸 수가 없었다.

“닮기는 어머니를 더 닮았는데 말이죠.”

“그건 얼굴뿐이지.”

이리스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시엘에게 핀잔을 주자 시엘은 하하 웃으며 이리스의 접시에 케이크를 올려 주었다. 그 자연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며 이리스는 아이스티를 마셨다. 쌉싸레한 신맛과 단맛이 입 안에서 퍼졌다.

“히비스커스네요.”

“설탕을 넣어서 신 맛을 줄였어요. 마음에 드나요?”

“네, 맛있네요.”

그 독특한 신맛으로 인해 평소 히비스커스 차를 즐겨 마시지 않았던 마리엘에게 있어 히비스커스 아이스티의 떨떠름한 풍미는 생소했다. 얼음을 잔뜩 넣은 것이 더운 여름날에 마시기 좋았다.

‘그나저나 이 정도 규모의 티파티는 확실히 돈지랄이라 부를 만하네.’

넘치는 재력, 타고난 재능,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까지. 이 세계가 시엘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세상은 불공평했다.

‘이제는 불공평한 세상을 불평하고 있지 않아. 그 불합리를 이용할 거야.’

확실히 시엘은 적이 되면 무서운 존재였지만, 아군이 된다면 그보다 더 든든한 배경은 없을 것이다.

“그나저나, 시엘은 어떻게 마법을 배우게 된 건가요? 예전부터 줄곧 궁금했어요.”

마리엘의 질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러자 이리스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위를 살피다 이내 시엘을 바라보았다.

“아아, 어머니가 마법사이셔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겁니다.”

“어머, 후작부인이 마법사이셨어요? 세상에나...”

“아아, 뭐.”

마리엘의 작위적인 반응에 이리스가 떨떠름한 반응을 내뱉었다. 시엘은 그를 살짝 보고서는 모른 체 아이스티를 마셨다.

“아가씨, 잠시...”

“응?”

“수도 저택에 도착하신 분이 있다 합니다.”

“아, 가지. 잠시만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시엘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홀로 남은 이리스에게 꽂혔다. 이리스는 그 시선이 불편한 듯 우물쭈물 거리다 고개를 푹 숙였다.

‘시엘과는 정말로 딴판이군. 저렇게 행동하면 사교계에서 물어뜯기기 십상인데...’

이리스는 누가 봐도 시엘의 ‘약점’ 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입에 담을 만큼 마리엘은 어리지 않았다. 어련히 시엘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는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뭐, 내가 참견해 봤자야. 그리고 시엘이 딱히 사교계에 큰 미련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마리엘은 그저, 수줍음 많은 후작부인에게 친절이 대해주어 그녀의 환심을 사는 것뿐이었다.

“후작부인, 덥지 않으신가요? 얼굴이 붉은 것 같아요.”

“예? 아, 아니에요. 시엘이 테이블에 마법을 걸어놔서 시원한걸요.”

“확실히 자리에 앉자마자 더위가 싹 가시던 게... 정말이지, 시엘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자 줄곧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던 이리스가 빙긋 미소를 지었다. 너무나도 고아해 보이는 그 모습에 마리엘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헤 벌릴 뻔 했다.

“그렇죠? 제 딸이에요.”

“네, 네. 정말 좋으시겠어요.”

마리엘은 두근대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진짜 가리지 않고 사람 홀리는 사람이네.’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연히 이리스의 미소를 본 사람들 모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큼, 흠...”

“뭐 하고 있었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는 시엘이 마리엘의 의자 뒤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역광이 마치 후광처럼 보였기 때문에 마리엘은 입을 다물었다.

‘무슨... 모녀가 쌍으로.’

심장에 해롭다. 자신이 남자였으면 당장 시엘에게 청혼하는 건데. 이번 만큼은 다른 의미로 여자인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머니의 표정에 금이 가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인간이 많은 곳에서 연기를 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겠지.

‘물어라. 물어. 우리 엄마 폭발하기 전에.’

테이블을 세 번이나 옮겼음에도 물고기들은 아무 말 없이 차만 홀짝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인테제르 영애는 후작부인은 똑 닮으셨네요.”

‘물었다.’

“모녀니까요.”

“그 피처럼 붉은 눈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후작부인을 닮은 거였군요. 헌데 머리카락은...”

유젤 백작영애가 노골적으로 내 머리를 훑어보았다. 나는 픽 미소를 짓고는 가볍게 대답했다.

“머리카락도 외가 쪽에서 물려받은 겁니다. 제 사촌오라버니도 하늘색 머리였거든요.”

“아아, 헌데 그런 특이한 색을 가진 가문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는데, 후작부인께선 어느 가문 출신이신지.”

“그, 그게...”

“예전에 몰락한 가문인지라 들어도 모르실 겁니다.”

“몰락..., 허면 작위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지요.”

내가 일부러 목소리를 딱딱하게 굳히자 유젤 백작영애는 이만 물러서겠다는 듯이 눈웃음을 치며 부채로 입가를 가렸다.

“시, 시엘.”

어머니가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신호를 받은 나는 짐짓 심각한 얼굴로 어머니를 살피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또 가슴이 아파요?”

“으응.”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불편해보이셔서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주위에 시선에 아랑곳 않고 그대로 어머니를 안아든 나는 빠른 발걸음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어머니를 내려주려 했으나 어머니는 내 목을 꼭 안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엄마 연기 어땠어?”

“...”

“딸?”

“크, 푸흐흐흐.”

평소 어머니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연기였지만 의외로 위화감이 없어서 신기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나는 바람 빠진 웃음소리를 내뱉으며 어깨를 떨었다.

“어머니가 노래만 잘하셨다면 오페레타의 여주인공도 하셨을텐데.”

“그거 엄마 음치라고 놀리는 거지?”

“당연하죠.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자장가는 듣기 힘들었어요.”

내 대답에 어머니는 볼을 부풀리면 인상을 찌푸렸다. 나는 킥킥 웃으며 어머니를 침대에 내려주었다.

“이제 이 엄마는 퇴장하련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렴.”

“네, 어머니. 감사해요.”

“뭘, 우리 딸 부탁이었잖니.”

“...전 이만 나가볼게요.”

“시엘! 나가면서 하녀에게 케이크 좀 가져다 달라고 해 줄래? 연기하느라고 준비되어 있던 거 다 못 먹었어.”

“알겠어요. 종류별로 가져오라 할게요.”

해맑게 손을 흔드는 어머니를 뒤고 하고 나는 미소를 짓던 표정을 다시 바꾸었다. 요즘 들어 내가 짓는 미소가 연기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나마 이렇게 표정을 급작스럽게 바꾸어야만 그 미소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다행이네.”

적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아직은 진심으로 미소를 지을 수가 있어서.

“아가씨, 손님들께서 아가씨를 찾고 계십니다.”

“아아, 내려갈게.”

나는 약간의 피로를 느끼며 흐트러진 옷을 정돈하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나는 빠르게 지쳐가고 있었다.

“칼립스 보고 싶다.”

벌써 그를 보지 못한지도 몇 달 째였다. 몇 년을 잘만 버텼으면서 막상 그와 가까워지고 나니,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니 잠시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애가 탔다.

“하, 정말. 전부 죽여 버릴까.”

“아아악!”

“살려, 살려주세요!”

“그만, 제발 그만하십시오!”

“알았으니까 그만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품을 때마다 카시스가 내게 보여주는 미래는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내게 항상 다그쳤다. 이런 미래를 보고도 너는 정말 인간을 죽일 거야? 그것은 내게 강박으로 다가왔다.

“인간을 죽여서는 안 돼.”

카시스는 알고 있었던 거다. 내가 그녀와 섞이면서, 이런 충동에 휩싸이게 될 것을. 그래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둔 것이겠지.

“하지만, 칼립스를 위해 선택한 살인은 무르지 않을 거야.”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마리엘은 얼음으로 굳힌 맨드라미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다. 냉기를 품은 꽃잎은 방 안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었다. 티파티 참석자들에게 시엘이 돌린 선물이었다.

“이걸로 여름 더위 걱정은 없겠네.”

마리엘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고요함을 즐겼다. 방금 전에 다녀왔던 티파티가 꿈만 같았다.

“마리엘!”

그런 그녀의 여유를 깨는 것은 레이톨의 고함소리였다. 마리엘은 부러 천천히 눈을 뜨고는 방문을 부술 듯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온 레이톨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예절도 몰라? 노크는 어디다 팔아먹었어?”

“너, 대체 무슨 짓거리를 꾸미고 있는 거야? 대체 왜 아버지가 날 두고 너를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거냐고!”

레이톨의 다그침에 마리엘은 입을 다물었다. 솔직히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알았지만, 레이톨이 이렇게까지 직설적이고도 멍청하게 나올 줄을 몰랐다.

“짓거리? 레이, 네가 파티에 쏘다니는 동안 난 정말 건설적인 삶을 즐겼어. 네가 함부로 짓거리라 말해도 된다고 생각해?”

“뭐?”

“날 후계자로 세우는 것은 이미 전부터 거론되던 일이었어. 정확히는 내가 소드 비기너가 되었을 때부터, 그때 넌 뭘 하고 있었지? 파티에서 노느라 내가 무슨 노력을 하는지 가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계에 그리고 상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너는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

“마, 마리엘.”

“분해? 분하니? 원래 네 것이던 걸 빼앗긴 게 분해? 웃기지 마.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백배 천배 더 억울하고 화나.”

그동안의 울분이 쏟아져 나왔다. 마리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레이톨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꾹꾹 찌르며 그를 다그쳤다.

“왜? 갑자기 위치가 변하니까 화가 나? 아버지가 너한테 ‘이제 너는 인테제르 가에 장가가야 할 몸이니 몸가짐을 바르게 하렴.’이라고 들었니? 갑자기 조신하게 살려니까 안 되겠어?”

“너...”

“야, 차라리 넌 네 혼처를 발품 뛰어서 구해야 걱정은 없었잖아. 솔직히 말하면 최고의 혼처 아니야? 돈 많고, 능력 좋고, 신분 좋고 게다가 예쁘기까지 한 사람이랑 혼인시켜주는데 얼씨구나 춤이라도 춰야지.”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네 주제를 알라고.”

레이톨의 으르렁거림에 마리엘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는 가넷의 기묘한 붉은 빛이 맴돌았다.

“하! 레이톨, 너야말로 네 주제를 알아. 네가 내가 바쁠 일이 뭐 있냐면서 나를 비웃을 때, 나는 바닥에 바싹 엎드려서 인테제르 영애의 눈에 들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니고, 역겨운 웃음을 지었어. 네가 파티에 쏘다니면서 수련 따위는 나 몰라라 할 때, 나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검을 휘둘렀어. 네가 뭔데 나대는 건데, 이 개자식아!”

“뭐, 뭐. 개, 뭐?”

“개자식이라 했다. 야, 솔직히 내가 남자였음 시엘 발바닥이라도 핥으면서 청혼했을 거야. 그만큼 시엘이 더 아까워. 네가 내 동생만 아니었으면 난 무조건 반대했을 거야.”

“...”

“그래도 뭐 귀족간의 결합이고 가문 간의 결속이니까 조금 아깝더라도 어쩔 수 없지. 너, 시엘한테 잘해야 한다? 진짜 평생 떠받들고 살아.”

“미쳤구나, 너.”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네가 모자란 거야. 정 싫으면 네가 나처럼 바닥을 기어서라도 혼인 파토내보지, 그래? 물론 그 아버지는 네게 실망하시겠지만.”

“...”

“그렇게 순진해빠져서 가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아아, 생각을 안 한 건가? 후계자님이었으니까.”

높은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레이톨은 모멸감으로 부들부들 떨어댔고, 한참이나 작위적인 웃음소리를 내뱉어 마리엘은 한순간에 표정을 바꾸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 후계자 자리는 내가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

마리엘은 한 걸음 물러서고는 활짝 열렸던 문을 소리내어 닫았다. 쾅 소리가 나자마자 걸쇠를 건 그녀는 문에 기대어 실실 웃음을 흘렸다.

“푸, 흐흐흡. 하하하.”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이 흘렀다. 화장이 번지는 것에 아랑곳 않고 얼굴을 마구잡이로 부빈 마리엘은 쓸린 상처로 가득한 자신의 손에 화장품 찌꺼기가 묻은 것을 빤히 바라보았다.

‘드디어...’

불합리를 이용하여, 그녀의 목을 졸랐던 또 다른 불합리를 이겨내었다. 기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속은 시원했다.

“역시 뺨 한 대 정도는 때려줬어야 했나?”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한 대 정도 때렸어도 별 상관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쩐지 시엘에게 두들겨 맞는 레이톨의 모습이 상상되었다.

‘따귀를 때리다니요, 어쩜 그럼 교양 있는 짓을. 모름지기 싸움을 걸 거면 주먹을 꽂아야죠.’

언젠가, 시엘이 싸움을 거는 법칙이라며 설명해준 적이 있다. 따귀를 때리는 것은 여자들의 사교계에서나 하는 행동이라면서, 그것도 아니면 진심으로 추잡하게 남을 도발할 때 쓰는 방법이라 말했다.

“으쌰.”

마리엘은 힘차게 일어나며 앞을 바라보았다. 행운의 여신보다 더 강력한 여신이 그녀의 편에 서 있었다.

...

레이톨은 끊임없이 입을 우물거리며 입술 안쪽의 표피를 물어뜯었다. 그 때문인지 말랑말랑했던 표피는 우둘투둘해지면 찝찔한 맛이 느껴졌다.

‘젠장, 마리 그 계집애도 아버지도 전부 이상해졌어.’

특히나 마리엘, 자신과 똑같았다고 생각했던 마리엘의 푸른 눈에는 광기라 부를 만한 붉은 빛이 담겨 있었다.

“어머나,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공자님?”

누군가의 목소리에 레이톨은 고개를 들었다. 붉은 나비의 가면과 검은 깃털로 만든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어차피 그녀들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가면무도회라고 해도, 대규모의 파티나 특정 파벌에서 열리는 파티가 아니면 참석자야 뻔했다.

“조금요, 하지만 레이디께서 저와 춤을 춰주신다면 그 걱정은 붉은 나비처럼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야 공자님을 위해...”

도도한 손짓으로 레이톨이 내민 손 위에 손을 얹는 모습을 보며 레이톨은 헛웃음을 지었다. 자신의 아버지인 티오테스 백작은 철저한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마리엘과 레이톨의 약혼자를 정해두지 않았다. 그 때문에 레이톨은 또래의 귀족영애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그것도 후계자이기 때문임을 모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를 비싸게 팔아넘길 수 있는 곳이 인테제르 가라는 계산을 마쳤겠지.’

댄스홀을 돌면서 어느 정도 머리가 식은 레이톨은 차분히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인테제르 가에 붙으면 엄청난 득을 얻을 수 있기에 후계자인 자신을 버림수로 썼을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마리도 옆에서 부추겼을 테고.’

인테제르 영애와 혼인을 해봤자 여후작의 남편, 그 위광에 짓눌려 살 것이다. 백작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정 싫으면 네가 나서서 혼인 파토 내보지, 그래?’

‘못할 것도 없지.’

티오테스 백작은 욕심이 많은 만큼,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레이톨이 물려받았다.

“그러고보니 어제 제 누이가 인테제르 가의 티파티에 다녀왔더군요. 혹시 레이디도 참석하셨습니까?”

“물론이죠. 아무튼, 후작부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확실히 인테제르 후작님께서 홀딱 빠질 만한 미모이던걸요.”

“그런가요?”

“솔직히 말해서 인테제르 영애가 아버지인 후작님과 전혀 닮지 않았잖아요? 부인을 쏙 빼닮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하늘색 머리카락은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그쪽 말로는 외가 쪽에서 물려받았다고 하던데. 글쎄요, 전 잘 모르겠네요. 후작부인은 백금발이던데.”

그 말에 레이톨의 눈이 조금 커졌다. 하늘색 머리카락, 분명 신년 파티 때 하늘색의 드레스와 함께 독특한 그녀의 머리색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모았었다.

“흥미롭군요.”

제국인들이 사랑하는 초대 황제의 하늘색의 머리카락, 황가에도 유전되지 않는 것이었다. 레이톨은 그녀의 출신에 무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 찔러봤자 나쁠 건 없겠지.’

귀족 사회에 있어 혈통과 출신이란 상당히 예민한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 하늘색이 대체 어디서 굴러 나온 걸까? 레이톨은 그 물음을 던지며 빙긋 미소 지었다.

‘마리엘, 네가 아무리 날뛰어도 어차피 안 돼.’

그저 정해진 길을 걸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는 남매사이였다. 마리엘은 가문을 위해 적당한 가문에 시집가고, 자신은 백작위를 물려받는... 쌍둥이인 만큼 다른 남매들보다는 각별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네가 먼저 싸움을 걸었으면 어쩔 수 없지.’

이번 싸움은 어렸을 적 투탁 거리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후계자 싸움이란, 어딜 가던지 간에 피 튀기는 것이었으니까.

한여름의 온실임에도 불구하고 마법냉풍기 덕에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아이스티를 들이켰다.

“피곤해 보이는군.”

“요즘 잠을 좀 못 자서요.”

“무슨 일이 있는가?”

“글쎄요. 무슨 일이 너무 많다 보니 그 어떤 것도 무슨 일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슬프군요.”

“내 그대에게 수면에 좋은 차를 선물해주지. 알다시피 그대와 나 같이 일에 치이는 사람들은 잠이라도 푹 자야 할 것이 아닌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작게 한숨을 내쉬자 라트로가 작게 미소 지었다. 영지에서 며칠 쉬어서 기분이 한결 나아지기는 했지만, 잠을 자는 것이 두려웠다. 잘 때마다 아텔라에게 갉아 먹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슬슬 2황자파를 압박할 때가 되었습니다.”

“...티오테스 가는?”

“불을 질러 놓았으니, 이제 저들 알아서 하겠죠.”

“형제 사이가 갈라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군.”

라트로의 말을 마리엘과 레이톨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고, 자신과 2황자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다.

“원래 썩어있던 물이었습니다.”

“그렇지.”

차분한 시엘을 앞에 두고, 라트로는 잠시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폐하의 용태가 좋지 않네.”

“그렇습니까?”

“그대가 한 번 봐줄 수 있겠는가?”

“싫습니다.”

“영애!”

“...”

라트로의 다그침에도 내 표정에 그 어떠한 변화조차 없자 라트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잠시간의 침묵 후에 내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발, 부탁이야. 아바마마를 살려주게.”

“전하, 사람을 죽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엉뚱하지만 가볍지 않은 그 질문에 라트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 황태자인 이상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허면 전하의 명으로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전하께서 직접 죽인 것이 아닌 전하의 명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요.”

“...셀 수 없지. 그건 왜 물어 보는가.”

“전하의 명으로 사람을 죽인 이의 심정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정?”

“전하, 우습게도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사람을 죽여야겠지요. 제 의지가 아닌 폐하의 의지로.”

“...”

“예, 저 또한 다른 이를 시켜 살인을 해 보았습니다. 허나 그 살인은 결국 제가 저지른 짓이라는 걸 알고 있으며, 저를 위해 움직여 준 제 사람을 위해 후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전하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책임은 이끄는 자에게, 보상은 따라가는 이에게. 그것이 이 사회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폐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 그저 피바람이 불기 위한 희생양을 하나 만들라고만 말씀하셨죠. 그 희생양을 고르는 것도, 흉계를 꾸미는 것도 그리고 그 목을 치는 것까지 전부 제가 해야 하는 일이며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영애.”

“물론 그 대가로 내 사랑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 않고 이 구역질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전부 뒤집어엎고 싶은 충동이 치밉니다.”

“그만, 그만하면 충분해.”

“불공평한 거래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그 거래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게 불만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황제 폐하를 경멸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게 폐하를 살려 달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내가 실언을 했어. 진정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가게. 더 이상 이런 말은 꺼내지 않을 거야.”

급하게 나를 진정시키는 라트로를 보면서 나는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우면서도 마음의 한계가 느껴졌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제발...”

“영애?”

“제발 그만 좀 해. 안이고 밖이고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점점 미쳐가는 것 같다. 끝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아텔라와 카시스의 편린,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혐오스런 인간들. 요즘에는 수면이라는 기본적인 휴식조차 취할 수 없었다.

“시엘.”

“난 그저 행복해지고 싶은 것뿐인데. 그 사람이랑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대체 왜...”

“시엘, 정신 차려라!”

“이럴 거면, 차라리 그때 죽는 것이 나았어.”

“젠장, 나를 봐. 시엘 드 인테제르!”

라트로의 다그침에 나는 손가락 사이의 틈새로 그를 보았다. 그 사람과 꼭 닮은 황금색 눈동자가 어느새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이 손 치우고, 나를 봐라.”

라트로는 내 양 손목을 잡고는 손을 내렸다. 이상하게도 지금의 라트로에게서는 늘 뒤에 서 있던 미쳐버린 황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대,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맞나?”

“보고 있습니다.”

“그대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고고한 이다. 허나 그런 그대이기 때문에 내 눈에 그대는 외로우면서도 언제 추락할지 모를 정도로 위태로워 보여. 내 눈이 잘못되었다 해도 상관없다. 나는 그저 그대를 받아주고 싶다. 깔려 죽는다 해도 괜찮아.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이게 내 사랑이다.”

“...”

“내 사랑을 받아 달라 말하지는 않겠다. 나는 그저 이렇게 그대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대가 칼립스를 사랑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물러설 수 있다.”

나는 라트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 손 위를 덮은 커다란 손을 뿌리칠까 말까 고민했다.

“그러니 울지 마. 그대의 말라버린 눈물 같은 것은 보고 싶지 않다.”

...

“실수했어.”

나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끄응 신음을 흘렸다. 전날 황궁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자 다시 크게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아아, 진짜. 하필 라트로 앞에서. 바보, 멍청이.”

나는 스스로 머리를 콩콩 쥐어박았다. 어지러운 머리는 약한 충격에도 버티지 못해 나는 엄습해오는 두통으로 인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으으, 으아. 머리 아파.”

잠을 자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두통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이도저도 못하고는 머리만 싸매고 있었다.

“아가씨, 들어가도 되나요?”

“응, 들어와.”

타냐가 들고 온 것은 중요한 것들만 추린 편지와 초대장들이었다. 나는 성의 없이 발신인을 확인하다 한 편지에서 손을 멈췄다.

“칼립스?”

난 서둘러 페이퍼나이프로 봉인을 뜯고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시엘에게, 황태자 전하께서 부르셔서 수도에 잠시 들릴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저녁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근사한 곳에서 저녁을 사고 싶습니다.」

“만나... 세상에나!”

나는 앉아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떻게, 꼴이 이게 뭐야. 내일 저녁...”

나는 황급하게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다. 다행히 약속은 없었지만 내게는 방대한 양의 서류가 있었다. 잠시 고민하던 나는 미련 없이 외쳤다.

“좋아, 서류 따위 미룬다! 타냐, 요즘 수도에서 제일 잘나가는 에스테틱 예약 좀 잡아줘. 바로! 가격은 상관없다고 말해. 드레스는 뭐 입지?”

“네? 네. 근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 칼립스가 수도에 돌아왔대. 데이트 하러 갈 거야.”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장소는요?”

“레스토랑이 아닐까? 근사한 저녁 사준다는데.”

“저녁..., 이번에는 예쁘게 꾸미고 가실 거죠?”

“응.”

내 대답에 타냐가 눈을 빛내면서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어디선가 많이 본 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타냐가 자신의 가슴을 탁 치면서 말했다.

“저한테 맡겨 주세요. 이번에 영지에 가서 유모님한테 수련을 받고 왔거든요!”

“수, 수련?”

“아가씨의 데이트 상황별 코디 수련!”

“음...”

“역시나 유모님, 아가씨의 사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유모님께서 한장 한장 작성해온 계획표까지 받아왔어요.”

“그, 그래. 잘 부탁해.”

“맡겨만 주세요! 어디 보자 여름 드레스 중에서... 안 되겠다, 지금 당장 가요. 생각해보니까 …아가씨한테 장신구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맨날 원석만 사시고.”

“원석이 마력반응이 가장 좋으니까. 그나저나, 보석상이라도 가자고?”

“네.”

“그래, 알았어. 어차피 에스테틱도 가야 하니까.”

한동안은 사교계에 나가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서, 소문을 부풀릴 예정이었다. 그래야지 압박받는 2황자와 레이톨이 손을 잡고 내게달려들 테니까.

“거기다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까지 소문이 돌면 더 좋겠지.”

물론 그와의 추문을 만들어 이용하는 것은 마음에 걸렸지만 어차피 칼립스만 모르면 되는 일이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 있는 그의 눈과 귀를 흐리는 것은 어렵지도 않은 일이었다.

“가자.”

“그, 그러고 가시게요?”

타냐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으나 나는 오늘은 거추장스러운 드레스를 입을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내가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타냐가 내가 입은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번갈아 보더니 금방이라도 울 것만 같은 얼굴로 내게 물었다.

“정말요?”

“정말로.”

“그동안은 꼬박꼬박 드레스 잘 입으셨잖아요. 가벼운 원피스라도 입어요, 네?”

“그동안은 필요가 있어서 입은 거였고, 실은 입을 때마다 찢어버리고 싶었어. 근데 내일은 입을 거야.”

“...”

타냐가 붉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그에 아랑곳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벼운 소재의 로브를 걸치고는 타냐에게 물었다.

“안가?”

“가요, 갈게요.”

타냐는 결국 체념어린 몸짓으로 나를 따라왔다.

“오호호, 정말이지. 해초로 만든 팩이라 해서 놀랐지 뭐예요? 냄새도 약간 비릿하긴 했는데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에비가일은 촉촉해진 자신의 피부를 만지며 웃었다. 그녀와 함께 온 몇몇 영애들이 뒤늦게 웃음을 지으며 수긍했다.

“그나저나 비싼 값을 하긴 하네요. 자주는 무리일지라도 가끔씩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 영애의 말에 에비가일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수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에스테틱인지라 가격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그녀도 동의하는 바였지만 고작 돈 때문에 벌벌 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 제가 여기는 회원제를 등록하면 할인을 해 주거든요. 저는 아예 연간회원제로 다니는데, 부담되시면 한 달씩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그렇군요.”

에비가일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영애가 말끝을 흐렸다. 에비가일은 속으로 킥킥 웃으며 몸에 좋은 약초로 만든 해독주스를 마셨다. 떨떠름한 쓴맛에 미간을 잠시 찌푸릴 뻔한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나저나 아까부터 부산스럽네요.”

평소에는 잔잔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에스테틱은 종업원들이 돌아다니며 가게 안을 정돈하고 있었다. 이미 반짝거리는 도자기와 촛대를 닦고 또 닦는 것을 보니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보게.”

에비가일의 눈치를 받은 한 영애가 손을 들어 종업원을 불렀다.

“필요한 것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아까부터 부산스러워서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조금 있으면 중요한 고객이 오실 예정이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시면 객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네. 어차피 우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에비가일이 일부러 응접실에 앉아 있는 이유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것이 에비가일의 무리였으니까.

“아주 귀한 손님인가보군. 공작 부인이나 황후 폐하께서 오시기로 하셨나?”

에비가일의 물음에 종업원이 잠시 망설이는 듯싶더니 어렵게 입을 뗐다.

“인테제르 후작영애이십니다.”

“후작... 영애라고?”

에비가일의 얼굴에 금이 갔다. 자신보다 한 살 어린 그녀는, 데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에비가일이 일 년에 걸쳐 모은 세력들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무시했다.

“전 황후폐하라도 오시는 줄 알았지 뭔가.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 이곳은 고객대접이 아주 좋군.”

에비가일의 비꼼에 종업원의 얼굴이 미묘해졌다. 그는 아마도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있을 터였다.

“물러가 봐도 좋아.”

“예, 감사합니다.”

에비가일은 그 후로 입을 꾹 다물었다. 그녀의 주위에 있던 영애들은 그녀의 반응을 살필 뿐이었다.

‘인테제르.’

에비가일이 이렇게까지 사교계에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재상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덕이 컸다. 유젤 백작과 인테제르 후작, 현 황제의 검과 펜이라고 불리는 둘이었다. 그러나 인테제르 후작은 과거 전쟁에서 활약했을 뿐, 그 후부터는 영지에서 은거해 정치계는 유젤 백작이 주도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게다가 아버지는 황태자 전하께서도 의지하시는 분인데.’

답답해진 아비게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괴상한 맛의 해독주스따위는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았다. 가운을 갈아입기 위해 개인실로 돌아가려 하는데, 에스테틱의 지배인과 종업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후작 영애.”

로브 사이로 하늘색 머리카락과, 기사들이 신을 법한 부츠가 드러났다.

“우선 외투를 주시지요, 개인실에서 가운으로 갈아입으실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엘이 로브를 벗자 깔끔하지만 고급비단을 사용한 새하얀 셔츠가 드러났다. 셔츠에 바지, 그리고 부츠까지. 에스테틱을 사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에비가일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어머, 인테제르 영애가 아니세요?”

하이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시엘의 붉은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어 움찔했지만, 아비게일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놀랍네요. 이런 곳에서 인테제르 영애를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군요.”

한 눈에 봐도 시엘은 아비게일에게 관심이 없었다. 시엘이 자신을 견제하느라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 생각한 아비게일은 입술을 깨물었다 다시 말했다.

“어디, 연무장에라도 있다 급하게 오셨나 봐요?”

그것은 시엘이 검을 휘두르는 것에 대한 비웃음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비웃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는 아비게일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무가의 후계자였기 때문이었다.

“후계자 업무를 보다 내일 중요한 손님과 약속이 잡혀 찾게 되었습니다. 용건이 없으시다면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어떻게 그런 차림으로,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줄곧 돌려 말하던 아비게일이 정면으로 시엘에게 도전했다. 시엘의 말을 한가한 너와 달리 나는 바쁘단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유젤 백작 영애.”

시엘이 나지막하게 그녀를 불렀다. 그 무표정함이 두려웠다.

“네, 왜 그러시죠?”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전에는 제 어머니 앞이라 참았지만, 저는 인내심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아비게일은 그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시엘이 그 말을 하자마자 공기가 그녀를 바늘로 찔러대는 듯이 압박했다.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듯 종업원들은 머리를 땅에 박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몇몇 영애들은 호흡곤란이 온듯했다.

“실례, 요즘 잠을 못자서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온 것이고, 할 말이 있으시다면 사교계에서 하시죠.”

시엘은 그녀를 지나쳐 VIP룸으로 들어갔다. 아비게일은 모멸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어댔다.

“지배인!”

“예.”

“격이 떨어져서 앞으로 이 에스테틱은 다니지 않겠어. 당장 연간 회원에서 탈퇴하도록 하지.”

“예, 알겠습니다.”

조금쯤은 당혹해할 줄 알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지배인의 태도에 아비게일은 순간 당황했다.

“환불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특별 사례로 위약금은 제하지 않을 것이니 남은 육개월 비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 사례?”

“...실은 인테제르 영애께서 두 시간 전에 이 에스테틱을 인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회원제를 탈퇴하시는 분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한 달간 새로 회원제에 가입하시는 분은 특별 대우를 하라 하셨습니다.”

“뭐, 뭐?”

“참고로 저는 이제 고용 지배인이니 아쉽게도 영애의 격에는 맞춰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